깨달음의 스펙트럼

김현철 일숨 자운 지음

시단

차 례

서문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한자리에 모아보고 싶어서 책을 엮었다. 영향력을 따진다면 석가모니와 예수가 맨 앞에 와야겠지만 순서는 책 나름의 구성을 따랐다. 무묘앙 에오는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중생이지만, 어둠 취향의 수행자들에게 다소 어필한 바가 있어서 짧게 언급했다. 아울러 지두크리슈나무르티도 깨달았다고 하기에는 흔쾌함이 부족한 인물이지만, 밑에서 올려다보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도움을 준 것이 사실이라서 일단 포함시켰다. 다스칼로스는 마땅히 이 책에 넣어야 하지만 나의 첫 번째 책(마음, 그것 하나만 봐라!)에서 이미 언급한 터라서 뺐고,『깨달음의 심리학』은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인데 역시 첫 번째 책에 들어가 있어서 넣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금강경이 아닌 수능엄경을 실었는데, 막상 존재를 알고 나서 보면 금강경이나 수능엄경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일 뿐이다. 그래서 해설서가 넘쳐나는 금강경보다는 수능엄경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깨달음을 대표할만한 유형의 사람들을 고른 다음, 그 사람을 잘 보여주는 책을 선정하여 해설하였다. 마하라지의『I AM THAT』의 경우 해설을 다 하자면 그것만으로도 책 두 권은 나올 분량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분위기만 전달하고 내년쯤『I AM THAT』해설서를 따로 출간할 생각을 갖고 있다.

깨달음은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다. 이 몸과 마음이 '나'가 아니라 이 우주 전체가 다 '나'라는 것을 아는 그 앎이 깨달음이다. 그렇다면 그 앎이 어찌 하나의 종교나 하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겠는가? 배부름이 한식이나 중식이나 일식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듯이, 어떤 음식으로도 배를 불릴 수 있듯이, 깨달음 역시도 지극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앎이다. 우리가

다 같은 길을 가는 동료들임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불교를 통해서도 '하나'를 알 수 있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하나'를 알 수 있고,
마법을 통해서도 '하나'를 알 수 있고,
과학을 통해서도 '하나'를 알 수 있고,
명상을 통해서도 '하나'를 알 수 있고,
무술을 통해서도 '하나'를 알 수 있다.
그대와 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대의 실체를 알면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이해해서 '하나'로 가는 길에 오해와 다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썼다. 존재가 '하나'일 뿐만 아니라 존재를 향해 가는 모든 길들도 '하나'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숨 자운

5년 동안 학교를 지탱해준 우우님, 책을 만들어준 제로지대님, 출판 비용을 책임져준 아미니님, 그리고 사랑하는 시단선원 모든 수행자들께 깊은 사랑을 전합니다.

spectrum

01

내가 있다는 느낌을 좇아서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아이 앰 댓 I AM THAT』(탐구사. 대성 역)

니사르가닷따 마하라지 Nisargadatta Maharaj

(1897년4월17일 ~ 1981년9월8일)

1897년 인도 뭄바이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부친이 사망한 1915년부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담배가게를 시작했다. 1924년 결혼했으며, 3명의 딸과 아들 하나를 두었다. 1933년 친구의 안내로 싯다라메쉬와르 마하라지를 만나 수행의 길에 들어선다. 그는 스승의 권유에 따라 '내가 있음'의 느낌에만 집중하였다. 그는 호흡, 명상, 경전공부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로지 스승의 지침에 따라 '내가 있음'의 느낌에만 머물렀다. 그리하여 3년 만인 1936년, 그의 나이 40세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으며, 새로운 이름인 ('자연적으로 주어진'이라는 뜻의) 니사르가닷따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1937년 뭄바이를 떠나 인도를 여행하다가 다음 해에 가족이 있는 뭄바이로 다시 돌아왔다. 1951년부터 제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으며, 자기 집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다가 1981년 세상을 떠났다.

라즈니쉬를 수십 권 읽은 후에 우연히 『아이 앰 댓』을 만났을 때 훈련 강도가 갑자기 높아졌다. 친절한 해설자인 라즈니쉬를 읽으면서 거의 이해했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마하라지가 알고 있는 것을 나도 알기 위해서 더 깊게 몰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 와중에 에고가 깨졌다. 깨달음을 찾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도전해봐야 할 위대한 책이다.

참자아를 만나는 방법

어디에 잘못 두었거나 잊어버린 물건을 그대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것을 내내 염두에 두고 있다가 문득 기억해 내지요. 존재의 느낌, '내가 있다'는 느낌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느낌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는지 자신에게 묻거나 아니면 그저 그것을 고요히 지켜보십시오.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내가 있다' 안에 머무르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체험할 수는 있는 어떤 상태로 들어갑니다.

애쓰고 또 애쓰는 것이 그대가 해야 할 일의 전부입니다. 어쨌든 '내가 있다'는 느낌은 늘 그대에게 있지만, 단지 그대가 거기에 몸, 느낌, 생각, 관념, 소유물 등 온갖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기 동일시들이 그대를 오도誤導합니다. p24

근원의 의식을 어떻게 찾아서 맛볼까? 나는 이 몸도 아니고, 이 마음도 아니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체험할 수는 있지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어떤 느낌'이라는데 어떻게 해야 그 느낌을 만날 수 있을까?

우선, 계속 찾아야 한다. 그대가 만약 1억 원을 잃어버렸다면 그대는 계속 찾을 것이다. 하지만 천 원을 잃어버렸다면 금방 포기할 것이다. 그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에 집착하는지를 보면, 그것이 그대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찾아야한다는 말은 곧 그것이 그대에게 소중하고 절실한 것 이어야한다는 얘기다. 근원의 의식 곧 참자아는 취미삼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참자아를 찾는 일은 마지막 보물찾기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을 찾을 때보다도 절실해야만 한다. 오죽하면 목숨을 걸어야하겠는가? 참자아를 경험하고 싶다면 절실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찾아라. 안 그러면 가망이 없다.

얼핏 그 느낌, '내가 있다'는 느낌, 근원의 의식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수행자의 성향에 따라서 두 가지 선택이 있을 수 있다. 그중 하나는 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다. 즉 머리를 굴려서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 느낌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느낌은 감각인가, 아닌가? 이 느낌은 어떻게 감각되는 것인가? 이 느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느낌은 생명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위나 허공에도 있는 느낌인가? 도대체 느낌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따져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응방법은 의식적인 방법이다. 그냥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 느낌 속에 계속 머무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머물면 어떻게 될까? 그 느낌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진다. 그래서 궁극에는 그 '내가 있다'는 느낌의 실체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왜 그 느낌을 잃어버리게 됐나? 그 느낌 위에 다른 것들을 계속 쌓아올렸기 때문이다. 깊은 곳에 유물이 묻혀 있는데 그곳을 파지 않고 그 위에 기초를 닦아서 100층짜리 빌딩을 올려버리면, 그곳에 유물이 있다는 사실은 잊힐 뿐만 아니라 그 유물을 찾기 위해선 100층짜리 빌딩을 허물

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유물을 찾을 수 없게 된다. 그곳에 유물이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 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유물이 쓸모없게 되어버리는 것이다. 근원의 의식(참자아, '내가 있다'는 느낌)도 같은 처지다. 분명히 그 느낌은 그대에게 있지만 그대가 너무 많은 것들을 그 위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만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대의 참자아는 분명히 그대에게 있다. 하지만 몸, 느낌, 생각, 관념 같은 것들에 의해서 철저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절실한 마음으로 파고들어 가야만 겨우 만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참자아를 잠깐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붙잡고 끈질기게 늘어지지 않으면 금세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해서 붙들어야만 한다. 이것이 참자아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이다.

황당한 답

질문자: 그러면 저는 무엇입니까?

마하라지: 그대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면 충분합니다. 그대가 무엇인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앎이란 것이—지각한 것이든 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든—이미 알려진 것을 가지고 묘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한에서 자기앎self-knowledge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무엇이다라는 것은, 전적인 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묘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말은 '나는 이것이 아니다, 나는 저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나의 실체다'라고 말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허튼 소리일 뿐입니다. p24

이게 무슨 소릴까? 질문자는 "나는 무엇입니까?"하고 묻는데, 마하라지는 "그대는 무엇일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건 마치 질문자가 "저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합니까?"하고 물을 때 "방향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질문자와 마하라지의 틀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금 질문자는 닫힌 틀 속에 있는 반면 마하라지는 열린 틀 속에 있다. 그래서 서로 빗나갈 수밖에 없다. 답을 얻고 싶은 질문자는 답을 얻어서 담고 싶어 한다. 어디에 담고 싶을까? 자신의 에고에 담으려고 한다. 하지만 마하라지는 에고는 가짜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마하라지가 "자, 이 답을 얼른 너의 에고에 담아라"하고 허용할까?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두 사람이 전혀 엉뚱한 문답을 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알겠다는 욕구 자체가 허구다. 진정한 실체는 '내가 안다'가 아니라 '존재하는 그 무엇'이다. 무언가가 존재해서 움직이다 보니 에고라는 물건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지, 에고가 있고난 후에 무언가가 존재하게 된 게 아닌 것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다는 욕구로 시작하지만, 점차 수행이 무르익을수록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존재했던 그 무엇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처음에는 에고로 시작하지만 점차 그 중심을 존재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지금 질문자의 위치와 마하라지의 위치가 이해되는가? 눈이 어두울 때는 에고가 먼저 보이지만, 눈이 밝아질수록 존재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래서 '내가 존재를 알겠다'에서 '존재가 에고를 만들어서 놀고 있구나'로 옮겨가게 된다.

그대, 원하면서 거부하는 사람

질문자: 그것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습니까?

마하라지: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가 바로 '그것'이니까요. 그대가 기회를 주면 그것이 그대에게 도달하겠지요. 비非실재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십시오. 그러면 실재가 신속하게 그리고 유유히 자기 자신의 것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것입니다. 그대 자신이 이것이나 저것이라고, 혹은 이것이나 저것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곧 일체의 근원이자 심장(중심)이라는 깨달음이 올 것입니다. p25

'내가 한다'는 습성은 뿌리가 깊다. 그대는 에고의 허구성을 알아차리고 그 헛된 에고를 깨부수기 위해 수행을 하지만, 어느새 그 수행은 '나의 수행'이 되곤 한다. 그러다 수행이 좀 깊어지면 그 각성이 '나의 각성'이 되고, 그러다 혹시 의식폭발이 일어나서 깨달음 비슷한 것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 체험이 또 '나의 체험'이 되곤 한다. 에고는 끝까지 그대와 동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놓아줌이 필요하고, 혹시 내가 잡고 있는 게 하나라도 남아 있지 않은지를 살피는 끝없는 자기 감시가 꼭 필요하다. 그대가 에고를 없애려고 노력할수록 에고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못 깨달아도 좋다'가 마지막 열쇠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종종 '나는 깨닫고 말겠다'가 마지막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존재가 어차피 있는 그대로라면 이 몸 하나 깨닫든 못 깨닫든 무슨 상관인가? 어쨌든 나는 깨달아야겠다는 고집이 바로 에고 아닌가? 정말로 내가 없다면 내가 깨닫든 못 깨닫든 상관없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에고는 미묘하다. 앞인가 하는 순간 뒤가 나타나고 뒤인가 하는 순간 앞이 나타난다. 때문에 수

많은 수행자들이 에고와 존재를 분간하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이다.

그대가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건 그대가 깨달음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대가 '원함'과 '에고'를 착각하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알아차려라. 나의 이 원함이 존재를 위한 원함인지 혹은 '나'를 위한 원함인지를.

틀이 남아 있으면 안 된다.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틀이 완전히 다 깨져야한다. 오로지 존재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겠다는 열망만 남아 있어야 한다. 존재를 나한테로 가져와서 나의 앎으로 만들겠다는 헛된 욕심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드러나게 하겠다는 열망이 있어야만 존재가 그대에게 온다. 그대가 투명하기만 하면 바로 그 순간에 존재가 그대에게로 온다. 찾지 말고 비워라. 그대는 지금 찾음을 빙자해서 거부하고 있다.

참자아를 찾아가는 단계들

'내가 있다'는 느낌조차도 지속적이지는 않습니다. 유용한 지침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하는지는 보여주지만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저 그것을 잘 바라보십시오. '내가 있다'는 것 외에는 그대의 자아에 대해 어떤 것도 참되게 말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대가 지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그대 자신일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하고 나면 '내가 있다'의 필요성은 끝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이러니저러니 말하는 데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대의 자아를 무

엇이라고 규정하려 드는 성향을 없애는 것이 그대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p27

'나는 나의 몸/마음이다'라고 믿는 에고에서 참자아인 존재로 옮겨가려면 우선은 관심집중이 필요하다. 물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는 곧바로 '나는 없다'로 옮겨가는 게 더 편한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내가 있다' 단계를 거칠 필요가 없지만 특별히 무아 성향이 아닌 사람은 일단 '내가 있다'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은 '나는 나의 몸/마음'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파고들어가서 검증해보는 과정이다. 말하자면, 내가 있다는 믿음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조사해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을 대통령이게 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닌가? 그 근거들을 조사해보면 그 사람이 정말 대통령인지 아닌지가 밝혀질 것 아닌가? 어떤 근거들이 있을까? 그 사람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었는가? 그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국민들이 그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인정했는가? 그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정하게 당선됐는가? 이런 것들이 그 대통령의 근거가 된다.

그런 식으로 내가 있다는 믿음의 근거들을 조사해보면, 내가 있다는 느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밝혀진다. 이 조사과정에는 흔히 알듯이 몸은 진짜인가, 마음은 진짜인가, 감각은 진짜인가, 생각은 진짜인가 등이 조사대상이 된다. 그런 것들이 내가 있다는 믿음을 받치고 있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수히 반복된 실험과 조사에서 단 한번도, 몸, 마음, 감각, 생각 등은 실체로 인정받지 못했다. 설령 내가 있다는 느낌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그 느낌이 몸이나 마음이나 감각이나 생각에 의해서 유지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 무수한 실험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있다는 느낌마저도 허구임이 밝혀진다. 몸, 마음, 감각, 생각만 가짜가 아니라 내가 있다는 느낌마저도 가짜고 마지막까지 남는 실체는 '나는 없다!'임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나는 없다!'라는 상태 속에, 에고가 그렇게나 원하고 찾았던 그 모든 행복과 기쁨이 숨겨져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림이 이해되는가?

그대는 지금 행복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대의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대가 행복이 없는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가 진정으로 행복을 찾고 싶다면 행복이 있는 곳으로 가서 행복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 첫 단계가 바로 그대가 지금 있는 곳을 의심하는 일이다. 그러면 그대도 조금씩 그대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고, 그러다 '여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덕에 행복이 있는 곳을 눈치를 채고, 결국 행복이 있는 곳에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에고에는 행복이 없다. 에고를 의심하고 에고를 떠나라. 그러면 그 여정의 끝에서 그대는 존재와 만나게 될 것인데, 존재의 내용이 바로 행복이다. 그러므로 에고를 의심해라. 그래야 행복이 그대에게 온다.

'나'의 실체

마하라지: 오는 것은 오고 가는 것은 가게 내버려두는 거지요. 욕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실제 현실을 그것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 관찰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대는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고,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궁

극적으로 그대는 그 관찰자도 아닙니다. 그대는 일체를 포괄하는 의식이 그것의 나툼 manifestation,顯現이자 표현인, 궁극의 잠재성입니다. p28

어떤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 가령 내가 감옥에 가는 일이 발생한다. 이럴 때 이 몸이 '나'라고 믿는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간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저런 비교를 시작한다. 나는 감옥에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감옥에 안 간다. 일 년 전에 나는 자유로운 몸이었는데 이제 십 년 동안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한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교도소에서 주는 것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이렇게 판단한다. 하지만 이 몸이 곧 '나'라는 믿음은 전혀 근거가 없는 착각이다.

이 마음이 '나'라고 믿고 있는 사람에게도 일들이 일어난다.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모르는 놈이 갑자기 "야, 개새끼야"하고 욕을 한다. 그러자 벌컥 화가 난다. '내가 개새끼라고? 내가 얼마나 반듯한 사람인데 개새끼라니? 우리 집사람과 아이들이 나를 얼마나 아끼고 존경하는데, 내 부하직원들도 얼마나 나를 따르는데, 내가 법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나를 개새끼라고 욕하다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서 상처받는다. 내 마음에 들어온 것은 곧 '나'한테 들어온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마음이 곧 '나'라는 믿음 역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착각임이 명확히 밝혀져 있다.

어떤 사람은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일임을 알아차린다. 나는 보는 사람일 뿐임을 안다. 몸에 일어나는 일은 다른 몸에 일어난 일들과 똑같은 일일 뿐이다. 그래서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다. 이 마음에 일어난 일도 다른 마음에 일어난 일과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생긴 상처가 나와 아무 상관도 없듯이, 이 마음에 생긴 상처도 나와

는 아무 상관도 없다. 나는 그저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자'일 뿐이다. 하지만 보는 자는 누구인가? 왜 보는 자가 필요한가? 왜 꼭 보고 있어야 하는가? 왜 안 보면 안 되는가? 사실, 궁극의 존재는 아무런 기능이 없다. 보는 자는 일종의 설정에 불과하다.

그래서 마하라지는 궁극의 상태를 '존재 가능성'이라고 지칭한다. 몸도 될 수 있고, 마음도 될 수 있고, 관찰자도 될 수 있고, 그 무엇이든 다 될 수 있는 그 근원의 잠재력이 곧 존재고, 바로 그 존재가 곧 '나'라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의 실체다. 그대가 갖고 있는 착각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완전히 다 없애고 나면, 그 작업의 끝에서 비로소 진짜 그대가 나타나는데, 그 진짜 그대가 바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존재이다. 때문에 그대의 실체가, 무한한 사랑, 무한한 평화, 무한한 자유라는 것이다. 그 몸, 그 마음으로 그대가 뭘 할 수 있는가? 그렇듯 무능한 몸과 마음에 왜 집착하는가?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나 좁은 곳에 갇혀 있는가? 그래서 '진짜 나'를 찾아야 하는 것이다.

세계와 존재

질문자: 왜 당신께서는 세계에 대해 존재성을 부인하십니까?

마하라지: 저는 세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의식 안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는데, 이 의식은 알려지지 않은 것the unknown의 무한함 중 알려지는 것the known의 총합입니다. 시작하고 끝나는 것은 나타난 현상뿐입니다. 세계는 나타난다고 할 수는 있으나 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타남은 어떤 시간 규모에서는 아주 오래 지속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간 규모에서는 아주 짧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똑같은 결

과에 이릅니다. 시간에 속박된 모든 것은 일시적이며, 아무런 실재성이 없습니다. p38

마하라지는 과연 훌륭하다. 세계는 알려지지만 유한하고 존재는 알려지지 않지만 무한하다. 그렇다면, 존재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아는가? 존재를 감각하기 위해서는, 세계의 감각법이 아닌 존재의 감각법이 필요하다.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에 간 사람이 한국어로 미국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존재의 감각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근원이 근원을 직접 감각하는 것이다. 근원이 근원을 직접 감각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알게 된다. 근원의 의식에게는 접촉 자체가 감각인 동시에 앎이다. 그래서 그대가 근원의 의식을 갖게 되는 순간, 근원의 감각이 발생하게 되고, 근원의 감각이 발생하는 순간, 근원의 앎이 생겨나서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되는 것이다. 알려지는 유한한 세계와 알려지지 않는 무한한 존재를 마음으로나마 그려보는 것은 그 자체로 좋은 명상이다.

작은 눈, 큰 눈

질문자: 분명히 당신께서는 당신 주위의 현실 세계를 보십니다. 당신께서는 아주 정상적으로 행동하시는 것같이 보입니다!

마하라지: 그대에게는 그런 식으로 보이지요. 그대의 경우에 의식의 전 영역을 점하는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작은 점일 뿐입니다. 세계는 지속되지만 한 순간 동안입니다. 그대의 기억이 그대로 하여금 세계가 지속된다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저 자신은 기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즉 의식 안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봅니다. p38

그대가 개체로 존재할 때 이 현상계(세계)는 너무도 커 보인다. 하지만 그대가 존재와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이 현상계는 너무도 작아 보인다. 이 세상이 거대해 보이는 것은 순전히 그대의 착각 때문이다.

부정으로만 묘사할 수 있다

질문자: 그렇다면 어떻게 당신께서 지고의 상태 안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하라지: 제가 그 안에 있으니까요. 그것은 단지 본래적 상태(원래 상태)일 뿐입니다.

질문자: 그것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

마하라지: 부정하는 것으로써만 묘사할 수 있지요. 원인이 없고, 의존해 있지 않고, 관계되어 있지 않고, 나뉘어 있지 않고,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흔들릴 수 없고, 물을 수 없고,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긍정적인 모든 규정은 '기억'에서 나오고, 따라서 여기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상태는 극히 실제적이며, 따라서 가능하고, 깨달을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p38

이게 무슨 말일까? 부정을 통해서만 그것을 묘사할 수 있다? 무슨 이유일까? 왜 긍정으로는 안 되는 것일까? 모든 긍정적인 묘사는 필연적으로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적인 것은 필연적으로 인간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인간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적인 것은 자동으로 근거 없음이 된다. 근거 없는 것으로 어찌 실체를 규정할 수 있겠는가? '나는 배부르다'를 수만 번을 외친다고 배가 불러지는가? '나는 배부르다'

는 생각은 몸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그럴진대 그런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질문자가 "그것을 묘사할 수 있습니까?"하고 묻는 것은 존재를 인간적인 것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냐고 묻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허구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허구로 실체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그 인간의 허구적인 관념들을 마하라지는 '기억'이라는 단어로 지칭하고 있다. 인간의 모든 개념은 다 습득된 것이라는 얘기다. 인간이 생겨나고 그 인간에게 습득된 도구들로, 어찌 인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 아니겠는가? 어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족보를 가져오라고 큰소리치는 격이 아닌가? 인간적인 것을 없앰을 통해서만 존재에 접근할 수가 있다. 인간적인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존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왜 마하라지가 부정을 통해서만 존재를 묘사할 수 있다고 하는지 이해되는가? 존재를 이해하겠다는 욕구 자체가 인간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그 욕구부터 포기해야 한다. 그래야 그 욕구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각자各者의 세계

질문자: 세계도 지금 있습니다.

마하라지: 어느 세계 말입니까?

질문자: 우리 주위의 세계 말입니다.

마하라지: 그것은 그대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대의 세계이지 저의 세계가 아닙

니다. 그대와 제가 하는 이야기조차 그대의 세계 안에 있을 때, 그대는 저를 무엇이라 고 압니까? 그대는 저의 세계가 그대의 세계와 똑같을 거라고 믿을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저의 세계는 실재하고 참되며 지각된 그대로이지만, 그대의 세계는 그대의 마음 상태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대의 세계는 뭔가 낯선 것이고, 그대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저의 세계는 저 자신입니다. 저는 집에 있는 것입니다. p39

질문자는 자기가 아는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있고, 마하라지도 자기가 아는 세계가 진짜라고 믿고 있다. 그럼 누가 옳은 것일까?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두 사람이 상반되는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조사를 해보면 된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툰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끝까지 캐보면 된다. 만약 끝까지 캐는 일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세계가 진짜인지 마하라지의 세계가 진짜인지를 알고 싶다면, 두 사람의 세계를 끝까지 파고들어 가보면 된다. 어떻게 파고들어갈까? 의심을 통해서 근거를 확인해나가면 된다. 질문자가 자기 세계를 진짜라고 믿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 근거는 확실한 근거인가? 만약 그 근거가 다른 근거에 근거하고 있다면 그 다른 근거는 확실한 것인가? 그렇게 계속 파고들어가면서 동시에 마하라지의 세계를 받치고 있는 근거도 같이 확인해나가면 된다.

그렇게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결과를 보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질문자는 자기 세계를 확인해본 적도 없지만, 마하라지는 목숨을 걸고 자기 세계를 확인해봤기 때문이다. 마하라지의 세계에 대해서 남이 파헤칠만한 건 마하라지 자신이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확인해봤다. 따라서 남이 더 파헤쳐볼 것도 없지만, 질문자는 자기 세계에 대해서 별로 확인해본 바가 없다. 게다가 질문자는 마하라지의 세계에 대해서 막연히 짐작이나 할 뿐이지만, 마하

라지는 질문자의 세계를 거쳐서 자신의 세계로 왔기 때문에 질문자의 세계를 훤히 알고 있다. 그러니 누구의 세계가 진짜이겠는가?

수행이 그대에게 어떤 사실을 강요한다고 느낀다면 그건 그대만의 착각이다. 수행이 그대에게 요구하는 건 '철저하게 확인해보자'일 뿐이다. 철저하게 확인해봐서 수행이 틀렸다면 수행은 자신의 세계를 포기하고 그대를 따라갈 것이다. 수행은 공정하다는 것, 수행은 충분히 열려 있다는 것이 이해되는가? 왜 확인하지 않는가? 단돈 십만 원을 송금할 때도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사람이, 왜 존재는 확인하지 않는가? 그대의 소중한 삶을 수천 번, 수만 번 헛돌게 할 수도 있는 존재의 사실이 십만 원짜리도 안 되는가?

마하라지는 그대를 자기 세계로 끌고 가지 않는다. 아무도 그대를 재촉하지 않는다. 그대 혼자서 가만히 확인해봐라. 나의 세계는 정말로 진짜인가? 왜 진짜인가? 혹시 가짜일 수도 있는가? 가짜일 수도 있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대가 확인해보고, 그 결과를 믿으면 된다.

마하라지와 친해지는 법

질문자: 그러나 당신께서도 저희들처럼 보고 듣고 하십니까?

마하라지: 예, 저는 듣고, 보고, 말을 하고, 행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것이 단지 일어날 뿐입니다. 마치 그대에게 소화와 호흡 작용이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몸-마음이라는 기계가 그것을 돌보지만 저를 거기서 제외시켜둡니다. 그대

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듯이, 저도 말과 행위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그냥 일어나며, 제가 아무 상관하지 않도록 내버려둡니다. 왜냐하면 저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결코 잘못되지 않으니까요. p40

마하라지의 말들을 따라가면서 마하라지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이 말을 듣고 '그런 세계가 있나?'하다가, 다른 말을 들으면 또 전혀 다른 세계가 있는 듯이 느껴져서 도무지 종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하라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 방향을 반대로 가져가는 게 좋다. 즉, 마하라지의 세계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두고, 그 그림에 마하라지의 말들을 대보는 게 훨씬 쉬운 길이다.

그렇다면 마하라지의 세계는 무엇인가? 마하라지는 도대체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나 많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마하라지의 모든 말들은 다 '나는 전부다. 그리고 그 나가 진짜 나다.'는 것을 설명하는 말들이다. 마하라지의 모든 말들은 하나의 예외도 없이 이 간단한 언명을 향해 있다. 그러니 마하라지를 쉽게 이해하고 싶다면 먼저 마하라지의 사실을 그대의 머릿속에 확실하게 각인시켜라. 그리고 마하라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그 그림을 꺼내서 마하라지의 말과 비교해라. 그러면 마하라지의 말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마하라지가 보여주고 싶어 하는 '진짜 나'의 실상도 쉽게 이해하게 된다. '나는 전부다. 그리고 그 나가 진짜 나다!'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면, 마하라지와도 즐거운 친구가 될 수 있다.

마음에서 떨어져라

질문자: 어떻게 하면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까?

마하라지: 불안정한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 없지요. 돌아다니는 것은 마음의 본성입니다. 의식의 초점을 마음 너머로 옮기는 것이 그대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p41

마음을 안정시키려 노력하는 것은 괜한 짓이다. 그건 물을 탑처럼 쌓아올리려고 애쓰는 것과 같다. 어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 마음을 상대하지 말고 마음 뒤에 있는 것에 집중해라. 마음 뒤에는 마음의 배경인 '의식'이 있다. 먼저 의식에 한 점을 콕 찍어라. 그 한 점으로 마하라지는 '내가 있다'를 제안한다. 하지만 '내가 있다'든 '내가 없다'든 '나는 무엇인가?'든 내용은 상관없다. 무엇이든 그대가 몰입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된다.

마음은 관심을 먹고 산다. 그래서 그대가 마음에 관심을 주고, 마음을 바로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제멋대로가 된다.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그대의 노력 때문에 마음이 더 나빠지는 것이다. 마음의 식량이 관심이라면 마음을 죽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건 당연히 무관심이다. 그대가 마음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포기할수록 뜻밖에도 마음이 바로잡히게 된다. 보통 사람들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것이다. 흔히들 반대로 알고 있다. 마음을 바로잡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내버려두는 것임을 모르고 있다.

마음을 보지 말고 의식을 봐라. 마하라지가 제시하는 대로 '내가 있다'만 붙들고 마음은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마음이 시들시들해지기 시작한다. 그대의 관심이 전부 '내가 있다'로 쏠려서 마음에게는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음은 자체 동력원이 없다. 그래서 그대가 식량을 넣어주지 않으면 식량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 이 얼마나 멋진 상황인가? 그대만 관심을 끊어주면 마음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아닌가? 예외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그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그대고, 그대의 마음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그대다. 진정으로 마음을 해결하고 싶다면, 절대로 마음을 상대하지마라. 마음을 보지도 말고, 간섭하지도 마라. 마음을 죽이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혼자 내버려두는 것이다.

행복의 조건

질문자: 하지만 저는 행복을 원합니다.

마하라지: 참된 행복은 변하고 사라지는 것들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쾌락과 고통은 사정없이 번갈아듭니다. 행복은 진아에서 오며, 진아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대의 진정한 자아(real self:본래면목)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올 것입니다. p41

우리는 돈이 많기를 바란다. 우리는 몸이 건강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편안하기를 바란다. 이게 우리들이 바라는 행복이다. 그런데 우리들이 바라는 이 행복은 이상한 성질을 하나 갖고 있다. 그것은 이 행복이 변한다는 사실이다.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애써 행복을 구해다 놨는데 그 행복이 불행으로 변해버린다면 왜 이 행복을 구해온 것인가? 차라리 안 가져오는 게 낫지 않았을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또 행복을 구해왔는데 그 행복이 또 불행으로 변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럼 또 후회해야 하나?

이렇게 되면 식별하는 것조차도 어려운 일이 된다. 행복을 행복이라고 이름을 붙이기조차 두려워진다. 그 행복이 언제 불행으로 탈바꿈할지를 모르는데, 어찌 맘 놓고 그것을 행복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도대체 뭘 가져와야 하는가? 행복처럼 보이는 것이 행복인가, 불행처럼 보이는 것이 행복인가? 행복을 가져오려는 노력 이전에 행복과 불행을 식별할 방법이 있기는 한가? 이래서야 무슨 수로 행복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행복의 조건이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먼저 행복처럼 보이는 것을 구해놓고 그것이 변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이제는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해놓고 그것이 행복이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다. 남은 방법이 이것뿐이지 않은가? 변하는 것은 아무리 가져와도 안심을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변하지 않는 것을 가져와서 혹시라도 그것이 행복이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필연적으로 행복이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완벽한 조건인가?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그것은 무조건 행복이라니 무조건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닌가? 애당초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변질될 염려도 없지 않은가? 이것이야 말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아닌가?

그대가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고 있었던 것이다. 일단 행복인 듯 보이는 것을 아무거나 구해놓고 그것이 변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것은 행복을 얻는 방법이 아니다. 진정으로 행복을 원한다면 먼저 변하지 않는 것을 구해놓고 그 변하지 않는 것이 행복의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순서를 밟아야 했던 것이다. 이제는 행복을 찾는 방법이 명확한가? 달콤한 것을 먼저 찾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을 먼저 찾아라. 그래야만 행복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된다.

껍데기는 껍데기만 본다

질문자: 그것(진아)에 어떻게 도달합니까?

마하라지: 그대가 지금 여기에서 진아입니다. 마음은 내버려두고, 자각하면서 상관하지 말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깨어 있으면서 초연한 상태로 사건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음이 그대의 진정한 성품의 한 측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p42

질문자는 마음 때문에 존재를 못 본다. 존재를 가리고 있는 기쁨, 슬픔, 고통, 쾌락에 눈이 팔려서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그래서 마하라지가 기쁨과 슬픔 너머에 있는 존재를 보는 법을 알려준다. '진아'를 찾으면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젠 질문자가 진아를 찾는 법을 묻는다. 그런데 마하라지는 '그대가 바로 진아'라고 대답한다. 이 대답에 질문자는 황당해진다. 내가 지금 진아를 찾는 것은 내가 진아가 아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바로 진아라니? 내가 진아라면 왜 내 눈에 존재가 안 보이는 것인가? 진아는 존재를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대가 바로 진아'라는 말은, 그대의 마음이 진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마음에 가려져 있는 의식이 그대의 진아라는 얘기다. 하지만 그대 눈에는 그대의 의식이 보이지 않는다. 그대는 오직 마음의 눈으로만 보기 때문에 존재를 볼 때도 존재를 가리고 있는 구름덩어리(마음)만 보이고, 그대 자신을 볼 때도 그대의 진아를 가리고 있는 구름덩어리(마음)만 보이는 것이다.

왜 질문자와 마하라지는 소통에 실패하는가? 질문자는 마음만을 보는 반면, 마하라지는 의식만을 보기 때문이다. 물론 마하라지는 질문자의 상태를

훤히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질문자는 뻔히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하라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껍데기는 껍데기만 본다. 그래서 깊은 곳에 있는 눈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자각과 의식

질문자: 당신께서는 '자각하고aware'와 '의식하고conscious'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은 같은 말 아닙니까?

마하라지: 자각은 원초적입니다. 그것은 원래의 상태이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원인도 없고 지지물도 없고, 부분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의식은 접촉 위에 존재하고 하나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사이며, 이원성의 한 상태입니다. 자각 없이는 어떤 의식도 있을 수 없지만, 의식 없이도 자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은 잠 속에서 그렇듯이 말입니다. 자각은 절대적이고 의식은 그것의 내용에 대해 상대적입니다. 즉, 의식은 항상 무엇에 대한 의식입니다. 의식은 부분적이고 변화무쌍하지만, 자각은 전체적이고 불변이며, 고요하고 묵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경험의 공통 기반입니다. p52

마하라지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마하라지의 이해 체계(용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는데, 여기 나오는 자각과 의식이 바로 그런 예다. 위 대화의 앞부분에서 질문자가 "잠을 잘 때는 어떠십니까?"하고 물었을 때, 마하라지는 "저는 잠을 자각합니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다. 얼핏 들으면 마하라지는 잠을 자면서도 자기가 잠자는 상황을 알아차리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흔히 알아차림을 의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건 마하라지도 똑같다. 그렇다면 그 의식의 끝에

는 무엇이 있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나는, 의식 뒤에는 의식의 원소들이 있고, 의식의 원소들 뒤에는 또 그 원소를 구성하는 원소들이 있을 것인데,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다고 대답한다. 결국 알 수 없는 어떤 근원이 있다고 대답하는 것이다. 그런데 마하라지는 그 알 수 없는 어떤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근원'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다.

이건 존재를 이해하는 사람의 취향이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가 있다고 대답하고, 어떤 사람은 그 무언가에 하나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일 뿐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다. 마하라지가 의식이라고 말할 때, 그 의식은 우리가 쓰는 의식과 같다. 하지만 마하라지가 자각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존재하는 이 모든 것을 '존재'라는 단어 하나로 뭉뚱그려서 부르듯이, 이 존재의 본성인 '어떤 알 수 없는 알아차림'을 뜻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하라지가 "저는 자각합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마하라지가 뭘 느끼거나 알아차린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원래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원래부터 자각한다는 뜻인 것이다. 그러므로 마하라지는 무조건 모든 상황을 자각한다. 왜냐하면 존재함 자체가 자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하라지가 "저는 잠잘 때도 자각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마하라지도 잠잘 때는 의식이 없어서 잠자는 자기를 지켜보지 못한다. 하지만 잠자는 동안에도 마하라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혹은 마하라지가 죽어서 사라져도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마하라지는 영원히 존재하고 동시에 영원히 자각하는 것이다. 마하라지는 존재함 자체를 자각이라고 부른다는 게 이해되는가?

다른 차원, 다른 감각

질문자: 저의 일상 행위에서는 많은 일이 습관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제가 자각하지만 세부적인 각 움직임은 자각하지 못합니다. 저의 의식이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 세부적인 것들은 뒤로 물러나고, 저는 일반적인 경험들에 대해 자유로운 상태로 남습니다. 진인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합니까?

마하라지: 의식의 수준에서는 그렇지요. 지고의 상태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이며 불가분인, 하나의 단일한 실재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을 아는 유일한 방도는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지각하는 것은 감각 기관을 요하지 않고, 그것을 아는 것은 마음을 요하지 않습니다. p60

미국에 가면 미국말을 써야하듯이, 존재와 만나기 위해서는 존재의 룰을 따라야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 한국말을 쓰면 통하지 않듯이, 존재와 만나는 일에 현실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소용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우리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대상을 감각하고,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대상을 인지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존재를 지향할 때도 자신이 늘 쓰는 도구인 감각과 마음을 갖고 가서, 그 감각과 마음으로 존재를 만나보려고 시도하는데 그런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미국에 가서 한국말을 아무리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겠는가? 존재를 만나려면 감각과 마음을 포기하고 새로운 인지 방법, 즉 존재가 됨으로써 존재를 감각하고 존재를 알게 되는 법을 익혀야 한다.

그것은 어떤 느낌인가요?

그것을 어떻게 상상하면 되나요?

어떻게 하면 존재를 이해할 수 있나요?

존재와 비슷한 것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이런 의문들은 다 쓸데없는 짓이다. '어떻게 하면 존재가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의식만이 존재로 가는 유일한 문gate이다. 그러니 그대의 모든 역량을 존재가 되는 것에 쏟아라. 그래야 존재를 아는 것과 존재를 느끼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리석은 마음

질문자: 만약 시간과 공간이 환幻에 불과하고 당신께서는 그 너머에 계시다면, 뉴욕의 날씨가 어떤지 부디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는 덥습니까, 아니면 비가 내립니까?

마하라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특별한 수련을 요합니다. 아니면 뉴욕에 그냥 가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겠지만, 저 자신을 어떤 시간과 공간에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p62

마음은 이렇게나 어리석다. 마하라지가 "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고 말하자마자 "그럼 그것을 좀 보여주시지요"라고 요구한다. 마하라지는 일관되게 존재를 가리키면서 "나는 존재다. 그런데 존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 그래서 나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다."고 말하고 있는 반면, 마음은 일관되게 마하라지의 육신을 가리키면서 "그렇다면 그 몸으로 좀

보여주시지요"라고 한다. 마하라지에게 육신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행은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꿀 의사가 없는 사람은 수행자가 될 수 없다.

대책이 없다

마하라지: 그대는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을 만들어냅니다.

질문자: 그렇게 저를 묵살해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께서는 전체성, 우주, 기타 그런 상상적인 것들을 너무 빨리 대변하십니다! 그것들은 여기 와서 당신께서 자기들을 대변해 말씀하시지 못하도록 막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무책임한 일반화가 싫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는 걸핏하면 그것들을 인격화하십니다. 인과성이 없이는 아무 질서도 없을 것이고, 목적성 있는 행위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p66

연목구어緣木求魚. 나무에 올라가서 생선을 찾는다는 뜻이다. 마하라지는 이 현실은 가짜라고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마하라지에게 이 현실은 진짜라고 굳건히 믿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현실의 법칙을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람은 왜 마하라지를 찾아온 것인가? 이 사람은 왜 이 현실은 진짜라고 믿는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 질문자는 엉뚱한 곳을 찾아온 바보다.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왜 왔을까? 이 사람이 현실을 진짜로 믿는다고 해서 마하라지가 욕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제 발로 찾아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일까? 마하라지는 중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데, 굳이 마하라지한테 중국어 문법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 현실이 진짜라고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 현실을 벗어난 사람에게까지 이 현실이 진짜라고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멍청한 짓이다. 그건 갓난아기가 엄마의 가계부를 통제하려는 것과 같다. 아기가 과자를 좋아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아기가 엄마를 지배하려든다면 그 아기는 미친 것이다.

깨달음과 해탈

마하라지: 그대가 깨달음이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질문자: 제가 깨달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세계가 이해되고 바탕과 본질 양자에 '일체에 두루한 단일성'이 있을 때의 평안, 선善, 미美의 경이로운 체험을 뜻합니다. 그러한 체험이 지속되지 않기는 하지만 잊혀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억으로서, 또 열망으로서 마음 안에서 빛납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체험을 해보았으니까요. 제가 해탈이라고 할 때 그것은, 그 경이로운 상태 안에 영구적으로 있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것은 해탈이 육신의 생존과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p72

나한테도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완전한 해탈이 정말 가능합니까?"하고 물었었다. 무엇이 완전한 해탈인가? 완전한 해탈이 있다고 누가 알려주던가? 완전한 해탈이 있어야한다고 누가 정한 것인가? 무언가가 있어야한다는 그 믿음이 바로 마음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곧 완전한 해탈이다. 이 질문자의 완전한 해탈을 막고 있는 유일한 장애물이 바로 '완전한 해탈'인 것이다.

고통의 원인은 이 몸과 마음만이 나라는 착각이다. 그래서 그 착각을 알아차리고 벗어나면 고통에서도 벗어난다. 이게 전부다.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마음은 또 경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좋은 것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것도 있지 않겠는가?'하는. 하나를 보면 즉시 그것을 따라가서 둘을 만들어내는 습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마음을 멈추는 것이 깨달음이고 완전한 해탈이다. 마음을 멈춘 후에 마음을 '더' 멈추는 방법은 없다. 마음을 멈춘 후에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을 덧붙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아직 마음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이다.

"육체가 살아 있는 동안 완전한 깨달음이 정말로 가능합니까?" 왜 안 되겠는가? 육체가 무슨 상관인가? 마음이 무슨 상관인가? 왔다 갔다 한들 무슨 상관인가? 중생이 됐다가 붓다가 됐다가 하면 왜 안 되는가? 단 1초도 삼매에서 벗어나지 말아야한다는 존재의 법률이라도 있는 것인가? '내가 곧 존재'임을 알면 다 끝난 것이다. 괜히 마음을 덧붙이지 마라.

나는 무엇인가?

질문자: 저는 제가 저 자신이라고 아는 그것입니다.

마하라지: 그대가 자신이라고 여기는 것이 그대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겠지요! 그대 자신에 대한 그대의 관념은 나날이 변하고 순간순간 변합니다. 그대의 자기상self-image은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변화무쌍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취약하며, 그대의 곁을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가족을 잃거나, 직업을 잃거나, 혹은 모욕을 당하면, 그대가 '그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대의

상像은 깊숙이 변화합니다. 그대가 무엇인지를 알려면, 먼저 탐구를 하여 그대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가 무엇이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있다'는 기본적 사실과 반드시 부합하지는 않는 모든 것을 배제하고 그대 자신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 내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지금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누구와 결혼하여, 어디에 살고 있고, 누구의 아버지이며, 누구에게 고용되어 있다 하는 등의 관념들은 '내가 있다'는 느낌에 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취하는 보통의 태도는 '나는 이것이다'입니다. '내가 있다'를 '이것'이나 '저것'으로부터 일관되게 꾸준히 분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나, '저것'이 아니면서 그저 있다는 것just to be이 의미하는 바를 느끼려고 애쓰십시오. 우리의 모든 습은 그것을 거역합니다. 이 습들과 싸우는 것은 때로는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지만, 분명한 이해가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마음의 수준에서는 그대가 ('나는 무엇이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용어로만 묘사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할수록, 그대는 더 빨리 탐구의 끝에 이르러 그대의 무한한 존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p86

아이한테 밥을 먹일 때는 그것이 정말 밥인지, 혹시 모래는 아닌지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아이한테 모래를 먹인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나'를 지칭할 때, 내가 느끼는 이것이 당연히 '나'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확인해봐서 나쁠 것 없지 않은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느끼는 이 나'가 확실히 '나'라고 믿어진다면, 설령 파헤쳐 봐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아닌가? 그러니 마음 놓고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다. 결과가 뻔한데 겁날 것 없지 않은가? 달리 뭐가 있겠는가? 이 몸과 마음에 '나'가 없다면 도대체 어디에 '나'가 있겠는가?

그럼 이제 하나씩 조사를 해보자. 그대의 '나'는 무엇을 지칭하는가? 그대의 몸을 지칭하는가? 그대의 어떤 몸을 지칭하는가? 20대의 몸인가 40대의

몸인가? 몸이 계속 변하고 있다는 건 그대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마음이 그대라면 어떤 마음 상태가 그대인가? 화났을 때? 기쁠 때? 조용할 때? 그대의 직업이 그대인가? 그대의 가족이 그대인가? 그대의 인격이 그대인가?

아…문제가 자꾸 이상해진다. 내 몸 주변에 뭔가 연기 같은 것이 뭉쳐있기는 한데, 딱 집어서 지목을 할 수가 없다. 그냥 그 모든 것을 대충 '나'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하나 조사를 해보니 전부 지나가는 것들이고 확실히 머물러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내가 철석같이 믿었던 나의 존재가 사실은 이런 것이었나? 아무리 봐도 이건 허깨비일 뿐이다. 그래서 내친김에 더 조사를 해본다. 그럼 도대체 '나'의 어디까지가 허깨비일까? 허깨비를 다 걷어내고 나면 혹시 남는 게 있을까? 어디까지 파고들어야 하는 걸까? 변하는 것들을 배제시키는 작업을 계속해나간다. 그렇게 파고들어갈 때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있다는 느낌이다. 일단 내가 있다는 느낌은 변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느낌처럼 변하지 않는 것이 또 있는지를 계속 확인해본다.

그랬을 때 결국 그대의 '나'가 '내가 있다'로 수렴된다. 그대에게 있어서 확실한 것은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직업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오직 '내가 있다'는 느낌뿐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대의 나를 찾는 작업은 일단 '내가 있다는 느낌'이 '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하지만 그 '내가 있다'는 느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내가 있다'가 폭발하는 과정이 따라온다. 그래서 '존재가 있다'로 넘어가게 된다. 결국 '무엇이 나인가?'라는 의문을 풀기 위해서 진행한 작업은 '존재가 있다. 그 존재가 바로 진정한 나다.'로 끝나게 된다. 이게 진짜 나를 찾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대도 이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기만 한다면 반드시 '내가 존재'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인과성과 평평한 지구

마하라지: …언제나 그대는 기원과 원인을 찾습니다. 인과성이란 마음속에 있을 뿐입니다. 기억이 연속성의 환상을 제공하고, 반복이 인과성의 관념을 창조합니다. 일들이 함께 되풀이해서 일어나면 우리는 그 일들 사이에 어떤 인과적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의 습을 만들어내지만, 습이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p88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은 때가 있었다. 지구를 통째로 볼 방법이 없었을 때의 얘기다.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보 취급을 받는다.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무수히 증명됐기 때문이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믿음은 좁은 시야로 인한 착각이었던 것이다. 세상일들이 시간과 장소를 점유하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나고, 서로 연관되어서 일어난다는 관찰은 좁은 영역에서만 성립하는 이야기이다. 지구를 통째로 보지 못하고 한 지역에 국한해서 관찰했을 때 지구는 평평하다는 결과가 나왔듯이, 이 우주를 통째로 보지 못하고 지극히 좁은 영역에만 한정해서 관찰하면 인과성이 성립하는 듯이 보이는 것이다.

보는 기술이 발달해서 지구를 통째로 볼 수 있게 된 지금, 그 누구도 평평한 지구를 주장하지 않듯이, 의식이 폭발해서 존재를 통째로 볼 수 있게 된 사람은 그 누구든지, 존재가 지금 여기,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곳에서 '그저 존재할 뿐'임을 명확히 보게 된다. 인과성과 평평한 지구는 똑같은 원인을 가진 똑같은 착각이다.

신神을 보는 빛

마하라지: 세계를 볼 때 그대는 신을 봅니다. 세계와 별개의 신을 보는 일은 없습니다. 세계를 넘어 신을 본다는 것은 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가 세계, 즉 신을 보는 그 빛은 '내가 있다'는 아주 작은 섬광인데, 외관상으로는 아주 작지만 모든 아는 행위나 사랑하는 행위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빛입니다. p88

내가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뭣고?, 존재는 결국 무엇일까?…. 이런 문제들에 몰입할 때, 거기에 작은 의식점point of consciousness이 형성되는데, 바로 그 점(구멍)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바로 그 빛을 통해서 그대가 비로소 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신은 곧 존재 자체임도 보게 된다. 아울러 이 존재가 바로 존재인 동시에 앎이고, 앎인 동시에 사랑이고, 사랑인 동시에 기쁨임을 알게 된다. 마하라지가 부단히 '내가 있다'를 강조하는 것은 곧 그대의 마음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뚫으라는 요구이다. 지금 그대는 어둠 속에 갇혀 있고, 그래서 빛이 들어올 수 없고 따라서 신을 볼 수가 없다. 그대는 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을 보는 방법을 알아차리고 그대의 마음에 열심히 구멍 하나를 내면 그대도 얼마든지 신과 만날 수 있다. 사실은 그대가 바로 신이다. 그래서 신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폭소를 터뜨린다. 자기가 그렇게나 애타게 찾던 것이 다름 아닌 자신임을 알았을 때, 그 누가 웃지 않겠는가? 파랑새는 언제나 집에 있다.

마음이 매달려 있는 곳

질문자: 세계는 욕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두가 이런저런 것을 원합니다. 욕망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사람입니까, 자아입니까?

마하라지: 자아입니다. 모든 욕망은 그것이 성스럽든 성스럽지 않든, 자아에서 옵니다. 그 욕망들은 모두 '내가 있다'는 느낌에 매달려 있습니다. p93

마음은 꼭지에 매달린 과일과 같다. 꼭지가 없으면 과일도 없다. 마하라지가 지치지도 않고 바로 그 꼭지, 모든 마음들이 매달려 있는 그곳, 즉 내가 있다는 느낌에 집중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마음을 가만히 한 곳(그것이 '내가 있다'든, '나는 무엇인가?'든, '이 뭣고?'든)에 모으면 마음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바탕인 의식과 만날 수 있는데, 그대가 확실하게 의식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란 결국 의식이 있음으로 해서 가능한 움직임일 뿐임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 그때 그대의 관심이 비로소 마음에서 의식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다.

그대의 관심이 마음에서 의식으로 옮겨가야, 빙산의 일각인 의식이 붙어 있는 존재를 만날 수 있다. '내가 있다'에 집중하는 것이 존재와 만나는 불가결한 방법이 되는 것이다. 마음은, 의식이라는 꼭지가 없으면 존재할 수조차 없는 하찮은 것이다. 그러니 마음을 상대하지 말고 의식을 상대해라.

이해의 전제, 결국 마하라지도 사기꾼이다

마하라지를 읽어 가다보면 어느새 마하라지의 말을 따라가게 마련이다. 마치 마음들이 하나 둘 쌓여서 에고라는 허구를 형성하듯이, 마하라지의 말들이 하나 둘 쌓여서 이해라는 허구를 만들게 되는 것이다. 바로 그 때 필요한 것이 알아차림이다. 마하라지는 분명히 존재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조금씩 이해를 쌓아가던 그대는 다시 착각하게 된다. 그대가 마하라지를 이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존재마저도 이해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건 마하라지를 무시하고 부인하는 짓이다. 마하라지는 분명히 존재는 될 수 있을 뿐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하라지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앎을 구축하려고 시도하지마라. 마하라지의 말 한마디를 읽고 나면 그 말은 즉시 버려버리고,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생각해라. 그것이 진정으로 마하라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진정한 알아차림은 늘 전부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마하라지를 읽을 때도 전부를 알아차리고, 라즈니쉬를 읽을 때도 전부를 알아차리고, 석가모니를 읽을 때도 전부를 알아차리고 있어야 진정한 수행자라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든, 무슨 글이든, 일단 접하고 나면 당장 버려라. 거듭 말하지만 존재는 될 수 있을 뿐 이해할 수는 없다. 이해 자체가 인간의 영역, 즉 마음이기 때문이다.

spectrum

02

삶 속에서 죽음을 죽음 속에서 삶을

오쇼 라즈니쉬

『젊은 날에 만나야할 영적 스승 라즈니쉬』 (명상. 송현 지음)

바그완 슈리 라즈니쉬(오쇼 라즈니쉬) Bhagwan Shree Rajneesh

(1931년12월11일 ~ 1990년1월19일)

1931년 인도의 쿠츠와다에서 태어났다. 1953년 3월 21일에 깨달음을 얻었고, 1958년부터 자발푸르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1960년에 교수가 되었고,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회주의와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기성종교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 비난했고, 성에 대하여 개방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많은 지지자와 반대자들을 양산하였다. 1989년에 '오쇼'라는 이름을 채택하여 오쇼 라즈니쉬로 불린다. 1980년대에 미국에 정착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으며, 한국에도 많은 책들이 소개되어 있다. 1990년 1월 19일에 자신이 '우주적인 농담'이라고 불렀던 현실에서의 삶을 마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갔다.

내가 명상을 시작한 것도 라즈니쉬 덕분이고, 내가 명상을 신뢰한 것도 라즈니쉬 덕분이다. 내가 명상과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다 라즈니쉬 덕분인 셈이다. 세간에는 간혹 라즈니쉬를 음해하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건 라즈니쉬를 오해한 데서 나온 것이다. 나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다. 내가 라즈니쉬 덕에 명상을 알았다고 해서 라즈니쉬를 편들겠는가?

라즈니쉬는 깔끔한 붓다인 동시에 탁월한 해설자다. 게다가 아름답고 즐거운 이야기꾼이기도 하다. 부디 라즈니쉬의 책들을 읽어보라. 그것은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즐거운 여행이 될 것이다.

변할 준비가 된 사람

송현: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대답을 들을 수 없습니까?

라즈니쉬: 그렇지는 않다.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붓다가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고 질문해도 붓다는 대답해 줄 것이다.

송현: 특별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도 대답해 준다는 겁니까?

라즈니쉬: 물론이다. 대답은 해준다. 그런데 대답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쪽에 문제가 있다!

송현: 무슨 문제입니까?

라즈니쉬: 질문하는 이가 전적으로 겸허하고 수용적이며 여성처럼 받아들일 자세를 지니고 있지 않으면 대답을 놓친다는 점이다! p34

나는 학교(시단선원)를 아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데, 그건 내가 원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어떤 제약도 가하지 않는다. 수행의 방법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 다른 학교에 가입하는 것을 막지도 않고, 술과 담배를 금하지도 않고, 모임 참석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시단선원이 너무 빡빡해서 힘들다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하지만 나는 딱 한 가지 원칙만은 철저하게 적용하는데, 그것은 수행학교에서는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구경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 온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저 호기심으로 학교에 온 것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는가? 수행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수행자들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행학교에 오는 사람은 잘하든 못하든 수행을 해야 한다. 그런데 수행기는 고사하고 자기소개조차 안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내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는가? 어쨌든 회원은 많아 보일 테니 그냥 둬야할까? 질문을 할 때는 그 질문의 대답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킬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수행학교에 들어올 때는 잘하든 못하든 내 나름대로 수행을 해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한다. 그래서 내가 구경꾼들을 잘라버리는 것이다.

수행은 곧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애당초 나를 바꿀 의사 없이 수행학교에 온다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그대가 한 달 내내 일 년 내내 질문을 한들, 그대에게 자신을 바꿀 의사가 없다면, 석가모니의 대답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석가모니가 녹음기인가? 선생에게 질문을 할 때는 그대를 활짝 연 채로 질문을 하고, 수행학교에 가입을 할 때는 기꺼이 나를 바꾸겠다는 열망을 갖고 해라. 그래야 피차 헛짓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수행은 곧 깨어나는 것이다. 깨어나는 일에서조차 잠든 채로 행동한다면 달리 어떤

방법으로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학교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다. 수행할 맘도 없는 사람이 수행학교에 오는 것이 문제다. 그렇지 않은가?

진리는 가혹하다

송현: 저는 선생님께서 붓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 절을 하고 싶다는 것만 봐도 정말 붓다가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선생님, 붓다가 자신의 뜻을 펼 때, 어떤 점이 특별했습니까?

라즈니쉬: 아주 남달랐던 점이 있다. 그것은 다른 종교를 시작한 이들, 혹은 깨달음을 얻었던 이들은 이야기를 듣는 사람에게 맞는 수준으로 가르침을 폈는데, 붓다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점이다. 즉 다른 이들은 듣는 사람 수준에 맞추어서 말했지만, 붓다는 듣는 사람과 조금도 타협하지를 않았다. …

송현: 하지만 그런 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는데요?

라즈니쉬: 그렇지만, 그것은 다른 면으로 보면 위대한 자비이다.

송현: 위대한 자비라니요?

라즈니쉬: 진리는 진리 그대로 말해져야 한다! 상대방이나 현실이나 그 시기와 타협하는 순간, 진리를 평범한 인간의 의식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순간, 진리는 그 펄펄 뛰는 심장을 멈추고 만다. 그때 진리는 껍질만 남게 되고 죽은 것이 되어 버린다. 인간의 의식 수준으로 진리를 끌어내려서는 안 된다. 인간이 진리의 차원으로 이끌어 올려져야 한다. 붓다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붓다가 한 위대한 일이 바로 이 일이다. p37

현실적으로는 두 종류의 선생이 다 필요하다. 학생들의 수준을 감안해서 보다 넓게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야 하고, 오로지 수행을 중심에 두고 무자비

하게 가르치는 선생도 있어야 한다. 사람들 수준이 천차만별이니 선생들도 다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과격하게 가르치는 편이지만, 모든 선생들이 나처럼 가르쳐야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드러운 선생들이 대신 해주니 감사한 일이 아닌가? 라즈니쉬가 하는 얘기는 원론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이다. 현실적으로는 가르침에도 다양함이 필요하다.

제자와 학생

송현: 제자와 학생의 차이는 뭡니까?

라즈니쉬: 학생들이란 나에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이들이다. 그들은 뭔가를 모아서 자신들이 이것저것 안다고 자랑하기 위하여 아쉬람에 와서 얼쩡거린다. 그들은 다이아몬드를 손에 넣을 수도 있는데, 주로 색칠한 돌들만 모으고 있다. 그런데 제자란 지식보다는 존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는 단지 나와 함께 아쉬람에 있는 데 관심이 있다. 그 밖에는 아무런 관심도, 동기도, 이유도 없다. 그의 가슴은 이미 만져졌다. 이미 그의 씨앗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제자는 존재에 대해서 끝없는 관심을 가진 자이다. 다시 말해 진리 자체에 대한 관심이지 진리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신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맛보기를, 신이라 불리는 그 커다란 술통을 꿀꺽 꿀꺽 마시기를, 그 바다와도 같은 에너지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는 자다.

p43

제자들과의 교류는 크나큰 기쁨이다. 내가 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떤 자들은 그것을 얻으려고 오랫동안 고생해왔다. 마침내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의 감격이란! 나는 제자들을 보면, 그들이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 못

할 문제를 내가 해결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쁘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자신이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를 선생이 훤히 알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 한없는 안도감을 느낀다. 그러니 그 만남이 어떻겠는가? 내 소원은 제자들이 기쁨과 평안을 되찾는 것뿐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은 감사가 끝없이 돌아온다. 나는 내 본성대로 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많은가? 아픈 사람을 보는 것보다는 웃는 사람을 보는 게 더 즐거운 건 당연한 것 아닌가? 하지만 제자 입장에서는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것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랑의 폭발이 일어난다. 완전한 신뢰가 뒤따라온다. 그리고 사랑의 기쁨이 선생과 제자를 휩싼다.

그러니 어찌 가르치지 않겠는가? 이러니 어찌 좋은 제자를 기다리지 않겠는가? 그대의 실체가 진정으로 궁금하다면 오라. 그대는 신실함만 가져오면 된다. 진정성 있는 제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한테는 가장 큰 보상이다.

죽어도 좋은가?

송현: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즈니쉬: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스승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그러자면 용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은 모험이다. 그대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싹은 죽어야 한다. 그래야만 꽃이 필 수 있다. 씨앗은 죽을 것이다. 오직 그때에만 나무로 자랄 수 있다. 그대는 죽어야 한다. 그때에만 신은 그대에게서 꽃을 피울 수 있다. p44

나는 학생들을 계속 테스트한다. 밖으로 밀어내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를 보기도 하고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반응을 보기도 한다. 나는 무심無心이 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몇 번만 흔들어 보면 그 사람의 속내를 훤히 알 수 있다. 자기 마음을 끝까지 감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속임수가 안 통한다. 열 번 잘 하다가 한 번만 잘못해도 그 한 번의 반응에서 그 사람의 속내가 드러난다. 결국 그대가 진짜로 변할 준비가 되지 않으면 수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수행을 잘하고 못하고는 나에게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 재주는 그 사람이 타고난 것이니 그 사람 잘못이 아니지 않은가? 그 사람 잘못이 아닌 것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물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사람 자신도 어쩔 수 없는 걸 괜히 추궁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지만 의지는 자신의 몫이다. 내가 재주 있고 없고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내가 갈 길을 정하는 건 온전히 나의 몫인 것이다.

좀 천천히 가면 어떤가? 어차피 삶은 다음 생, 그 다음 생으로 계속 이어질 텐데 급할 것 없지 않은가? 진도는 좀 천천히 나가도 상관없다. 하지만 '나를 바꾼다, 안 바꾼다'는 명확히 해야 한다.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아무튼 계속 해서 나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확고한가? 그렇다면 학교에 와도 된다.

껍질을 잃어버려라

송현: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배우는 것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라즈니쉬: 물론이다. 진리에 이른다는 것은 배우는 것보다, 오히려 배운 것을 잊어

버리는 일을 뜻한다. 그대는 여태껏 알아 온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진리에 이른다 함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잊어버리는 일이다. 배운 것을 잊을 수 있다면 그때 그대는 무언가 될 수 있다. 배운 것을 잊을 수 있다면, 만일 모든 지식을 송두리째 무조건 집착 없이 떨쳐 버릴 수 있다면, 그대는 '순수'해질 것이다. p47

그대가 배운 것은 대부분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배운 것이다. 이 현실의 삶의 기준은 어디이겠는가? 당연히 이 현실이다. 그럼 이 현실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 그 반대편에 바로 존재가 있다. 그렇다면 그대가 현실 속에서 배운 것들이 존재를 가릴까? 드러낼까? 이 현실에 바탕을 둔 앎이 현실을 시인할까? 현실의 반대편을 시인할까?

그대가 배운 것은 전부, 존재가 실체가 아니라 이 현실이 실체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지금 이 현실이 진짜로 실체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대가 여전히 현실에 뿌리를 박고 있어도 괜찮을까? 현실에 근거해서 현실을 부인하는 일이 가능할까? 그래서 '배운 것을 잊어버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진짜 실체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 현실을 부인해야 한다. 또한 이 현실에서 배운 것들도 함께 부인해야 한다. 그대가 이 현실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대의 현실적인 앎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의 진짜 실체를 이미 알고 있다. 다만 그 빛나는 앎이 현실적인 앎에 의해 가려져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현실적인 앎을 걷어내려고 해야, 그대의 빛나는 실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배움은 나날이 더하는 것이고, 도道는 나날이 덜어내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을 노자도 말하고 있다. 진정으로 존재를 알고 싶으면

잃어버림에 익숙해져라. 빛은 이 우주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에 있다. 아무것도 더 배울 필요 없이, 그저 껍질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언제든지 궁극의 앎과 만날 수 있다. 맘껏 잃어버려라. 그게 최고의 공부다.

깨달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대다

송현: 선생님, 그렇다면 깨달음도 인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까?

라즈니쉬: 그렇다. 깨달음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가로막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대가 그것을 성취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할 일은 그것이 일어나도록 가로막지 않는 것이 전부이다. 그대는 지금까지 수천 가지 방법으로 막고 있었다. 그대는 그것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대는 놀랐다. 그것이 그대를 온통 사로잡으려 할 때, 그대는 감히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다. 그대는 뒤로 움츠러들고, 달아나고, 숨었다. 그대는 '에고'라는 작은 세포 안에 숨었다. 거기서 그대는 안전을 느끼고, 자기가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p49

그대는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대가 깨달음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깨닫기 위해서 무척이나 노력하는데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대가 깨달음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의 깨달음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 자체가 깨달음이다. 그대가 원래 갖고 있는 그대만의 것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는가? 그대의 깨달음에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은 그대가 유일하다. 그래서 그대의 깨달음이 아직 피어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오로지 그대에게 있는 것이다.

그대는 정말로 두려움이 없는가? 그대는 정말로 변화를 바라는가? 마음은 물질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마음을 뭉친 것이 물질인데 어찌 성질이 다르겠는가? 그래서 물질을 한 곳에 쌓을 수 있듯이 마음도 한 곳에 쌓을 수 있다. 결국 무엇이든 마음이 진정으로 바라는 쪽으로 형성된다는 얘기다. 그대가 진정으로 투명함을 원하는데도 투명해지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을 바라는데도 그대가 사랑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대가 해변에서 모래 1톤을 실어다가 마당에 부었는데 그 모래가 다시 해변으로 돌아가는 일이 가능하겠는가?

아직 깨달음이 오지 않았다면 그건 필연적으로 그대의 바람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고, 결국 그대의 바람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대가 그대의 깨달음을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의 마음을 다시 돌아봐라. 마음도 여러 층이 있다. 그대가 겉으로는 깨달음을 원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조사해봐라. 마음은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한다.

연극과 역할

송현: 선생님은 왜 '브하그완(신)'이라고 선언했습니까?

라즈니쉬: 전에 그런 적이 있었다. 그때 그것은 일종의 연극이었다. 나는 브하그완 역을 연기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그리고 그들은 제자 역을 맡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연극이다. 깨닫게 되는 날 그대는 알 것이다. 거기 스승도 제자도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대가 깨닫는 날, 그대는 이것이 하나의 꿈이었다는 걸 알 것이다. 그러나 이 꿈은 다른 모든 꿈들로부터 깨어나게 하는 꿈이다. 살갗에 박힌 가시를 빼내

는 데 쓰는 가시다. 다만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다. …이것을 뗏목처럼 사용하라. 내가 이것을 연극이라고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p49

깨달음이 하나뿐이니 깨달은 사람들은 다 똑같이 행동할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정치인들이 정치라는 한 가지 일에 종사하지만 그 개인에 있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택시 기사들도 똑같은 일을 하지만 각자 다 삶의 모습이 다르듯이, 깨달음에 있어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 그래서 혹자는 고요한 곳을 찾아들어가서 침묵을 즐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망나니로 변신하기도 한다.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나'라고 할 것이 없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 라즈니쉬는 실험을 즐기는 쪽이었다. 미국에서 만든 공동체는 애당초 성공할 가망이 없었는데도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서 강행했었고, 똑같은 롤스로이스를 100대나 사서 보란 듯이 전시하기도 했었다. 세상으로부터 오해받을 줄 뻔히 알면서도, 사람의 일생이 그저 한 번의 놀이일 뿐임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장난을 쳤던 것이다.

라즈니쉬가 무슨 짓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존재 안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한 모양들이 나올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즈니쉬가 장난을 치든 법정스님이 고요함 속에 머물든, 그게 그대와 무슨 상관인가? 그대에게는 그대의 평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깨달음이 이런 모습이냐 저런 모습이냐 하는 것은 단순한 관심사일 뿐이다.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그대 자신의 깨달음과 그대 자신의 평안에 집중해라.

종교는 무엇인가?

송현: 많은 종교인들은 교리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라즈니쉬: 그대 말 한번 잘했다. '교리의 노예'라는 말은 재미있고, 또 적절하다. 그들은 단지 교리와 의식에 따라 살아갈 뿐이다. 그들은 사실 종교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 의식은 종교가 아니다. 계율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그런 것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다.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삶, 사랑하는 삶,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이 종교적인 삶이다.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라. 수백만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로 가고, 절로 가고, 모스크나, 구루드와라(힌두교 사원)로 가서, 기도나 이런 저런 의식을 행하고 있다. 그것은 단지 의식일 뿐이다. 종교는 거기에 없다. p90

그대는 어느 쪽인가? 깨어 있는 마음으로 사는 삶, 사랑하는 삶,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혹은 복이나 좀 받아볼까 하고 교회나 절에 다니고 있는가? 우물에 가서 숭늉을 찾으면 숭늉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대에게 깨어있는 사랑이 없다면 그대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깨달은 사람

라즈니쉬: 성 프란체스코는 깨달은 사람이었다. 깨달은 사람의 특성은, 그는 평범하다는 것, 그는 자신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는 단순히 반응할 뿐이며, 무엇이 그에게 일어나든 그냥 그렇게 일어난다는 데 있다. 그는 순간순간 살아간다. p98

깨닫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데, 그건 자신이 '원래 상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어떤 식으로 마음을 쓰고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안다. 또한 깨달은 사람은, 남들의 마음 씀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의식 수준을 즉시 알 수 있다. 내가 평소에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은 의식 수준이 높은 것이고, 내가 안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의식 수준이 낮은 것이다. 그대는 운전을 할 때 차의 진동으로 바닥의 상태를 아는가? 그런 것쯤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깨달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아는 것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겠지? 그대가 느끼는 차의 진동이 명확하듯이, 깨달음도 명확하다.

전체

라즈니쉬: 그대가 사랑하고 있을 때, 그대는 미워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미워할 동안, 그대는 사랑할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대는 죽을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대가 죽을 때, 그대는 다시 태어날 에너지를 모을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오직 삶만 본다면 그대는 놓치고 말 것이다. 삶 속의 어디인가에 숨어 있는 죽음을 보아라. 따라서 만약 그대가 삶 속에 죽음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죽음이 삶 속에 숨어 있는 반대의 것 또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양극이 사라진다. 그대가 그것들의 양극성을 동시에 함께 볼 때, 또한 그대의 마음도 함께 사라진다. p103

친한 친구들끼리 서로 욕을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왜

모르는 사람한테서 욕을 먹으면 화를 내면서, 친한 친구한테서 욕을 먹으면 즐거워하는가? 그 욕 뒤에 감춰져 있는 마음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알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보다 더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죽음 뒤에 뭐가 감춰져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존재의 원리는 어딜 가나 똑같다. 욕 뒤에 사랑이 감춰질 수 있듯이, 죽음 뒤에도 생명이 감춰질 수 있는 것이다.

깨닫고 나면 왜 고요해지는가? 늘 이면을 보기 때문이다. 그대가 삶을 볼 때 깨달은 사람은 그 삶을 보는 동시에 그 삶의 이면(죽음)도 본다. 그래서 그대의 눈에 삶이 보일 때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삶+죽음'이 보인다. 아울러 그대가 죽음을 볼 때도 깨달은 사람은 그 죽음과 함께 그 죽음의 이면(삶)을 본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삶+죽음'이 보인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대의 눈에는 삶이 보였다가 죽음이 보였다가 하지만 깨달은 사람의 눈에는 변함없이 '삶+죽음'이 보인다. 여전히 똑같은 것이 보이는데 왜 동요하겠는가? 그대라면 동요하겠는가? 깨달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 않는 것은 자기 암시에 의한 것이 아니다. 늘 전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명확히 아는 까닭이다.

그대가 고통 받는 것은 그대가 변화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변하는 것은 그대의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제거하면 그대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덕에 고통과 작별하게 되는 것이다. 이 우주에 변화는 없다. 그대가 쓰고 있는 안경이 끝없이 일렁이고 있을 뿐이다.

spectrum

03

자아탐구와 헌신의 길

라마나 마하리쉬

『있는 그대로』
(한문화. 데이비드 갓맨 편집, 정창영 옮김)

라마나 마하리쉬 Ramana Maharshi

(1879년12월30일 ~ 1950년 4월14일)

1879년 12월 30일에 남인도 타밀지방의 티루출리에서 태어났다. 중류층 브라만 가문에서 태어난 그는 신비주의와 종교에 관한 서적, 특히 인도 남부의 시바파 성자들의 전기와 중세의 신비주의 시인인 카비르의 전기를 즐겨 읽었다고 한다. 17세 때 갑자기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는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는 바로 죽음의 장면을 상상했다. 그 와중에 육체와는 별개인 강력한 존재의 소리를 들었다. 내면에서 울리는 '나'의 소리를 느낀 것이다. 이러한 신비체험 후에 집을 떠나 아루나찰라 산의 사원으로 들어갔다. 이후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전했다. 그는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으로써 자아탐구(나는 누구인가?)의 길을 제시했고, 그 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헌신의 길을 권유하였다.

사실 마하리쉬를 첫 번째로 넣고 싶었지만, 책의 구성상 세 번째로 넣었다. 마하리쉬는 말이 필요 없는 붓다다. 그의 투명함은 가히 세상을 덮을만하다. 어떤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모습인지가 궁금하다면 마하리쉬를 모범으로 삼으면 된다. 구름 한 점 없는 투명한 하늘, 그것이 마하리쉬다.

오줌과 깨달음

(질문자)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실재를 깨닫는 일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마하리쉬) 궁극적인 실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손에 넣는 사람은 행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궁극적인 실재는 얻고 말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p46

'나는 오줌을 누는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오줌을 누는 것은 모든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이다. 오줌을 누는 것은 자랑할 일도 아니고 획득해야할 일도 아니다. 그저 내가 오줌을 눌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오줌을 누면 그만이다. 깨달음도 오줌 누기와 똑같다. 모든 생명체가 오줌 누는 기능을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듯이, 깨달음도 모든 생명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그대가 혹시 방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대는 깨달을 수 없다. 하지만 그대에게 방광이 있다면 깨달음도 그대에게 있다.

스승의 은총

깨달음은 오직 스승의 은총에서 비롯되며, 스승의 발밑에 엎드릴 때에야 지복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전부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부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p59

나는 체질적으로 이런 시스템과는 맞지 않다. 수행자가 제대로 수행을 해 내려면 선생의 말에 복종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생이 제자한테 뭘 내려주고 말고 할 것은 없다. 그저 길만 일러주는 것이다. 스승에게 헌신하는 시스템이 터무니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지금의 개인주의 성향과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대 자신이 다 책임을 지는 게 제일 좋다.

돌대가리

이곳에 와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남의 얘기만 묻는 사람들이 있다. "깨달은 사람도 현상계를 지각하나요?", "그들도 카르마의 영향을 받나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 얻는 자유는 어떤 것인가요?", "육체를 벗은 다음에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로 존재하면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깨달은 사람의 육체는 빛 속으로 녹아 들어갑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시야에서 사라집니까?"하면서 쓸데없는 질문만 한다.

그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무엇 때문에 자기와는 관계도 없는 일에 관심을 쏟으며 피

곤해 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알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한다. "자유에 대해서 묻기 전에 먼저 구속이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라. 가장 먼저, 그대가 누구인지 자신을 탐구해 보라." p80

"아유, 다리가 가려워 미치겠네!"하면서 정작 마누라 다리를 열심히 긁는 중생들이 너무 많다. 마누라 다리를 긁는다고 내 다리가 시원해질 리가 없지 않은가? 내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궁금해 해야지, 남들 마음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해 한다고 내가 깨달아지나?

새로운 방법은 없다

참자아 탐구 수행에서 '나'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 것과 '나'라고 하는 주체를 체험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비슷한 다른 영적인 수행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알면, 스리 라마나가 다른 수행은 효과가 없다고 누누이 말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87

이 말은 이 책을 편집한 데이비드 갓맨이라는 친구의 말인데, 이 친구가 별로 아는 게 없어서 하는 헛소리일 뿐이다. 하늘 아래에 새것이 있을 턱이 없지 않은가? 마하리쉬가 선호했던 수행법은 일종의 집중법인데, 먼저 '나는 누구인가?'하는 의식의 한 점을 찍은 후에 그 점을 그대로 확장해 가는 방법이다. 마치 밀가루 한 덩이에서 시작해서 끊어짐 없이 면을 뽑아내는 주방장처럼, 한순간도 의식을 놓치지 않고 밀어붙이는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마하리쉬만 썼을 턱이 없지 않은가? 의식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방법은 대개의 수행자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다. 아울러 갓맨은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체험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독특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역시 무식한 소리일 뿐이다.

마하리쉬가 다른 방법들은 효과가 없다고 말한 것은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를 알 수 있다는 뜻이지, 내 방법만 옳다는 뜻이 아니다. 마하리쉬를 보면 마하리쉬에 혹하고, 마하라지를 보면 마하라지에 혹하고, 라즈니쉬를 보면 라즈니쉬에 혹한다면 끝없이 미망만 계속될 뿐이다. 하늘 밑에 새로운 것이 없음을 명확히 알고 미망을 벗어나렷다!

냄새를 따라가는 개처럼

'나라는 생각'을 단서로 자아를 탐구해 들어가는 것은, 개가 주인의 냄새를 맡으며 주인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주인이 알지 못하는 먼 곳에 가 있더라도 개는 주인을 찾아낸다. 개에게는 주인의 냄새가 주인을 찾는 확실한 단서가 된다. 개는 주인을 찾는 동안 냄새에만 집중한다. 그리고 결국 주인을 찾는다. p90

'나'를 찾을 때는 계속 찾아야 한다. 한 시간, 두 시간, 열 시간, 열흘, 한 달, 1년, 5년, 10년…. 오늘 어디까지 냄새를 맡았다면, 내일은 오늘 중단한 곳에서부터 다시 냄새를 맡아 나간다. 그렇게 계속 진행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를 툭 건드렸다가, 내일은 저기를 툭 건드렸다가 해서는 백만 년이 가도 주인을 못 찾는다. 최대한 예민하게 냄새를 맡으면서 착실하게 거리를 줄여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모든 관심이 온통 '나'에 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확고한 마음이 없으면 수행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마라. 알고 보면 돈 버는 법이나 깨닫는 법이나 다를 게 없다.

만트라

그는 이 질문의 해답에 정신적으로 아무리 강력하게 집중을 하고 반복해 되뇌어도, 마음은 결코 그 근원으로 가라앉거나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일종의 만트라처럼 사용하는 것 역시 똑같은 이유로 반대했다. p123

수행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잡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들판에 던져 놓으면 뭘 해보기도 전에 포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초심자들한테는 만트라를 반복해서 외우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만트라는 쉬운 수행법에 속한다. 그래서 만트라 정도로는 강한 의식을 키울 수가 없다.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 그다지 정신을 차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규칙적인 일을 할 때와 불규칙적인 일을 할 때 중에 어느 경우에 그대가 더 깨어있게 되던가? 당연히 불규칙적인 일이 사람을 더 깨어있게 한다. 그러니 가능하면 만트라 같은 건 사용하지 마라. 히말라야를 목표로 하면 못가도 백두산 정도는 갈 수 있지만, 처음부터 백두산을 목표로 하면 기껏해야 동네 뒷산이나 가기 십상이다. 처음부터 광활한 벌판으로 달려 나가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야 체력(의식)이 강해진다는 얘기다.

신앙과 명령

모든 것을 신께 맡기고, 신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그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하라. 그가 기뻐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대를 기쁘게 해달라고 신께 요청한다면 그건 헌신이 아니라 명령이다. 그대는 신께 그대의 명령에 따르라고 요청할 수 없다. 그런데 그대는 그대가 원하는 것을 신께 요청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신께 헌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p148

현대 기독교의 신앙 수준이 몰락의 지경에까지 이른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종교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 우리 큰아들 얼른 취직하게 해주시고,

우리 작은 아들 명문대 합격하게 해주시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시고,

우리 딸 몸짱 얼짱 되서 판검사한테 시집가게 해주시고….

이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범은 성경에도 잘 나와 있다.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하나님을 믿어야 그게 신앙인이다. 종교의 중심에 그대가 있으면 그건 생활이지 종교가 아니다. 종교는 신의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 그대의 에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하긴 목사들조차 제 욕심 챙기기에 바쁜데 그런 목사들의 인도를 받는 신도들이야 오죽할까? 우물에서 숭늉 찾는 짓 이제는 그만 해라. 그게 다 죄받을 짓이다.

시간이 없다고?

(질문자) 저는 경전을 많이 공부하지도 못했고, 참자아 탐구도 저에게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일곱 명이나 되고 돌보아야할 가족들이 그 밖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명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좀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하리쉬) 참자아를 아는 데에는 경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다. 경전은 일종의 거울인데, 자기를 보려면 직접 보면 되는 것이지 꼭 거울을 들여다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는 목적은 참자아가 아닌 것을 분별하여 하나하나 떼어내는 데 있다. 오직 그것뿐이다.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것도 꼭 장애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무슨 일을 하든, 속으로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한다면, 결국 참자아에 도달할 것이다. 앉아 있을 때나 또는 걸어가면서도 늘 '나는 누구인가?'를 반복해서 묻도록 하라. '내'가 신의 이름이다. 이것이 최고의 만트라이다. 이에 비하면 최고의 만트라라고 하는 '옴'도 부수적인 만트라에 지나지 않는다. p212

그렇다. 생활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수행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최고의 수행이기도 하다. 그러니 시간이 없다느니, 장소가 없다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마라. 관심만 있다면 왜 시간이 없단 말인가?

마음이 없는 곳은 없다

(질문자) 가장의 책임을 떠맡고 있으면서 어떻게 완전한 자유를 꿈꿀 수 있겠습니까? 완전한 자유를 성취하려면 탁발 수도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하리쉬) 그대를 왜 가장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대가 출가하여 탁발 수도승이 된다고 해도 '나는 탁발 수도승'이라는 생각이 늘 따라 다닐 것이다. 가장으로 계속 남아 있든, 아니면 출가하여 숲으로 들어가든, 그대의 마음은 늘 그대를 따라다닌다. 그대가 만약 출가한다면 가장이라는 생각 대신 출가 수행승이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환경이 가정에서 숲으로 바뀔 뿐 정신적인 장애물은 사라지지 않는다…환경을 바꾸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마음이 유일한 장애물이다. 집에 있든지 숲에 머물든지 마음을 극복하여야만 한다. 숲에 들어가서 마음을 극복할 수 있다면 집에서인들 왜 극복하지 못하겠는가? p223

집에 있을 때는 '중이 되면 수행이 더 쉬울 텐데'라고 생각하고 중이 되면 '세상에서 사는 게 수행에 더 유리할 텐데'하고 생각한다.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깨닫겠다는 말인가? 어딜 가든 마음이 없는 곳은 없다. 그래서 '지금 곧바로' 마음을 보는 게 유일한 길이다.

큰 시계

(질문자) 바쁘게 세상일을 하면서도 사마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까?

(마하리쉬) 무엇을 '내가 한다'는 느낌이 장애물이다.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인지 묻도록 하라. 일을 하는 그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러면 일이 그

대를 구속하지 않고, 저절로 이루어져 나갈 것이다. 하려고도 하지 말고 포기하려고도 하지 말라. 하려고 하든 하지 않으려고 하든, 어떤 식으로든 노력하면 그것이 구속이 된다.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일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대는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 더 큰 힘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도록 하라. p223

그대가 월드컵에서 어떤 나라가 우승하길 원해서 응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우승의 길은 지난한 험로가 된다. 이겨도 겨우 이기고, 결국 누군가에게 덜미를 잡혀서 우승이 좌절되곤 한다. 그러면 그대는 또 4년을 기다리면서 우승에 목말라하게 되지. 하지만 그대가 월드컵을 보지 않고 야구를 보고 있으면 결국 누군가는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다. 그대는 괜히 그대의 마음과 겨루면서 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시간을 1억년 단위로 계산한다. 요즘 간간히 2012 대재앙에 대해서 문의하는 놈들이 있다. 혹시라도 대재앙이 사실일까 봐 겁이 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최소 시간 단위가 1억 년이라서 대재앙에 별로 관심이 없다. 1억년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서 제일 볼만한 것 하나에만 약간 관심이 있다. 그대도 좀 큰 시계를 사용해보면 어떨까?

일과 마음

(질문자) 가장 역할을 하려면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일이 끊임없이 밀려드는데, 어떻게 행위를 쉬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마하리쉬) 다른 사람 눈에는 깨달은 사람도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

다. 하지만 깨달은 사람 자신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에게는 모든 행위가 그저 일어나는 일일 뿐, 그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의 마음은 이러저런 행위를 하면서도 평화 가운데 있다. 그는 언제나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말없이 바라보는 침묵의 증인으로 남아 있다. p228

일이 바쁘다고 해서 마음마저 바빠야 한다는 법은 없다. 일은 일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그대가 일과 마음을 묶어놓았을 뿐, 마음은 일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이다. 일에 마음을 덧붙이는 것은 그대의 오랜 습관일 뿐이다. 일만 하고 마음은 쓰지 마라. 마음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물건'일 뿐이다.

바보

(질문자) 스리 오로빈도의 아쉬람에서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성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규율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마하리쉬)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마음에서 욕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그렇게 금지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p229

멍청한 오로빈도다운 발상이다. "추잡한 성교를 통해 나를 낳아준 나의 부모의 죄를 지극히 참회하나이다." 바보 오로빈도라면 아마도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성교가 문제라면, 먹는 것, 자는 것, 똥 싸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 그럼 곧바로 자살이나 하지 왜 살아 있는 것인가? 다만 마음을 고칠 수 있을 뿐이다. 마음 외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

단식

(질문자) 단식이 영적인 진화에 도움이 되나요?

(마하리쉬) 생각을 절제하는 정신적인 단식이 되어야만 한다. 단순히 음식만 끊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런 단식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조차 한다. 오히려 음식을 규칙적으로 적절하게 먹는 것이 영적인 진보에 도움이 된다. …잠이나 음식 어느 하나라도 완전히 끊으려 한다면 마음이 온통 그 일에 쏠려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자는 모든 일을 적절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루에 세 끼를 먹든 네 끼를 먹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대는 깨어 있는 동안에만 음식을 먹는다. 자는 동안에는 먹지 않는다. 그런데 잠이 그대를 해탈의 길로 인도하는가? 그러므로 단지 먹지 않고 움직이지 않으면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상상이다. p231

어쩌면 마음을 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왜 그렇게나 많은 방편들이 생겨났을까? 마음을 보면 되는데 왜 잠을 안 자는가? 마음을 보면 되는데 왜 밥을 안 먹는가? 마음을 보면 되는데 왜 고행을 하는가? 마하리쉬는 모든 방법들이 다 참자아 탐구로 들어가기 위한 간접적인 방편들일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참자아 탐구가 바로 마음을 보는 것이다. 단식도, 장좌불와도, 고행도 다 마음을 보기 위한 준비운동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마음을 봐라!

spectrum

04

물처럼 흘러서

노자老子

『도덕경』(현암사. 오강남 풀이)

노자老子

(B.C. 570 추정 ~ B.C. 479 추정)

성은 이李, 이름은 이耳, 자는 담聃. 노담老聃이라고도 한다. 정확한 생존연대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사마천의『사기』에 의하면, 하남성 녹읍현에서 출생하였고 춘추시대 말기 주周에서 장서실을 관리하던 수장실사守藏室史를 지냈다고 한다. 주나라의 쇠퇴를 한탄하고 은둔할 것을 결심해 서방西方으로 떠나는 도중에 관문지기의 요청으로 상하 2편의 책을 써 주었다고 한다. 이것을『노자』또는『도덕경』이라고 부른다. 노자老子는 '늙은 스승'을 의미한다.

도덕경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천하 명편'이라는 말이 떠오른다. 읽을 때마다 경탄하게 되는 책이 바로 도덕경이다. 어쩌면 이 세상 모든 책들 중에 경전이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책이 도덕경일 것이다. 그만큼 도덕경은 진리의 밀도가 높다. 아직 도덕경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당장 사서 읽어봐라. 세상에 뭐 하러 왔는가?

도가도 비상도 道可道 非常道

이름을 붙여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도道가 아니다.

도덕경 1장

왜 진짜 도道는 '이것이다!'하고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일까? 진짜 도는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음은 나쁜 것일까? 마음은 나쁜 것이기도 하고 좋은 것이기도 하다. 근원이 옳을까, 현실이 옳을까? 근원이 옳기도 하고 현실이 옳기도 하다. 존재는 반드시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존재를 두고 '이렇다' 혹은 '저렇다'고 단언하는 것은 오답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오락가락하는 존재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오락가락하는 대로 그냥 두고 보면 된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정하지 못해서 안달일까? 담아두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마당이 너른 집에 사는 사람은 아이들이 좀 뛰어다녀도 나무라지 않는다. 공간이 충분해서 충돌이 일어날 걱정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좁은 아파트 안에서 아이들이 마구 뛰어다니면 겁이 난다. 그래서 아이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잡아두는 것이다.

의식의 용량이 충분하면 존재가 아무리 춤을 추며 돌아다녀도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의식의 그릇이 작으면 금세 혼란이 일어나서 견딜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름을 붙여서 고정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존재는 끝없이 춤을 추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붙일 수가 없다. 존재가 다리를 들었다고 하는 순간 존재는 다리를 내리고 팔을 흔들고 있고, 존재가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 순간 존재는 고개를 든 채로 엉덩이를 흔들고 있다. 때문에 존재가 지금 어떻다고 말하는 대신 '나는 지금 존재를 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존재를 이해하려면 존재가 춤을 추는 동안 그대도 같이 춤을 추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존재에 '이름'을 붙일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덕경 5장 해설
이 장에서는 많은 위인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답시고 여러 가지 정책을 내세워 사람들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달달 볶고 움직이다보니 백성들의 원성은 들끓고 인정은 야박해져 사랑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을 한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천지불인天地不仁

존재는 인자하지 않다.

이만물위추구以萬物爲芻狗

만물을 제사 때 한번 쓰고 버리는 짚인형처럼 취급한다.

天地不仁, 以萬物爲芻狗
천지불인, 이만물위추구

도덕경 5장

" 천지는 어질지 못해 만물이 풀로 엮은 강아지를 대하듯 하다 " 라는 말이다. 본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천지가 인간의 감정의 하나인 어짊의 성품이 있어서 마치 만물이 풀로 엮은 강아지를 대하듯 무관심하고 소홀하여 어질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는 당시 시대적 상황과 백성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이해해야만 자연스럽게 표면에 감춰진 진의를 파악할 수 있다 하겠다.

노자는 가만히 존재를 보면서 생각한다. 존재가 무엇이라는 건 대충 알겠다. 그렇다면 이 존재에서 인간은 대체 무엇일까?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똑같은 피조물일 뿐일까 혹은 특별한 임무를 따로 부여받은 선택된 존재일까? 가만히 따져보던 노자는 마침내 결론에 도달한다. '인간은 다른 생명들과 똑같은 재료일 뿐이다'라고. 그래서 천지불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이 위대한 인류가 설마 멸망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든 멸망하지 않

고 살아남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을까? 혹시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면 그건 착각이다. 공룡이 멸망했듯이 인류도 얼마든지 멸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설프게 도를 깨친 중생이나, 어설프게 하나님을 만난 목사들 중에는 더러 "이 시대의 중심은 대한민국이 된다는 계시를 받았다!"고 헛소리를 해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유치한 망상일 뿐이다. 인류조차도 선택받지 못했는데 한 국가나 한 단체가 무슨 수로 존재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모든 것들이 다 똑같은 재료일 뿐이다. 존재는 자기가 사용하는 재료가 인간인지 흙인지 꽃인지 빛인지 전혀 알지 못한다. 마치 그대가 밥상 위에 올라온 반찬들을 무심히 먹어치우듯 존재는 무심히 재료들을 사용할 뿐이다. 그래서 인간의 관점으로 본 존재의 모습은 전부 망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 그렇다면 나는 한낱 돌멩이 하나, 이파리 하나, 파리 한 마리, 먼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단 말인가? 나의 이 위대한 인간성과 이 총명한 지능은 아무런 의미도 없단 말인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 우주의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는 존재가 바로 그대다. 그대는 특별한 재료가 되기 위해 조바심치며 헛꿈을 꾸는 작은 인간이 아니라 이 우주를 다 사용하는 단 하나의 '존재'인 것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상선약수上善若水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도덕경 8장

물 같은 사람이 되라. 도덕경은 결국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써진 글이다.

지는 것이 결국 이기는 것이고 남을 돕는 것이 결국엔 나를 돕는 일이 된다는 걸 그대도 알고 있지만, 막상 행동을 할 땐 그게 잘 안 된다. 그대가 의식의 눈으로도 보고 마음의 눈으로도 보면서 갈등하는데 대개는 마음이 의식을 이기는 탓이다. 하지만 의식이 성장하면 의식의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마음은 여전히 움직이지만 의식을 압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매일 이를 닦고 몸을 씻듯이 마음도 좀 씻고 다녀라.

곡즉전曲則全

굽은 것이 완전하다.

도덕경 22장

쭉쭉 뻗은 곧은 나무도 있고 볼품없이 휘어진 나무도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 곧은 나무는 다 베어가 버리고 굽은 나무만 온전히 남아 있더란다. 곧아서 좋을 때가 있으면 굽어서 좋을 때도 있다. 너무 애쓸 필요 없다.

지기백 수기흑知其白 守其黑

흰 것을 알면서도 검은 것을 지킨다.

도덕경 28장

양쪽을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현실만 알고 근원을 모른다거나, 근원만 주장하고 현실을 무시한다거나, 나만을 위하고 남을 핍박하거나, 나를 버리기 위해 오로지 남에게만 매달리지 않는 것. 내가 밥을 먹어야 할 때는 내 밥

을 먹되, 남이 밥을 먹어야 할 때는 그 사람도 밥을 먹게 하고, 마음이 필요할 때는 쓰되 의식의 존재를 잊지 않는 것. 어디서 무엇과 만나든 그것이 전체의 한 부분임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바로 흰 것을 알면서도 검은 것을 지키는 것이다.

대도범혜 기가좌우 大道氾兮 其可左右

도는 흘러넘쳐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다.

도덕경 34장

노자는 지극히 큰 것을 드러내면서도 지극히 쉬운 단어들을 사용한다. 그만큼 노자의 앎이 명확하다는 뜻이다. 초보 선생들은 어려운 단어들을 동원해서 거창하게 설명하려고 하지만 노련한 선생들은 가능한 쉽게 설명하려고 한다. 알면 알수록 원리는 쉽고 익숙한 것이기 때문이다. 바다와 육지가 나눠지는 것은 바다가 육지를 다 덮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다가 넘쳐서 땅을 다 덮어버리면 세상은 '바다'라는 이름 하나로 통일된다. 물 밑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바다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대도大道도 그렇다. 대도는 모든 것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대도'다. 그대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

깨달음은 그대가 지난 수십억 년 동안 만들어서 저장하고 있는 모든 이분법들을 다 해소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대의 이분법이 그대에게는 이분법으로 안 보인다는 사실이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나누는 것은 이분법이라는 게 보이는데, 일본과 한국을 나누는 것은 이분법이라는 사실이 안 보일

때가 많다. 이분법을 열심히 찾아내서 100개도 넘게 없앴으니 이제 척 보면 이분법을 알아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뻔히 이분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왠지 버리기 싫은 것도 있고, 어떤 이유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있다. 그래서 모든 이분법들을 다 말소시키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대가 갖고 있는 이분법들은 다 그 나름의 원인으로 인해서 생겨나고 또 유지되는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이분법들을 다 없앤다는 얘기는 곧 그 이분법들과 연결돼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없앤다는 말이다. 때문에 이분법을 완전히 없애기가 그렇게나 어려운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담는 대도가 되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짐작대로 그 과정은 무척 험난하다. 대도가 넓은 만큼 그곳으로 가는 작업은 치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때문에 그대의 칼은 한없이 날카로워야만 한다. 대도를 향해 가는 작업에 쓰이는 날카로운 칼은 투명한 의식이다. '나의 의식은 얼마나 투명한가? 나의 의식은 얼마나 더 투명해질 수 있는가?'하고 부단히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 비로소 수행자가 될 수 있다.

반자도지동 反者道之動

약자도지용 弱者道之用

되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다.

약함이 도의 쓰임새다.

도덕경 40장

존재를 알고 나면 놀랄 일이 별로 없는데, 도덕경을 읽다보면 번번이 놀

라게 된다. 그것도 다시 읽으면 다시 놀라고 또 읽으면 또 새로워서 놀란다. 이 사람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앎을 이토록 정확하게 쓸 수 있었을까? 매번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도道는 이쪽에 가 닿으면 저쪽으로 돌아가고 저쪽에 도착하면 다시 이쪽을 향한다. 이쪽도 저쪽도 다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쪽이다, 저쪽이다 애써 말하는 것은 불필요한 짓이다. 모든 것이 다 '나'임을 안다면 굳이 한쪽을 고집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도道는 굳이 애쓰지 않는다. 어차피 다 내 것인데 애써 지킬 것이 무엇인가? 내 집에 있는 물건들에 굳이 내 이름을 크게 써 붙일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도道는 너그럽다. 모든 것이 영원히 내 것임을 이미 아는 까닭이다.

도생일 일생이 이생삼 삼생만물

道生一 一生二 二生三 三生萬物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고

도덕경 42장

하나가 뭐냐, 둘이 뭐냐, 셋이 뭐냐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나를 근원이라고 해도 되고 존재라고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되고, 둘을 음양이라고 해도 되고 모양이라고 해도 되고, 둘이 셋을 낳았다고 해도 되고 넷을 낳았다고 해도 되고, 셋을 천지인이라고 해도 되고 정반합이라고 해도 되고 세 가지 '구나guna'라고 해도 되고, 뭐든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없다.

위의 글에서 중요한 것은 노자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이다. 하나나 둘이나 셋에 뭘 집어넣어서 이해하느냐는 그대의 자유지만, 도道에서 만물萬物에 이

르는 '하나의 그림'을 그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대는 전혀 쓸데없는 짓을 한 것이다. 쓸데없이 개념을 개입시키지 말고 만물에서부터 도까지 거슬러 올라 가보라.

이 만물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이 우주를 운용하는 하나의 원리는 무엇일까?
그 원리를 알고 싶어 하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노자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어떤 그림이 들어 있었을까? 제대로 된 숨바꼭질을 하자면 무대가 적어도 우주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유입무간無有入無間

'없음'은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갈 수 있다.

도덕경 43장

한글로 읽으면 별 뜻이 아닌 것 같은데도 한자로 읽으면 뜻이 새로운 것은,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한자가 우리에게 덜 익숙한 탓이다. 익숙하다는 것은 곧 무의식으로 상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굳이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익숙지 않은 것이 나타나면 일단 의식이 동원된다. 그래서 익숙한 것을 대할 때보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거기에다 한글은 표음문자인데 반해 한자는 표의문자다. 한글은 글자 자체는 고유의 뜻이 없는 반면 한자는 글자 자체가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글자를 읽는 맛이 다를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한자는 대부분이 상형문자라서 회화성(그림)이 뛰

어나다. 그래서 한자를 읽는 행위에는 그림을 감상하는 느낌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고, 그 때문에 한문 원문을 읽는 맛과 한글 번역본을 보는 느낌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벽에 문이 있으면 그 문을 열고 지나가면 된다. 그런데 만약 문이 없다면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정상적으로는 벽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대가 모르는 마술 같은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벽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던 그대의 '나'가 사라지는 순간 모든 것이 '나'가 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그저 어떻게든 이 몸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야한다고 믿고 있던 그대가 그 믿음을 포기하는 순간, 그대가 모든 곳에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굳이 벽을 지날 필요도 없고 저쪽으로 건너갈 필요도 없어지는 것이다. 결국 그대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는 셈이다. 그대의 '나'를 없앨 수 있다는 것과 그대가 사라지는 순간 그대가 전부가 된다는 것을. 그대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은 사실은 아무 것도 없다. 그대가 스스로 자신을 묶어놓고 있을 뿐이다.

지족지족 상족의 知足之足 常足矣

족함을 아는 만족이 영원한 만족이다.

도덕경 46장

어떤 바보가 사는 집에 지붕이 새서 천정에서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바보는 물이 떨어지는 곳에 그릇을 갖다놓고 물을 받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릇이 너무 작아서 자주 내다 버려야 하는 것이 귀찮아진 바보는 큰 그릇으

로 물을 받으면서 무척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래도 혹시 통에 물이 넘칠까봐 불안했던 바보는 궁리 끝에 파이프를 연결해서 물을 밖으로 빼내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파이프를 연결하고 나니 물을 퍼낼 필요가 없어서 편해졌지만 오다가다 파이프에 부딪히는 게 문제였다.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던 바보는 파이프를 최대한 천정에 가깝게 설치하면 된다는 걸 알아내고는 하늘을 날아갈듯이 기뻐했다. 그래서 파이프를 다시 설치하기 위해 사다리를 올라가던 바보는 문득! '오, 이런…이런. 물을 받아낼 궁리를 할 게 아니라 아예 지붕을 수리해버리면 되잖아!'하고 깨달았다.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해 끝없이 쫓아다니기 보다는 마음이 만족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내서 마음을 수리해 버리면 더 이상 마음에게 시중들 필요가 없어진다. 왜 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가?

불출호 지천하 不出戶 知天下

집 밖을 나가지 않고도 천하를 안다.

기출미원 기지미소 其出彌遠 其知彌少

멀리 나갈수록 적게 알게 된다.

도덕경 47장

과연 도덕경은 한문으로 읽어야 제맛이다. 보는 순간 말이 딱 끊어지지 않는가?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조금 알게 된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다. 손바닥만 한 기계 하나로 온 세상의 정보를 다 접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점점 더 눈이 멀어가는

시대….

미술에 대한 정보, 음악에 대한 정보, 건축에 대한 정보, 요리에 대한 정보, 여행에 관한 정보, 휴대폰에 관한 정보, 휴대폰 요금에 관한 정보, 약간 싼 휴대폰 요금에 관한 정보, 어제보다 조금 더 싼 휴대폰 요금에 관한 정보, 하루 만에 또 달라진 휴대폰 요금에 관한 정보, 어쨌든 제일 싼 휴대폰 요금에 관한 정보를 찾아주는 정보…. 오, 하느님. 머리 나쁜 사람은 어떻게 살라고.

정보와 상대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대는 더 바보가 된다.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정보를 줄이고 고요함과 만나라. 그대는 이 우주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미 다 가지고 있다.

위무위 사무사 爲無爲, 事無事

함이 없이 하라.

도덕경 63장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꼭 공연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가수들의 즐기는 마음이 보기 좋아서다. 가수들은 한편으론 '등수가 좀 올라가야 되는데…'하고 걱정하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색깔을 포기하지 않는다. 반응이 덜할 거라는 걸 짐작하면서도 이익보다는 굳이 음악을 택하곤 한다. 언젠가 윤도현이 공연을 시작하면서 외치던 소리가 기억이 난다. "괜찮아. 꼴찌해도 돼. 즐겨!" 그게 바로 위무위 사무사 爲無爲, 事無事다. 무위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되어져야할 바를 따라가는 것

이다.

음악은 즐겨야 한다는 것,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
약한 사람도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마음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

무위가 유위有爲로 타락하는 것은 '되어져야할 바'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익은 왜 필요한 것인가? 결국 그 이익으로 기쁨을 얻기 위함이 아닌가? 그렇다면 굳이 이익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기쁨을 얻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 아닐까? '위무위 사무사'란, 일이 마땅히 되어져야할 바를 살펴서 그것을 이익보다 우선해야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얘기다.

인지생야유약 기사야견강 人之生也柔弱 其死也堅强

사람이 살아 있을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뻣뻣해지고 딱딱해진다.

도덕경 76장

재미있는 얘기 아닌가? 사람도 그렇고 다른 생명체도 그렇고 살아 있을 때는 말랑말랑하다.

그런데 죽으면 딱딱해진다. 살아 있는 명태는 몽둥이로 쓸 수 없지만 죽은 명태는 무기로 쓸 수 있을 만큼 단단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딱딱하고 강한 것일수록 죽음에 가깝다는 뜻이 아닐까? 딱딱하고 강한 것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이 아닐까? 실제로 그렇다. 노자는 지금 추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대가 지금 춤추고 있다면 아직 죽음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지금 그대의 몸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머지않아 그대의 몸과 마음이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질 거라는 것을, 즉 곧 죽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좋다.

신언불미 미언불신 信言不美 美言不信

믿음직한 말은 듣기에 아름답지 않다.

도덕경 81장

"여러분 우리는 왜 성공하면 안 됩니까? 성공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찾아서 배우고 매일 매일 '나는 이미 성공했다!'고 외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성공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긍정적인 것을 끌어당깁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도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딱 3일만 체험해 보세요. 우리 프로그램은 당신을 확실하게 바꿔놓을 것입니다. 일주일이면 견성하고 한 달 만에 무조건 깨닫습니다. 스승이 따로 있습니까? 여러분도 딱 한 달만 투자하면 의식의 눈을 크게 떠서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기 주입 시술'을 세 번만(한 번 시술에 500만원) 받으면 그 어떤 사람도 곧바로 깨달아서 대자유인이 됩니다. 우리 모두 얼른 깨달아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달콤한 말로 그대를 쫓아다니며 구걸하는 멤버들은 다 쓰레기다. 그대가 깨달으려면 그대가 고생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spectrum

05

세상을 다 받아들이다

공자 孔子

『논어論語』
(삼성출판사. 한상갑 역/ 을유문화사. 박종연 역)

공자孔子

(BC 551 ~ BC 479)

노魯나라에서 태어났다. 이름은 구丘, 자字는 중니仲尼이다. 부친을 일찍 잃어 궁핍한 생활을 했으며, 장성하여 계季씨 가문 창고지기와 가축을 사육하는 일을 하기도 했다. 주나라 관제와 예법을 꾸준히 공부하면서 예禮 전문가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으며, 30세부터 제자들을 받아 가르치기 시작했다. 노나라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제나라로 갔으나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하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왔다. 이후 사공司空 벼슬과 대사구大司寇 벼슬을 지내기도 했다. 노나라에서도 뜻을 펴지 못한 공자는 1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를 떠나 약 12년간 천하를 떠돌다가 기원전 484년 노나라로 돌아왔다. 이 때 공자의 나이 68살이었다. 이후 공자는 노나라의 악樂을 정비하고 제자를 가르치며 문헌을 정리하는 데 전념했다. 『논어』는 그의 언행을 기록한 책이다.

흔히들 붓다(깨달은 사람)를 얘기할 때 공자는 잘 언급하지 않는데, 내가 보기엔 공자만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 삶과 죽음을 두루 통달한 사람이 붓다가 아니라면 누가 붓다란 말인가? 불교 쪽에서 보기엔 공자가 그저 '삶의 스승' 정도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수행을 통해서 공자처럼 되려면 갈 길이 멀고도 멀기 때문이다. 공자는 석가모니나 노자와 견주어도 하등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깨달음이 어찌 투명함에만 있겠는가? 세상을 다 받아들이고도 흔적이 없으니 참으로 아름답지 않은가?

공자는 누구인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느냐?

벗이 있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느냐?

사람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성내지 아니하면

그 또한 군자가 아니겠느냐?"

子曰자왈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면 不亦說乎불역열호아?

有朋유붕이 自遠方來자원방래면 不亦樂乎불역락호아?

人不知而不慍인부지이불온이면 不亦君子乎불역군자호아?

학이學而 제1-1

논어의 이 첫 구절에서 공자가 어떤 사람인지가 잘 드러난다. 먼저 공자

는 배우고 익혀서 완전해지고자 하는 사람이다. 공자는 골방에 앉아서 마음을 비우고 또 비워서 고요해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 모든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물어 배우고 그 배운 것을 익혀서 내 것으로 만들고, 그리하여 내가 더욱 나아지고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공자는 누구를 만나든 아무런 편견 없이 그 사람에게 가르침을 청한다. 때문에 공자가 위대한 선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무엇에서든 그 누구에게서든,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공자가 가장 겸손했기 때문에 공자가 가장 완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울러 공자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공자는 이 세상을 가짜로 보지 않는다. 공자에게는 이 세상이 유일한 진짜이기 때문에 공자는 이 세상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쏟아 붓는다. 공자는 끝없이 배워서 완전해지기를 원했던 동시에 이 세상과 함께 모두가 완전해지기를 꿈꾸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자의 기준은 명확하게 자신에게 있다. 공자는 비록 마음을 다해 세상을 사랑하지만, 그 자신은 이미 '자족함'에 도달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세상과 교류하되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어찌 '완전하다' 하지 않겠는가?

깨달음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깨달음의 모양도 고정된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 앎을 실천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곧 깨달은 사람이다. 공자는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깨달음의 새로운 유형을 선보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다. '완전한 삶'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깨달음은 어떤 모습일까?

수동과 능동

자공이 말하기를

“가난하여도 아첨하지 않으며, 부유하지만 교만하지 않으면 어떠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으나, 가난하되 즐기며,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하는 자만 못할 것이다.”

子貢曰자공왈

貧而無諂빈이무첨하며 富而無驕부이무교하면 何如하여하니잇고?

子曰자왈 可也가야나 未若貧而樂미약빈이락하며 富而好禮者也부이호례자야라

학이學而 제1-15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어디까지 아는 사람인지를 어렵지 않게 가려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위의 글에 잘 드러나 있다. 위의 글에서 자공의 말은 수동성을 내포하고 있다. 가난해서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첨으로 비굴하게 밥을 구하지는 않는다. 부유한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지만 굳이 드러내지는 않는다는 내용이다. 자공은 아직 완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짐작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하고 물어보는 것이다. 하지만 아첨하고 싶은 마음, 교만해지고 싶은 마음을 숨기고 억누르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자공의 물음은 핵심에 닿지 못한다.

하지만 공자의 대답을 보라. “가난하되 즐기며, 부유하지만 예를 좋아한다.” 이 상황에는 폭탄이 전혀 숨겨져 있지 않다. 이미 안정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올 여지가 없다. 이것이 짐작하는 사람과 아는 사람의 차이다.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말을 뱉었을 때 그대로 상황이 종결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는 사람과 짐작하는 사람을 가려내기가 어렵지 않은 것이다.

느낌대로 살아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시경詩經 삼백 편의 뜻을 한 말로 다한다면 생각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思無邪)."

子曰자왈 詩三百시삼백을 一言以蔽之일언이폐지하니 曰왈 思無邪사무사니라

위정爲政 제2-2

유명한 '사무사' 편이다. 간사한 것은 무엇일까? 간사한 것이 바로 마음이고 생각이다. 그래서 '사무사思無邪'는 곧 '사무사思無思'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꼬마아이가 뛰어가다가 넘어졌다. 이때 첫 느낌은 무엇일까? 얼른 다가가서 일으켜 세워서 달래주면 그걸로 끝이다. 그런데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마음이 끼어든다.

'내 옷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유괴범으로 오인 받지는 않을까?'

'아이가 오히려 덤벼들지는 않을까?'

…

'쌤통이다. 못생긴 놈아.'

친구한테 빌린 돈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고마울 때가?' 하지만 생각은 인정사정이 없다. '이 자식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여유가 좀 있는 모양인데 돈을 좀 더 빌려달라고 해볼까?' '이참에 더 이익을 보는 방법은 없나?' '은행

빗도 탕감 받으면 정말 행복할 텐데….' 사무사思無邪는 곧 본성本性의 느낌을 살려내서, 생각보다는 느낌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순수한 느낌을 앞세워서 살아야 행복해진다.

엄격함은 자기 자신에게 쓰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으로 아는 것이다."

子曰자왈 由유야! 誨女知之乎회여지지호인저!

知之爲知之지지위지지요 不知爲不知부지위부지가 是知也시지야니라

위정爲政 제2-17

모름지기 앎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고 냉정해야 한다. 나 혼자 판단하는 것이니까 아전인수 격으로 대충 봐주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대충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남을 대할 때 사용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덕德이다. 남의 잘못을 곧이곧대로 되받아치면 마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새끼를 치게 된다. 그래서 흔히 말 한마디로 시작한 시비가 살인으로 귀결되곤 하는 것이다. 남을 대할 때는 계산이 아닌 덕과 용서로 대해야 마음의 장난을 피해갈 수 있다. 자신에게는 너그럽고 남한테는 매정한 사람은 결코 수행자가 될 수 없다. 공자처럼, 세상의 매정함은 다 감수하되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엄격해야 비로소 수행자도 되고, 군자도 된다.

먼저 마음이 맑아야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질지 아니하면 예禮를 해서 무엇 하며, 사람이 어질지 아니하면

악樂은 해서 무엇 할 것이냐?"

子曰자왈 人而不仁인이불인이면 如禮何여례하리오?

人而不仁인이불인이면 如樂何여악하리오?

팔일八佾 제3-3

깨달은 놈들이 하는 말은 사실은 다 똑같다. 마음이 먼저 맑지 못하면 음악도 소용이 없고, 예절도 소용이 없고, 명상도 소용이 없고, 수행도 소용이 없다. 뜻이 맑지 못한데 작업 결과가 맑을 리가 없지 않은가? 깨달음은 곧 맑아지는 것이다. 그래서 먼저 '나의 뜻이 맑은가?'하고 점검해 보아야한다.

모양이 아니라 마음이다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크도다. 물음이여, 예는 그 사치함보다는 차라리 검소한 것이 더 낫고,

상은 그 상례의 예법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더 낫다."

林放임방이 問禮之本문례지본한대

子曰자왈 大哉대재라 問문이여

禮예는 與其奢也여기사야론 寧儉영검이오

喪상은 與其易也여기이야론 寧戚영척이니라

팔일八佾 제3-4

유교는 형식과 허례허식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공자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탓이다. 위에 인용한 글에 분명하게 나와 있다시피 공자는, 예의는 갖추되 형식은 검소하게 하고, 상을 치를 때는 형식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공자는 "다만 마음을 다할 뿐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산 사람에게든 죽은 사람에게든 마음을 다하는 것이 곧 예禮다. 마음을 봐라. 마음을.

도道는 목적을 주로 하지 않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활을 쏘는 데 과녁을 주로 하지 않는다하는 것은 힘이 동등하지 않은 것을 말함이니, 예전의 활 쏘는 도道였다."

子曰자왈 射不主皮사부주피는 爲力不同科위력부동과니 古之道也고지도야니라

팔일八佾 제3-16

과녁을 주로 하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과녁에 잘 맞히느냐를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칫 화살의 명중률을 우선하면 힘이 약한 사람은 불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누가 잘 맞히느냐를 따지지 않고 그저 활을 쏘는 것만을 즐겼다는 얘기다.

지금은 경쟁시대다. 강한 놈이 살아남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

다. 그렇다면 약한 놈은 그저 죽어도 상관없는 것일까? 시대를 경쟁 없는 시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적어도 경쟁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라도 있어야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가 할 일이고 도道가 할 일이다. 그대의 몸의 일부가 죽어서 썩으면 그대는 무사할 것 같은가? 약자라고 마냥 도태되는 사회가 건강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극악한 범죄가 왜 끝없이 발생하는 것일까? 구석에 몰린 쥐가 고양이에게 덤빈다고 나무랄 참인가? 바야흐로 시대는 '목적의 시대'의 절정을 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을 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로 순위를 매기지 않는 집단, 즉 사랑의 집단이 지금 있어야 하는 것이다.

공자가 바라는 세상

공자께서 노나라 태사에게 음악을 말씀하시기를

"음악은 알아야 할 것이니, 처음에 시작할 적에 모든 가락을 잘 합하고,

내어서는 잘 조화가 되는 가운데 각개의 음이 분명하며,

계속 하여져서 좋은 악곡이 이루어지게 된다."

子語魯大師樂자어노태사악 曰왈 樂其可知也악기가지야니라

始作시작에 翕如也흡여야하여

從之종지에 純如也순여야하며 皦如也교여야하며

繹如也역여야하여 以成이성이니라

팔일八佾 제3-23

공자는 지금 음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직

한 그림을 음악을 빌어서 얘기하고 있다. '원래는 하나이니, 차차 개인의 개성이 뚜렷이 드러나되 잘 조화되어 나가야한다.' 이게 공자의 마음속에 있는 바람직한 그림이다. 그렇다면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예禮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의 처지를 살피는, 남을 위한 마음 씀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필수 요건인 것이다. 예는 인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개를 보면 개의 입장이 되고, 나무를 보면 나무의 입장이 되고, 약자를 보면 약자의 입장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예가 바로 사랑이다.

마음 없이 하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어진 자라야 능히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을 것이다."

子曰자왈 唯仁者유인자아 能好人능호인하며 能惡人능오인이니라

이인里仁 제4-3

공자의 이 말은 행위에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사람을 좋아하느냐 미워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좋아하고 미워함의 계기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나쁜 짓이다'라고 자기최면을 걸면서 견디는 건 어리석은 짓이다. 중요한 건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이다. 어진 자는 좋아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되, 다만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한테 이익이 되니까 좋아하고 손해가 되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따르는 사람을 좋아하고, 본성을 거스르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지만 마음을 좇아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악한 자를 후려치되, 그 악한 자가 돌이켜 자기 본성을 보게 하기 위해서 후려칠 뿐이다. 좋아하든 미워하든 마음 없이 하라. 그게 공자가 하고 싶은 말이다.

목숨을 걸어야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침에 도道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더라도 가한 것이다."

子曰자왈 朝聞道조문도면 夕死석사라도 可矣가의니라

이인里仁 제4-8

여기서 죽음은 그냥 관념적인 죽음이나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몸이 죽는 것을 말한다. 공자가 인仁을 말하고, 예禮를 말하고, 효孝를 말하니까 공자의 뜻이 자칫 부드럽고 무난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보다시피 공자는 앎에 목숨을 걸고 있다. 각자가 알아낸 것을 풀어서 세상에 펴는 모양이 다 다를 뿐, 석가모니든 예수든 공자든 노자든, 모든 깨달음은 다 목숨을 건 수행으로 얻은 것이다. 죽음 직전까지 갈 용기가 아직 없다면 일단 물러서라.

하나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삼아! 나의 도는 하나로써 꿰었느니라."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옳습니다."

子曰자왈 參乎삼호아 吾道오도는 一以貫之일이관지니라

曾子曰증자왈 唯유라

이인里仁 제4-15

子曰, 吾道 一以貫之. 깨달은 놈들은 예외 없이 '하나'를 말한다. 눈을 뜨면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뿐이라서 그렇다. 누구라도 뉴욕에 가면 자유의 여신상을 보고, 누구라도 남산에 올라가면 남산타워를 본다. 거기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자가 석가모니나 예수와는 다른 선생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다면, 그런 오해는 얼른 버리는 게 좋다.

앎은 단호하다

공자께서 공야장에게 이르시기를

"아내를 삼을 만하다. 비록 옥중에 있었으나 그 죄가 아니다." 하시고

자기의 딸로써 그의 아내를 삼게 하시었다.

子謂公冶長자위공야장하시되 可妻也가처야로다

雖在縲絏之中수재류설지중이나 非其罪也비기죄야라 하시고

以其子이기자로 妻之처지하시다

공야장公冶長 제5-1

공자가 전과자를 기꺼이 사위로 맞았다는 얘기다. 그대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흑인을 사위로 맞을 수 있겠는가? 동남아 노동자를 사위로 맞을 수 있는가? 개인의 편견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한번에 다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다. 설령 깨달은 사람일지라도 막상 목전에 당해보기 전에는 자기도 알 수 없는 편견도 남아 있게 마련이다. 오로지 투명해지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닌데 그깟 편견이나 기호가 좀 남아 있다고 한들 무슨 상관이겠는가? 다만 그것을 만났을 때 냉정하게 보고 단호하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불교적 수행에서는 이런 마음의 문제들을 참선을 통해서 단번에 다 무너뜨리려고 시도한다. 하지만 유교적 수행은 '삶가는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알아차리고 조금씩 지워나간다. 어느 쪽이든 성향에 맞게 선택해서 닦아나가면 된다.

사랑, 사랑, 사랑

자로가 말하기를

"원컨대 선생의 뜻을 듣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늙은 자를 편안하게 하며, 벗을 미덥게 사귀고, 어린이를 은혜롭게 하고 싶다."

子路曰자로왈 願聞子之志원문자지지하노이다

子曰자왈 老者安之노자안지하며 朋友信之붕우신지하며 少者懷之소자회지니라

공야장公冶長 제5-26

이게 공자가 살면서 하고 싶은 것들이다. 늙은 자를 사랑하고, 벗을 사랑하고,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 공자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될까?' 어찌 군자라 하지 않겠는가?

공자의 성향

자공이 말하기를

"아름다운 옥이 여기에 있다면 함 속에 감추어 두겠습니까?

좋은 값을 받고 팔겠습니까?"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팔아야지, 팔아야지, 그러나 앉아서 사갈 사람을 기다리겠다."

子貢曰자공왈 有美玉於斯유미옥어사하니 韞匵而藏諸온독이장저있가?

求善賈而沽諸구선고이고저있가?

子曰자왈 沽之哉고지재 沽之哉고지재인저 我待賈者也아대고자야로라

자한自罕 제9-13

공자의 마인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화 한 대목이다. 공자는 좋은 것은 필히 사용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 대목에 대해서 석가모니는 "좋고 나쁘고 할 것이 없다"고 말할 것이고, 노자는 "좋은 것이 있어 좋으니 그걸로 족하다"고 말할 것이다. 반면, 공자는 좋은 것이 있으니 널리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자는 좋은 것을 꼭 써야한다는 생각은 없다. 쓸 수 있으면 좋지만 못써도 그만인 것이다. 석가모니와 노자와 공자가 각기 그

성향이 다 다르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없다'는 원칙만은 공유하고 있다. 그것은 세 사람이 공히 존재에는 기준점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공자의 철학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자는 혹하지 아니하고, 어진 자는 근심하지 아니하며,
용맹한 자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子曰자왈 知者不惑지자불혹하고 仁者不憂인자불우하고 勇者不懼용자불구니라

자한子罕 제9-29

이는 곧 혹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혜로운 자는 왜 혹하지 않는가? 이쪽저쪽이 결국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혹하지 않는다. 이쪽에서 저쪽을 보고 혹하는 것은, 저쪽이 이쪽보다 낫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험과 이해를 통해서 결국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쪽저쪽으로 옮겨 다닐 이유가 없어진다. 인자仁者는 왜 근심하지 않는가? 인자는 곧 멈추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을 내지 않는 사람이다. 내가 이미 움직임을 떠나 있고 무엇이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게 올까?'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아울러 인자는 마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되돌아올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인자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건 내가 어쩔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일어날 일이야 어차피 일어날 테

지만 적어도 내가 돌려받아야 할 마음의 빚은 없다. 그래서 인자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것이다.

만약 이 대목을 석가모니나 노자가 말했다면 여기서 끝나고 '용맹'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인데, 용맹이 여기에 포함된 것은 공자가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임금들을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훈수를 하고 다니노라면 좋아하는 놈도 있겠지만 분명히 싫어하는 놈도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공자가 용기를 집어넣은 것이다.

두려움은 결국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공자가 말하는 용맹한 자는, 살고 죽는 일이 하늘의 소관임을 아는 사람이다. 이쪽과 저쪽이 같음을 아는 것이 지혜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 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생사가 하늘에 달렸음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 공자는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공자의 위빠사나

서실 때 문 가운데 서지 아니하시고,

행하실 때에는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셨다.

立不中門입불중문하시며 行不履閾행불리역하셨다

향당鄕黨 제10-4

문 가운데 서지 않으려면 우선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

다. 다니면서 문지방을 밟지 않으려면 자기가 가는 길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늘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위빠사나는 내가 설거지를 할 때 수세미를 어떻게 잡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TV 리모콘을 어떻게 누르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고, 밥 먹을 때는 어떤 습관이 있고 화장실에서는 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늘 알고 있는 것이다. 위빠사나는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있다.

'나'라는 기준이 사라지면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안회는 나를 돕는 자가 아니다. 나의 말에 기뻐하지 않는 바가 없구나."

子曰자왈 回也회야는 非助我者也비조아자야로다

於吾言어오언에 無所不說무소불열이온여

선진先進 제11-4

달콤한 말과 바른 말조차 구분하지 못해서야 어찌 깨어 있는 사람이라 하겠는가? 비록 남의 재주라도 그것이 잘 쓰일 때 즐거운 것이고, 비록 나의 잘못이라도 그것이 때맞춰 드러날 때 시원한 법이다. 물론 기준점이 사라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고 하니, 만일 혹 너를 알아주면 어찌 하겠느냐?"

…

"점아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하니, 비파 타기를 잠깐 중단하고,

한 번 소리를 굵게 내고

놓으며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세 사람이 갖추어 아뢴 것과는 다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관계있겠느냐? 또한 각각 그 뜻을 말한 것이다."

말하기를

"저문 봄에 봄옷이 이미 이루어지면 관을 한 자 오륙 인과 동자 육칠 인으로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대에서 바람 쐬고 (시를) 읊고 돌아오리이다."하니

부자께서 위연히 탄식하며 말씀하시기를

"나는 점의 뜻에 찬성한다."

선진先進 제11-26

공자의 질문에 다른 제자들은 "삼년 안에 백성을 용맹스럽게 만들겠다", "백성이 족하게 하겠다", "종묘의 일을 돕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유독 점點(증점)이란 놈이 "저는 일단 자연을 좀 즐기고 싶습니다"고 대답한다. 그러자 공자가 감탄하면서 "나도 그러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꽃도 좀 보고, 바람도 좀 느끼고, 물소리도 좀 들어보고…. 그런 게 사는 즐거움 아닌가? 일없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다.

나를 이기고 예禮로 돌아간다

안연이 인仁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몸(나)을 이기고 예에 돌아가는 것이 인을 하는 것이니,

하루 몸을 이겨서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돌아올 것이다.

인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있는 것이니 어찌 남에게 의지할 것이냐?”

顔淵안연이 問仁문인한대 子曰자왈 克己復禮극기복례가 爲仁위인이니

一日克其復禮일일극기복례면 天下천하가 歸仁焉귀인언하리라

爲仁위인이 由己유기니 而由人乎哉이유인호재아?

안연顔淵 제12-1

공자가 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우선 나를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공자가 이기라고 한 ‘나’는 결국 ‘내 몸과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을 뜻한다. 그렇다면 내 몸과 마음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한 걸 이기라고 말하는가? 그것이 착각이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본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본성에 다가가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문제다. 아예 돌아갈 수 없다면 차라리 문제가 없다. 그래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없는 동물들은 깨달음의 문제가 아예 존재하질 않는다. 그런데 유독 인간은 지옥까지 타락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때, 그 대가로 신이 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받았다. 때문에 이 신이 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차라리 예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예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들이 끝없이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 깨달음의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것이다.

두 사람이 빵을 하나씩 갖고 있다. 그리하여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빵을 먹었다. 이게 '본능'이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멍청한 놈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빵을 다른 놈에게 줘버렸다. 그러자 예상치 못하게 빵을 받은 놈이 기분이 좋아서 웃기 시작했고, 그 웃는 모습을 보자 빵을 준 놈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때, 빵을 받고 좋아하던 놈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빵을 빵 없는 놈에게 내밀었다. 그러자 빵이 없다가 다시 생긴 놈이 기분이 좋아져서 크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에 빵을 준 놈도 또 기분이 좋아졌다.

자, 소비된 빵은 어차피 두 개 뿐이다. 각자 자기 빵을 먹어도 빵이 두 개가 소비되고, 자기 빵을 남에게 주고 남이 내게 준 빵을 먹어도 빵 두 개가 소비되는 건 똑같다. 그런데 왜 빵을 남에게 줬을 때 훨씬 많은 즐거움이 생겨나는가? 이게 바로 '본능'과 '본성'의 문제다. 어떤 놈이 본능보다 본성이 훨씬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친김에 본능이 원래상태가 아니라 본성이 원래상태라는 것도 알아내 버린 것이다. 예로 돌아간다는 것은 곧 사랑의 본성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길을 나의 몸과 마음과 본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나'를 이겨야한다는 뜻이다.

공자는 이어서 '잠깐 나를 이기면 천하가 인仁에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는데, 작은 것이 변하면 큰 것도 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대의 작은 착각을 수정하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나라의 정치를 탓할 것이 아니라, 잠깐씩이라도 나의 마음을 봐야하는 것이다. 공자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대도 색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남의 색안경을 탓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남의 색안경은 일단 미뤄두고라도 그대의 안경부터 바꿔야하지 않는가? 그래야 남의 색안경 색깔을 그대가 제대로 보고 있는지 알 것 아닌가? 파란 색안경을 쓴 사람에게 '빨간 색안경을 벗어라!'고 소리칠 참인가?

그대를 봐라. 그대의 작은 마음을 봐라. 본능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그대의 본성을 봐라. 그대가 바로 사랑이다.

생사를 벗어났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을 때는 그가 살기를 바라고, 싫을 때는 죽기를 바란다.

이미 그가 살기를 바라다가 또 죽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미혹이다."

子曰자왈 愛之애지란 欲其生욕기생하고 惡之오지란 欲其死욕기사하나니라

旣欲其生기욕기생이요 又欲其死우욕기사가 是惑也시혹야니라

안연顔淵 제12-10

공자가 충을 말하고 예를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배움을 말하니까, 얼핏 공자가 생활에 매여 있는 듯이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보다시피 공자는 생사를 훌쩍 벗어나 있다. 깨달았다고 해서 삶을 떠나야 한다는 법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다. 이 우주 전부가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공자께서 위나라에서 경쇠를 치시는데 삼태기를 지고 공씨의 문을 지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마음이 있구나, 경쇠를 침이여!"

얼마 있다가 말하기를

"비루하다, 고집스런 소리여. 자기를 알아줄 사람이 없으면 말 따름이니 깊으면 옷을 벗지 않고 건너고, 얕으면 걷고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잊고 사는 것이 과감하나 그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헌문憲問 제14-39

삼태기를 메고 가던 어떤 영감이 공자를 겨냥해서, "그냥 되는 대로 두면 될 것을 그렇게 애쓰는 걸 보니 비루하게 세상에 매여서 헤어나질 못하는구나!"하고 나무라자, 공자가 "과감하구나!"라고 말하는 대목이다. 과감하다는 말은 쉽게 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누구나 하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과감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공자의 과감하다는 말에는, 힘든 결정을 어렵사리 했다고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공자는 과감하다고 평가했지 좋다고 하지는 않았다. 만약 삼태기 영감의 뜻이 공자의 뜻에도 맞았다면 공자는 "좋구나善哉!"라고 말했을 것이다. 공자는 삼태기 영감이 말하는 뜻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 뜻을 따를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함이 없이 잘 다스리는 자無爲而治者는 순임금이시다. 무슨 일을 하시리오. 몸을 공손히 하여 임금 자리에 계실 따름이시었다."

위령공衛靈公 제15-5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공자도 무위無爲가 최선이라는 건 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마냥 내버려두는 건 너무 막연하다는 게 공자의 판단이다. 얼마든지 가르쳐서 바르게 할 수 있는데 왜 내버려둔단 말인가? 내가 비록 생사를 벗어났지만 내 몸이 살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 가르쳐서 바르게 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마냥 나 몰라라 하면 다 된 것인가? 마냥 나 몰라라 하면 문제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을 테지. 공자가 현실을 택한 것은 무위를 몰라서가 아니다. 존재는 '투명한 무위無爲'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유위有爲'이기도 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생을 두고 해야 할 것은

자공이 묻기를
"한마디 말로 종신토록 행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하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용서이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 일이다."

子貢자공이 問曰문왈 有一言而可以終身行之者乎유일언이가이종신행지자호잇가?

子曰자왈 其恕乎기서호인저 己所不欲기소불욕을 勿施於人물시어인이니라

위령공衛靈公 제15-24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누가 예수이고 누가 공자인가?

누가 공자이고 누가 예수인가?

어질 인仁 혹은 길 도道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짐에 직면해서는 스승에게도 양보하지 아니할 것이다."

子曰자왈 當仁당인하여는 不讓於師불양어사니라

위령공衛靈公 제15-36

어짐은 스승도 넘어서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뜻있는 선비와 어진 사람은 삶을 구하여 어진 것을 해하는 일이 없으며,

그 몸을 죽여서 어진 것을 이루는 것이다."

子曰자왈 志士仁人지사인인은

無求生以害仁무구생이해인이요 有殺身以成仁유살신이성인이니라

위령공衛靈公 제15-9

어짐은 생사도 넘어서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에게 인仁이라는 것이 물과 불보다 더 필요한 것이니

물과 불에 들어갔다가 죽는 것은 보았으나,

인덕을 실천하다가 죽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子曰자왈 民之於仁也민지어인야에 甚於水火심어수화하니라

水火수화는 吾見蹈而死者矣오견도이사자의어니와

未見蹈仁而死者也미견도인이사자야로다

위령공衛靈公 제15-35

보다시피 어짐은 자연마저 넘어서 있다. 그렇다면 어짐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모든 것을 넘어서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모든 것 뒤에 있는 것이 바로 도道다. 어짐이 바로 도인 것이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와 어울릴만한 것은 어짐이 아니라 의義가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아무래도 어짐보다는 의가 더 근원적인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맹자에게 있어서는 '의'가 '도'가 된다.

그렇다면 인과 의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인은 개인의 본성의 어짐이고, 의는 모두를 위한 어짐이다. 인은 한사람을 설정해도 성립하지만, 의는 한 사람만 있을 때는 있을 필요가 없는 개념인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인과 의 중에서 공자는 인을 근원으로 선택했다. 즉 공자는 개인의 본성을 닦아 드러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공자는 존재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석가모니와 정반대편에 서 있다. 하지만 공자의 성향을 보면, 개인을 공략해서 개인을 바꿔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수행 성향에 있어서는 석가모니와 완전히 뜻을 같이하는 것이

다. 다만 그 쓰는 방법이 다를 뿐 두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 똑같은 것이라서 그렇다.

공자의 선禪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공이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만일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희들은 무엇으로 도를 진술하리이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 사시四時가 행하고 백물이 생성하니 하늘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

子曰자왈 予欲無言여욕무언하노라

子貢曰자공왈 子如不言자여불언이시면 則小子즉소자가 何述焉하술언이리잇고?

子曰자왈 天何言哉천하언재시리오?

四時行焉사시행언하며 百物生焉백물생언하나니 天何言哉천하언재시리오?

양화陽貨 제17-19

공자가 어찌 선禪을 모르겠는가? 선禪이 공자를 모른다면 몰라도.

spectrum

06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석가모니

『수능엄경』(인터넷)

고타마 싯다르타

(BC 563? ~ BC 483?)

고대 인도(지금의 네팔)의 가비라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 본래의 성은 고타마Gautama, 이름은 싯다르타Siddhārtha인데, 후에 깨달음을 얻어 붓다라 불리게 되었다. 29세에 출가하여 수행하였고, 35세에 깨달음을 얻었다. 진리의 체현자라는 의미의 여래如來, 존칭으로서 세존, 석존, 석가모니, 석가문, 부처님 등으로 불린다. 석가는 샤카라는 민족의 명칭을 한자로 발음한 것이고 모니muni는 성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석가모니라 함은 본래는 '석가족族 또는 샤카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이다.

석가모니. 말이 필요 없는 수행의 스승이다.

아름다운 석가모니

"만약 네가 분별하고 깨닫고 관찰하여 분명하게 아는 성품을 고집하여 반드시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마땅히 온갖 색깔과 소리와 향기와 맛의 접촉과 법 등 모든 상대되는 대상을 여의고서도(잃어버리고서도) 따로 온전한 성품이 있겠느냐? 마치 네가 지금 나의 법문을 듣는 것도 이것이 소리로 인하여 분별함이 있는 것이니 비록 일체의 보고 듣고 깨닫고 아는 것을 없애고 안으로 그윽히 한가함을 지키더라도 오히려 법진法塵을 상대로 한 분별하는 그림자가 되나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마음이 아니라고 고집하라는 것은 아니다.

다만 네가 마음에 대하여 세밀하고 자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이다. 만약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여의고도 분별하는 심성이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너의 마음이겠지만, 만약 분별하는 심성이 앞에 나타난 대상을 여의고서는 실체가 없다면 이는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분별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런데 앞에 나타나는 대상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만약 변하여 없어질 때에는 이 마음이 곧 거북의 털이나 토끼의 뿔과 같을 것이니 곧 너의 법신도 함께 끊어져 없어지는 것과 같으리니 그러면 그 무엇이 무생법인無生法忍을 닦아서 증득하겠느냐?"

그때 아난이 대중들과 더불어 묵묵히 넋이 나간 듯하였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시기를 "세간에서 모든 수학修學하는 사람들이 현재 눈앞에 서 비록 아홉 차례나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정기가 새어나가는 것을 다 끊어 아라한이 되지 못한 것은 모두 저 나

고 죽고 하는 허망한 생각에 집착해서 진실한 것인 양 오인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비록 많이 듣기는 하였으나 성인의 과업을 성취하지 못했나니라."

능엄경 10권 중에 1권을 조금 읽었을 뿐이지만, 이 능엄경이 위경일 가능성은 아주 적어 보인다.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능엄경의 글이 너무 매끄럽기 때문이다. 깨달은 놈이 한 말과 중생이 한 말은 딱 보면 표가 난다. 그런데 이 능엄경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말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붓다의 말이다. 붓다의 말은 중생이 절대로 창작해낼 수가 없다. 모든 말을 정확하게 끼워 맞춘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위의 글에서 석가모니는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놓고 아난을 가르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마음'을 '에고(나)'로 바꿔서 읽는 게 이해하기 좋다. 마음이 모여서 '나'라는 허깨비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위의 글에서 석가모니가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 '너는 없다'는 것이다.

위의 글 앞에는 아난이 음심에 빠져 있는 것을 석가모니가 구해내는 장면이 나온다. 예쁜 여자가 아난을 유혹하자 아난도 마음이 동하는 참에 석가모니가 끌어낸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네가 여자와 섹스를 하려고 했던 게 무엇일까?"하고 묻는다. 물론, 아난이 예쁜 여자와 섹스를 하려고 했던 것은 성욕에 이끌렸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성욕이 무엇이냐?"하고 묻는다. 아난이 섹스를 하려고 했던 것은 성욕을 실체로 인정했기 때문이고, 성욕을 실체로 인정한 것은 '나'를 실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가? 그게 '나의 돈'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의 돈은 나의 즐거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욕구 밑에는 반드시 '나'의 존재가 떠받치고 있다. 그 때문에 석가모니가 "그 '나'는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 있는가?"하고 아난에게 묻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결국 '나'는 없다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이다. '나'가 없으면, 나의 돈도 없고, 나의 성욕도 없고, 나의 즐거움도 없다. 전부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욕구들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 석가모니는 아난에게 "정말 '네'가 있는지 확인해봤느냐?"하고 묻는 것이다. 아난이 성욕에 빠진 것은 '나'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나(마음)'의 존재를 확실하게 확인해보자 했던 사람들 모두가, 그 어느 누구도 '나(마음)'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때에 여래께서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기를 "만약 중생들이 동요하는 것을 대상 물질塵이라 하고 머물러 있지 않는 것을 나그네라 한다면 너희들이 아난의 머리가 스스로 움직였을 뿐 보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음을 관찰하고, 또 너희가 나의 손은 스스로 폈다 쥐었다 하였으되 보는 것은 폈다 쥐었다함이 없는 것임을 깨달으라. 어찌하여 지금 너희는 동요하는 것을 몸으로 여기고 동요하는 것으로 대상인 물질이라고 생각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마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면서 참 다운 성품을 잃어버리고 뒤바뀐 짓을 하느냐? 성품에 참 마음은 잃어버리고 물건을 몸인 줄 알고 있으면서 그 속을 돌고 돌아 스스로 끌려다님을 취하느냐?"

불경들을 정독한 적은 별로 없어도, 전체적으로 개괄해본 적은 있다. 눈에 띄는 게 있으면 해설이나 해볼까 하고 훑어봤었다. 그런데 생각 외로 별로 할 만한 게 없었다. 대개 뻔한 내용이고, 특이한 점도 없던 것이다. 하지만 이 능엄경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육성은 참으로 실감난다. 전에는 석가모

니라는 인간을 이렇게 가깝게 느낀 적이 없었다. 그 사람의 글을 잘 읽어보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능엄경으로 해서 나는 비로소 석가모니라는 인간이 실제로 생존했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다.

인용문의 얘기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에 관한 얘기다. 그대는 변하지 않는 것의 존재를 믿지 못한다.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하다. 변하지 않는 것을 한 번도 접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하는 것들은 온통 사방에 널려있다. 그러니 어찌 변하는 것에 의지하지 않겠는가? 그대가 변하는 것에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건 존재가 그렇게 계획했고, 그렇게 움직여왔기 때문이다. 그대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이 필요해지게 된다. 그대가 아직 절망하지 않았다면 그대는 변하지 않는 것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대의 경험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그대의 희망이 아직 소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리도 존재고, 모양도 존재다. 아직 그대가 모양에 절망하지 않았다면 일부러 모양을 버릴 필요가 없다. 모양도 분명히 존재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대가 절망했을 때 생겨난다. 그대가 이 현상계에서 절망했다면 그대는 이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만 한다. 이제 그대의 '모양의 시간'이 끝나고 '진리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난다. 모양의 시간에서 진리의 시간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인간들이, 독서실에 불을 지르고 홧김에 사람들을 죽인다. 이게 바로 '업'이다. 그대가 절망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좋은 기회다. 그대는 이제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으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절망은 식사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일 뿐이다. 그대는 그 종소리에 맞춰서 식당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

다. 그래서 쓸데없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독서실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죽이게 되면, 그대의 업은 그대의 업대로 쌓이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원혼이 되고 만다. 그리고 그 업과 원혼들이 다시 이 세상을 힘들게 한다. 아울러 그런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점점 더 업과 원한이 많아지게 된다. 이게 다 무지한 탓이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비극이다.

변하는 것들을 즐기는 건 좋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아야한다. 그걸 찾는 건 나중에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절망 너머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이 준비돼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존재의 실체를 다 알지는 못해도, 존재의 기본적인 구조는 알고 있어야 어리석은 비극을 피할 수가 있다. 감각과 지식들은 전부 변하는 것들이다. 그것들이 부단히 변한다는 건 새삼 증명할 필요도 없다. 변하는 것들을 즐겨라.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하지만 그대가 더 이상 변하는 것들을 즐길 수 없다면 지금이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을 만나야 할 때다. 왜냐하면, 그대가 변하는 것들의 변함을 거부하기위해 싸울수록, 더 많은 싸움과 더 많은 슬픔이 생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게 붓다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이유다. 그대가 아직 보지 못한 그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붓다들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다. 변하는 것들에 절망했다면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 나서라. 붓다들은 그대를 속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니다. 붓다는 그대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대를 속이려고 할 이유가 없다. 변하지 않는 '그것'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대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중독됐을 뿐

그러니 깨달을지어다. 너의 마음이 본래 오묘하고 밝고 깨끗한 것인데, 네가 스스로 혼미하여 근본을 잃고 윤회하면서 생사 속에서 항상 표류하기 때문에 여래가 가련하다고 한 것이다.

인류는 왜 타락했을까? 인류의 타락은 생활로 굳어진 중독일 뿐이다. 이건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실험으로 재현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는 중독자들이 이미 널려있기 때문이다. 알코올 중독자는 처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던 게 아니다. 그는 처음에는 술을 몰랐다. 어느 속상하던 날 저녁에 술을 한 잔 해보니 그 속상함이 잊어졌다. 그래서 그 다음날도 기분이 안 좋아서 또 술을 마시게 되었던 것이다. 이건 상당히 좋은 현상이다. 여기까지는 마치 목욕을 통해서 피로를 푸는 것처럼 아주 효과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끼어드는데, 그게 바로 중독이라는 것이다.

오늘은 속상할 일도 없고, 기분 나쁜 일도 없다. 그러니 술을 마실 필요가 없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아무 것도 문제될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독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하게 된다.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나의 필요에 의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의 필요에 의해서 술을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인류 타락의 메커니즘이다.

인류는 처음에는 본능에 충실했을 뿐이다. 나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노력

만 했다. 그런데 그 기본적인 노력이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개체가 돼버렸다. 이게 에고라는 것이다. 에고는 처음에는 흔적이고 행위일 뿐이었다.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생각 없으면 안 마시는 술 한 잔에 불과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술 한 잔이 필수가 돼버렸다. 나를 보호한다는 일시적인 행위가, 나의 안위라는 영구적인 습관이 돼버린 것이다. 이게 바로 '나'라는 에고가 지금처럼 견고한 실체로 자리 잡게 된 사연이다. 굳은살이 박혀버린 것이다. 굳은살은 처음에는 있는 듯 없는 듯 흔적만 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면 딱딱한 굳은살이 되어서 주변의 피부에 확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에고가 바로 굳은살이다. 그대가 에고라는 굳은살의 현재 모습에 중독돼서, 그게 원래는 흔적이고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뿐이다. 그래서 에고가 원래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있었던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의 본모습에는 에고가 없다. 에고는 단순한 중독일 뿐이기 때문이다.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인 사람은 없다. 술을 자주 마시는 습관이 알코올 중독을 만들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그대는 에고 중독일 뿐이다. 그대가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다. 에고는 원래 있던 게 아니다. 그대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에고는 원래 없었다. 에고가 없는 그대가 원래의 그대다.

심상화心象化 작업의 필요성

일체의 중생이 시작이 없는 때로부터 지금까지 혼미한 자신을 물질로 생각해서 본래

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물질에 지배를 받는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크고 작은 것을 보지만, 만약 물질을 지배할 수 있다면 여래와 같아서 곧 마음이 원만하게 밝아서 도량을 움직이지 않고 한 개의 털끝에 시방의 국토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심상화 작업이 필요해지게 되는 이유다. 인간은 감각에 의지해서 사실을 왜곡시켰다. 그래놓고는 비교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건 크다, 이건 작다, 이건 추하다, 이건 아름답다, 이건 선하다, 이건 악하다…. 이렇게 감각에 의지해서 다시 가치라는 허상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런데 감각 자체가 가짜다. 그러니 그 가짜 감각으로 만들어낸 가치가 어찌 진짜일 수 있겠는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는 이럴 때 쓰는 말이다. 감각을 근거로 삼은 것 자체가 잘못이었다. 그대는 자신의 감각의 오판 때문에 낭패를 본 경험을 많이 했을 것이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감각이 옳은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래도 감각이 옳다고 믿고 살고 있을 것이다.

그대의 그 자그마한 실생활에서는 그대의 감각이 별로 틀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우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대의 감각은 형편이 없다. 천체물리학이 뉴턴 역학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성이론을 사용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뉴턴 역학은 실생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천체 물리학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다. 뉴턴 역학이 바로 감각에 의존하는 단순한 물리학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그 왜곡되고, 굳어진 감각을 재활시키는 게 바로 심상화 작업이다. 그대의 감각은 사실은 굉장히 멍청하다. 얼핏 보기에는 꽤 자유롭고 창의적인 것 같아도, 사실은 한번 정한 것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다. 그래서 그 감각을 마구 주물러줘야 한다. 그게 바로 확장, 수축 같은 작

업들이다. 그대를 지구만큼 크게 부풀리는 작업들, 그대를 좁쌀만 하게 작게 만드는 작업들, 그대를 다른 물건으로 옮기는 작업들…. 그런 작업들이 전부 그대의 굳어진 감각의 근육을 풀기위한 재활 훈련들이다.

심상화 작업을 해보면 재미도 있다. 마냥 명상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덜 심심할 것이다. 고요한 날은 명상을 하고, 뒤숭숭한 날은 심상화를 하면 된다. 재활 훈련을 시작해보라. 그대의 신神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정밀한 깨달음의 오묘하고 밝음이 인因도 아니며 연緣도 아니며, 자연도 아니며 자연이 아닌 것도 아니며, 아닌 것과 아님이 아닌 것도 없으며 이것과 이것이 아닌 것도 없어서 일체의 모양에서 벗어나 일체의 법에 나아가나니라. 네가 지금 그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길래 모든 세간에서 장난삼아 논란하는 명상名相(이름과 모양)으로 분별하려 하느냐? 이는 마치 손바닥으로 허공을 만지려는 것과 같아서 다만 애만 쓸 뿐이지 허공이야 어떻게 네게 잡히겠느냐?

'정밀한 깨달음의 오묘하고 밝음…' 진리는 정밀하고, 오묘하고, 밝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다. 깨달음은 정밀하고, 오묘하고, 밝은 지혜다. 그래서 엉성하고, 단순하고, 어두운 지식으로는 절대로 도달할 수가 없다. 엉성하고, 단순하고, 어두운 지식이 무엇일까? 바로 그대의 지식이다. 명상冥想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명상은 정확함이다. 명상은 카메라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려는 노력이다. 그대의 생각은 전혀 정확하지 못하다. 그대는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는다. 그대는 작업을 대충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정확한 사실을 볼 수가 없다. 그래서 그대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 훈련이 바로 '명상'이다.

석가모니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이것도 아니고, 이것이 아님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진리의 공식은 오직 이것 하나 밖에 없다. 진리는 항상 '둘 다'다. 그래서 '하나'다. 이걸 알아야 그대가 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대는 항상 '여기'서 벗어나려하고, '저기'로 가려고 한다. 여기와 저기가 다르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착각이다. 여기와 저기는 같은 곳이다. 그리고 그대의 벗어나려는 움직임과 향해가려는 움직임이 바로 그대의 미망이다. 움직일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대가 자신의 착각에 속아서 자꾸 움직이려하고, 또 움직이기 때문에 그대가 끝없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여기와 저기가 같은 곳이라는 걸 그대가 알면, 그대는 이동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여자와 저 여자가 같은 여자라는 걸 알면 그대가 사랑을 옮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가난과 부유함이 같은 것이라는 걸 알면, 그대가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고, 아울러 고통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이 수수께끼를 풀어야한다. 수수께끼를 푸는 건 그대의 몫이다. 수혜자가 그대이기 때문에 문제도 그대가 직접 풀어야만 한다. 어째서 가난과 부유함이 같다는 것일까? 어째서 전쟁과 평화가 같다는 것일까? 어째서 삶과 죽음이 같은 것이라는 걸까? 풀어보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그대는 그 이유만 알아내면 된다.

비밀은 따로 있다

그러므로 아난아! 너는 지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밝음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이 밝음이 아니며, 어두움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이 어두움은 아니며, 허공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이 허공은 아니며, 막힌 것을 볼 때에도 보는 것이 막힌 것은 아니니라. 네 가지 이치가 성취되었으니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보는 놈을 볼 적에 보는 놈은 보는 것이 아니니라. 보는 성품은 오묘하여 그것이 오히려 보는 것을 벗어나서 보는 것으로도 미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다시 인연이다 자연이다 어울려 조화된 모양이다라고 말하겠는가?

그대가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거기서 그대에게 이 방에 뭐가 있느냐고 물으면 그대는 아무 것도 없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불을 켜면 그 방에 있는 가구나 물건들이 다 보인다. 그때 그대에게 무엇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대는 가구와 물건들이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대가 아무 것도 볼 수 없었을 때 그 가구와 물건들은 있었던 것인가, 없었던 것인가? 그대는 단순히 눈에 보이면 있다고 하고, 눈에 안 보이면 없다고 한다. 그대는 짐바브웨라는 나라에 가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는 이 지구상에 없는 것인가? 그대는 진리를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진리는 여기에 없는 것인가?

독일은 1차 대전에서 완전히 망했고 20년 뒤에 다시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다시 쫄딱 망했다. 하지만 지금 독일은 당당한 선진국으로 잘 살고 있다. 두 번의 패망은 독일에게 독이었는가, 약이었는가? 일본의 패망은 일본에게 좋았는가, 나빴는가? 일평생 나쁜 짓만 일삼던 아들놈이 모친의 죽음으로 해서 정신 차리고 수행해서 세계적인 스승이 된다면 그게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100미터 달리기에서 좋은 것도 200미터 달리기에서는 나쁜 것이 되고, 200미터 달리기에서 나쁜 것도 1500미터 달리기에서는 좋은 것이 된다. 그대가 구간을 너무 짧게 잡을 뿐이다. 구간을 좀 늘려 잡아라. 달리기는 단거리만 있는 게 아니다. 앎은 감각과 지식만 있는 게 아니다. 지구를 일주하는 경주도 있고, 우주를 통합하는 앎도 있다. 그대가 단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여래장 혹은 브라만 혹은 전부

이와 같이 오음五陰과 육입六入과 십이처什二處와 십팔계十八界도 인연이 화합하여 허망하게 생기는 것이며 인연이 흩어져서 허망하게 없어지나니, 진실로 생기고 없어지고 가고 오고 하는 것이 본래는 여래장如來藏이어서 항상 머무르는 것이며 오묘하고 밝은 것이며 흔들리지 않으며 두루 원만한 오묘하고 참다웁고 변함없는 성품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성품의 참되고 항상한 가운데서는 가고 옴과 미혹하고 깨달음과 나고 죽고 함을 찾아보아도 찾을 수가 없나니라.

여래장이 바로 힌두교의 브라만이고, 브라만은 곧 이 우주 전부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이 지구상의 모든 화폐들은 이 지구 위에서 오고 가고, 어느 곳에 더 많고, 어느 곳에 더 적고 하기는 하지만 이 지구를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대가 이 지구 전부라면 그대가 그 돈의 소재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 돈이 중국에 있든, 미국에 있든 그대가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중국에 있는 돈도 그대의 것이고, 미국에 있는 돈도 그대의 것이다. 그대가 이 지구 전부이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아기도 그대의 것이고, 죽는 사람도 그대의 것이다. 뭐가 걱정인가? 전부 그대 속에서 태어나고 죽을 뿐이다. 그대는 이 우주 전부이기 때문이다. 지금 고통 받는 사람은 곧 기쁨으로 옮겨갈 것이고, 지금 즐거운 사람은 곧 슬픔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그대 속에 있다. 뭐가 걱정인가? 고시원에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한 놈은 한동안 고통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희생된 사람들은 곧 슬픔을 잊고 환생해서 새 삶을 살아갈 것이다. 양은 음으로 가고 음은 반드시 양으로 간다. 그리고 그것들은 전부 그대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썰물도 바다의 것이고, 밀물도 바다의 것이다. 그리하여 바다는 썰물도 걱정하지 않고, 밀물도 걱정하지 않는다. 다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밀물이 없으면 썰물도 없다. 먼저 밀려오지 않으면 밀려나갈 수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은 없다. 그대가 여래장이고, 브라만이고, 이 우주 전부라는 걸 스스로 모르고 있을 뿐이다. 아무 것도 잘못된 것은 없다. 그대가 잠들어 있을 뿐이다.

생각은 가짜다

아난아! 가령 어떤 사람이 피로하면 잠자고 실컷 자고는 문득 깨어서 대상을 보면 기억하며, 그 기억이 사라지면 잃어버리는 것이 바로 뒤바뀐 생겨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것이니, 습관을 흡수하여 들여서 그것이 가운데로 돌아가되 서로 뛰어넘지 아니함을 '생각으로 인식하는 근원'이라고 하나니 생각과 피로는 모두다 보리로서 똑바로

보다가 피로해져서 생긴 현상이니라. 생기고 없어지는 두 가지 허망한 대상으로 인하여 모아진 앎이 중간에 있으면서 내진內塵을 흡수해 들여서 그 보고 들음이 다섯 가지 감각기관의 흐름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거꾸로 흐름을 '알아 깨닫는 성품'이라고 하니 그 앎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과 깨고 잠자는 두 가지 허망한 대상을 벗어나면 마침내 그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석가모니는 감각이 가짜라는 걸 조목조목 설명한 뒤에, 이번에는 생각 또한 가짜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 그대의 기억은 믿을만한가? 그대의 판단력은 믿을만한가? 그대의 논리는 믿을만한가? 그 미덥지 못한 기억과 판단과 논리의 총합이 바로 그대의 '생각'이라는 것이다. 미덥지 못한 것들의 총합은 믿을만할까? 어중이떠중이 아무나 끌어 모아서 올림픽에 나가도 금메달을 딸 수 있을까?

그대의 생각은 형편없다.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대의 감각과 생각을 '피로' 혹은 '병'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대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믿고 있는 것들을 석가모니는 쓰레기로 보고 있는 것이다. 누가 옳을까? 석가모니가 옳을까, 그대가 옳을까? 당연히 석가모니가 옳다. 석가모니는 이 우주의 끝까지 가본 사람이지만, 그대는 아직 이 지구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대의 생각은 가짜다. 그래서 그 생각을 의심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명상이라는 작업이다. 생각은 쓰레기지만 분명히 치료할 수 있다. 어둠과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서 꼼짝 말고 앉아 있어라. 거기가 그대의 세탁실이다. 찌든 때가 불어서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을 것이다. 냄새도 좀 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묻혀온 때이기 때문에 그대가 세탁해야만 한다. 세탁실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1년쯤 세탁을 하면 제법 깨끗해진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세탁실로 들어가라. 지금 그대는 너무 더럽다.

보는 만큼 본다

아난아! 너의 성품이 잠겨 빠져서 네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이 본래 여래장임을 알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이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생기더냐 없어지더냐 같더냐 다르더냐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냐 같음도 다름도 아니냐? 너는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여래장 가운데 성품이 보는 것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봄이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나니, 이는 마치 하나의 보는 놈이 우주를 두루 보는 것처럼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 접촉하는 놈, 그리고 깨달아 아는 놈이 오묘한 덕이 밝아서 우주에 두루하고 시방에 원만하거니 어찌 장소가 있겠느냐? 업보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그리고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나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니 다만 말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의 의미는 전연 없나니라.

아마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중요한 얘기지만 알고 보면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다. 간단하게 줄이면 아는 만큼 본다는 뜻이다. 아난과 그대의 시야는 어느 정도일까? 아난과 그대는 눈앞에 있는 것만 본다. 그리고 그것만 진짜라고 믿는다. 그게 사실이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그건 사실이 아니다. 그래서 아난과 그대는 시야를 확장해야만 한다. 가짜를 잡고 있으면 그 가짜 때문에 고통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어떤 놈이 진짜를 찾아 나서면 그놈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 그리하여 이 현상계는 눈속임일 뿐이고, 진짜는 따로 있다는 걸 알게 된다. 그 진짜가 바로 여래장이다. 여래장이 바로 존재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진짜를 본 놈은 이 현상계를 부정하고 진짜와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이놈도

아직 도착한 건 아니다. 이놈의 시야가 아직 충분히 넓지 못해서 진짜, 가짜를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시야를 더 넓혀야 한다. 그래야 존재의 실체를 볼 수가 있다.

여래장을 본 놈은 마지막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만 한다. 이 마지막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지 못하는 놈이 바로 '짜라투스트라'다.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는데, 다 왔다고 착각하는 놈이다.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 '여래장이 진짜라면, 현상계라는 가짜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다. 이게 마지막 문제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야 존재에 도착할 수가 있다. 짜라투스트라가 이 문제를 파고들어서 풀기 시작하면, 결국 이 현상계도 여래장의 한 모습이라서 여래장과 현상계가 같은 것이라는 걸 보게 된다. 이게 결론이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한 사람이 바로 붓다다.

존재를 보고 아는 스펙트럼이 이해되는가? 그대는 그대가 사는 동네만 이 세상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 우주는 너무나 거대해서 그대의 동네 따위는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데 사실은, 이 우주는 그대가 사는 동네 같은 작은 동네들로 구성돼 있다. 동네라고 할 것도 없고, 우주라고 할 것도 없는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다. 그대의 감각과 지식은 사실은 진짜다. 문제는 그대들이 감각과 지식'만' 진짜라고 믿고 있는 게 문제일 뿐이다. 그래서 그대는 이 우주를 한 바퀴 돌고 와야 한다. 그대의 감각과 지식을 일단 부정해야만 하는 것이다. 우주를 향해, 존재를 향해 출발해라. 한 바퀴 돌고 오면 기분이 상쾌해진다. 존재는 누구에게나 길을 열어놓고 있다.

그대의 어항

아난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네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멀리 여래의 상常, 낙樂,아我,정淨과 계합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마땅히 나고 죽는 근본부터 골라 버리고, 나고 죽지 않는 맑고 원만한 성품에 의해서 이룩해야 하리니 맑음으로써 허망하게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서 이를 항복받아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명각命覺인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얻어 인지因地의 마음을 삼은 다음에야 과지果地를 닦아 증득함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마치 흐린 물을 맑게 할 적에 고요한 그릇에 담아서 흔들리지 않게 오래 두면 모래와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은 처음으로 객진번뇌客塵煩惱를 항복 받았다고 이름할 것이요, 앙금을 버리고 순수한 물만 남게 한 것과 같은 것은 근본무명根本無明을 영원히 끊었다고 이름할 수 있으니 밝은 모양이 정밀하고 순수하면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도 번뇌가 되지 않아서 모두가 열반의 청정하고 오묘한 덕과 부합하나니라.

앞부분 절반은 신경 쓸 필요 없고, 뒷부분 절반만 이해하면 된다. 이게 바로 그대가 멈춰야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물과 진흙을 담은 어항과 같다. 그런데 그 어항을 들고 그대가 끝없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대의 어항이 맑아질 틈이 없는 것이다. 그대는 어항이 원래부터 혼탁한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건 그대가 한 번도 멈춰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게 되는 착각일 뿐이다. 그대의 어항은 원래는 투명했다. 그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물과 진흙이 섞였을 뿐이다.

골방에 들어가서 그대의 어항을 보라. 진흙이 조금씩 가라앉는 걸 보라. 물의 움직임이 멈추고 물이 조금씩 맑아지는 게 보일 것이다. 이 그림 자체

가 좋은 명상이 될 수 있다. 어렵게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어항만 보고 있어라. 진흙이 가라앉을수록 그대의 마음도 가라앉는다. 그대는 어항이다. 움직일 때마다 이걸 기억해라. 그대가 움직일수록 그대의 어항은 점점 더 혼탁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명언 1

그러므로 네가 지금 밝음과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실체가 없을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여의면 원래 듣는 바탕이 없을 것이며, 통하고 막힘이 없으면 맡는 성품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여의고 합함이 아니면 부딪쳐 느낌이 반드시 없을 것이며, 나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역시 석가모니는 명쾌하다. "나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속이 시원하지 않은가? 깨달음 따위는 필요 없다. 그대가 삶과 죽음을 나누기 때문에 깨달음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해진 것이다. 나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 같은 건 전혀 필요가 없다. 깨달음은 환자에게 쓰는 약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약이 필요한 것이다. 그대가 아프지만 않다면 약 같은 건 먹을 필요가 없다.

나고 죽음이 바로 분별심이다. 나고 죽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 같은 것이다. 그대가 눈이 나빠서 그걸 보지 못할 뿐이다. 행복과 불행은 같은 것이다. 그대가 세밀하게 관찰해보지 않을 뿐이다. "나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U.G. 크리슈나무르티가 깨달음은 없다고 외치

는 근거가 바로 이것이다. 깨달음은 없다. 그대가 병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깨달음을 처방할 뿐이다. 잠을 깨라. 그대는 환자가 아니다. 깨달음 따위는 필요 없다.

명언 2

아난아! 마치 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을 눈에 집중시켰다가 만약 갑자기 눈을 감으면 어두운 현상이 앞에 나타나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캄캄하여 머리나 발과 같으리니, 그 사람이 손으로 몸을 따라 더듬으면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머리인지 발인지는 한결같이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니, 대상을 보는 것은 밝음을 인해야 하고 어두우면 볼 수 없거니와 밝지 않더라도 스스로 발하면 모든 어두운 현상이 영원히 어둡지 않으리니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이미 소멸되면 어찌하여 밝은 깨달음이 원만하고 오묘함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이게 그대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 그대는 그대 자체가 빛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 그대의 감각은 전부 외부의 빛에 의존하고 있다. 빛이 없으면 그대는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게다가 빛이 있어도 눈이 없으면 역시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귀가 없으면 소리를 들을 수가 없고, 소리를 전달해주는 공기가 없어도 그대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대는 이게 전부라고 믿고 있다. 매개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는 방법이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다. 이게 지금 석가모니가 하는 얘기다.

그대가 바로 빛이다. 그대가 그대의 빛을 전혀 사용하지 않을 뿐이다. 그대는 오로지 외부의 빛을 통해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

신이 빛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진짜 빛은 오직 그대만 가지고 있다. 외부의 빛은 전부 그대의 빛을 흉내 낸 가짜일 뿐이다. 웃기지 않은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 놈이 큐빅을 구걸하러 다니고 있다. 안타깝지 않은가?

진짜 빛은 그대가 가지고 있다. 그 빛을 켜면 다른 빛들은 다 켜나 마나다. 한낮에 형광등을 켜보라. 그 빛이 얼마나 밝겠는가?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대의 빛'을 켜면 다른 감각들은 다 소멸된다고 하는 것이다. 대낮에는 형광등을 켜든지 끄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스위치를 올려라. 그대가 모르고 있는 빛이 가장 밝은 빛이고, 그 가장 밝은 빛은 바로 그대 속에 있다.

음욕

네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오묘한 과업을 구한다면 비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이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져서 삼도에 전전하며 윤회해서 반드시 해탈 할 수 없을 것이니 여래의 열반을 어떻게 닦아 증득하리오? 아난아! 반드시 음란한 기미를 제어하고 교화하여 몸과 마음에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져야 부처님의 보리를 바라볼 수 있으리라.

이게 불교가 섹스를 금하는 근거다. 물론 이건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석가모니는 그대에게 '섹스를 해라'와 '섹스를 하지마라'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줄 수는 없었다.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

는데, 그 선택이 바로 금욕이었다. 반대편에 서 있는 탄트라도 마찬가지다. 탄트라 역시도 속세에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한에는 두 가지를 다 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탄트라는 섹스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진리는 석가모니만 아는 게 아니다. 그리고 아무리 석가모니라고 해도 진리를 말로 전달할 수는 없다. 진리는 '섹스를 해라 그리고 섹스를 하지마라'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석가모니의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것이라고 믿지는 마라. 그런 착각은 그대가 석가모니라는 '손가락'을 '달'로 착각하기 때문이다. 석가모니는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가르친 한 명의 스승일 뿐이다. 석가모니는 진리를 가르친 사람이지, 진리 그 자체는 아닌 것이다.

석가모니의 방법은 정확하다. 석가모니는 성욕을 억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욕을 억제하지마라. 성욕을 억제하는 것은 성욕에 휘둘리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성욕을 억제할 바에는 차라리 자위라도 하는 게 낫다. 억제는 싸움만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성욕을 넘어서는 방법은 억제가 아니라 '보는 것'이다. 모든 것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그것을 그대로 두고 깊게 보는 것뿐이다. 그것을 밀지도 말고, 당기지도 마라. 내버려둬라. 그리고 그것과 함께 있어라. 이게 없애는 방법이다. 이건 굉장히 단순한 방법인데, 사실은 그대가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 '보는 것'이다. 5년 10년씩 앉아 있었다는 놈들도 알고 보면 이 '보는 것'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놈들이 많다. 그저 앉아서 잡생각만 하면서 나는 수행을 한다, 나는 명상을 한다, 나는 관을 한다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10년 아니라 100년을 앉아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더 이상 헛짓 하지 말고, '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해라. 정확하게 보기만 하면 1년 안에도 많은 것이 변한다. 그대가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나 긴 세월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보는 것'을 자꾸 시도하고, 그 방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해라. 기초만 정확하게 배우면 그 뒤는 별로 어렵지 않다. 똑같은 작업이 강도만 강해질 뿐이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보는 것'을 정확하게 습득하지 못하면 그 뒤는 하나마나 아무 소용이 없다. 헛세월하기 싫으면 '보는 것'의 기초를 정확하게 해라.

엑기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난아! 마땅히 알아야 한다. 오묘한 성품은 원만하고 밝아서 모든 이름이나 모양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므로 본래는 세계와 중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라. 거짓됨으로 인하여 생겨나고 생겨남으로 인하여 없어짐이 있는 것이니 저 나고 없어짐을 '거짓'이라 하고 거짓이 없어짐을 '참된 것'이라고 하니 그것이 여래의 무상보리와 큰 열반인 두 가지 전의호專依號라 하나니라."

이게 진리의 엑기스다. 원래는 다 '하나'였다. 이름도 없었고, 모양도 없었다. 중생도 없었고, 붓다도 없었다. 그러다 인간들이 어느 순간 시야를 좁히기 시작했다. 원래는 두루뭉술하게 세상을 보던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특정 부분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이다. 좋아도 그런가보다, 나빠도 그런가보다 하던 놈들이 갑자기, 좋은 것에 관심을 주기 시작한 것이다. 추워도 그런

가보다 더워도 그런가보다 하던 놈들이, 추위를 막을 궁리를 하게 된 것이다. 추울 때 불을 피워서 항상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자 이제 따뜻함이 소유로 변하게 된다. 불만 피우면 언제든지 따뜻해질 수 있는데 굳이 추위에 떨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래서 계속 불을 피웠다. 그렇게 세대가 이어지자 어느새 따뜻함은 당연한 권리가 되고 말았다.

이제 따뜻함을 얻는 게 행운이 아니라, 추위를 견디는 놈이 바보 취급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따뜻함은 좋은 것, 추위는 나쁜 것으로 정착하게 된다. 인류가 여기서 멈추겠는가? 이제 굶는 것도 정복하기 시작했다. 식량을 저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식량을 많이 저장한 놈은 이제 배는 당연히 불러야하는 것으로 믿게 됐다. 원래는 먹으면 먹는가보다, 굶으면 굶는가보다 하던 놈들이 이제는 굶는 것을 불행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이제 일은 벌어졌다. 잘 챙기기만 하면 굳이 감각을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인류가 알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점점 더 감각에 봉사하게 된다. 몸은 점점 더 편해지고, 에고는 점점 더 두꺼워져 간다.

드디어 먹고 살만 해졌다. 이제 뭘 해결해야할까? 죽음만 해결하면 된다. 이미 생활은 편안하기 때문에 죽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죽음이 인류의 적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에덴동산 이야기다. 그리고 에덴동산 이야기를 요약한 것이 바로 저 위의 글이다. '하나'로부터 '둘'이 생겨나게 된 이야기의 전말이다. 그래서 인류에게 다시 하나로 돌아가야 하는 숙제가 생긴 것이다. 이게 인류 타락의 역사고, 인류의 현주소다. 그리고 그대는 지금 바로 여기에 서 있다. '하나'로 돌아가느냐, 못 돌아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어디로 가려는가? 그대가 선택할 문제다.

spectrum

07

마법을 통해 가는 길

프란츠 바르돈

『헤르메스학 입문』
(좋은 글방. 박영호, 임동욱, 정은주 옮김)

프란츠 바르돈 Franz Bardon

(1909년12월1일 ~ 1958년7월10일)

체코의 오파바Opava에서 태어났다. 마법사로 활동하며 많은 제자들에게 헤르메스학을 전수했다. 나치의 협력 요구를 거부하는 바람에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수용소에 투옥되었다. 수용소를 습격한 러시아군에 의해 구조되었고, 체코에서 활동을 재개했으나 체코 정부에 의해 다시 투옥되었다. 1958년에 감옥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저술활동을 했다.

저서: (괄호 제목은 국내번역된 것)

Initiation Into Hermetics(헤르메스학 입문)

The Practice of Magical Evocation (소환마법 실천)

The Key to the True Kabbalah

The Golden Book of Wisdom

Frabato the Magician(마법사 프라바토)

바르돈은 다스칼로스와 함께 마법을 대표하는 붓다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마법을 통해서 존재를 안 사람도 있을 법하지 않은가? 마법이라는 흔치 않은 방법을 통했음에도 바르돈과 다스칼로스는 완벽한 붓다의 면모를 보여준다. 오용의 위험이 큰 마법을 통제해서 선용하는 실례를 세상에 보여준 것이다. 수행이라고 하면 얼른 명상, 위빠사나, 만트라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가? 이 세상에 수행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 부디 편견 없이 방법을 사용해라.

수행 혹은 회귀

아스트랄계는 종종 제4차원이라 표현되곤 하는데, 4원소로 창조되었으며 조밀도가 다른 아카샤 원리이다. 결국 아스트랄계는 근원과 규칙, 생명을 갖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또한 물질계에서 과거에 일어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의 기초이기도 하다. p60

문제는 우리가 오로지 몸(물질)에 편향돼 있다는데 있다. 의식에서 마음이 나왔고 마음에서 물질이 나왔으면 의식과 마음과 몸이 공존해야 하는데, 물질의 명확함이 물질에의 편향을 불러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몸 외에 마음(아스트랄체)과 의식(멘탈체)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그것들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고, 그 때문에 헤르메스학이 아스트랄체와 멘탈체의 능력을 되살려내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아스트랄체와 멘탈체의 능력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물질에 경도됨으로써 원래 있던 것을 잃어버렸다. 우

리가 근원으로부터 단절되게 된 이유이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만 하면 다시 원래 상태, 즉 근원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헤르메스학의 주장이고, 원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훈련이 바로 마법 수련이다.

오로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물질계 밖에 모르는 그대는, 웬 황당무계한 소리냐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건 그대가 존재의 구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다. 휴대폰이 물질이 아닌 전자파를 통해서 소통하듯이, 이 물질계도 물질이 아닌 마음과 의식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음은 명확하게 이해되는 사실이다. 아무리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을 해봐도 전혀 어긋남이 없기 때문이다.

마법이 일반적인 수행과 다른 점은, 일반적인 수행들이 마음과 의식의 성질만을 되살리는데 반해, 마법은 마음과 의식의 기능을 되살리는 과정을 통해 성질을 되살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마법 수행을 하면 마음과 의식의 성질을 되살리는 동시에 기능마저 획득할 수 있고,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마법의 기능을 획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설령 기능을 획득했다 하더라도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마법 오용으로 인한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마음은 욕심을 통제할 수 없다. 마음의 본능이 욕심이기 때문이다. 그런 마음에게 능력이 주어진다면 마음이 무심히 있겠는가? 마음은 능력을 과시할 수밖에 없고, 과시는 필히 시기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 능력자는 고통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바르돈의 마법 체계는 흠잡을 데 없는 수행법이다. 하지만 마법이라는 능력을 수반하는 대신 그만한 위험도 끝까지 동행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대도 설마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 마법이 결코 수행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라. 안 그러면 반드시 고통 속에서 후회하게 된다. 실제로 바르돈은 나치 치하에서 감옥살이를 했다. 마법을 오용하지 않은 바르돈도 마법 때문에 고통 받았는데, 마법을 오용한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 바르돈의 마법은 색깔이 약간 다른 수행일 뿐이다. 그러니 수행을 위해서 마법을 할지언정, 마법 능력을 위해서 수행을 이용하지는 마라. 고통은 언제 겪어도 고통스럽다.

아스트랄계

(아스트랄계에는) 그 밖에도 사티로스, 숲의 요정, 물의 요정 등이 있다. 이 모든 것이 동화처럼 느껴지는가? 그러나 지상의 모든 존재가 실재인 것처럼 이들은 아스트랄계의 실재다. 마법사는 투시안을 통해 이 존재들을 볼 수 있으며, 능력을 갖춰 이들과 접촉할 수도 있다. p64

어쩌면 그대한테는 아스트랄계가 동화처럼 느껴지겠지만, 그건 아들이 아빠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아빠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아들이 아빠의 존재를 의심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그럼 자기는 어디서 왔단 말인가? 그대는, 어쩌면 이 물질계 어딘가에 아스트랄계가 존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이 물질계는 사실은 아스트랄계가 입고 있는 '옷'일 뿐이다. 어느 쪽이 실체냐를 따진다면, 분명히 아스트랄계가 실체고 이 물질계가 환영幻影이다.

가끔은 나의 믿음을 뒤집어볼 줄도 알아야한다. 이 물질계 주변에 아스트랄계와 멘탈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멘탈계가 아스트랄계를 아스트랄계가 다시 이 물질계를 만들어냈다는 가설을 잠시라도 용납하고, 그 가설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봐라. 이 물질계가 가장 바깥에 있는 껍질임을 받아들일 때만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영靈 훈련

헤르메스학은 영 훈련법으로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 사고 제어: 생각과 의식을 분리시켜서 관찰자가 된다.
2. 사고 단련: 한 가지 생각에 집중한다.
3. 사고 통제: 생각을 물리치고 의식만의 상태로 머문다.

마법이 마음을 다루는 법과 일반 수행이 마음을 다루는 법이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같다. 사고 제어는 불교에서 흔히 하는 참선觀이다. 마음과 하나가 되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는 의식으로 머물면서 마음이 구름 같은 것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곧 관觀이고 사고 제어다. 세 번째 단계인 사고 통제는 곧 명상이다. 고요히 의식만의 상태로 머무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별다를 것이 없는데, 두 번째 단계인 사고 단련이 좀 색다른 맛이 있다. 물론 사고 단련을 마법에서만 쓰는 건 아니다. 불교에서 쓰는 사고 단련이 곧 화두다. 일반적으로는 마음으로부터 떨어져서 물러나는 것이 명상이지만, 오히려 마음을 향해 무자비하게 돌진해서 제대로 충돌을 일으키면 그

충돌의 폭발력 때문에 마음이 깨져서 사라진다는 것이 곧 화두법이다. 불교에도 마음을 버리는 방법뿐만 아니라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화두가 다만 마음의 폭발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서, 마법의 사고 단련은 그 자체로 꼭 필요한 훈련이라는 게 특이하다. 불교는 화두법을 쓰지 않고 명상과 참선만 해도 별로 상관이 없지만, 마법은 마음을 결정화시키는 마법의 특성 때문에 사고 단련을 뺄 수가 없다. 마음 집중이 없으면 마법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법을 다른 수행법들과 차별화시키는 훈련이 바로 '사고 단련'이다. 그러므로 사고 단련이 체질적으로 즐거운 사람은 마법 수행을 해볼 만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라면 차라리 일반 수행을 하는 게 낫다. 그대는 마음 집중력이 좋은 편인가? 그렇다면 일단은 마법을 배워볼만 하다.

마법의 호흡법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쉴 때는 문제가 다르다. 들이마시는 공기에 추상적 또는 구체적인 생각, 관념, 개념 등을 이동시켜 보자. 그러면 특별한 공기인 아카샤 원리가 이를 받아들여, 전기적 또는 자기적 흐름을 통해 실제 공기로 전달한다. 이렇게 충전된 실제 공기는 허파를 통해 혈관으로 퍼지면서 두 가지 임무를 맡게 된다. 첫째로는 몸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물질이나 원소 입자를 공급한다. 둘째로는 전자기적 흐름을 관념으로 충전시켜서 혈관에서 아스트랄체로 이동시키는데, 이 과정은 아스트랄 매트릭스를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멘탈 매트릭스를 통해 이 흐름을 불멸의 영, 즉 멘탈체로 이동시킨다. p94

바르돈도 차크라 체계를 알고 있는데도 호흡법은 단전호흡을 쓰지 않는다. 대신에 호흡에 마음을 담는 방법을 쓴다. 헤르메스학의 기본 틀은 물질계, 아스트랄계, 멘탈계로 이루어진 '삼겹살 체계'다. 일반 수행자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몸/마음/의식을 구분하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몸/마음/의식을 그다지 구분하지 않는 반면, 헤르메스학은 이 세상을 볼 때 아예 물질계/아스트랄계/멘탈계의 삼겹 구조로 놓고 본다. 그래서 당연히 그 세 가지 세상을 다 사용하고 싶어 한다.

우리가 흔히 물을 생각할 때는 단지 물질로서의 물만 생각하는 반면, 헤르메스학은 물의 물질계/아스트랄계/멘탈계를 동시에 생각하고 동시에 이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르돈은 호흡에 있어서도 당연히 물질계/아스트랄계/멘탈계를 동시에 생각한다. 바르돈의 머릿속에는 항상 세 겹의 세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호흡 역시도 세 겹의 호흡을 사용한다. 그래서 물질로서의 공기만 들이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기의 아스트랄체와 멘탈체도 같이 들이마신다. 세 겹의 몸이 세 겹의 숨을 호흡하는 것이다.

그렇게 들어온 세 겹의 숨은 각각 자기와 같은 '계'에 에너지를 전달한다. 물질은 물질을 호흡하고, 마음은 마음을 호흡하고, 의식은 의식을 호흡하는, 세 가지 호흡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곧 마법의 호흡법이다.

오늘 숨을 쉴 때 산소와 함께 편안한 마음과 투명한 의식이 함께 들어온다고 상상해보라. 바르돈의 체계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대가 진심으로 그렇게 믿기만 하면 그대가 바라는 것이 그대의 몸속으로 들어온다. 마법 자체가 오용의 위험을 갖고 있긴 하지만, 바르돈이 가짜일 가능성은 없다.

마법과 선禪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자기 앞에 놓고 가능한 한 가장 강력하게 심상화를 한다. 음식에 생각 즉 구체화된 소망을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의 소망이 음식에 나타나 이미 현실로 이뤄졌다고 강하게 심상화한다. …그 다음에는 천천히 의식적으로, 미세한 신경에 이르기까지 소망이 음식과 함께 몸 전체로 퍼져 나간다고 확신하면서 먹는다. 음식을 먹는 것은 신성한 행위다. 이것은 크리스천에게 성찬식이 의미하는 바와 같다.

여기까지 이해하고 터득한 수행자는 의식적인 식사의 비밀이 성찬식과 매우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받아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이 나의 피니라.' 이 성경 구절에 숨어 있는 진정한 의미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p96

마법은 무엇에든 마음을 이용한다. 호흡과 영 훈련에 이어서 식사에서도 마법과 선禪은 평행선을 간다. 선은 식사에서도 알아차림만을 취하는 반면, 마법은 음식의 원소 하나 하나에 다 마음을 싣는다. 호흡을 하든, 물을 마시든, 음식을 먹든, 혹은 그 어떤 행위를 하든 그 모든 것에 사랑과 평화와 의식을 담아서 하는 것이 곧 마법 스타일인 것이다.

아울러 두 번째 문단에서 예수가 마법사 계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탁월한 마법사인 바르돈과 다스칼로스가 예수를 언급하는 대목들을 통해 예수의 실체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모습이 마법사에 가깝다. 때문에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물 위를 걷고 했던 소위 기적들은 대부분 사실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완전히 신뢰할만한 두 사람(바르돈과 다스칼로스)이 예수에 대해서 적극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기

적을 의심할 근거가 전혀 없다. 혹시 좀 덧붙여진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약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행적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봐야하는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시크릿'류는 진정한 마법에서 쉬운 부분만 골라내서 현대인들을 유혹하는 사이비다. 바르돈이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마법의 최종 목적은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인데, 그 최종 목적을 부富와 성공으로 바꿔서 팔아먹는 놈이 있다면 과연 쓰레기라고 해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을 쓰되, 사랑과 평화와 의식을 소망해라. 그래야 마법이 제대로 이뤄져서, 그대가 완전히 행복해진다.

마법과 업業

이제 물을 이용한 마법을 시작해 보자. 우선 지금부터 손을 씻을 때마다 해야 할 일이 있다. 단순히 몸에 묻은 때만 씻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더러움도 씻어내고 있다는 사실에 힘을 다해 집중하라. 질병, 피로, 욕구 불만, 잘못에 빠진 자신을 씻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물에 흘려보내라. 더러운 물이 곧바로 없어지도록 가능한 한 흐르는 물에 씻는 것이 좋다. 자신의 문제점들이 물과 함께 하수구로 떠내려간다는 데 생각을 집중하라. 흐르는 물이 없어서 대야나 세면대에서 씻어야 할 때는, 자신의 문제점을 다 씻어내자마자 곧바로 버려야 한다. 다른 사람이 그 물에 닿지 않게 해야 한다. p99

보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대가 물로 그대의 마음을 씻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대의 더러움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물로 옮겨간다. 1

래서 어떤 사람이 그 물을 만지면 그 물의 더러움이 그 사람한테로 다시 옮겨간다. 더러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더러움의 소재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내가 씻어낸 더러움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로 옮아간다면 내가 본의 아니게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닌가?

마법은 늘 이런 위험을 수반한다. 그래서 마법을 배우려는 수행자는 반드시 항상 깨어있어야만 한다. 언제든 뜻하지 않은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법을 통해 좋은 것만 얻게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가? 마법은 지극히 피곤한 방법이다. 밥 먹을 때도 편하게 못 먹고, 세수할 때도 편하게 못한다. 혹시라도 내가 씻어낸 더러움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나 않는지 주시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법이 결코 특별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게 이해되는가? 나 같으면 마법 안 한다. 밥도 맘대로 못 먹고, 세수도 맘대로 못하고, 오락도 맘대로 못하는 인생을 무슨 재미로 살까? 길어야 80년도 못살고 죽는데 무슨 목표를 이루겠다고 생활을 통째로 수행에 바칠까? 길이 마법 밖에 없다면 어쩔 수 없어서라도 한다지만, 마법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는 하루 한 시간씩 명상만 해도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뭣 하러 24시간을 전부 수행에 바치겠는가? 마법 수행을 제대로 하면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비싼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러니 웬만하면 편안하게 수행하는 길을 택하도록 해라.

자기 암시 훈련

자기암시 훈련은 정말 간단하다.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현재시제와 명령형의 짧은 주문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나는 매일매일 나아진다', '나는 비흡연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행복하다'는 식으로 만들면 된다. 이제 실제로 훈련을 시작해 보자. 잠들기 전에 묵주나 매듭 끈을 들고 자기암시 주문을 되뇐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거나 머릿속으로 소리 없이 반복한다. p110

소망을 잠재의식(무의식)에 심으면 잠재의식이 그 소망대로 실행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그렇다. 늘 하는 얘기지만 잠재의식은 기계다.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듯이, 어떤 프로그램이든 컴퓨터에 넣고 실행시키면 무조건 프로그램이 실행되듯이, 잠재의식도 입력된 프로그램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다. 어떤 소망이든 잠재의식에 넣기만 하면 잠재의식은 기계적으로 그 소망을 실행한다. 이런 사실은 수행자들한테만 알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심리학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기 때문에, 심리학의 다양한 테크닉들을 가능케 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왜 실제로는 잘 안될까? 죽자고 '나는 행복하다!'를 외우는데도 왜 소망이 실현되지 않을까?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소망이 잠재의식에 뿌리를 내리려면 일단 잠재의식까지 가야한다. 그런데 잠재의식으로 가는 길에 마음들이 너무 많다. 때문에 그대의 소망이 잠재의식에 도달하기도 전에 마음들에게 튕겨서 도로 튀어나와 버린다. 그러니 어떻게 소망이 심어질 수 있겠는가? 10년을 빌어본들 소망이 잠재의식에 가지를 못하는데 무슨 소망이 이뤄지겠는가?

먼저 마음이라는 장애물을 없애줘야 한다. 무작정 소망을 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잠재의식까지 쉽게 갈 수 있도록 마음을 깨끗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바르돈은 가능하면 잠들기 전에 소망을 빌라고 말하고 있다. 왜 낮이 아니고 잠들기 전일까? 낮에는 마음의 활동이 왕성하지만 잠자리에서는 마음의 활동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낮에도 소망을 빌어서 잠재의식까지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마음만 깨끗하다면 언제든지 소망을 잠재의식에 넣을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이 깨끗해질까? 명상을 하면 된다. 정기적으로 명상을 해서 마음을 줄여주면, 언제든지 그대가 바라는 소망이 생길 때마다 그 소망을 즉시 잠재의식에 심어서, 잠재의식이 그 소망을 실행하도록 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소망을 실현시키는 진짜 마법은 무엇인가? 명상이 진짜 마법이다. 그렇지 않은가? 마음이라는 장애물만 없다면 언제든지 소망을 심을 수 있고, 언제든지 소망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음을 없애는 것이야말로 진짜 핵심 기술 아닌가? 진정으로 소망을 이루고 싶다면, 명상을 해라. 이 세상에 명상보다 더 강력한 마법은 없다. 절대로 없다!

사고 집중 훈련

오감을 모두 작동시키는 집중 훈련을 통해, 우리는 혼과 영, 그리고 의지력을 강화할 수 있다. 감각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고, 나아가 각 감각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계속하라. 마법사는 자신의 모든 감각을 발전시켜 그 주인이 되어야 한다.

p116

바르돈은 오감 훈련법을 제시하는데 그 강도가 예사롭지 않다. 이를테면 시각화의 경우 물건을 한번 본 후에 그 물건의 모양을 생각 속에서 고스란히 재현해야 하는데, 눈을 감고 재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눈을 뜨고서도 선명하게 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가능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보통 사람이라면 눈을 감고서도 제대로 재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눈을 뜨고 다른 물건들을 보면서 그 물건들 속에 '생각 속의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훈련을 해야 할까? 아마도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면 좀처럼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게다가 후각, 청각, 촉각, 미각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훈련시켜야 한다. 장미향이라는 단어를 보면 곧바로 코에서 장미향이 맡아져야 하고, 경적소리하면 커다란 경적소리가 귀에서 울려 퍼져야 한다. 옥수수하면 손에서 옥수수 알갱이가 만져져야 하고, 레몬이라고 하면 금세 혀가 시큼해져야 한다. 즉 생각으로 현실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선 몸이 착각을 일으키게 된다. 생각이 실제 감각과 흡사한 감각을 만들 수 있게 되면 몸은 자신에게 오는 자극이 실제 감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혹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간할 수 없다.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몸의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고 집중 훈련을 거친 수행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를테면 티베트 승려들은 한겨울에 알몸으로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린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인간이 알몸으로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장면이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고 집중 훈련'일 뿐이다. 티베트 승려들도 바르돈처럼 생각으로 감각을 만들어내는 훈련을 통해, 주위 환경에 상관없이 몸이

너무 뜨거워서 땀이 줄줄 흐른다는 생각을 현실화시킨다. 몸이 그 생각을 실제 감각으로 받아들여서 땀을 흘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라비아의 수행자들은 똑같은 내용을 반대로 한다. 땡볕이 내려쬐는 한낮 사막에서 양털을 뒤집어쓰고 앉아서, 마치 눈밭에 알몸으로 앉아있는 것처럼 벌벌 떤다. 이 역시 지금 너무 춥다는 생각을 생생하게 만들어내서 몸을 속이는 테크닉이다.

이런 사고 집중 훈련을 마스터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일단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가령 내 몸에 암 덩어리가 있다면, 암 덩어리가 녹아내린다는 생각을 현실화시켜서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다. 『홀로그램 우주』라는 책에 재미있는 사례가 나온다. 어떤 사람이 내 심장에는 하트 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심장을 꺼내보니 정말로 하트 무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이게 다 사고 집중의 결과다. 마음을 극한까지 모으면 분명히 물질이 되는 것이다. 바르돈의 마법 체계는 전혀 하자가 없다. 다만 지극한 수준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는 수행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마법과 수행

이처럼 각 원소와 관련하여 영적으로 골고루 완벽하게 발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각 원소와 감각 사이의 상응성을 고려해 수행을 선택해야 총체적으로 높은 단계에 오를 수 있다. 의지(불 원소), 지성(공기 원소), 감각(물 원소), 의식(흙 원소)을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다. p234

보다시피 마법은 각 원소들 간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어떤 원소는 강하고 다른 원소는 약한 사람은 약한 원소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통해 모든 원소를 골고루 다 잘 쓸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학생들을 받아서 가르치다 보면 이런 상황이 확연히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존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준은 낮다. 어떤 사람은 요가 선생보다 몸이 더 잘 풀려 있는데도 전체적인 점수는 낮다. 어떤 사람은 탁월한 알아차림을 갖고 있는데 말귀는 도통 못 알아듣는다. 어떤 사람은 의식도 좋고 이해도 좋은데 따뜻함이 없다. 이런 게 다 마법식으로 말하면 특정 원소의 부족이고, 수행 용어로 말하면 상 · 중 · 하단전이 골고루 열리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도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다. 그 학생이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 부분은 모른척하고 못하는 부분만 계속 지적한다. 그래야 그 학생의 의식과 사랑과 이해가 골고루 완벽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 체험을 하기는 쉽지만 완전해지기는 어렵다. 의식 체험을 한다고 해서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의식 체험은 잠깐 마음을 이기는 경험일 뿐이다. 마음을 항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마음과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 때문에 상 · 중 · 하단전을 완전히 열어서 더 이상은 마음과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시스템을 완비해야 비로소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바르돈은 마법이라는 미끼를 이용해서 수행자를 완전한 균형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그래서 바르돈이 완벽한 마법사라는 것이다.

spectrum

08

모든 것을 통합하다

켄 윌버

『의식의 스펙트럼』(범양사. 박정숙 역)

켄 윌버 Ken Wilber

(1949년1월31일 ~)

미국을 대표하는 자아초월심리학의 대가이자 최고의 통합사상가이다. 신비주의, 철학, 생태학, 발달심리학에 관한 강의와 저술활동을 해왔다. 서로 떨어져 있는 분야를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그의 시도는 1973년 그의 첫 번째 책인『의식의 스펙트럼』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인간의식의 발달 및 진화에 대한 특유의 통합이론을 제시하였고, 1998년에 통합연구소Integral Institute를 창립했다. 공식 사이트는 http://www.kenwilber.com이다. 수행가의 길을 가는 학자로서, 그는 의식 연구의 아인슈타인으로 불린다.

켄 윌버는 붓다이면서도 여느 학자들 못지않은 학구열을 가진 것이 독특하다. 때문에 나는 종종 켄 윌버를 '대對학자 전용 붓다'라고 부르기도 한다. 다양한 연구 활동에도 불구하고 켄 윌버의 의식 수준은 확고하다. 그래서 켄 윌버라는 이름을 들으면 왠지 시원하다.

유형들

죽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그러므로 사는 것이 두렵지 않다. 과격하고 거칠어지며, 격렬해지고 생기가 돌며, 소름끼치고 어리석게 된다. 전부 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게 한다.

켄 윌버는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된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다 이런 건 아니다. 켄 윌버의 유형이 이런 유형일 뿐이다. 깨달은 놈 중에는 활동적인 놈도 있지만 조용한 놈도 있다. 그래서 활동적인 놈이 '다 꿈인데 무슨 상관이야. 왕창 써도 되니까 맘껏 쓰자고!'할 때, 조용한 놈은 '어차피 썼다 지울 건데 뭐 하러 번잡을 떠나? 쓸 만큼만 쓰다 가면 되지.'한다. 어차피 꿈이니까 맘껏 쓰고 가자는 놈이 있는 반면, 어차피 꿈이니까 헛짓하기 싫다는 놈도 있는 것이다. 그 두 유형 중에서 켄 윌버는 활동적인 유형일 뿐이다.

아울러 켄 윌버는 자각몽을 꾸면서, 꿈속에서도 깨어있는 얘기를 하는데 이 역시 유형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깨달은 놈은 꿈을 꾸지 않는다. 물론 현실 속에서 마음을 쓰고 살기 때문에 가끔 꾸기도 한다. 하지만 정상적으로는 꿈이 없다. 마음에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꿈의 재료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꿈속에서 깨어 있을 일이 없다. 꿈이 없으니 꿈속에 있을 일도 없고, 꿈속에 있질 않으니 깨어 있을 일은 더 없을 것 아닌가? 하지만 켄 윌버는 꿈을 꾸는 유형이다. 그래서 꿈을 꾸되 그 속에서 깨어있는 것으로 의식을 유지하는 것이다. 켄 윌버라는 깨달은 놈이 썼으니 깨달은 놈은 다 이런가보다 하고 착각하지 말기를.

존재를 읽는 법

그것은 정신의 패러독스다. 정신이란 (존재의 기초로써) 완전하게 존재하지만 (가장 높은 목표로써)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선禪사상에서는 이런 모순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정신에 도착할 수 있는 어떤 고행이 있다면, 그 고행의 완성은 정신의 파괴를 의미한다. 그러나 정신을 향한 어떤 고행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지한 상태로 남는다.

이 모든 것이 존재라면 나도 이미 존재라는 얘긴데 왜 굳이 깨달아야 하는가? 굳이 깨달을 필요 없다. 그런데 살다보면 신호가 오는 때가 있다. 어떤 신호가 올까? 고통이라는 신호가 온다. 그러면 그대는 저절로 약을 찾게 된다. 그대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아무거나 약 비슷하게 생긴 거라면 뭐든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때 결국 만나게 되는 게 깨달음이다. 그러니 왜 깨달아야 하느냐고 미리 묻지 마라. 고통이라는 삶의 신호가 그대를 발견하는 순간 '왜?'는 흔적도 없을 테니까.

그대가 오늘 밥을 먹는 것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무의미한 짓이다. 1억년 뒤에 그대는 어차피 흔적도 없을 텐데 지금 죽으나 100년 뒤에 죽으나 다를 게 무엇인가? 하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 한 순간 한 순간 모든 것이 다 소중하고 의미가 있다. 왜 그럴까? 존재가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좌표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의 삶이 어떤 점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하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존재 전부이기도 한 것이다. 깨달음의 문제도 똑같다.

깨달아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다. 깨닫든 못 깨닫든 존재는 여전히 그대로다. 하지만 옆에서 보면 높이가 달라져 있다. 그리고 바로 이 높이 때문에 고통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구에서 한 곳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하듯이, 두 개의 좌표가 필요한 곳에서 하나의 좌표만을 고집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낼 수가 없다. 존재도 지구처럼 두 개의 좌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는 좌표와 '영원'이라는 좌표를 동시에 적용해서 읽어야 한다.

존재가 말할 때

정확하게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어떤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종류나 도구나 기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는 매우 작아서 생각해낼 수 있는 어떠한 도구, 심지어 광자처럼 가벼운 도구조차 측정이라는 바로 그 행동 때문에 전자의 위치가 바뀌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인간) 생각에는 모든 것이 딱딱 측정이 되면 좋다. 어른 걸음으로 두

어 시간 가면 된다고 알려주는 것보다는, 시속 몇 킬로로 몇 분이 걸린다고 알려주면 훨씬 정확하고 깔끔하다. 그런데 그 정확함이 한계에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가? 전자의 움직임은 정확하게 측정될 수 없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전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치나 운동량 둘 중 하나의 정확도를 포기해야 나머지 하나를 최대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측정 기술에 관계없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전자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싶어 한다. 그럼 누가 이길 것인가? 인간의 생각이 이기는가? 존재의 원리가 이기는가? 우리가, 사과가 땅에서 나무로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사과가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생각은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빛이 무조건 직진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빛은 무거운 별 옆을 지날 때는 중력 때문에 휜다. 생각이 무슨 의미인가? 논리학은 논리를 계속 따라가고 싶어 한다. 하지만 존재의 원리 앞에서 논리가 무슨 의미인가? 존재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논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인간)가 우리 위주로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이 존재의 사실 앞에서 압도당할 때, 우리는 '생각과 사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다. 뉴턴이, 사과가 떨어질 수는 있어도 다시 올라갈 수는 없음을 받아들였듯이, 에고가 꿈일 수는 있어도 사실일 수는 없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존재가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낭떠러지에 도착할 때까지 무작정 생각의 배를 타고 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더 정확한 배로 갈아타야 하는 것이다.

노래를 듣게 되리라

그것은 요리법 같은 실용적인 기술 형태와 비교될 수 있다. 케이크의 맛은 글자 그대로 형언할 수 없지만 조리법이라 불리는 일련의 명령의 형태로 독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음악은 이와 유사한 예술 형태이다. 작곡가는 그가 염두에 두는 일련의 소리를 설명할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일련의 명령을 적는다. 연주자들이 그러한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만 한다면 작곡가의 원래 경험을 재현해 낼 수 있다.

악보가 토론이 아닌 연주의 대상이듯이, 수행도 토론이 아닌 실행의 대상이다. 악보를 연주할 때 비로소 그 악보에 담긴 내용(노래)을 알게 되듯이, 명상을 실행할 때 비로소 그 명상이 담고 있는 것을 맛보게 된다. 명상을 '해라.' 그러면 존재의 노래를 들을 수 있다.

망치가 보는 세상

좁은 관심의 연속적인 조각들의 이 '선', 생각이 물체-개념들을 그 위에 일렬로 세우는 이 '선', 생각 그 자체가 생각해 낸 이 '선'은 다름 아닌 '시간'이다. 쉽게 말하자면, 시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연속적인 방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러나 자연을 습관적으로 이런 선형의 연속적이고 임시적인 방식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는 곧 다음과 같은 분명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현상의 원인이 전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의 산물이란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연 그 자체가 과거로부터 미래로, 원인에서 결과로, 앞에서 뒤로 선형으로 진행된다는 결론 말이다. 그리하여 망치에게 세계 전체는 하나의 못으로 보인다.

망치는 세상을 때려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것과 때려서 고정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눈다. 때려서 고정시키는 것이 망치의 관점이라서 그렇다. 하지만 톱은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나눈다. 톱에게 세상은 자를 수 있는 것과 자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르는 것이 톱의 관점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과거로부터 흘러와서 미래로 흘러가는 듯이 그대에게 보이는 것은, 그대가 시간을 그대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시간은 언제나 그곳에 그 모습 그대로 존재하고 있지만, 그대가 때로는 인간의 관점으로 때로는 망치의 관점으로 때로는 톱의 관점으로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시간이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고 저런 모양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그대는 망치처럼 세상을 보고 있다. 그대는 망치인가?

태양은 빛나고, 새는 노래하고…

그러나 자연은 일렬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연은 동시에 도처에서 한꺼번에 발생한다. 이런 동시발생의 증거는 바로 가까이에 있다. 책 읽기를 중지하고 위를 보라. 당신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무한하게 많은 과정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태양은 빛나고, 심장은 고동치고, 새들은 노래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폐는 숨을 쉬고, 개는 짖고, 바람은 불고, 귀뚜라미는 울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있다. 계속해서 예를 들 필요가 있을까?

이런 현상들은 시간적으로 차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들은 모두 도처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이전도 이후도 없다. 다른 말로, 자연이 선형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은 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자연은 동시다발적인 존재 전체이고, 그것이 영원의 자연이다.

할렐루야! 철학자의 글을 읽으면 피로가 쌓이는데 명상가의 글을 읽으면 피로가 풀린다.

태양은 빛나고,
심장은 고동치고,
새들은 노래하고,
아이들은 뛰놀고,
폐는 숨을 쉬고,
개는 짖고,
바람은 불고,
귀뚜라미는 울고,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여기에 굳이 생각이 끼어들어야 하는 것일까?

지금과 영원

버트란트 러셀은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을 이렇게 요약했다. '과거와 미래는 오로지 현재의 생각일 뿐이다. 과거는 기억과 동일하고 미래는 예상과 동일하다. 기억과 예상은 둘 다 현재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기억을 과거 지식과 혼동함으로써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으로부터 '시간'이라 불리는 거대한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 방법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실체로 남겨두고 현재 이외의 다른 시간

들을 전부 허깨비나 현재의 부속물로 취급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영원히 '지금'만 실체로 남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 개념을 없애는 또 다른 방법도 있다. 그것은, 모든 시간을 다 실체로 인정하는 방법이다. 즉 과거도 '지금의 현실'이고 지금도 '지금의 현실'이고 미래도 '지금의 현실'이라고 인정하면 이 우주의 모든 시간들이 다 '지금의 현실'로 요약될 수 있고, 결국 '지금의 현실'이라는 단 하나의 시간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대가 과거를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고 미래를 예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유형의 인간이라면, 과거와 미래를 다 무시해 버리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면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그대가 과거와 미래를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와 미래를 현재와 똑같이 생생한 현실로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역시 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대는 어떤 유형일까?

영원의 본성

과거와 미래는 현재 속으로 부서진다. 이전과 이후는 지금 안으로 무너진다. 선형은 동시발생 속으로 무너진다. 시간은 영원 속으로 사라진다. 즉, 지금 현재의 순간은 모든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따라서 초超시간적이다. 그래서 이 초시간적인 현재는 그 자체가 영원이다. 날짜나 지속 기간, 연장이나 계속, 과거나 미래, 이전과 이후가 없는 순간이며, 동시에 존재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본성이다.

시詩가 따로 없다. 그대의 마음, 즉 세상에 개입하려는 그대의 헛꿈이 문

득 사라질 때, 그대는 그대가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마치 헨젤과 그레텔이 자기 집에서 파랑새를 발견했던 것처럼.

실존 수준 혹은 의식 느끼기

당신은 실존 수준을 혼자 힘으로 찾아낼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외부에 있는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요소가 없는 조용한 장소로 가라. 당신에 관하여 만들어낸 모든 생각과 개념을 떨쳐 버려라. 잠시 동안 당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영리한지 바보 같은지, 행복한지 우울한지 잊어라. 그런 후 이런 생각의 '아래' 또는 '배후에' 존속하는 '기분'을 인지해라. 생각이 아닌 '기분' 말이다. 그것이 실존 수준이고, 그것이 정신적이지도 육체적이지도 않은 실존의 기분이다. 정신 대 육체라는 제3의 이원주의가 이 수준에서는 아직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감정은 단순하고, 순수하고, 중립적이다.

켄 윌버는 지금 순수의식이 어떤 과정을 통해 물질과 에고로 진화했는지를 설명하는 중이다. 그런 설명 중에 '실존 수준'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위의 글은 그 실존 수준을 설명하는 글이다. 실존 수준은 순수의식과 에고 사이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그래서 에고 수준에서 현실을 살고 있는 그대가 그대의 실존 수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보다시피 실존 수준은 곧 생각 이전의 느낌이고, 명상이고, 위빠사나고, 의식 느끼기다. 컵을 보면서 컵이라고 생각하거나 컵이라는 이름을 떠올리기 이전의 의식 상태. 나무 냄새를 맡으면서 그 냄새를 말로 변환시키기 이전의 상태. 그것을 어떤 언어로도 규정하지 않은 채 계속 느끼는 상태. 그 상태를 켄 윌버는 실존 수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너무 멋진 경치를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이 딱 벌어지면서 딱히 표현할 말이 안 떠오르는데, 그게 바로 강제된 실존 수준이다. 강제됐다는 것은 그대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외부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언어가 끊어졌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대가 문을 약간 열기만 하면 환경에 의해 강제되었을 때뿐만 아니라, 그대가 원할 때마다 실존 수준을 경험할 수 있다. 평소에 생활할 때 생각과 언어를 몇 초만 늦게 떠올릴 수 있다면 그때마다 실존 수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름을 3초만 늦게 부르는 습관을 들여 봐라. 연필을 볼 때 곧바로 연필이라고 불러 버리지 말고 3초 동안 '????'을 유지한 후에 연필이라고 불러봐라. 그러면 그 3초 동안 의식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3초 동안 의식을 느낄 수 있게 되면 그 시간을 10초로 늘일 수 있고, 또 한 시간, 열 시간, 1년으로도 늘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대의 원래 모습인 순수의식으로도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누가 내 마음을 결정하는가?

에리히 프롬의 주장을 인용해보자. '사회는 허구를 우리 의식으로 흘려보낼 뿐만 아니라 실재의 의식을 방해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든 사회는 그만의 삶의 관례와 관계, 감정, 인식의 방식을 통해 의식의 형태를 결정하는 카테고리 시스템을 발전시킨다. 이 시스템은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조건 지워진 필터로 작용한다. 이 필터를 통과하지 못한 경험은 의식으로 들어갈 수 없다. …나는 (사회적으로 습관화된) 언어, 논리, 금기(사회적 특성)란 세 겹의 필터를 통과하도록 허락받은 나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의식한다. 통과되지 못한 경험들은 의식 밖에 남아 있다. 즉 그것들은 무의식이 된다.'

사회가 나의 마음을 결정한다는 얘기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조차도 내 맘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 놓여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용납하지 못한다. 내 맘조차 내 맘대로 선택하지 못한다면 나의 '나'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나'가 아닌가? 나 이외에 누가 '나'를 결정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담고 있는 마음들을 전부 끄집어내서 다시 선택하고 다시 배열하는 작업을 한다.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작업을 비로소 시작하는 것이다.

통합심리학

절대 주체성으로서의 인간은 신神이다. 이것이 동양의 관심사이다. 지식의 객체로서 인간은 현상적 에고이다. 이것이 서양의 관심사이다. 둘을 합하면 그것들은 의식의 스펙트럼 전체에 미친다. 만일 서양 연구자들이 실존, 에고, 그림자 수준을 확인하고 의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됐다. 반면, 동양 연구자들은 우리 대부분이 남아 있는 의식의 수준을 극단적으로 무시한다. 따라서 우리는 동양의 현인들이 주장하는 의견에 충분히 동의하는 반면 그들의 심리학에 서양 과학자들이 발견한 내용을 보충함으로써 강조의 초점을 약간 바꾼다.

이게 켄 윌버가 의도하는 통합 심리학이다. 마음에 대한 동양의 앎과 서양의 앎을 통합해서 더 포괄적이고 더 강력하게 구축되는 체계가 통합 심리학이다. 동양의 수행 체계는 마음의 각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은 어차피 지우개로 지워 버려야할 헛꿈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헛꿈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고 하지 않는다. 그 결과, 동양의 수행 체계는 각각의 마

음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없다.

반면에 서양의 학문 체계는 총론이 약하다. 마음은 에고를 넘어서도 존재하는 보다 광범위한 실체인데, 서양의 심리학은 마음을 에고의 부속물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 심리학은 에고를 넘어갈 방법을 제시할 수가 없고, 에고를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 그리하여 서양 심리학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기껏해야 건강한 에고에 그치고 마는 것이다. 하지만 서양 심리학은 각론이 강하다. 마음의 증상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그런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삶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때문에 켄 윌버는 동양으로부터는 총론을 받아들이고 서양으로부터는 각론을 받아들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하고 모색한다. 동양의 앎을 바탕으로 해서 마음의 범위를 에고에서 무아(존재)로까지 넓히는 동시에, 에고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서양의 정신분석 요법 같은 도구들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누군가가 한 번은 해야 할 작업인데 마침 켄 윌버가 딱 나타난 셈이다. 한 사람이 수행적인 성향과 학자적인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기가 어려운데, 켄 윌버는 독특하게도 심원한 수행자인 동시에 출중한 학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켄 윌버가 할 만한 작업을 켄 윌버가 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내 입장에선 별로 재미가 없다. 나는 학자이기보다는 수행자이기 때문이다.

동일시는 나쁘다?

베누아는 다음과 같이 밝힌다. '이러한 동일시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우주의 나머지와의 동등한 동일화를 배제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할 뿐이다. 이기적인 환상은 나의 유기체와의 동일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동일시가 실현되는 배타적인 방식에 있다.'

그렇다. 우리는 남의 몸보다 내 몸에 먼저 관심을 준다. 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믿는 것은 사실 자연스런 현상인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자연스러운 동일시는 필연적으로 '나 아닌 것'을 설정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문제다. 바로 그 배타성 때문에 에고가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다. 결국 에고는 깨닫고 나서도 다시 사용된다. 그래서 베누아가 동일시 자체는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고로 인한 배타성은 문제라고 말해지고 있듯이, 깨닫고 나서 사용되는 에고는 배타성이 없다. 즉 하나의 관점으로만 사용되는 것이다. 깨닫는다고 해서 내 밥을 전부 나눠줘 버리고 나는 굶어죽어도 좋다는 식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몸과 마음은 여전히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 다만 이 몸과 마음 외의 모든 것 역시도 '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뿐이다. 그래서 사실 수행의 목표는 에고의 제거가 아니라 에고의 배타성의 제거라고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베누아의 주장은 지당한 얘기이다.

자작극

그림자 수준에서 증상이 무엇이 됐던– 죄의식, 공포, 걱정, 우울 –엄밀히 말해 그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를 정신적으로 꼬집은 결과이다. 비록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증상을 원하고, 그것의 본질이 어떻든 그것이 떠

나기 원하는 만큼이나 많이 그것이 여기 남아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암시한다.

그대가 사실은 그대의 고통을 필요로 해서 그것을 붙잡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대는 "아니 내가 왜 고통을 원합니까? 내 유일한 소원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내가 고통을 붙잡아두다니요?"라고 반박하겠지만, 그건 그대가 그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다. 그럼 왜 사람들이 고통을 필요로 하는 것일까? 고통이 허망함보다는 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에고는 근본적으로 이분법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 그 상대방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부차적인 문제다. 그 상대방이 어떤 것이건 최소한 상대방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이분법에 근거한 에고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내 앞에 아무 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그럴까? 왜 에고는 상대방이 사라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 이분법 속에서 상대방이 사라진다는 것은 곧 '나'도 사라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다. 그대에게 죽음이 가장 두렵듯이 에고에게도 사라짐이 가장 두려운 것이다.

때문에 에고는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설정하는데, 에고에는 여러 정신 단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묘하게 위장을 하게 된다. 에고는 에고 자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에고 자신이 납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에고가 눈치 챌 수 없도록 나쁜 것을 상대방으로 설정한다. 만약 좋은 것을 상대방으로 설정하면 그대가 눈치 챌 수도 있다. 하지만 나쁜 것을 상대방으로 설정하면, 그대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고통을 싫어

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 내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들키지 않고도 – 상대방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고의 자작극이다. 혼자 존재하기는 두려우니까 상대방을 설정하는데, 내가 상대방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상식을 거슬러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상대방으로 설정해놓고, 그것과의 싸움을 통해서 에고가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게 다 오직 이분법을 통해서만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은 탓이다. 마음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굳이 상대방을 설정해야만 하고, 또 그 설정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설정된 상대방과 끝없이 싸워야만 하고, 또 그 끝없는 싸움에 대해서 끝없이 고민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나 많이 하고 있는가? 마음은 절대로 홀로 설 수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 마음은 얼마든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 물론 마음이 홀로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마음을 오랫동안 잘 지켜봐야 한다.

마음사용법

따라서 문제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의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그 증상을 충분히 경험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우울하다면 더욱 우울해지려고 노력해라. 만일 긴장하고 있다면 훨씬 더 긴장하도록 만들어라. 만일 죄의식을 느낀다면, 그 죄의식의 감정을 증가시켜라.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 행동해라! 그렇게 함으로써 난생 처음 스스로를

인정하고 자신과 그림자와 한편이 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이제까지 무의식적으로 하던 행위를 의식적으로 하게 된다.

성냥 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용될 수 있는 화약으로 남듯이, 마음도 사용하지 않으면 화약으로 남게 된다. 차라리 사용해버리는 게 낫다. 길을 가는데 어떤 놈이 그대에게 욕을 하면 그대도 욕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 마음은 원래 그런 것이다. 그런데 그대는 그 욕을 덮어두려고 한다. 만약 그대가 스스로 마음을 마음대로 쓰고 지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다. 그대한테 온 욕을 의식의 힘으로 지우거나 통과시켜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가 스스로 마음을 지울 힘도 없으면서 튀어나가려는 욕을 붙잡아서 담아둔다면, 그 욕이 그대의 마음속에서 화약이 된다. 마음이 병을 앓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마음을 사용해라.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두려우면 두려워하고, 답답하면 고함을 질러라. 그런데 마음을 사용하면서 '마음 사용법'을 익히지 못하면 또 소용이 없다. 그건 마치 내 집이 없으면 평생 임대료를 내야 하는 것과 같다. 마음 사용법을 알지 못하면 마음을 사용할 때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마음을 사용하되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요리하는 법을 관찰해야 요리법을 습득할 수 있듯이,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을 관찰해야 마음을 알게 될 것 아닌가? 욕이 나올 때는 욕을 해라. 다만, 마음은 반응을 통해 작동한다는 걸 알아차려야 욕을 한 보람이 있다. 마음에 좋은 것이 들어가면 마음은 좋은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가면 마음은 나쁜 것을 내놓는다. 왜냐하면 마음은 '반응 기계'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마음을 좇아가는 것은 마음이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다. 그대는 바보보다도 못한 기계에게 인생을 내맡기고 있다. 마음을 피할수록 마음은 위대해진다. 여자에 대해서 잘 모를수록 여자가 신비스럽게 여겨지는 것과 똑같다. 하지만 결혼해서 살아보면 여자도 똑같은 사람에 지나지 않듯이, 마음도 피하지 않고 겪어보면 사실은 간단한 기계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내 뜻대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음을 사용하면서, 마음을 관찰하고 그리고 마음 사용법을 익혀라. 그대가 사용하기 위해서 마음을 창조한 것이지, 마음에게 쓰이게 하기 위해서 그대가 생겨난 게 아니다.

지도와 영토

우리가 지도를 지도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지도를 초월하여 영토 그 자체에 도착할 수 있고,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환상이란 구조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다.

개인의 마음 자체가 이미 꿈이다. 그런데 그 꿈들이 모여서 사회적인 꿈을 형성한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꿈이 다시 개인에게 적용된다. 아이는 자연인으로 태어나지만 부모에 의해 느낌에서 생각으로 옮겨가도록 강요당한다. 설령 아이가 꽃을 꽃 그 자체로, 바다를 바다 그 자체로 받아들이고 싶을지라도, 부모에 의해서 꽃이라는 언어 바다라는 언어를 선택하도록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언어에 의해 지배되는 세상은 곧 지도map와 같은 것이다. 꽃이라는 이름

에는 향기도 없고 감촉도 없듯이, 실재를 베낀 지도에는 흙냄새도 없고 분위기도 없다. 지도에는 그저 최소한의 구조만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지도를 마치 실제 대지인 듯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 그래서 마음의 헛꿈이 점점 더 현실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등산을 가기 위해서 지도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없다. 지도에는 산 냄새도, 새소리도, 물소리도, 소나무껍질도, 구름과 바람도 없기 때문이다. 무엇이 진짜 현실이고 무엇이 현실을 베낀 그림일까? 지도와 영토를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지도 위에서만 살다가 죽게 된다.

몸에 나타난 마음

그래서 누군가를 질식시키고 싶은 사람은 그 공격성을 반전하여 말을 더듬게 될 것이다. 혹은 다른 사람을 호되게 혼내주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기는커녕 온몸을 뻣뻣하게 만들고 긴장시킨다. 따라서 정신에서 공격은 그것을 억압하고 투사함으로써 소외되지만, 육체에서 공격은 정상적으로 그 감정을 방출할 때 사용하는 근육을 모두 가둠으로써만 억압이 가능하다. 그 결과는 교착상태, 경련, 봉쇄이다.

마음에서 감춘 마음이 몸에서 나타나는데 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지 않고 왜곡돼서 나타난다. 마음에는 여러 가지 힘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힘들의 역학 구조에 따라서 원래 마음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누군가를 때리고 싶다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힘

을 행사한다. 어떤 마음은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는 반면, 어떤 마음은 참으라고 말하고, 어떤 마음은 누군가를 때렸을 때의 손익을 계산하고, 어떤 마음은 미래를 걱정하고, 어떤 마음은 회의론을 내세운다. 그런 마음들이 작용한 결과 마음을 억누르고 참기로 결심하는데, 문제는 그 공격성이 잘 감춰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마음 영역에서는 이성의 힘으로 그 마음을 덮어두고 있지만, 그 공격성은 마음 영역을 피해서 육체 영역에서 슬그머니 나타난다.

하지만 공격성을 공격성으로 표현하면 다시 이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남들이 널 어떻게 보겠냐? 한 대 때리면 얼마를 물어줘야 하냐? 감옥 가면 어떻게 하냐? 그렇게나 참을성이 없냐?…. 그래서 숨겨진 마음이 육체를 통해 나타나되 왜곡돼서 나타난다. 공격성이 행동불능으로 둔갑을 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에 의한 왜곡과 은닉을 치료하는 것이 심리분석의 주요 과제들이다.

마음에서 감춰진 마음들은 결국 몸을 통해 비집고 나온다. 그래서 몸을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대충 알 수 있다. 어떤 단어를 주로 쓰는가? 말을 어떻게 하는가? 목소리는 어떤가? 표정에 어떤 특색이 있는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는가? 몸가짐과 움직임은 어떤가? 등등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 사람 마음의 주요한 상태들을 대략 다 알아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가 그대의 몸을 관찰해서 그대의 마음 상태를 알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spectrum

09

의식의 지도를 그리다

데이비드 호킨스

『나의 눈』(한문화, 문진희 역)

데이비드 호킨스 David Roman Hawkins

(1927년6월3일 ~ 2012년9월19일)

‘의식 지도’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다. 1952년부터 정신과 의사로 일해 왔으며, 미국 정신과학회의 평생회원이다. 1973년에 노벨상 수상자 라이너스 폴링과 『분자교정 정신의학Orthomolecular Psychiatry』을 공동으로 집필했다. 이 책은 정신의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영적으로 진화한 상태와 의식 연구 및 참나로서의 신의 현존에 대한 각성이라는 주제에 관해 오랫동안 연구해 왔다. 1995년에 펴낸 『의식혁명』(Power vs. Force)은 그를 명사의 반열에 올려놓았는데, 국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나의 눈 The Eye of I, 호모 스피리투스 I: Reality and Subjectivity, 진실 대 거짓Truth vs. Falsehood,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 Discovery of the Presence of God, 의식 수준을 넘어서 Transcending the Levels of Consciousness 등의 저서가 국내에 소개되어 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운동역학으로 측정한 의식수준을 맹신한다. 난 호킨스의 그런 점이 별로 맘에 들지 않는다. 존재가 선으로도 갔다가 악으로도 갔다가 하면서 너울너울 춤추고 있는데, 그 존재에게 참과 거짓의 잣대를 들이대는 건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도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존재의 측면에서는 선악이 있을 수 없지만 이 현실 속에서는 분명히 선악이 있는 것이고, 그 현실의 선악이 고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실 속에서 현실적으로 대응하려는 호킨스의 의도를 틀렸다거나 나쁘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태극이 정확한 반원 두 개의 합이 아니듯이, 존재도 대립이 아니라 조화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운동역학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운동역학이 존재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멋진 예술론

예술이 시간상의 어느 한 순간을 포착해서 사진이나 조각 작품으로 고정시키려 할 때, 그것은 이런 앎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려는 시도가 된다. 정지된 하나하나의 프레임은 완전함을 표현한다. 우리는 어느 한 장면이 중첩된 스토리의 왜곡에서 분리될 때라야만 그 완전함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다. 존재의 매 순간의 드라마는 예술이, 이른바 역사라는 물질적인 형태로의 변형과 다름없는 죽음의 상태에서 그것을 구해내 줄 때 제대로 보존된다. 주어진 어느 한 순간에 내재된 순수함은 그 순간이, 선택된 순간들을

연속시켜서 만든 하나의 '이야기'에 투영되어 있는 맥락 혹은 전후 관계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드러난다. p25

멋진 예술론이다. 예술의 쾌감은 어디서 오는가? 모차르트의 음악과 피카소의 그림은 왜 즐거움을 주는가? 그 음악과 그림이 존재의 실체를 슬쩍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이비드 호킨스는 예술이 쾌감을 주는 이유를 '전후 맥락으로부터의 탈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후 맥락이 존재를 가리는 장애물이라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전후 맥락이 장애물이라야, 그 장애물에서 벗어날 때 존재와 만나게 되고, 그 때문에 기쁨을 맛본다는 얘기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왜 전후 맥락이 장애물인가? 전후 맥락이 바로 인간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존재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이 자신의 감각과 느낌과 생각을 버무려서 만든 새로운 이야기가 바로 관념이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름'이다. 실체가 이름으로 대체된 것이 바로 타락이라는 얘기다.

그대가 길을 가다가 장미를 보면 그대의 반응은 어느 쪽일까? 존재 대 존재로 장미를 만날까, 혹은 '장미'라는 이름을 떠올리고 지나칠까? 그대는 바쁜 사람이다. 게다가 장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다. 그런 그대가 장미의 존재를 만나고 있을 여유가 있을까? 그래서 그대는 장미를 볼 때 장미라는 이름 혹은 장미라는 '요약'을 사용한다. 장미의 이름표만 슬쩍 보고 다른 이름표를 보기 위해 떠나버리는 것이다. 장미의 이름표만 슬쩍 보는 그대가 장미의 실체를 알 기회가 있을까? 당연히 없다. 장미는 그대에게 장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의 맥락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다 그대가 우연히 미술관에 가서 장미를 크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그제야 '장미가 이렇게 생겼구나'하고 생각한다. 지금 데이비드 호킨스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장미를 직접 만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예술가가 장미를 그림 하나로 떼어내서 그대에게 다시 보여준다는 얘기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술이라는 영역이 계속 생존한다. 사람들은 늘 바쁘기 때문에 존재와 직접 만날 기회가 없고, 그 때문에 존재를 따로 떼서 보여주는 작업이 늘 필요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어리석음 중 하나인 분리된 것을 연결된 것으로 보기다. 그래서 명상은 이 첫 번째 어리석음을 깨기 위해서 흔히 '처음 보는 것처럼 봐라', '이름 없이 봐라'같은 요구를 한다. 그대를 관념과 이름으로부터 잠시라도 떼려는 시도다. 마음의 대표적인 두 가지 어리석음 중 또 하나는 연결된 것을 분리된 것으로 보기인데 그 대표적인 예가 '나와 남'이다. 바다에 진짜 섬은 하나도 없다. 물 밑에서는 섬들이 다 하나로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그렇듯이, 나와 남도 실제로는 엄연히 이어진 '하나의 몸'인데도, 마음은 나는 나고 남은 남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명상은 그 분리를 깨주기 위해서 경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라고 요구한다. 그대는 나와 남 사이에 분명히 경계가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아무런 경계가 없기 때문이다. 예술의 역할이 무엇인지, 관념과 이름이 무엇인지, 마음의 대표적인 어리석음 두 가지가 무엇인지, 그대가 언젠가는 알아야할 존재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가?

에고

에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과거에 대한 후회 사이에서 요동하는 듯하다.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시간관념과 욕망은 결핍이라는 환상에서 비롯된다. 완전하다는 느낌이 들 때 욕망은 사라진다. 에고는 인과율의 환상과 시간에 종속되기 때문에 자신이 유한하다고 믿음으로써 자신이 생존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한다. p37

이것이 에고다. 그렇다면 이 에고라는 것은 어디서 왔을까? 에고는 어디서 온 것이 아니라 조금씩 시간을 따라 형성됐다. 아메바는 에고가 없다. 아메바는 에고를 형성할만한 정신적인 틀이 없기 때문이다. 아메바는 그냥 감각한다. 존재의 원래 상태에 '감각'이 더해진 상태가 아메바다. 그런데 아메바가 도마뱀으로 진화하면 정신적인 틀이 좀 커진다. 그 틀 속에 감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생각이 함께 들어가게 된다. 그리하여 '나의 영역'이라는 느낌이 생긴다. 뇌가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에고가 차츰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것이다. 사자는 자기 영역을 확고하게 인식하고, 자기 자손도 명확하게 인식한다. 하지만 아직 자신을 돌아볼만한 정신의 틀은 없고, 우주를 인식할 능력도 없다. 희미한 에고로 자신을 주장하기는 하지만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따져볼만한 뇌는 없다.

그러다가 인간에게 와서 사건이 벌어진다. 이를테면 뇌의 도약이다. 인간에게 와서 뇌는 자신을 객체로 보는 것이 가능한 입체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입체적인 사고 때문에 두 가지 획기적인 일이 가능해진다. 에고를 확정짓는 것과 에고를 깨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인간의 뇌가 한 단계 도약하지 않았다면, 에고가 생기지도 않았겠지만 깨달음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에고가 확정됐기 때문에 깨달음도 가능해진 것이다. 참으로 공평한 존

재가 재미있지 않은가? 존재는 인간에게 문제와 답을 동시에 던져줬다. 이 무슨 장난꾸러기 같은 짓인가?

인간의 뇌는 시간과 공간을 인식해서 그 속에서 에고를 생존시킬 수 있는 동시에, 그 에고의 허상을 알아차려서 단번에 존재로 복귀할 수도 있다. 에고와 깨달음은 순전히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그대는 지금 어느 쪽을 선택하는가?

이익

정신과 의사들, 의식에 대한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영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집단들이 맨 먼저 『의식혁명』에 관심을 보였다. 그 책은 인간의 평상적인 삶의 많은 영역에 그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매우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당장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는 아직 그 엄청난 이익들을 발견해야만 하는 처지에 있다. p42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게 문제다. 운동역학과 의식혁명은 분명히 멋진 일이고 또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 또한 이 현상계의 한 모양일 뿐이지 않은가? 그렇다면 그 모양에 굳이 집착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주고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 것 아닌가? 그걸 무슨 획기적인 발견이라도 되는 듯이, 운동역학으로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듯이 떠들어댈 건 없지 않은가? 어차피 근원 외에는 다 허깨비인데 허깨비로 뭘 만들겠다고

일일이 측정을 하고, 자료를 만들고, 순위를 매기고 하는가? 존재는 빙글빙글 돌면서 놀고 있음을 아직 모르는 것인가?

있는 듯이 없는 듯이, 하는 듯이 마는 듯이, 바다가 출렁이듯이, 바람이 일렁이듯이, 유연하지 못한 것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한계다. 존재는 숫자가 아니라 춤이다. 춤은, 분석이 안 된다.

매력

진실과 거짓 테스트라는 쉽고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역사상의 모든 독재자와 황제, 선동가는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했다. 히틀러의 사진을 서류 봉투 속에 집어넣고 어린이에게 한 손으로 들어 명치에 갖다 대게 하면, 그 어린이의 다른 쪽 팔 근육은 약해진다. 이와 똑같은 반응은 스탈린과 레닌, 아랍의 광적인 지도자들, 공산주의, 캄보디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흉포한 지도자들, 알라신의 이름 뒤에 숨은 전제자들의 진면목을 여실히 드러내준다. p70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로 하여금 '존재의 춤'을 포기하게 만든 이유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존재를 한 줄로 세우는 어리석음을 감수하면서라도 인류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싶었던 것이다. 마음의 판단은 종종 실수를 하지만 운동역학은 절대로 실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운동역학을 세상의 나침반으로 만들어서, 세상이 다시는 가짜를 진짜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었던 것이다.

운동역학이 이런 자비심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어리석은 숫자들을 이해해

줄 만하다. 나도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그 과정에서 나는 투명함을 일부 잃게 되지만, 나는 나의 투명함보다는 사람들의 평안함에 더 관심이 많다. 나도 자비심을 위해서 투명함을 포기하고 있으니 데이비드 호킨스의 자비심을 나무랄 수는 없는 일이다.

아이의 팔

아이의 팔은 문명의 새로운 새벽의 첫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것일 수 있다. 우리가 아이의 순수함을 통해서 '신'과 하늘나라로 인도되리라는 이야기는 성인들이 이미 설파했다. 진리에 이르는 문은 인간 내면에 있는 아이의 순수함과 천진함을 통해서만 열릴 수 있다. p72

운동역학의 원리는 한마디로 '멘탈체로 감각하기'다. 인간의 몸은 육체 안에 아스트랄체(마음의 몸)가 있고 또 그 안에 멘탈체(의식의 몸)가 있는데, 멘탈체는 멘탈체 고유의 감각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감각의 기능을 진짜, 가짜 판별에 사용한 것이 곧 운동역학이다. 운동역학은 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의식 수준을 측정하는가? 어린 아이는 아직 육체와 아스트랄체가 성숙하지 않은 상태라서 멘탈체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 그래서 어린 아이는 '멘탈체 감각'이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아이가 성장해서 어른이 되면, 멘탈체 위에 아스트랄체가 덮이게 되고 거기에 육체의 습관까지 쌓이게 돼서 멘탈체가 깊은 곳에 묻히게 된다. 그래서 어른은 운동역학 측정에 적합지 않다.

운동역학의 원리는 자명한 것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 다만 데이비드 호킨스가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에 다소 무리가 있을 뿐이다. 존재는 곧 선

과 악의 어우러진 놀이인데, 너무 선만을 편든다면 그 치우침이 다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착각

사실 우리는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 마음이 드러내는 것은 기억, 망상, 두려움, 개념 등으로 위장한 무한한 옵션들의 흐름이다. 마음의 지배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런 주제들의 흐름이 그저 마음의 스크린을 가로지르는,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는 셀프서비스 식당의 음식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 p73

사실 우리는 마음에 지배당하고 있지 않다. 이게 그대가 꼭 알아야할 사실이다. 그대가 최면에 걸려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마음은 아무런 힘이 없다. 그런데 왜 마음이 그대를 지배하는가? 그대가 그렇게 믿기 때문이다. 그건 마음이 원한 것도 아니다. 마음은 괜히 지나가다가 엉겁결에 그대의 왕으로 모셔져서 얼떨결에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대는 왕에게 간청을 한다. "제발 좀 저를 놓아주세요." 마음이 뭘 안다고 마음에게 간청을 하겠는가? 마음은 자기가 그대를 지배하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그런 바보가 그대의 말을 알아들을 것 같은가? 마음은 무생물이다. 마음은 그대를 지배할 수도 없고, 그대의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대가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대가 인형을 붙잡고 신하 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가 혼자서 놀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사라진다. 애당초 그 자리에는 그대의 자작극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다.

뿌리

인간은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자책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싸우고, 고통스러워하는 데 익숙한 나머지, 여타의 부정적인 정서와 태도, 감정 등을 살아가는 과정에 으레 따르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인류(환자)는 '자기들의 그런 느낌에 공감해줄' 치료자들을 찾아가 보라는 충고를 받곤 한다. 하지만 망상이 부채질하고 조장해낸 그런 감정에 '공감해주기'보다는 그것의 근원이 바로 '지각'임을 밝혀줌으로써 모조리 뿌리뽑아버리는 편이 훨씬 더 유익할 것이다. p76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인 반면, 마음의 뿌리를 들어내는 것은 수행이 하는 일이다. 마음의 뿌리는 무엇인가? 지각이 마음의 뿌리다. 그대의 감각, 그대의 느낌, 그대의 생각이 마음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뿌리인 지각을 무시해버리면 마음이 더 생겨나지 않는다. 실험을 해보라. 감각이 일어날 때 그것을 무시해라. 가령 몸 어딘가에서 통증이 느껴질 때 그것을 무시해라. 통증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니다. 몸이 있는 한 통증을 안 느낄 수는 없다. 하지만 통증을 느끼되, 통증만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그게 통증을 무시하는 것이다. 통증이 생기면 아프다. 그럼 아프기만 해라. 그게 통증을 무시하는 것이다. '아프다!' 그걸로 끝내라. 거기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마라. 그러면 그 통증으로 인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대가 감각을 무시했기 때문에 감각이 마음을 만들지 못하는 것이다.

느낌이나 생각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보라. 슬픔이 느껴질 때 슬픔만 느껴라. '슬프다!' 거기서 끝내라. 슬픈 일이 있으면 슬픈 게 당연하다. 그러니 슬

펴해라. 하지만 거기에 다른 것을 덧붙이지는 마라. 그러면 슬픔에서 다른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감각과 느낌과 생각을 무시하는 연습을 해보라. 생각 외로 크게 어렵지 않다. 단번에 성공하진 못하겠지만 몇 번만 해보면 나름대로 요령도 생긴다. 마음의 뿌리를 만나보라. 마음은 결코 막연하지 않다. 그래서 구체적인 작업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요한계시록

구약은 190으로 측정된다. 그러나 창세기의 레벨은 600이다. 창세기를 제외한 구약은 불과 130으로 측정된다. 신약에서 '요한계시록'은 대단히 낮은 수준인 30레벨로 측정된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극도로 수준 낮은 성기체(마음)적인 환각과 그 전형을 이루는 공포스러운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계시록'을 빼버릴 경우 신약은 630으로 측정된다. p93

데이비드 호킨스의 '진짜, 가짜' 마인드는 다소 뻣뻣한 맛이 있지만 그것 외에는 따로 흠잡을만한 것이 없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자료는 완전히 신뢰할만하다. 게다가 나의 느낌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다만 요한계시록이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다소 의외다. 요한복음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요한은 예수의 말뜻을 가장 잘 이해한 제자였는데 아무리 말년에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게나 분노의 화신이 되었을까 싶어진다. 애당초 계시록은 관심 밖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요한복음의 저자가 쓴 글인데 좀 뜻밖이다.

분노와 이해

분노는 이해를 통해 연민으로 바뀐다. 그렇기에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는 '죄가 있다면 단 하나, 바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라는 위대한 역사적 진술들이 진실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p96

분노가 일어나는 원리는 성냥을 켜는 원리와 같다. 성냥을 공책에 문지른다고 불이 켜지는가? 성냥을 성냥갑 마찰 면에 문질러야 불이 일어난다. 분노도 꼭 그렇게 일어난다. 분노를 유발할만한 재료가 그대에게 들어온다고 무조건 화가 날까? 그 재료가 '나'한테 온다는 믿음이 미리 존재하지 않으면 화가 날 수가 없다. 마치 성냥을 공책에다 문지르는 것처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보면 에고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다. 분노가 켜진다면 그건 마찰판(에고)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왜 이 몸이 '나'일 수가 없는지, 왜 타인들의 마음이 그 타인들 자신일 수가 없는지, 왜 존재가 한 덩어리인지를 깊이 이해해야 비로소 에고가 성립할 수 없고, 에고가 없어야만 분노가 생겨날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우주를 통째로 봐라. 누가 상처 주고 누가 상처 받는가? 누가 죽고 누가 사는가? 그저 우주가 이리저리 흘러다닐 뿐이다.

임종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물질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이익을 버려야 한다. 그렇

게 함으로써 덧없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에 속하게 되고, 한낱 환상에 불과한 것이 아닌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한 가지 방법은, 임종을 맞이해서 자리에 누운 자신을 그리면서 그 순간에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싶어 할지 물어보는 것이다. p97

좋은 방법이다. 그대도 남들처럼 태어나서 남들처럼 성장해왔다. 그렇다면 그대도 남들처럼 늙을 것이고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대가 죽는 날 그대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 그대가 남을 속여서 얻은 재물은 이제 더 이상 그대가 쓸 수 없지만, 남을 속였다는 자책감은 그대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그런데 마음은 피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그대는 그 후회를 어떻게 감당하려는가? 게다가 그 후회는 그대의 몸이 죽은 후에도 그대의 영혼을 따라간다. 끝까지 그대 곁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재물인가 마음인가?

그대의 마음이 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대는 자신의 삶이 끝난다는 상실감을 느낄 틈이 없을 것이다. 이미 자리 잡은 만족을 무엇이 깰 수 있겠는가? 그대는 기꺼이 죽을 것이다. '기쁨을 충분히 맛봤으니 이젠 몸을 좀 쉬어야지…'하면서 마치 잠 속으로 빨려들 듯이 몸을 떠나갈 것이다. 그대는 미래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인가? 그저 오늘만 무사하면 그만인가? 하지만 그대의 소중한 오늘도 1년 전에는 미래가 아니었던가? 그대에게 오늘이 있다는 건 미래가 반드시 현실로 닥쳐온다는 증거가 아닌가?

삶 속에서 욕심이 없을 수는 없다. 다만 그 욕심을 만날 때 '내가 죽는 순간에 혹시 이 욕심이 나를 괴롭히지나 않을까?'하고 한번 물어보라. 그대가 쓸 수 없는 것을 위해서 그대가 감당해야할 괴로움을 불러온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대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는다면…'

하고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은 그대에게 꼭 필요하다.

균형

박학다식함도 진리를 보증해주지는 못한다. 대단히 명민한 스승들도 자세히 조사해 보면 심장 차크라가 불균형하다. 반면에 '더없이 다정다감한' 자애로운 스승의 경우에는 제3의 눈 혹은 정수리 차크라가 불균형하여 추종자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 이 경우, 추종자들은 영적인 환멸감으로 우울증에 빠지거나 자살까지 하는 등 더없이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게 된다. p104

이래서 차크라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하단전(의식)에만 치중한 나머지 지혜와 사랑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에만 몰입한 끝에 분별이 없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만 에너지가 몰려서 생각을 이기지를 못한다. 가르치는 사람이 결함을 갖고 있으면서 그 결함을 완전함이라고 가르친다면, 배우는 사람들도 선생의 결함을 이어받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그 선생은 가르침을 베푼 것인가 결함을 전염시킨 것인가?

대표적인 예가, 오로지 머리에만 몰입했던 무묘앙 에오다. 모름지기 수행자는 먼저 하단전의 그릇을 만든 후에 생각을 그 그릇 속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어야하는데, 에오는 머리로만 알면 충분하다고 믿는 바람에 터무니없는 바보가 되고 말았다. 수행을 하더라도 주변을 좀 봐가면서 여유 있게 해야 하는데, 에오는 성급히 자신의 길만을 고집하다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끝없이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나는 정말로 투명한가? 나는 정말 거리낌이 없는가? 내가 알아차린 나의 마음은 언젠가는 남에게도 알려진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마음을 즉시 처리해줘야 후환이 없다. 수행자는 자신에게 철저히 냉정해야 하는 것이다. 의식과 사랑과 지혜. 그대는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가? 어느 것이 강하고 어느 것이 약한가? 자신의 약한 부분을 얼른 알아차려서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야 비로소 '완전한 마음'이 된다.

종교의 진화

얼마 후, 이 잘못은 에고의 특성을 '신'에게 돌린 탓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무신론은, 참된 신은 종교가 설파했던 신과는 정반대되는 존재일 것이라는 영적인 직관이 널리 퍼진 덕에 인류의 거짓 신들을 거부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훗날 '신성'의 드러남과 그 강렬한 빛이 부조리한 믿음들의 흔적을 쓸어내면서 영적인 직관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p106

종교와 신神은 이렇게 진화해왔다. 인간의 앎이 부족했을 때는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운 존재가 신이었다. 하지만 그 신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막심해지자 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무신론이 고개를 들었다. '도대체 그 신을 누가 확인해봤는가?'하는 의심이 일어난 것이다. 하지만 무신론은 반론은 될 수 있을망정 대안은 될 수 없었다. 에고를 향해 착실히 다가오는 죽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죽음을 완전히 수용할 수 있다면 그건 이미 에고가 아니다. 그래서 무신론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했다.

이제 뭐가 남아 있는가? 나의 밖에는 신이 없다. 그런데 신이 없어서도 안 된다. 그렇다면 마지막 선택은? 이제 사람들은 '내가 바로 신'일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신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 신이 나의 바깥에 있지 않다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나일뿐일까? 나와 신은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누구일까? 이런 의문 끝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다. 내가 바로 신이고, 우리 모두가 신이고, 이 우주 전부가 다 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나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이 신이고, 그 신은 한 몸이라는 사실이 널리 퍼지고 있다.

확실히 인간은 독특한 피조물이다. 물질과 생명의 진화는 인류에 와서 마침내 한 고개를 넘게 된다. 피조물의 인식 능력이 극에 달한 끝에, 피조물이 자신과 자신의 창조자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되고, 아울러 자신과 창조자가 '같은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 인류에 의해서 처음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대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대가 신이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내가 아는 한 그대가 신이 아니라면 이 우주에 신은 없다. 그러니 그대 자신이 바로 신임을 기억해내라. 그대가 아직 기억해내지 못할 뿐, 그대는 자신이 신임을 이미 알고 있다.

마음을 봐라

지속적으로 이렇게 할 때 진실이라고 여겼던 망상은 사라지고, 그것이야말로 오류의 근원임을 알게 된다. 최후의 빛나는 몰락의 과정 속에서 마음은 어떤 것도 '알지' 못함을 깨닫게 된다.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에 '대해' 아는 것에 지나지 않는

다. 참으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 아는 대상이 됨을 뜻하므로 마음이 무언가를 참으로 알 수는 없다. 중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고 해서 중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그것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한정짓는 것은 마음의 크기를 축소시키고, 자신의 주인이 아닌 하인이 되게 한다. 마음이 실제로 다루고 있는 것은 가정, 외양, 지각된 사건, 증명할 수 없는 결론, 그리고 마음이 실체로 오인하는 정신 작용 등이라는 것은 명백해진다. 그와 같은 마음이 그려낸 실체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p116

마음을 보라는 것은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뜻이다. 마음을 얼핏 보면 마음은 당당한 실체로 보인다. 하지만 얼핏 보면 실체로 보이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많다. TV에 호랑이가 나온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호랑이와 똑같이 생긴 것이 코앞에 있는데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TV 전원을 끄는 순간 그 호랑이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 아닌가? 마음도 그렇다. 얼핏 보면 마음이 이것저것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뿌리를 살펴보면 다 흉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마음도, TV 속 호랑이처럼 전원만 꺼버리면 즉시 사라진다. 그러니 마음의 실체를 아는 사람이 그대를 보면 어떤 느낌이겠는가? TV 속 호랑이를 무서워하면서 벌벌 떠는 아이를 보는 느낌이 아닐까?

그대는 이제 어른이라서 TV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TV에 전원이 있듯이 마음에도 전원이 있음을 왜 그대만 몰라야한단 말인가? 신문을 읽듯이 마음을 읽고, 주식 동향을 분석하듯이 마음을 분석해봐라. 마음은 허깨비다.

연기법

삶의 현상들은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빚어내는 게 아니다. 삶의 모든 사건들이 자연과 우주의 유효한 조건들의 비인격적이고 자율적인 상호작용(불가佛家에서는 이를 '인연화합'이라고 한다. - 옮긴이)이라는 것을 처음 깨달을 때는 당혹스러운 기분이 들기 쉽다. 그런 사건들의 범주에는 몸의 기능, 정신작용, 마음이 생각과 사건에 부여하는 가치와 의미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런 자동적인 반응은 그 전에 이루어진 프로그래밍의 비인격적인 결과다. 자신의 생각에 가만히 귀기울여보면 자신이 모든 프로그래밍을 듣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의식의 흐름을 일으키는 내적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음으로 하여금 생각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간단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p117

불교의 연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대의 '내가 한다'는 착각이라는 말이다. 그대의 '내가 한다'는, 사실은 바람이 제멋대로 부는 것처럼 우연한 일이라는 이야기이다. 아울러 그대의 삶 또한, 바위가 중력에 의해서 굴러 떨어지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그대의 몸과 마음의 움직임은 너무 정교하게 짜여 있어서 마치 그것이 하나의 실체인 듯 여겨질 뿐이라는 것이다. 말 그대로 그대의 몸은 기계이고, 그대의 마음은 프로그램이라는 얘기다. 납득이 되는가? 그대에게 인격 같은 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호킨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가? 그대가 우연한 조합일 뿐이라는 말이 그럴듯한가?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그러니 그대도 호킨스가 한 것과 똑같은 실험을 해보라. 그대도 같은 실험을 해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호킨스의 말을 무시하면 될 것 아닌가? 호킨스는 실험을 해봤는데 그대는 실험을 안 해봤으니 이대로는 호킨스를 무

작정 무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아무래도 실험을 해본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대도 마음을 테스트해보라. 마음을 테스트하는 일은 사실 별로 어렵지 않다.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전혀 안 든다. 그냥 마음을 관찰해라. 마음을 보다가 마음이 움직이면 그 움직임을 깨끗이 무시해버려라. 화나는 일이 막 올라올 때 그 화를 깨끗이 무시해보라. 그게 마음에 대한 실험이다. 한 번은 마음을 따라가 보고 한 번은 마음을 무시해보는 것이 실험이다. 그 실험 결과를 정리해보라.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은가? 정확하게 호킨스가 말한 대로 나온다. 호킨스가 실험한 마음과 그대가 실험한 마음은 완전히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마음 실험은 어디로 가야한다든지, 돈을 얼마를 내야한다든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한다든지 하는 제약이 전혀 없는 실험이다. 그대에게 그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것이 마음 실험이다. 그러므로 그대가 마음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대가 마음을 알고 싶은 맘이 없다는 뜻이다. 마음에 대해서 이렇거나 저렇다고 말하고 싶으면,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는 그 마음을 관찰해라. 그러면 마음의 실체가 예외 없이 드러난다. 그대도 마침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다.

틈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적으로 감지하는 것과 에고가 그 작자라고 주장하는 것 사이의 '시간 간격'은 1/10,000초가량 된다. 일단 이 간격이 발견되고 나면 에고는 지배권

을 상실한다. 자신은 현상의 목격자일 뿐 원인이나 주체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해진다. 그럴 때 자아는 스스로를 목격자나 경험자와 동일시하지 않고, 그저 목격되고 있는 것이 된다. p118

명상은 곧 이 시간 간격을 발견하려는 노력이고 작업이다. 영화는 사실은 연속 사진일 뿐이지만 실제로는 끊어짐 없는 움직임으로 보이듯이, 마음도 느껴지기엔 연속체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줄줄이 이어진 마음의 컷cut들일 뿐이다. 명상이란 이렇게 이어진 마음과 마음 간의 이음새가 보일 때까지 자세히 들여다보는 작업이다. 명상은 자세히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대가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그래서 명상을 할 때는 다른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다른 일을 하는데 쓸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 모아서, 마음의 이음새를 찾는 일에 써야하기 때문이다.

마음의 내용과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믿음 사이에는 약간의 틈이 있다. 누구라도 마음을 자세히 보면 그 틈을 발견할 수 있다. 일단 그 틈을 발견한 후에는 그 틈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틈을 쉽게 찾게 되면 마음의 틈을 볼 때마다 그 틈이 점점 더 벌어진다. 나중에는 자세히 보지 않아도 마음이 띄엄띄엄 떨어져서 보이게 된다. 이렇게 마음의 틈을 늘 보고 있으면, '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착각이 생기려야 생길 수 없게 된다. 마음은 '나'가 아니라고 애써 부인할 필요 없다. 그냥 실험을 해라. 마음과 좀 놀아라. 놀되 정신을 좀 차린 채로 놀아라. 그러면 마음이 '나'인지 아닌지가 저절로 밝혀진다.

spectrum

10

가슴으로 만난 신

닐 도날드 월쉬

『신과 나눈 이야기 1』(아름드리. 조경숙 역)

닐 도널드 월시 Neale Donald Walsch

(1943년9월10일 ~)

1990년대 초에, 그의 재산을 잿더미로 만든 화재, 이혼, 목이 부러지는 교통사고 등 일련의 불행한 일들이 겹쳐왔다. 그 후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인으로 살기도 했지만, 다시 혼자가 되었고 직장에서 해고까지 당하게 된다. 결국 월시는 텐트촌에 살면서 빈 깡통을 주우며 연명하는 신세로 전락하였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실의에 빠진 월시는 자신의 인생을 그토록 엉망진창으로 만든 신에게 항의하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신과의 대화는 만 3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신과 나눈 이야기』이다. 이 책은 채널링이 아니라 신에 의해 영감을 받아 나온 것이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월시의 책은 27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미국 전역에서 이 책을 연구하는 모임이 2천여 개나 생겨나 평론가들의 연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후 여러 권의 시리즈를 출간했으며, 국내에도 소개되어 있다.

신과 나눈 이야기는 닐 월쉬의 영감靈感이 쓴 대단히 경탄스러운 책이다. 4년 만에 다시 읽으면서 새삼 놀랐다.

생각과 느낌

내가 가장 자주 쓰는 교류 형식은 느낌이다. 느낌은 영혼의 언어다. 만일 네가 어떤 것을 놓고 무엇이 자신에게 참인지 알고자 한다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지 살펴보라. 느낌이란 건 알아차리기 어려울 때가 많다.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경우도 자주 있고. 그러나 네 가장 내밀한 느낌 속에 감춰진 것이야말로 네 가장 고귀한 진실이다. p15

닐 월쉬가 말하는 신의 성격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 신이 만약 석가모니의 신이었다면 '느낌'이라는 말 대신에 '의식'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것이다. 석가모니는 하단전에 위치한 의식을 통해서 존재를 보는 사람이라서 그렇다. 반면에 닐 월쉬는 가슴의 느낌으로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의 신도 '느낌의 신'이 되는 것이다.

의식 성향인 사람은 존재를 공空이라고 보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별로 간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투명한 대신에 다소 차갑게 느껴진다. 하지만 가슴 성향인 사람은 존재를 사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간여하고 싶어 한다. 닐 월쉬의 신이 바로 '사랑의 신'이다. 그래서 닐 월쉬가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것이다. 단전의 의식을 통해서든, 가슴의 사랑을 통해서든, 머리의 지혜를 통해서든, 결국 한 몸인 우리들의 삶을 밝히는데 기여할 수

만 있다면 어디를 통하든 무슨 상관이겠는가? 다만 지금은 생각이 기형적으로 강해진 시대다. 생각이라는 것이 애당초 정확할 수가 없는 것인데, 오랜 시간 생각에 의지하다보니 생각의 체계가 너무 단단하게 자리 잡아서, 이젠 생각을 의심하기가 어렵게 돼버렸다. 그 출발이야 어떠했든, 지금 생각이 너무 크고 많기 때문에 단지 생각이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생각이 진짜인양 믿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짜는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킨다. 약한 기초 위에서 빌딩이 얼마나 높이 올라가겠는가? 그래서 닐 월쉬의 신이 대뜸 느낌을 얘기하는 것이다. 설령 사람들이 너나없이 인기 있는 것을 쫓아갈지라도 누군가는 진실을 얘기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 능력이 극에 달한 이 시대에 왜 불행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가? 생각이 가짜이기 때문이다. 매일 짜장면만 세 그릇씩 먹어도 배부르게 살 수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건강하겠는가? 당장 배만 부르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것인가? 생각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느낌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래서 이 생각 만능의 시대에 다시 느낌을 찾아야하는 것이다.

기쁨, 진리, 사랑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들도 주려 한다. '가장 고귀한 생각'이란 예외 없이 기쁨이 담겨 있는 생각이며, '가장 명확한 말'이란 진리를 담고 있는 말이며, '가장 강렬한 느낌'이란 너희가 사랑이라 부르는 바로 그 느낌이다. p17

기쁨과 진리와 사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가? 콘크리트 바닥에서 웅크린

채 자고 있는 노숙자를 보면서 '저렇게 추운 곳에서 자면 몸이 얼마나 추울까?'하고 느끼는가? 더럽고 상처를 입은 개를 볼 때 '내가 저런 상태라면 얼마나 힘들까?'하고 느끼는가? 그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아직도 기쁨과 진리와 사랑이 살아서 숨 쉬고 있다. 따라서 그대가 마음을 멈추고 가만히 느껴보면, 다른 곳 어딘가가 아닌 바로 그대의 마음에서 기쁨과 진리와 사랑을 만날 수 있다.

기쁨과 진리와 사랑을 사용하는 것이 기쁨과 진리와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행복해지고 싶지 않은가? 매일 매일을 기쁨과 진리와 사랑 속에서 살고 싶지 않은가? 과감하게 기쁨과 진리와 사랑을 사용해라. 그대가 사용하는 그 기쁨과 진리와 사랑이 그대를 기쁨과 진리와 사랑으로 변화시킨다. 그대가 사용하는 만큼 그대가 행복해지는 것이다. 왜 행복해지지 않는가?

체험

내 메시지의 가장 강력한 전달자는 체험이다. 하지만 너희는 체험조차 무시한다. 아니, 너희는 특히 이것을 무시한다. 만일 너희가 자신들의 체험에만 귀를 기울였더라도 너희 세상이 지금같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체험을 거듭거듭 되풀이해서 겪게 되는 것은 체험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p18

기쁨과 진리와 사랑을 체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체험은 묻힌다. 혹시 나만 뒤처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른 생각을 재가동한

다. 하지만 생각이 이룬 게 뭐가 있는가? 물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많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행복도 이뤄졌는가? 언제 어디서든 상대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왜 이렇게 비참한 일이 많은가? 생각이 하드웨어는 만들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못 만들기 때문이 아닐까?

향기 나는 꽃의 체험, 시원한 바람의 체험, 은은한 달빛의 체험, 부드러운 나뭇결의 체험을 잃어버리지 마라. 생각은 그 체험들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체험들을 묻어버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원하는 것은 행복인가 기능인가? 왜 하찮은 기능을 위해서 행복을 희생하는가? 그대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그대 자신의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생각이 아닌 체험을 믿어라. 머리가 아닌 가슴을 믿어라. 에고가 아닌 사랑과 기쁨을 믿어라. 그게 그대 자신을 가장 크게 위하는 길이다.

말을 버려라

네 느낌에 귀를 기울여라. '네 가장 고귀한 생각들'에 귀를 기울여라. 네 체험에 귀를 기울여라.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네 선생들이 말한 바나 네가 책에서 읽은 바와 다르다면, 말들 쪽을 잊어버려라. 말이란 건 가장 믿음직스럽지 못한 진리 조달업자이다. p23

"말을 버려라!"고 말하면, "말을 어떻게 버리는지 말해주십시오"라는 말이 돌아온다. 말을 버린다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말을 버릴 의사도 없는 것이다. 말을 버리고 싶으면 말하고 싶은 욕구가 일어날 때, 생각하고 싶은 욕

구가 일어날 때 알아차려라. '말하고 싶은 욕구, 생각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는구나'라고. 그리고 곧바로 한 번 더 알아차려라. '내가 곧 이 욕구들에게 끌려가겠구나.' 어떤 사람들은 욕구를 보는 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욕구를 보면서도 결국 끌려가버린다. 말을 버리는 체험을 해보겠다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말을 버릴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이 있다. 정말로 말을 버리고 싶다면 그 방법대로 착실히 연습하면 된다. 만약 연습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대에게는 말을 버릴 의사가 없는 것이다.

간청과 감사

너희는 너희가 청하는 걸 갖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원하는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너희의 요구 자체가 결핍에 관한 진술이며, 뭔가를 원한다want는 너희의 진술은 정확히 그런 체험, 곧 모자람wanting을 너희의 현실에 만들어내는 작용을 할 뿐이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는 간청의 기도가 아니라 감사의 기도다. p26

왜 간청을 통해서는 그대의 바램이 이뤄질 수 없는가? 그대가 간청한다는 것은 그대가 자신의 결핍을 믿는다는 뜻이 되는데, 그 믿음이 바로 그대의 '눈'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눈이 결핍으로 물들어 있다면, 이를테면 파란색으로 물들어 있다면 그대 앞에 뭐가 나타나더라도, 설령 그대의 소원이 만배로 이뤄지더라도 그 이뤄짐이 파란색으로 물들어서 즉 결핍으로 물어들어 그대에게 보이지 않겠는가? 결국 그대에게는 '영원한 결핍'만 남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대가 결핍에 머물러 있는 한 그대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결핍뿐인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결핍을 놓아버리면 완전히 다른 상황이 벌어진다. 그대가 결핍 대신에 감사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를테면 그대의 눈이 빨간색으로 물드는 순간부터, 그대 눈에는 온통 빨간 것 즉 완전한 것만 보이기 시작한다. 그대가 오로지 만족을 통해서만 보는데 그 무엇이 결핍이 될 수 있겠는가?

결핍을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이 결핍이 되고, 만족을 통해서 볼 때 모든 것이 만족이 된다. 그래서 그대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무엇인가, 그대가 어떤 눈인가, 그대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가가 핵심인 것이다. 더 많은 것을 가져오려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을 제대로 봐라. 잘못된 것은 그대의 처지가 아니라 그대의 눈이다.

신의 속임수

하지만 만일 내가 뭔가를 기대하고 신에게 미리 감사를 드렸는데, 그게 끝내 나타나지 않는다면요? 그럴 경우 환멸과 쓰라린 심정에 사로잡힐 수도 있을 텐데요. p27

이게 함정이다. 존재는 바보가 아니다. 존재는 그대의 말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대의 마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별하는 장치를 아예 그대에게 달아놓았다. 따라서 그대가 진심으로 감사하는지 거짓으로 감사하는지를 신이 판단할 필요가 없다. 판단 장치가 이미 그대에게 설치돼 있어서 신이 그대를 보고 있지 않아도 저절로 판단해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가혹한 장치인가? 설령 신이 그대를 믿어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그대 자신을

오로지 그대 자신만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얼마나 공평한가? 신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만의 판단 장치를 통해 열리거나 닫히기 때문이다. 그대의 감사가 진짜라면 그대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감사와 실망은 공존할 수 없는 것인데 감사가 먼저 자리 잡고 있으니 실망이 들어오지 못할 것 아닌가? 만약 실망이 들어온다면 그곳에 감사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진정한 감사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감사하다'이다. 이루어져도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한 것이 진짜 감사다. 그리고 그 진짜 감사가 그대에게 있을 때, 마침내 그대의 바람이 이루어진다. 그대의 바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부터 그대의 바람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게 기적의 비밀이다.

소원을 이루고 싶은가? 그렇다면 소원을 완전히 없애라. 그대 자신이 그대 자신을 돌아봐서 소원의 흔적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을 때 그대의 소원이 이뤄진다. 자신에게 조차 전혀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 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 곧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마음만 없으면 기적은 어디에나 있다. 기적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없애기가 어려운 것이다.

판단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네가 외부 사건을 바꿀 수는 없다. (외부 사건은 너희 다수가 창조해낸 것이다. 집단이 창조한 것을 개인이 바꿀 수 있을 만큼 네 의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면 체험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삶을 깨닫는mastery 길이다. 저절로,

그리고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건 아무것도 없다. 고통은 잘못된 생각의 결과다. 그것은 생각의 오류이다. 선각자들은 가장 쓰라린 고통도 사라지게 할 수 있다. 선각자들은 이런 식으로 치료한다. 고통은 너희가 어떤 것에 관해 내린 판단 때문에 생긴다. 그 판단을 제거해보라. 그러면 고통이 사라진다. 판단은 흔히 과거의 체험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것에 대한 너희의 관념은 그것에 관한 이전 관념에서 나온다. 이전 관념은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온 것이고, 또 그 관념은 다시 그보다 더 앞의 관념에서 나오고…마치 벽돌을 쌓듯이, 이 거울의 방 속에서 내가 맨처음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거슬러 올라 갈 때까지. 모든 생각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으나 어떤 생각도 원래 생각보다 더 강하지는 못하다. 이따금 이 원래 생각을 원죄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죄는 어떤 것에 관한 너희의 맨처음 생각이 틀렸을 때이다. 그러고 나서 그 틀림은 너희가 그것을 두 번 세 번 생각함에 따라 몇 번이고 합성된다. p67

중요한 이야기들이 줄이어 나오고 있다. 외부를 바꿀 것인가 내부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신은 그대의 내부를 바꾸라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고통은 원래부터 고통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고통 자체가 고통이 아니라 고통에 대한 그대의 판단이 고통이라는 것이다. 그대의 배 위에 30kg짜리 쌀 포대를 올려놓으면 그대는 힘들고 짜증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그대의 배 위에서 그대의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어도 그대가 고통스러울까? 30kg의 무게 자체가 고통은 아니다. 그 무게를 그대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래서 판단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살아가다가 혹시 나쁜 일을 만나면 그 나쁜 일을 얼른 받아들여라. 그러면 그 나쁜 일이 금세 사소한 일로 변한다. 나쁜 일을 안 만날 수도 없고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꿀 수도 없지만, 나쁜 일을 통과시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고통이 아닌 것을 고통으로 둔갑시키는 판단은 어디서 온 것인가? 판단은 결국 그대의 첫 번째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대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일까? '이 몸과 마음이 곧 나'라는 생각이다. 그대가 어떤 영역을 존재로부터 떼서 '나'로 설정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그 '나'를 보호할 의무가 생기게 되고, 그 때문에 나를 위한 판단이 반복되게 되고 어느새 나를 위한 판단이 습관으로 자리 잡고, 바로 그 습관으로 자리 잡은 판단이 고통이 아닌 것을 고통으로 둔갑시킨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판단을 없애려면 판단의 뿌리인 '나'를 없애야한다.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설정하는 게 과연 올바른 판단인지를 면밀히 조사해서 '나'의 허구성을 깊게 이해해야 한다. 지금 고통스러운가? 그렇다면 그대가 판단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판단을 있게 하는 원인인 '나'를 조사해서 이 우주 전부가 다 '나'임을 이해해라. 그러면 먼저 판단이 사라지고 뒤이어서 고통이 사라진다. '나'가 없으면 고통도 없다.

지옥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두려움에 근거한 신학들 속에서 쌓아올린 식의, 죽음 뒤의 체험 같은 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극히 불행하고 불완전하며, 전체보다 지극히 모자라고 신의 더없이 큰 기쁨과는 한참 거리가 먼 영혼의 체험이란 건 존재하니, 너희 영혼에게는 이것이 바로 지옥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그곳으로 보내지도 않으며, 이런 체험이 너희를 찾아가게 만들지도 않는다.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 자신을 자신에 대한 가장 고귀한 생각에서 떼어낼 때마다, 또 아무리 떼어낸다 해도, 그런 체험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다. 너희가 자신을 부정할 때마다, 너희가 '참된 자신'을 거부할 때마다, 너희는 그런 체험을 창조한다. p72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겠지만 사실은 간단한 얘기다. 그대는 그대 자신을 작은 인간으로 여기면서 어딘가에 신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바로 그 전제가 틀렸다는 것이다. 그대가 그대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대는 작은 인간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 그대는 누구일까? 그대가 바로 이 존재 자체, 즉 이 우주에 유일한 신이라는 얘기다. 그대의 발가락은 그대인가 아닌가? 그대의 눈은 그대인가 아닌가? 그대는 존재의 눈이고 발이다. 그러니 그대가 존재가 아니라면 누가 존재란 말인가? 그대 외에 달리 무슨 존재가 있단 말인가?

위의 글을 '그대=존재=신'이라는 전제 위에서 다시 읽어보라. 그대가 바로 존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그대가 천국을 만들고 싶으면 천국을 만들고, 지옥을 만들고 싶으면 지옥을 만들고, 천국에 가고 싶으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싶으면 지옥에 가는, 무엇이든 그대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그렇다면 누가 그대를 천국에 보냈다가 지옥에 보냈다가 할 수 있겠는가? 누가 그대 몰래 천국을 만들었다가 지옥을 만들었다가 할 수 있겠는가? 오직 그대만이 그것을 할 수 있다. 혹시 그대에게 지옥이나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그대가 스스로 만든 착각이라는 것이다. 이 우주에 존재라고는 딱 그대 하나 밖에 없다. 그런데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 지옥을 누가 만들었겠는가?

그대의 모든 문제는 그대가 이 우주에 유일한 신이 아니라 작은 인간이라

는 착각에서 비롯된다는 것이 지금 신이 하는 얘기다. 그러니 천국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들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대가 바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 그 자체임을 얼른 알아차리라는 얘기다. 왜 거지노릇을 하면서 고통 받고 있는가? 얼른 그대의 자리로 돌아가라. 그대는 거지가 아니라 왕이다.

체험과 놀이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표이다. 육체 속에 머무는 동안 자신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 참된 모든 것의 화신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 영혼의 목적이다. 또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계획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 실현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개념을 체험으로 바꾸고, 나 자신을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내 이상이다. p75

이것이 존재가 현상계를 만들어낸 이유다. 존재가 존재를 체험하는 것. 존재가 선과 악을 체험하는 것. 존재가 기쁨과 고통을 체험하는 것. 유일한 존재인 그대는 그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있는 것이다. 왜 체험하느냐고? 그대는 왜 아이에게 밥을 주는가? 아이를 얼른 키워서 돈벌이에 쓰기 위해서 밥을 주는가? 그대는 매사를 이유에 근거해서 처리하는가? 그냥 하는 일은 아예 없는가? 그냥 하는 것이 원래 상태고, 이유가 붙는 것은 특수한 경우다. 그대가 본성에 의지해서 아이에게 밥을 주듯이, 존재도 본성에 의지해서 체험과 앎을 원하는 것이다. 그대가 살고 일하고 놀듯이, 존재도 살고 일하고 논다. 거기엔 이유가 있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관점들

아담의 타락으로 표현되어온 것은 사실은 아담의 상승이었다. 이것은 인류사에서 가장 위대한 단일 사건이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없었다면 상대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의 행동은 원죄가 아니라 사실은 최초의 축복이었다. 너희는 아담과 이브가 인류 최초로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선택 자체를 할 수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한다. p95

성경이 타락이라고 말한 것을 닐 월쉬의 신은 상승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옳을까? 닐 월쉬의 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 성경이 사실을 왜곡한 걸까? 그대가 보기엔 누구의 말이 옳은 것 같은가? 그대가 보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인가, 나쁜 대통령인가?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은 대통령이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나쁜 대통령이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원래부터 좋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위에 인용한 이야기도 바로 그런 문제다. 성경이 옳거나 닐 월쉬의 신이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이 보는 관점과 닐 월쉬의 신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다.

관점을 조금 좁혀서 보면 성경의 이야기가 옳다. 하지만 관점을 좀 넓혀서 보면 닐 월쉬의 신이 하는 얘기가 옳다. 아담의 선택은 당장은 인간에게 고통을 안겨줬지만 장기적으로는 현상계와 근원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밝게 본다는 것은 사실의 문제와 관점의 문제를 구분할 줄 아는 것이다. 단지 관점의 문제일 뿐인 것을 마치 사실의 문제인양 오해해서, 네 편 내 편으로 갈려서 싸운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사랑하고 기뻐할 시간도 부족한데 문제도 아닌 문제로 고통을 만들어낸다면 이 얼

마나 아까운 일인가?

성경도 따라가지 말고 닐 월쉬도 따라가지 말고, 그대의 자리에서 그 관점들을 듣고 이해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서 가만히 앉은 채로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으니 즐거운 일이 아닌가? 아담의 선택은 타락일 수도 있고 상승일 수도 있다. 존재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저런 모습일 수도 있다. 그 존재를 그대가 얼마나 정확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대가 기쁨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다. 기왕이면 밝게 보고 기뻐해라.

천국에 간 히틀러

나는 '악'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선'을 사랑하지는 않는다.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이 점을 이해할 때 너희는 신을 이해할 것이다. p105

히틀러는 천국으로 갔다. 왜? 선과 악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관점이지, 신의 관점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인간의 관점이 가장 가깝고 현실적이다. 나도 우리 집에 강도가 들면 있는 힘을 다해 그 강도와 싸울 것이다.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의 관점을 쓰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인간의 관점을 존재에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 시골 동네 식당에서 적당히 담배도 피고, 좀 떠들고, 외상 좀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해서 UN 총회에 가서 똑같이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스케일이 달라지면 룰도 달라지는 것이다.

인간의 관점에서 보자면 히틀러는 씹어 먹어도 시원찮을 놈이지만, 존재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한 사람일 뿐이다. 그대의 아이가 보기에는 자기한테 칭찬만 하는 선생이 제일 좋은 선생이지만, 그대가 보기엔 엄하게 하는 선생도 필요한 것 아닌가? 도마뱀의 세계에서 나쁜 일이 곧바로 지구의 재앙이 되지 않듯이, 히틀러가 지구의 악마라고 해서 존재의 관점에서도 악마이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 지구만 계속 보지 말고, 우주의 끝으로 가서 이 우주를 돌아봐라. 이 작은 지구에서 잠시 일어나는 일들이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인가? 이 지구에서 잠시 실수한 것이 뭐 그리 큰 잘못인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잠시 경험하는 '한 순간'일 뿐이지 않은가? 그래서 히틀러는 아무 죄가 없는 것이다. 선도 존재의 부분이고, 악도 존재의 부분이기 때문에.

spectrum

11

마음을 완전하게 사용하는 사람들

베어드 T. 스폴딩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정신세계사. 정창영, 정진성 역)

베어드 스폴딩 Baird T. Spalding

(1857년5월26일 ~ 1953년3월18일)

1872년 뉴욕에서 출생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1953년 95세를 일기로 애리조나 주 템프에서 사망했다는 사실 외에 그에 대한 대부분의 것은 베일에 싸여 있다. 주로 미국 서부에서 광산기사로 지냈다고도 알려져 있다. 1924년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 Life and Teaching of the Masters of the Far East』 시리즈의 첫 번째 책을 출간했다. 인도, 티베트, 히말라야 고원 일대에서 초월적 능력을 일상적으로 행하는 경이로운 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세상에 공개한 것이다. 스폴딩은 사실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 속에서 수많은 강연회를 통해 이 책의 내용이 '믿어지진 않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임을 밝혔으며, 시리즈로 계속 발간하였다. 출간이후, 그의 책은 진리를 찾으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책들도 다 그렇지만 이 책도 참으로 놀라운 책이다. 독자들이 얼핏 보기에는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보이겠지만, 깨달음의 다양한 모습들을 두루 살펴본 내 눈에 미흡한 점이 전혀 보이지 않음은 무슨 이유일까? 나는 이 책에 아무런 연고가 없다. 나는 기독교에도 연고가 없고 불교에도 연고가 없고 예수와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 책이 가짜라면 내가 왜 이 책을 두둔하겠는가? 다른 책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이 책 속에 있다. 특히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내가 아는 한 이 책이 성경보다 훨씬 정확하기 때문이다.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

도마복음 때문에 성경을 다시 읽게 됐는데, 도마복음과 신약성경을 대조해보다가 신약성경이 굉장히 정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예수의 기적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궁리하다가, 전에 읽다가 덮어두었던 이 책을 다시 꺼냈는데 초반부터 그저 경탄을 금할 수가 없다. 좀 실감나게 표현하자면 침이 질질 흐를 지경이다. 이 책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책들 중에서 성경과 예수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책인데, 과연 이 경탄스러운 책을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나 읽었는지 모르겠다.

예수나 – 이 책에 나오는 – 에밀 대사 같은 사람들은 마음을 거룩하게 혹은 완전하게 사용하고 싶어 하는 유형, 즉 '사랑의 사람'들이다. 하지만 나는 석가모니처럼 고요함을 선호하는 유형, 즉 '의식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책

에 나오는 기적에는 별로 관심도 없고 재주도 없다. 하지만 언젠가 이 책을 교재로 기독교인들에게 강의를 하고 싶은 이 마음은 무엇일까? 기독교를 설명하려던 시도는 일단 기독교를 완벽하게 설명한 책을 찾은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다.

잃어버린 영지주의

"크리스마스 아침이군요. 여러분에게는 아마 오늘이 그리스도이신 나사렛 예수께서 태어난 날이 되겠지요. 여러분은 예수를,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하느님이 보내신 분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는 예수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느님 사이에 선 위대한 중재자의 표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하느님, 즉 하늘 어디엔가에 앉아서 때에 따라서는 분노하기도 하는 엄격해 보이는 하느님 사이에 선 중재자인 예수께 호소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인간의 의식 외에 하느님이 계시는 하늘이 달리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이 태어난 오늘은 우리들에게는 다른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이 세상에 강림한 날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강림은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p22

지금 대사가 하고 있는 말이 소위 영지주의에 바탕을 둔 발언이다. 그리스도라느니, 구원이라느니, 천국이라느니, 하느님이라느니 하는 것들은 어딘가에 동떨어져 존재하면서 오고가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저 다 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 곧 영지주의다. 그리고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영지'가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다. 영지주의는 곧 기독교 속의 불교적 수행 성향, 즉 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수행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기독교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서 이 영지주의는 유일신 하나님에게 밀려나고 말았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가 사랑은 없으되 하나님을 위한 전투력은 충만한, 나를 돌아보는 명상은 없으되 복을 구하는 강렬한 기도는 만연한, 종교 아닌 종교가 돼버린 것이다.

세속적인 성공 야망에 눈이 먼 멍청한 목사들과 함께 줄줄이 사탕으로 지옥에 끌려가기 싫다면 지금이라도 그대의 마음을 보기 시작해라. 하나님 없는 종교는 성립할 수 있어도 사랑 없는 종교는 존재할 수 없다.

동정녀 잉태는 사실이다

그리스도가 탄생한 경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이상을 품고, 그 이상을 자신의 영혼이라는 토양 속에 잉태한 후 때가 되자 가장 좋은 첫 열매인 하느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기 그리스도는 위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자애로운 양육과 보호를 받으며 자라나 마침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하느님이 거하시는 우리들의 영혼이라는 토양에 완전한 이상인 그리스도의 이상이 씨앗으로 심어지고, 그것이 싹이 나 아기 예수가 탄생하는 것이지요. p30

여러 가지 기록상의 오류 등을 감안해서 성경의 신뢰도를 60~70% 정도로 본다면, 이 책(초인들의 삶과 가르침을 찾아서)의 신뢰도는 95% 이상이다.

그런데 거의 완벽한 신뢰도를 보이는 이 책에서 동정녀 잉태를 사실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왔다는 이야기는 사실로 인정될 수밖에 없다.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러자 에밀 대사가 말을 이었다. "여러분은 보다 더 완전한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원하는 빵을 만드는 데 이 법칙을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제가 여러분이 미묘한 법칙이라고 부르는 보다 더 완전한 법칙을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빵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손에 커다란 빵이 나타났다. 우리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다. 빵은 40개가 될 때까지 계속 생겨났고 에밀 대사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그가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만약 모자란다면 우리 모두가 먹고도 남을 만큼 더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빵을 먹었다. 아주 맛있었다. p53

예수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에밀 대사가 맨손으로 빵을 만들어내는 장면이다. 물론 이건 사실의 기록이다. 에밀 대사의 말의 맥락이 한 치의 오차도 없는데, 그가 빵을 만들 때만 사기를 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위의 예 하나만으로도 예수의 기적이 전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이 책 속에서 에밀 대사가, 예수가 행했던 기적을 전부 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의 기적에 대해서 가타부타 논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통찰력이 필요하다. 이쯤에서 벌써 "그것 봐. 예수

님은 진짜로 하나님의 독생자라니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신 유일한 진짜 신이라니깐. 하나님과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라니깐…"하고 떠벌이는 바보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다.

자, 지금 위에 인용한 장면은 수백 명이 순례를 가는 상황에서 나왔다. 가던 중에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지체되는 바람에 식량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에밀 대사가 밀을 심어서 곧바로 거두는 기적을 보여준 후에, 밀을 곧바로 거둘 수 있다면 왜 빵은 직접 못 만들겠냐고 하면서위의 빵 만드는 기적을 보여준 장면이다.

그렇다면 아예 폭우가 안 오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에밀 대사는 이 지구를 통째로 얼릴 수도 있다고 직접 말했었다. 그렇다면 폭우를 그치게 하는 정도야 쉬운 일이지 않은가? 아울러 폭우 이전에 순례를 떠날 필요가 없게 할 수는 없었을까? 아니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다 에밀 대사 같은 능력을 갖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 이전에 애초에 이 존재를 완전하게 존재하도록 창조할 수는 없었을까? 그렇지 않은가? 왜 어떤 것은 가능한데 어떤 것은 불가능한가? 왜 어떤 기적은 되는데 어떤 기적은 안 되는가? 왜 예수는 굳이 사람으로 태어나고, 굳이 죽고, 또 굳이 부활해서 보여야만 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존재를 알 수 있다. 철저하게 냉정하게 물을 수 있어야 비로소 무엇이 근원이고 무엇이 방편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에밀 대사는 심상화를 통해서 지구를 얼음덩이로 만들 수는 있지만, 악한 마음이 악한 대가로 돌아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이해되는가? 에밀 대사도 예수도 어떤 기적이든 행할 수가 있지만 인과의 법칙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기적도 한낱 방편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 재산이 백만 원인 사람과 1조인 사람의 경우를 보자. 재산이 백만 원인 사람이 맨날 콩나물

한가지로 밥을 먹다가 어느 날 수입 삼겹살을 먹으면 날아가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맨날 1등급 한우만 먹던 사람이 수입 삼겹살을 먹으면 죽고 싶을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인과의 법칙이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사 먹을 능력은 있지만, 맛있는 것을 먹다가 맛없는 것을 먹더라도 더 맛있게 느낄 능력은 가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가 사람으로 태어나야만 했고, 고통 받은 후에 죽어야만 했고, 다시 부활해서 자신의 말을 증명해보여야만 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이라는 원인이 없이는 빛이라는 결과가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이, 그 어떤 기적보다도 우선되는 존재의 근원적인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 어떤 신기한 기적도 그저 존재를 나타내 보이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사실이 좀 이해되는가? 예수와 다스칼로스와 에밀 대사의 방법이 일견 완전히 새로운 것인 듯이 보여도 사실은 단 하나의 근원에 접근하는 다른 방법일 뿐이라는 것, 그리고 그 다른 방법이 일견 굉장히 풍부하고 신기해 보일지라도 사실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존재의 법칙을 추호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도 알아야 한다. 고요한 석가모니는 천수를 다 누리고 죽었지만, 기적의 예수는 비참하게 요절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라. 기적을 행할 수는 있어도 원리를 바꿀 수는 없다.

보편 세계의 힘 Universal Force

우리는 이 힘을 '우주력' 또는 '보편 세계의 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힘이 존재하는 차원에 도달해서 이 힘을 사용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 힘을 '영구 운동

Perpetual Motion'이라고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p84

일행이 방에 들어갔는데 난로도 없는 벽 쪽에서 따뜻한 열기가 계속 흘러나와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에밀 대사가 저렇게 대답했다. 보편 세계에 이미 널려 있는 것을 그저 가져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전에 시단학교에 전생을 읽는 친구가 하나 있었다. 어느 날 그 친구와 채팅을 하다가 재미삼아 학교 학생들의 전생을 물어보게 됐는데, 채팅에 참가중인 학생이든 아닌 학생이든 그저 이름만 대면 그 사람의 전생을 줄줄 읊어댔었다. 어떻게 그렇게 아느냐고 했더니 그냥 이름만 들으면 저절로 떠오른다는 것이다. 그 친구와의 채팅 중에 '아하, 이 우주를 총괄적으로 기록하는 하나의 기억장치가 존재하는구나…그래서 그 유일한 기억장치에 접근할 수만 있으면 거기에 기록된 어떤 기록이든 곧바로 가져올 수가 있구나' 싶었었다.

누구든지 우주 뇌와 연결되기만 하면 이 우주에 관한 모든 기록들을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 똑같은 맥락으로 에밀 대사는 기억 대신 힘과 물건을 보편 우주에서 가져온다. 어떤 사람은 '빵'이라는 말에 그 빵에 관한 기억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빵이라는 물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고질적인 습관 하나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상상하는 습관이 있다. 근원은 작게 상상하고 현실을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나 무한한 에너지가 올 수 있단 말인가?'하고 반문한다. 하지만 실제는 우리의 상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콩알만 한 지구에서 쓸 에너지는 설령 지구만한 콩이 수억 개가 한자리에 있다고 해도 가뿐하게 끌어올 수 있는 것이다. 에밀 대사가 간단한 상상만으로도 이 지구 전체를 얼음으로 만

들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다. 이 좁쌀만 한 지구의 현실보다 상상할 수도 없게 거대한 보편 세계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어야 존재의 실체를 좀 짐작할 수 있다.

놀랍도다! 예수 부활의 메커니즘

"즉 저의 어머니는 여러분이 '천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7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예수께서 계신 차원에 도달하셨다는 것입니다. …천계는 공간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비가 밝혀지는 일종의 의식 상태입니다. 이 의식 상태에 도달하면 육안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고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도달한 사람은 언제든지 육체로 돌아올 수 있으며, 이미 육체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환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이땅에 다시 돌아오려면 반드시 환생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미 육체를 떠나 영계에 들어간 사람들도 이제는 이땅에 다시 태어나 육체를 완성시켜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p85

예수는 진짜로 부활했는가? 진짜로 부활했다면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으로 부활했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이 여기 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려져서 무덤에 들어간 후에 몸을 완전한 육체로 변화시켜서 무덤을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제자들에게 다시 육체로 나타날 수 있었다. 에밀 대사의 말의 맥락은 완벽하다. 그래서 함부로 의심하려 들기보다는 그의 말을 세밀히 살펴서 내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편이 그대에게 유익하다.

좋은 그림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여 가시적인 세계를 떠난 자는 육체를 떠날 때와 똑같은 정신 상태로 심령계에 나타납니다. 가시적인 이세상에서 육체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자는 죽어서 심령계에 가서도 똑같이 육체적인 생각을 합니다. 심령계는 가시적인 물질세계와 진정한 영적인 세계 사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갈구하는 자는 영적인 차원에 도달하기 전에 심령계를 돌파하여 신께 곧장 가야만 합니다. 죽음은 영혼을 심령계로 옮겨다 놓습니다. 영혼은 죽음을 통하여 육체에서 풀려나 심령차원에서 자기에게 걸맞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고 심령계에 나타나는 영혼은 이땅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p144

지금 이 현상계에서 살아 있는 동안에 마음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면, 그 깨닫지 못한 마음상태 그대로 심령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대는 그 심령계에서 지금과 똑같은 마음상태로 애를 태우다가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를 반복하게 된다. '왜 안 되는 거지? 도대체 어디로 가야하는 거지?'하는 물음을 끝없이 반복하면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오락가락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마음의 실체를 알아차리면 더 이상 물질계와 심령계를 오가면서 숨바꼭질을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마음이 무엇인지, 존재가 왜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아는데 더 이상 뭘 찾아서 헤매 다니겠는가? 심령계로 들어가면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한다. 마음을 찾는 작업은 이 물질계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대가 몸으로 살아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그대에게 할당된 작업 시간이다. 때가 좋을 때 마음을 모아서 작업을 해라. 버스 지나가고 나면 다시 기다려야 한다.

할렐루야

천국으로부터 인간을 분리시켜놓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천국 주위에 쳐놓은 물질적인 사고라는 안개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신적인 것 둘레에 물질적인 사고의 안개를 드리워놓고는 신적인 것을 신비한 것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인간이 쳐놓은 신비의 장막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신비할 것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파나 사원 조직을 만든 사람들은 신도들을 자기 조직에 붙잡아두기 위해서는 하느님 주위에 신비의 장막을 쳐놓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 사람이 신적인 심오한 것들이 실제로는 아주 일상적이고 진정한 것임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교회는 인간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 즉 영혼 중심에 깃들여 있는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점차 인식해 가고 있습니다. p167

어딘가로 찾아 나서지 마라. 기적은 어느 곳에 있을까? 천국이 있는 곳은 어느 방향일까? 예수님을 향해 갈까 부처님을 향해 갈까? 나는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그 모든 것은 다 그대의 마음속에 있다. 그대가 돈을 주고 영화관에 가는 것은 필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면에 비치 보이는 화려한 영상을 보기 위해서이지만, 그 영상들이 사실은 다 필름에 새겨진 그림의 반영일 뿐인 것과 똑같다.

황금…황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비유 정도로

여겨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가르침을 대하면서 범한 과오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가르침을 아득한 과거에 있었던 일종의 신화나 신비로 여깁니다. 원하기만 하면 '지금-여기'에서 실현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서야 얻을 수 있는 그 무엇으로 간주하고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인류의 죗값을 대신 치렀다는 대속론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교 사상을 잘못된 길로 나가게 만든 사변적인 교리입니다. 그와 같은 교리는 결코 산상설교나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의 지도자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비유적이거나 신비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일단 그 황홀한 경지에 들게 되자 교리나 의식이나 신조 등과 같은 종교 외적인 차원을 오랫동안 헤매지 않고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종교의 외적인 형식들은 사제 계급이 백성들을 무지 속에 가두어놓고 지배하기 위해서 부과한 짐일 뿐이라는 점을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자신이 찾고 있던 것이 자신의 내면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본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신함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성의 표현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자기 말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p178

예수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다.

예수를 잃어버린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의 역사에서 예수는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이지요. 그의 탄생을 기

점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우상화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를 우상화해서 섬길 것이 아니라 그가 실현한 이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십자가에 달렸던 바로 그 몸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는 그가 조각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기 이전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입으로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부활 이후의 그의 삶이 십자가 처형 이전의 삶보다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삶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p183

역시 따로 덧붙일 말이 없다.

예수가 밝히는 자신의 마지막 한마디

합창이 잠깐 계속된 후에 예수께서 앞으로 걸어 나와 말씀하셨다. "저는 오래전에 저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저처럼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제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용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한 저의 모습 즉 있는 그대로의 저의 실상을 보지 않습니까?" p187

마태복음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복음에는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의 마지막 말이 기록돼 있는데, 예수 자신이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후에 죽었다

고 증언하고 있다.

예수가 말하는 하나님

그 다음에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로 대화의 주제가 옮겨졌다. 대원 하나가 "하느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습니다."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오늘날 세상에는 하느님에 대한 근원적인 대답이 없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모순되는 생각과 사상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하느님은 존재하는 만물의 배후에 있는 원리입니다. 만물의 배후에 있는 그 원리는 전지전능하며 우주 속에 편재한 거룩한 영입니다. 또 하느님은 모든 선한 것들을 인도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유일심唯一心이며,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며, 모든 것들을 하나로 결합하는 진정한 사랑의 근원입니다. 하느님은 비인격적인 원리입니다. 개인에게서 사랑하는 부모의 입장이 될 때를 제외하고는 하느님은 항상 비인격적입니다. 개인에게는 하느님이 사랑으로 무한히 베풀어주는 인격적인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라고 부르는 우주 공간 어디엔가에 앉아 있는 초인적인 존재는 결코 아닙니다. 하느님은 하늘에 있는 보좌에 앉아서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결코 죽는 일이 없는 생명 자체이며, 따라서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하느님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주위의 수많은 기형적인 사상처럼 인간의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입니다." p214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저는 '내가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독생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그리스도이고 하느님의 독생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도 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명백히 천명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모든 사람이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천명하고 1~5년 정도 그리스도의 삶을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깨달음이 세상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보았던 비전입니다. p216

하나님도 그리스도도 천국도 지옥도…다 그대의 마음 속에 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아들의 진정한 하나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면세계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의지해오던 외적인 하느님이 사라지고 내면의 하느님만이 남아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사랑과 두려움이 뒤범벅이 된 채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p220

마태복음에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예수가 마태복음의 오류를 직접 지적하는 것이 재미있다.

사랑이 먼저다

끝까지 남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진실한 행위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교리 체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리 체계도 성장에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리 체계는 어떤 것이든 자기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며,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견해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리 체계와 인류가 한 형제라는 생각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교리 체계는 인간을 환상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교리 체계의 환상 속에 빠져 있는 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은 가능성의 씨앗 속에서 잠자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는 아직 성취해야할 높은 광휘의 세계가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깨달음의 법칙은 사랑의 법칙이고, 사랑은 보편적인 형제애입니다. p305

교리가 우선이 아니라 보편적 형제애가 우선이다. 기독교든 불교든 종교가 우선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필요한 의심

그러나 자기 속에 전능한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손만 대도 문둥병이 낫고 말라비틀어진 팔이 펴지며 온갖 마음과 육체의 질병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을 집중하여 명령을 내리면 빵 덩이가 부풀어나고 물고기가 늘어날 것입니다. 빵을 떼어 나누어주고 기름을 쏟아부어준다고 해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언제까지나 풍성하게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명령을 내리면 바다의 풍랑이 멈추고 인력(중력)

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공중으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p314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는 따져보기 시작한다. 빵 한 덩어리에서 한 조각을 뗐는데 원래 빵 덩어리의 크기가 그대로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빵을 떼는 순간 빵이 원래 상태를 회복한다는 얘기는 빵 입자들이 다시 생겨난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빵 입자가 순차적으로 재생되는 것일까 혹은 순간적으로 빵이 재생되는 것일까? 분명히 물리적으로 뒤틀어진 뼈가 어떻게 순간적으로 정상적인 뼈로 바뀐다는 것일까? 도대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빵이 한없이 재생되고 뼈가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일까? 물질의 상태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물리적인 메커니즘을 거쳐야만 하는데 어떻게 그 메커니즘이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이렇게 따져보게 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를 한 번 의심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다고 믿는 원리가 어쩌면 우리들만의 편협한 전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자, 먼저 상상하는 작업을 해보자. 빵 한 덩어리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빵에서 한 조각을 떼보라. 그리고 연이어서 원래 빵 덩어리와 뗀 한 조각이 함께 있다고 상상해보라. 빵 덩어리에서 한 조각을 뗀 후에도 변함없는 빵과 거기에 더해진 빵 한 조각이 생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당연한 얘기지만 상상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는다. 상상은 그 상상을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혹시라도…만에 하나 혹시라도 우리가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은 상상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만약 우리의 현실이 사실은 상상이라면, 빵을 떼도 빵이 줄

지 않고 뒤틀린 뼈가 한순간에 정상이 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지 않은가? 만약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상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그 외에는 그 어떤 기적도 다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뭐가 남았는가? 수많은 기적들을 일일이 검토하거나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저 이 현실이 상상일 뿐이라는 전제만 확인하면 일은 완전히 끝난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현실은 진정한 현실일까 아니면 그저 상상일 뿐인 것일까?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지…장자는 왜 나비 꿈 얘기를 했던 것일까?

사실, 이 현실은 상상일 뿐이다. 그래서 기적이 한순간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확고한 현실은 사실은 '감각의 현실'일 뿐이다. 우리의 몸이 우연히 갖게 된 한정된 감각이 전제로 설정되고, 그 전제에 부응하는 한정된 대상만이 현실로 인정되는 지극히 협소한 신념 체계일 뿐이다. 빛의 파장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벗어나면 눈은 빛이 없다고 판단한다. 눈이 잘못된 것인가 빛이 잘못된 것인가? 그대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믿고 있는 대전제를 뿌리부터 의심할 수 있어야 존재를 이해할 수 있다. 오랜 믿음과 사실은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삼위일체 혹은 완전함

하느님과 하나로 융합되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아버지와 동일한 존재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인간man-Christ, 그리스도Christ of God,

하느님God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적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속에는 창조 행위의 주체인 우주적인 영Whole-I-Christ,즉 하느님의 거룩한 영이 거합니다. p361

만약 근원만 있다면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여자가 혼자 있으면 안전하다. 남자와 싸울 일도 없고, 술 냄새 풍기는 놈과 한 침대에서 잘 일도 없고, 코 고는 소리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임신을 할 염려도 없다. 여자가 혼자인 채로 있으면 얼마든지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여자들이 결혼을 못해서 안달인가? 혼자 있으면 지극히 안전하지만 안전한 만큼 완전히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근원은 모양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생각대로 안 된다. 여자는 살림하고 남자는 돈을 벌어오고 밤에는 같이 자고 애도 낳아 기르고 그렇게 살면 별문제 없겠거니 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끝없이 생겨난다. 남자가 바람을 피우는가하면, 임신이 안 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한다. 원래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건 존재의 경우에도 똑같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는 좋은 계획만 갖고 있었다. 세상 만물이 다 친구가 되어 평화롭게 지내기를 기대하면서 세상을 만들었던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인간들이 분리를 선언하고 말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다!'라고 선언해버렸다. 그 결과 근원으로부터 세상이 나오기는 했는데, 근원과 세상이 분리된 채로 남게 되었다. 때문에 근원과 모양 그리고 그 둘이 하나임을 아는 것, 이 셋이 합쳐져야 비로소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다. 근원도 있어야 하고 모양도 있어야 하지만, 그 둘이 같은 것임을 알

아야 비로소 완전해진다는 의미이다. 하나님도 문제가 없고 그대도 문제가 없다. 다만 하나님과 그대가 같은 것임을 알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대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임을 알고 '하느님'이라는 말을 사용하십시오. 하느님은 여러분이 나타내는 대로 나타납니다. p362

하나님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고? 저 우주 어디엔가에서 천국을 찾은 후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는가? 그대가 바로 하나님이다. 더 이상 하나님을 찾아다니지 마라. 그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 우주에 다른 하나님은 없다.

예수가 되는 법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자아로 하여금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그 이상에 따라 살도록 명령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일단 그리스도의 진동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스스로 그 진동을 느끼지 못할지라도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의식할 수 없다 하더라도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다보면 언젠가는 몸으로 느끼게 되는 날이 옵니다. 이것은 중대한 체험입니다. 이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미 형성된 초점이 진실하고 확고해져서 결코 지워지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점차적으로 이 초점을 향해 이끌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

람에게는 광대한 우주의 전망이 열리며 속박하는 모든 제약이 사라집니다. p484

예수가 되는 방법은 사실은 간단하다.

spectrum

12

과학을 통하여 존재를 만나다

마이클 탤보트

『홀로그램 우주』(정신세계사. 이균형 역)

마이클 탤보트 Michael Coleman Talbot

(1953년9월29일 ~ 1992년5월27일)

1953년 미시건 주 그랜드 래피즈에서 태어났다. 그는 『신비주의와 새로운 물리학』(Mysticism and the New Physics), 『양자를 넘어서』(Beyond the Quantum), 『당신의 전생: 환생 핸드북』(Your Past Lives: A Reincarnation Hand-book)을 집필했고, 소설도 세 편이나 남겼다. 영성과 종교 그리고 과학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했던 그는, 젊은 나이인 38세에 림프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굉장히 놀랍고 재미있는 책이다. 이 책은 특별히 과학 쪽에서 존재로 접근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어서 더욱 흥미롭다. 언젠가 이 책으로 강의를 한번 하고 싶다. 『깨달음의 심리학』이라는 책과 함께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다.

생명의 이해

이러한 움직임이 보여주는 양자적 전일성全一性은 기계의 부품들을 조립하여 얻어내는 종류의 통일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명체의 각 부위들의 작용이 보여주는 유기적 일체성에 더 가깝다. p68

플라즈마 상태에서 전자들이 마치 유기체처럼 행동하는 걸 설명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봄(데이비드 봄)은 전체성을 통해서 그 전자들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한다. 내가 보기에도 지당한 얘기다. 이건 전체성을 통하지 않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전자들이 마치 유기체처럼 행동하는 건 왜 그런가? 그건 전자들의 속성이 아니라 전자들을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전체'의 속성이다. 여기서 전자들은 전체라는 옷감의 주름일 뿐이다. 옷감에 생긴 주름이 옷감의 본성을 벗어날 수 있는가? 바다에 생긴 파도가 바다의 속성을 벗어나서 반대로 행동할 수가 있는가?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주름은 옷감의 속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고, 파도는 바다의 속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전자들의 유기적인 움직임은 곧 이 우주의 속성을 반영한 것일 수밖에 없다. 전자뿐만이 아

니다.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세상사도 그렇고, 모든 게 존재의 속성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의 옷감에 생긴 다른 주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전체성이 굉장히 재미있고도, 유용한 개념이라는 게 이해되는가? 전체성은 분명히 사실이다. 진리와 완벽하게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우리는 생명을 다시 검토해야만 한다. 어쩌면 우리는 생명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생명은 비非생명과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그런 믿음에 근거가 있는가? 무슨 근거로 생명을 비생명과 완전히 분리시키는가? 생명이 그렇게나 대단한 것인가? 그게 다 인간 중심 사고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가? 생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현상인가? 생각하는 능력? 번식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 그런 게 과연 그렇게나 특별한 것일까? 어쩌면 그런 건 단순한 '움직임'의 확장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가?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믿어왔던 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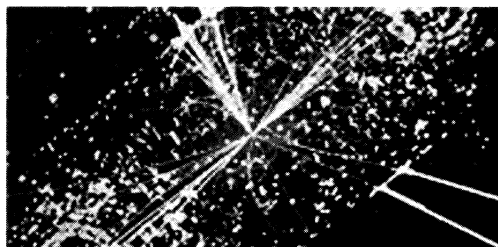
생명의 활동이 전기적이고 화학적인 작용들의 유기적인 결합일 뿐이라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생명이 뭐가 특별한가? 지금 그대가 생명의 메커니즘을 무생물의 메커니즘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람이 휴대폰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다만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할 뿐인 것이다. 하지만 휴대폰과 함께 살아온 우리는 어렵지 않게 휴대폰의 메커니즘을 이해한다.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어렵지 않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믿어왔을 뿐이다. 생명은 얼마든지 무생물과 연결될 수 있다. 생명은 무생물의 연장이고 확장일 뿐이다. 조선

시대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 메커니즘을 아직 알지 못할 뿐이지, 생명은 무생물과 전혀 다르지 않은 '움직임'일 뿐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전체성과 진리와 생명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

생물과 무생물은 완전히 같은 것이다. 생물은 무생물보다 다소 복잡한 움직임의 메커니즘을 구비하고 있을 뿐이다. 생명에 대해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라. 그대는 너무 한쪽으로만 믿어왔다. 진리는 우리의 틀 속에 있지 않다. 사실을 알려면 사실로 가서 봐야만 한다. 두뇌가 있다면 생명을 다시 들여다보라. 생명은 비생명과 같은 것이다.

양자장, 단 하나의 시공간

실제로, 양자장은 모든 공간 속에 스며들어 있으므로 모든 입자들은 초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있다. 봄(데이비드 봄)이 펼쳐가고 있는 실재상은 아원자 입자들이 허공 속에 저마다 뿔뿔이 흩어져 떠도는 모습이 아니라, 그 속을 움직이고 있는 물질만큼이나 실제적이고 활발히 살아 있는 공간 속에 만물이 불가분의 그물망의 일부분으로서 아로박혀 있는 모습이었다. p69

〈입자충돌 장면〉

인문계를 전공한 사람들은 도대체가 무슨 말인가 싶을 것이다. 나도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했을 얘기고, 내가 얼핏이나마 존재를 보지 못했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얘기다. 다행히 나는 양쪽을 다 알기 때문에 겨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가보다 하면 된다. 입자 가속기로 입자 충돌을 촬영한 사진을 본 적이 있는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사진을 구해볼 수 있다. 한번 검색해서 사진을 봐라. 저 위의 얘기가 바로 그 사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봄이 하는 얘기는, 그 충돌 사진이 우리 쪽에서 보는 이해일 뿐이라는 것이다. 우리한테만 그렇게 보일 뿐, 사실은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는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우리가 네덜란드 영화를 보는데 영화 속에서 배우가 대마초를 피우고 있다. 우리가 그 배우를 체포할 수 있는가?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이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그 배우는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대마초가 합법이다. 그렇다면 그 배우는 유죄인가, 무죄인가? 당연히 무죄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분명히 유죄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대마초가 불법인데 그 놈이 분명히 대마초를 피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저 위의 얘기다.

사진에는 분명히 입자끼리 충돌해서 일정한 시간을 소비하면서 일정한 공간 속을 움직여 간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는 당연히 입자들이 충돌했고, 시간을 사용했고, 공간을 점유하면서 이동해 갔다고 이해한다. 우리가 당연히 '저 배우는 불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우리와 달리 대마초가 합법이듯이, 양자장 속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 그 입자들의 세계에서는 공간은 하나뿐이고, 그 공

간에는 시간도 하나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이는 시공간 이동의 현상은, 사실은 입자들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입자들이 붙어 있는 공간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입자들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움직인 게 아니라, 그것들이 붙어 있는 공간에 주름이 졌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또한 진리와 완전히 합치되는 얘기다. 궁극의 상태로 가면 오직 '지금 여기'라는 단 하나의 시공간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고정돼 있는 채로, 하나의 공간이 움직일 뿐인 것이다.

이건 확실히 좀 어려운 얘기다. 그래서 급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이 문제는 반복해서 다루면서 이해해나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한 옷감의 주름 하나일 뿐이라는 것만 이해해도 당장은 충분하다. 주름은 옷감에 완전히 연결돼 있다. 그대도 그렇게 존재와 완전히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는 것만 이해해도 당장은 충분하다.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알려고만 한다면.

다른 차원들

봄(데이비드 봄)은 감추어진 질서가 사물의 종국이라고 믿어야 할 이유도 없다고 본다. 그 너머에는 상상하지 못한 차원들이 존재할지도 모른다. 끝없이 펼쳐지는 무한한 차원들이… p83

적외선을 본 적이 있는가? 적외선 카메라가 발명되기 전에는 적외선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적외선을 볼 수가 있

다. 기술력에 힘입어서 적외선이 가시광선의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지금 적외선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적외선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바보 소리를 듣는다. 적외선을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때 적외선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놈이 있었으면 사약을 받았거나 귀양을 가야했을지도 모른다. 아무도 적외선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대의 앎과 믿음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 귀신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돌아다니고 있다. 우리는 영매를 통해서 그 귀신들과 대화할 수 있고, 귀신들은 지금도 그대의 생각을 읽고 있다. 귀신들은 미국까지 갔다 오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우리는 그런 귀신들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건 너무나 생생한 현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 등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경계에서는 그 경계가 무너진다는 걸 선명하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생명과 비생명의 경계도 그 경계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물질과 에너지의 경계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을 뿐이다. 물론 그건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현실에서 생활을 이어가야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먹고사는 게 정당한 만큼, 우리가 사실을 무시한 채로 살아온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사실에 접근할 때는 먹고사는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사실을 아는 방법으로 먹고살기가 힘들듯이, 먹고사는 방법으로는 사실을 알 길이 없다. 완전히 다른 눈으로 접근해야만 하는 것이다.

홀로그램 우주론은 현대판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면 화두도 달라져야 한다. 시대마다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다. 화두는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는 문제일 뿐이다. 그 놈이 가장 잘 몰입할만한 문제가 그 놈

에겐 최선의 화두다. 그 놈이 관심이 많아야 열심히 그 문제를 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주론에 관심이 많은 놈에게는 이 홀로그램 우주론이 최고의 화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이 홀로그램 우주론은 사실 그 자체다. 화두이면서 사실이기도 한 것이다. 그래서 그대가 속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화두를 푸는 과정에서 화두의 메커니즘으로 그대의 머리가 뚫릴 수도 있고, 홀로그램 우주론을 완전히 이해함으로 해서 그대가 다 알게 될 수도 있다. 완벽하지 않은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곱 개의 하늘이 어쩌고 하는 얘기는 단순한 비유만은 아니다. 아스트랄계니 멘탈계니 하는 얘기들도 비유일 수가 없다. 우리가 사는 3차원과 같은 차원들이 얼마든지 더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차원들마다 그 나름의 공간을 갖고 있다. 다만 우리가 적외선을 볼 수 없었듯이, 우리의 기술 부족으로 그 다른 차원들을 아직 감지할 수 없을 뿐이다.

지구가 돈다는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때도 있었다. 웃기는 얘기 같은가? 그대가 바로 그 교황이다. 자기가 기왕에 믿어온 것 외에는 전부 코웃음을 치는 원숭이가 바로 그대다. 큰소리를 치고 싶으면 공부부터 해라. 믿는 게 아는 게 아니다. 아는 게 믿는 것이다. 우주는 무수한 차원들로 가득 차 있고, 그 차원들마다 그 나름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대가 할 일은 그 알량한 머리로 그 수많은 차원들을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꿈 이야기

“꿈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을 반영한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종을 보존하려는, 종의 연결성을 유지하려는 배후의 더 큰 의지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울만은 말한다. p96

울만이 꿈에 대한 실험을 했다. 한 명은 잠을 재우고, 한 명은 그림을 보게 하면서 그 그림의 내용을 잠자는 친구에게 생각으로 전달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몇몇 경우에, 잠자는 놈이 진짜로 그 그림을 꿈에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 유체이탈로도 가능하고 텔레파시로도 가능하다. 일단 의식적 유체이탈은 배제된다. 의식적 유체이탈이었다면 꿈꾼 놈이 그 그림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방 안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이야기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실험에서, 유체이탈이라면 무의식적 유체이탈이거나 반半의식적 유체이탈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이탈된 유체로 본 것을 꿈으로 봤다고 착각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가능성으로는 텔레파시가 있다. 그림의 내용을 전달하는 놈이 염력이 강하고, 잠을 자는 놈도 염력에 민감한 놈일수록 성공할 확률이 높다. 두 놈이 다 염력이 강하고 주파수가 비슷하면, 그림의 내용이 잠자는 놈의 유체에 의해 감지될 수 있는 것이다.

꿈은 간단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꿈을 만드는 동기가 단순하지가 않기 때문이다. 꿈을 꾸는 놈의 마음 자체가 복잡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복잡한 마음들이 서로 의논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쟁하기도 하면서 꿈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더 복잡해진다. 거기다가 우연성까지 더해져서 거의 난수표가 되어버린다. 그대 자체가 수많은 마음의 층들을 가지고 있다. 악마에서 하나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층들 중에서 어느 층에서든 꿈

이 시작될 수 있다. 살인자가 되는 꿈을 꿀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되는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 와중에 또 수많은 층들이 간섭하게 된다. 결국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다. 악마가 됐다가, 하나님이 됐다가 하는 터무니없는 꿈들이 바로 그래서 생기는 것이다. 그대의 무의식은 이를테면 무정부상태다. 한 사람이 통치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힘 센 놈이 큰소리치는 나라이다. 그 순간에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그래서 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다. 그대 자체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주도 수많은 차원들로 구성돼 있고, 그대도 수많은 차원들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우주와 그대는 완벽한 함수 관계로 엮어져 있다. 둘 중에 하나만 풀면 나머지 하나도 풀 수 있고,둘에 동시에 접근하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찾아보라.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돼 있다. 그대의 시야가 좁디좁을 뿐이다.

붓다와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들도 홀로그램적 차원의 특정 측면들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의 체험을 합리적으로 종합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체험들은 슬프게도 신비가들이 보고하는 것들의 모방 수준에서 그치고 만다.

p97

정신질환자들이 무아경을 보는 것은 가능하다. 정신질환자들은 마음(이성)의 기능이 약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무아경을 보지 못하는 것

은 마음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상인들은 정상적으로는 본질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정신질환자들은 마음의 활동이 미미하기 때문에 무의식이 활개를 치게 되고, 당연히 무아경을 볼 확률도 높아지게 된다. 이건 정신질환자들만 그런 게 아니다. 마약이 바로 마음을 없애는 약이다. 술도 마찬가지로 마음을 없애는 약이다. 술이 만취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본 적이 있는가? 10층에서 떨어져도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던가? 질주하는 차와 부딪히면 차는 부서져도 나는 끄떡없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던가? 마약에 취해서 빌딩에서 뛰어내리는 게 바로 그런 환상 때문이다. 날고 싶다는 욕구가 마음이 사라진 틈을 타서, 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때, 그 욕구를 통제할 이성은 이미 잠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환상을 그대로 실행해버리는 것이다. 무아경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저녁에 소주를 10병만 마셔보라. 곧바로 무아경으로 들어갈 수 있다. 당장 그대 입에서 다 필요 없다는 말이 수없이 튀어나올 것이다. 그대는 뭐든 끌어 모으는 사람이다. 그런 그대가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대를 잃어버렸다는 얘기다. 그게 바로 무아경이다.

그렇다면 왜 정신질환자나, 마약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붓다가 아닌가? 반쪽만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지금 오직 현실만을 붙들고 있듯이, 정신병자나 마약 환자나 알코올 중독자는 오직 환상만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반쪽만 잡는 놈은 전부 환자들이다. 반쪽만 잡아서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대가 현실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다. 현실이 없으면 진리도 없기 때문에. 환상을 잡을 바에는 현실을 잡는 게 낫다. 현실이 있어야 환상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붓다와 정신병자가 구분이 되는가? 무아경이 문제가 아니다. 전부를 다

포함하는 게 관건이다. 전부를 다 포함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무아경 따위에 현혹되지 마라. 붓다는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다. 그대의 에고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비슷한 것들

한편 조울증 환자가 이 초현실적인 휴가여행에서 돌아오면 그는 다시 위험과 기회로 뒤범벅된 잡다한 일상사에 부딪혀 절망하고 만다. p98

이번엔 조울증 얘기다. 왜 사이비들이 그렇게나 판을 치는가? 마음에 관계하는 메커니즘들의 시작이 다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배만 고파도 마음은 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그대가 술만 취해도 마음은 사라진 듯이 보인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지극히 간단하다. 조울증도 마찬가지다. 세상에 희망을 잃으면 욕망도 사라지고, 마음의 활동도 약해지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 종류의 생각에 집중하게 된다.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명상과 똑같이 진행된다. 그대의 에고가 약해지는 건 명상이나 조울증이나 그 시작은 똑같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나 헷갈려 하는 것이다.

마음을 약화시키는 메커니즘 자체는 흔하디흔한 것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 마약으로도 가능하고, 밥을 굶어도 가능하고, 정신질환을 앓아도 마음은 분명히 약해진다. 하지만 그 뿌리가 현실에 있지 못하면 전부 사이비다. 수동적인 방법이나, 우연에 의한 마음의 약화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대가 위급한 순간에 한 번 괴력을 발휘한다고 해서 그대가 괴력의 소유자가 되는 게 아니다. 그대가 괴력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을 해야만 한

다. 그래야 괴력이 진짜로 그대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대가 마음의 약화를 의도하고 들어가야 그 '마음의 약화'가 진짜가 된다. 그대가 의도하지 않은 에고의 약화는 한순간의 느낌일 뿐이다. 그대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대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그대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면서 마음을 상대해야, 그대의 의식의 체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다. 헬스하는 것과 똑같다. 그대가 지속적인 관심을 유지해야 한다. 하다말다 해서는 답이 안 나온다. 생각나면 헬스장 가고, 귀찮으면 말고 해서는 근육을 만들 수가 없다. 명상이니 관觀이니 요가니 하는 것들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방법일 뿐이다. 그 방법들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노림수가 숨어 있다. 그게 뭐일 것 같은가? 그게 바로 '정신 차림'이다. 명상이니 관이니 요가니 하는 것들은 결국 그대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대가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린 채로 살 수만 있다면 명상이니 뭐니 하는 건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것들이 노리는 마지막 목표가 바로 정신 차림이기 때문이다.

헷갈려하지 마라. 얼핏 비슷해 보인다고 비슷한 게 아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못하면 명상이니 요가니 하는 따위를 만 년을 해도 아무 것도 볼 수가 없다. 깨달음은 한없이 투명하고 선명한 깨어 있음이다. 정신 차려라.

자각몽

자각몽이란 꿈꾸는 사람이 완전히 의식이 깨어 있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독특한 종류의 꿈이다. 자각몽에서는 꿈꾸는 사람이 종종 여러 방법으로 꿈을 통제할 수 있다. 즉 상황을 재설정하여 악몽을 유쾌한 꿈으로 바꾼다거나 특정 개인이나 상황을 마음대로 불러내는 등으로 말이다. p99

잠잘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잠든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은, 꿈도 있고, 몽유병도 있고, 의식적 유체이탈도 있고, 무의식적 유체이탈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자각몽도 있다. 자각몽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알려진 것이고, 『탄트라 비전』에 방법의 하나로 소개까지 되고 있다. 우리가 잠잘 때 일어나는 일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자.

일단 우리가 잠이 들면 유체가 육체로 부터 약간(대략 5cm 정도)이탈된다. 그러면서 육체의 방에 불이 꺼지고, 우리의 육체가 잠을 자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유체가 더 멀리 이탈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그게 의식적 유체이탈과 무의식적 유체이탈이다. 그리고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대개 '무의식(반의식)적 유체 이탈'을 하게 되고, 그 무의식(반의식)적 유체이탈 상황에서 본 것들을 꿈으로 오해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가 흔히 꿈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무의식적 유체이탈 중에 본 것들이 포함돼 있다.

또 하나의 유체이탈 상황이 바로 의식적 유체이탈이다. 유체이탈이 완전히 일어난 상황에서 유체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유체는 마치 사람이 행동하듯이 느끼고, 반응하고, 행동할 수 있다. 그런데 유체는 육체와는 달리 생각만으로 이동과 행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육체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유체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종종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유체이탈을 통해 할 수가 있다. 실반 멀둔의 책에도 나와 있듯이, 유체는 때로는 미래로도 갔다 올 수가 있다. 이게 바로『홀로그램 우주』에서 평행우주론을 제시하는 근거다. 유체가 시간을 넘어서 미래를 갔다가 왔다면, 그 미래의 세계는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것을 설명하기위해, 이 우주에는 이미 수많은 경우의 세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평행우주론이 제시되었다. 평행우주론은 말 그대로 평행(병행)해서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 이론에 따르면, 내일 그대가 죽는 상황과 그대가 로또에 당첨되는 상황과 그대가 천생연분을 만나는 상황 등의 수많은 세상들이 이미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진행되면서, 그대는 그 많은 상황들 중 하나로 선택해 들어갈 뿐이라는 것이다.『신과 나눈 이야기』를 쓴 닐 월시가 시간을 수평으로 나열하지 않고 수직으로 층층이 쌓았듯이, 그대가 하나의 시간이라는 선line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시간의 층들 속에서 선택하면서 움직인다는 것, 그게 평행우주론이다.

유체이탈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의 무의식은 쉬지 않는다. 우리의 몸이 잠든 동안에도 무의식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데, 그 작업이 바로 꿈이다. 그대가 깨어있는 동안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은 그대의 무의식에 그대로 풀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욕구도 그대의 본능으로 무의식에 남아 있다. 그래서 그대의 무의식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작업을 꿈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각몽은 어떤 상황인가? 통상 꿈은 그대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꾸게 된다. 그런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도 꿈을 꿀 수가 있다. 이건 의

식적 유체이탈을 유발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의식을 유지하면서 유체이탈을 시도하면 의식적 유체이탈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식을 유지하면서 잠을 청하면 의식은 깨어 있는 채로 육체만 잠이 드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때, 그대의 육체가 잠들었기 때문에 그대의 무의식은 육체가 잠든 것만 확인하고, 자신의 일인 꿈을 만들어내서 작업을 시작한다.

자각몽은 그대가 꿈을 꾸는 상황에서도 그대의 의식이 살아 있는 것이다. 그대의 무의식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대의 의식도 같이 깨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무의식은 그걸 모른다. 무의식은 육체가 자는지 안 자는지만 확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을 내 맘대로 만드는 묘한 상황이 연출된다. 그대는 지금 꿈을 꾸고 있는데, 그대의 마음은 생생하게 깨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꿈을 맘대로 바꿀 수가 있게 된다. 예쁜 여자도 얼마든지 침실로 끌어들일 수 있고, 로또도 얼마든지 당첨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꿈으로 끝날 뿐이지만. 이게 바로 자각몽이다. 잠이 들려는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시도해보라. 몇 번 훈련을 하면 몸은 잠들지만 의식은 여전히 깨어 있는 상황을 경험할 수 있다. 연습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꿈과 유체이탈

울프는 자각몽(그리고 어쩌면 모든 꿈)이 사실은 평행우주parallel universe를 방문한 것이라는 가설을 편다. 그는 심지어 자각몽 능력을 평행우주 지각능력이라고 부르는 편이 더 정확하리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p101

이 친구의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틀린 얘기는 아니다. 다만 이 친구가 그 과정을 모르고 있을 뿐이다. 육체가 잠든 상황에서 유체가 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상황을 통해 가능하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그 한 가지가 유체이탈이고, 다른 한 가지가 바로 꿈이다. 유체이탈은 말 그대로 유체가 육체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유체라는 귀신이 직접 공간을 돌아다니는 것이고, 꿈은 유체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상태에서 사고 작용으로 그림을 보는 것이다. 그런데 저 친구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막연히 자각몽이라는 신기한 경험에만 의지해서 하나로 뭉뚱그리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옳은 얘기다. 유체이탈을 통한 투시와 유체이탈 없이 이루어지는 멘탈체를 통한 투시가, 비록 그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결국은 한 곳에서 만나기 때문이다.

이탈된 유체로 직접 방문해서 보는 것과 단순히 꿈을 꾸는 것은 얼핏 보면 완전히 달라 보인다. 하지만 그건 한국은 대마초가 불법이니 대마초를 피우는 네덜란드 배우는 유죄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다. 생각 자체가 이미 물질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만들어낸 세계도 분명히 물질세계이기 때문이다. 이탈된 유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세계도 볼 수 있지만 미래도 볼 수 있다. 우리의 현실감각을 기준으로 놓고 따지기 시작하면 미래는 절대 볼 수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미래라는 현실이 이미 존재하고 있고, 유체가 그걸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틀을 바꿔야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바뀐 틀 속에서 생각 자체가 바로 현실이 된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 물론 이건 극한 상황에서의 얘기다. 꿈이나 생각은 현실적으로 극히 미미한 현실일 뿐이다. 얼핏 보면 도저히 현실로 인정할 수 없는 허깨비로 보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해하려는 것은 일상생활이 아니라 궁극의 사실이

다. 생각이나 꿈이 비록 지극히 희미한 형태이긴 하지만, 우리의 현실과 다를 바가 없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걸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울프의 저런 얘기가 결국은 옳은 얘기가 되는 것이다. 얼핏 보기에는 실제로 방문한 것과 생각만 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다 실제로 방문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생각과 물질을 너무 확연하게 나눠놨을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경계선에서는 경계가 없어진다. 물질과 생각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고, 그래서 현실과 꿈도 그 경계선에서는 서로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마법의 토대다. 생각을 물질로 바꿀 수 있고 꿈을 현실로 바꿀 수 있다고 믿는 마법사들의 기본 토대가, 바로 물질과 생각의 경계는 없다는 사실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라. 생각을 꾸준히 확장하면, 생각의 틀이 깨지면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된다.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놀라운 기록

그로프는 LSD 피험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어 보였다. 그들은 진화계통상의 모든 동물, 심지어 식물의 느낌까지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같았다. 그들은 적혈구, 원자, 태양 내부의 핵융합 반응, 지구의식, 심지어 우주의식까지도 경험할 수 있었다. p104

『홀로그램 우주』 103~104 페이지에는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다. 나도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된 걸 보기는 처음이다. 의사인 그로프는 LSD라는 마약을 정신치료에 활용할 방법을 찾다

가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겪었다. LSD를 복용하는 건 최면을 거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LSD가 마음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는지, 의식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작용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쪽으로 기능하든, 최면과 마찬가지로 무의식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곳에 묻혀 있던 기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된다. 퇴행 최면과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그러니까 최면이 잘 걸리지 않는 환자는 LSD를 최면 대신에 사용할 수가 있다.

여기서 묘사되고 있는 환자들의 전생 기억은 참으로 놀라운 수준이다. 책을 사서 한 번 읽어보라. 공룡시대 파충류였던 여성은 그 파충류 암컷의 성감대가 어디라는 것까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한때 자기 몸이었으니 자기 성감대를 자기가 모를 리가 없지 않은가? 전생에 이집트에서 장례를 담당했던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도, 그 방법과 의미와 원리들까지, 마치 입이 근질거려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읊고 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직접 한 일이 아니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 완전히 몸에 밴 일이라야 그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자기가 직접 했던 일이 아니면 도저히 그런 묘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이 책은 사실을 기록한 책이다. 무작정 책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의 생각을 좀 확장해라.

쫓아오는 놈들

그가 지적하듯이 초개아적 체험의 핵심적 특징 – 모든 분리성이 환상이라는 느낌, 부분과 전체의 구분의 모호해짐, 그리고 만물의 상호연결성 – 들이 모두 홀로그램 우

주 속에서라면 발견을 예측할 수 있는 속성들이다. p106

모든 분리성이 환상이라는 느낌, 부분과 전체의 구분의 모호해짐, 만물의 상호연결성.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 내가 저 얘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저게 바로 사실의 내용이다. 그런데 저 내용은 모든 사람들 속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LSD나 최면 등을 통해서 의식을 확장하면 누구나 그 '본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과학이 열심히 쫓아오고 있다. 자기들 딴에는 놀라워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었단 말인가?'해가면서 달려오고 있다. 하지만 붓다는 이미 도착해서 내려다보고 있다. '그 놈들 용케도 잘 찾아오는구먼' 하면서 과학자들을 보고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이제 겨우 낌새만 알아챘을 뿐이다. 하지만 과학을 통하지 않고도 한방에 산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그대도 이 세상 모든 과학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과학과 철학의 도착점이 바로 그 산정상이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초월이다. 그대도 초월할 수 있다. 초월은 이미 그대 속에 있다. 자신을 믿어라.

전체지향적 요법

그로프는 그들의 기법을 '전체지향적 요법'이라고 부르고 단지 빠르고 통제된 호흡과 유도적인 음악, 마사지나 신체적 압박만을 사용하여 변성된 의식상태를 유도한다. p109

이 요법이라는 게 바로 뜨거운 감자다. 잘만 쓰면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잘못하면 영락없이 독이 되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구르지에프도 같이 읽고

있다. 구르지에프에 대해서는 검색해보면 내용이 많이 나올 것이다. 구르지에프가 수행자들이 마약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방금 읽었다. 그는 자기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곳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한고 한다. 그리고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선배들의 허가를 받고 작업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런 통제 시스템이 무너지면 마약을 통한 수행은 곧바로 '마교'로 전락해버린다. 환각 섹스파티로 타락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니 섣불리 모험을 할 생각은 하지마라. 탁월한 방법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위험하고도 감옥갈 일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정 아쉬우면 최면술사를 찾아가서 최면을 시도하면 된다. 최면도 마약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한 전체지향적 요법이라는 건 LSD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을 LSD 없이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인 셈이다. 저런 요법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라즈니쉬다. 라즈니쉬의 아쉬람에는 수많은 요법 그룹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다양한 요법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었다. 라즈니쉬는 요법의 효과를 믿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요법을 가르치던 요법가들이 라즈니쉬를 배신한 제자들이다. 요법을 깨달음과 혼동한 탓이다. 라즈니쉬 밑에서 몇 년간 요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놈들이, 요법은 산 정상이 아니라 산으로 가는 길일뿐임을 망각해버렸다. 그래서 라즈니쉬가 가르치는 건 우리도 다 가르칠 수 있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산 중턱도 못 가본 놈들이 산 정상으로 인도하겠다고 공갈을 친 것이다. 이게 바로 요법의 폐해다. 요법을 하면 일시적으로 의식이 각성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 단계까지는 어렵지 않게 안착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깨달음은 99퍼센트조차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법은 사소한 짓으로 치부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요법에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위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깨달음까지 가는 길은 목숨도 걸어야하는 길이다. 그런데 힘들 때 요법만 잘 이행해도 간단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며칠 정도는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쉬운 길을 택하게 된다. 죽을 각오로 덤벼서 깨닫는 것도 좋지만, 언제 올지도 모르는 성불을 기다리느니, 며칠에 한 번씩 명상이나 하고 요가나 하면서 그냥 사는 게 낫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붓다가 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요법도 그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끝까지 가보겠다는 사람이라면 요법과 깨달음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나는 이미 수많은 사이비들을 언급했다. 그런데 요법이 바로 사이비다. 끝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요법이 결국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불교가 요법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이다. 오직 정면 승부만 하는 것이다. 일견 더 쉬워 보이는 방법들이 결국에는 장애물로 둔갑하고 만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도 많은 요법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요법의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치통이 심할 때는 누구라도 진통제를 먹어야 한다. 하지만 내용은 정확히 알아야한다. 요법에 맛을 들이면 그걸 넘어가기가 어려워진다. 요법만으로도 일시적인 평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약효는 금방 떨어진다.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다.

깨달음 외에는 다 가짜다. 영구 시술 외에는 어떤 것도 그대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잠깐 효과가 있는 듯이 보여도, 금방 돌아서면 더 강력한 자

극으로 대처해야만 한다. 그걸 알고 요법 같은 임시 치료에 접근하도록 해라. 약은 약일뿐이다. 약은 생명이 아니다.

불완전한 옷감

피트는 그러한 우연의 일치가 사실은 '현실이라는 직물에 나 있는 구멍'이라고 믿는다. p119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나는 존재가 대충 움직인다고 누차 얘기했다. 존재는 각대로 움직이질 않는다. 당연한 얘기다. 존재에게 두뇌가 있다고 해도 완벽하게 수학적으로 움직일 수는 없다. 그런데 존재에게는 두뇌가 없다. 당연히 수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60억 명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능한 일이 된다. 이게 이상한가? 그대는 기계처럼 사는가? 그대에게는 예외란 없는가? 그대의 일과는 모든 게 똑같이 정해져 있는가? 그대는 정확하지 않은데, 왜 존재는 정확해야 하는가? 누가 그렇게 정했는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선 안 된다고 누가 정했는가?

그대가 그대의 마누라를 파악하려면, 그대가 상상하는 그대의 마누라를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대가 상상하는 마누라가 아니라, 존재하는 마누라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존재를 알아갈 때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상상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해서 알려고 하면 답이 안 나온다. 존재하는 존재를 그대로 두고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대는 보는 놈일 뿐이다. 존재의 일은 존재가 결정한다. 그대는 존재가 이래야 한다느니 저래야 한다느니 할 이

무런 권리가 없다. 존재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겠는가? 그대는 있는 것을 보기만 하면 된다. 그대가 존재를 그대 맘대로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식대로 왜곡하지 않고 존재에 접근하는 사람은 드물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존재는 이래야한다는 자신의 믿음을 먼저 준비한 채로 존재에 접근한다. 그러니 어떻게 존재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두 개의 존재가 부딪히면 자신의 믿음을 실재 존재보다 앞에 놓아버리는데, 무슨 수로 실재 존재를 볼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그대의 이해방법이다. 그래서 그대가 그렇게나 알기 어려워하는 것이다.

존재는 완벽한 옷감이 아니다. 군데군데 구멍도 많고, 흠집도 많다. 그대는 완벽한 사람인가? 사자는 완벽한 생물인가? 지구는 완벽한 행성인가? 그대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완벽한 게 있는가? 그렇다면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 아닌가? 왜 존재만 홀로 완벽해야 하는가? 존재가 무엇인가? 그렇게나 불완전한 사자와 인간과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존재다. 그러니 존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가?

그 옷감에 난 구멍이 바로, 텔레파시, 공중부양, 염력, 기적 같은 것들이다. 모차르트 같은 음악적 천재가 있고, 피카소 같은 미술적 천재가 존재하듯이, 정신적으로 특수한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소위 그대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아인슈타인도 기적이고, 모차르트도 기적이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 기적의 기준을 그대가 정했을 뿐이다. 그대의 그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감각에 의지해서 어떤 것은 기적이고 어떤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마음대로 정한 것이다.

수학 천재가 있을 수 있다면, 염력으로 물질을 움직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건 당연한 일이다. 피아노 천재가 있을 수 있다면, 텔레파시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이다. 그대는 너무도 많은 틀들을 가지고 있다. 틈만 나면 재단하고 규정하는 게 그대의 일이다. 그래서 그대가 아는 게 그렇게나 적은 것이다. 그대의 이해의 틀을 좀 열어라. 그래야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무의식이라는 기계

그러나 또 이미 살펴봤듯이, 두뇌는 '외부에' 있는 것과 외부에 있다고 '믿는' 것을 항상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그것이 수족절단 수술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지 현상을 경험하게 만든다. p124

이게 바로 무의식의 비밀이고, 무의식의 힘이고, 무의식의 실체고, 무의식에 바탕을 둔 모든 메커니즘들의 열쇠다. 무의식은 반응 기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오직 입력에 대응해서 출력만 할 뿐, 아무런 판단 능력이 없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무의식과 연락이 닿기만 하면 무의식을 움직일 수가 있다. 이게 모든 기적들을 떠받치고 있는 비밀이다. 무의식이 바로 기적인 것이다. 인용한 내용 앞에는 심상화를 통해 암을 극복하는 얘기가 나온다. 지극하게 믿기 시작하면 무의식이 따라오기 시작하고 무의식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실제로 암이 사라지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의식을 완전히 장악할 수만 있다면 기적 따위는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암이 사라졌다고 완전히 믿기만 하면 암은 분명히 사라지

기 때문이다. 몸은 분명히 무의식의 믿음을 따라간다. 마음을 이용한 모든 마법들과 초상현상들은 전부 이 무의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모든 방법들과 현상들이 사실은 무의식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법들이고 결과들이다. 무의식의 실체는 이렇다.

1. 판단능력이 전혀 없는 기계다. 오직 반응만 한다.
2. 무의식이 믿으면 뭐든 그 믿음대로 된다.

그대는 굉장한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다. 그 기계는 다름 아닌 기적을 행하는 기계다. 기적은 선택받은 사람들만 행하는 게 아니다. 기적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인 것이다. 무의식만 제어할 수 있으면 된다. 무의식을 통제할 방법만 찾으면 어떤 기적이든 행할 수가 있다. 방법을 찾아보라. 그대는 이미 기적을 갖고 있다.

성흔발현과 히스테리

그리고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성흔발현자들이 '히스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p159

이게 기적의 핵심이다. 예수의 상처가 있던 똑같은 곳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기적 같은 일의 실상은 히스테리이다. 히스테리는 일종의 마음의 집중 현상이다. 보통 사람은 저 놈을 확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차마 그럴 수는 없고…'하면서 풀어지고 만다. 하지만 히스테리 환자는 그 증오의 불이

보통 사람처럼 쉽게 꺼지질 않는다. 마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고정된 채로 오히려 더 확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불길이 불길을 불러서 오히려 더 강화된다. 스스로 자기 최면에 들어가면서 '저 놈이 밉다'에서 시작된 생각이 어느새 손에 칼을 들고 있는 상황으로 발전해 버린다. 이게 바로 심상화의 모델이다. 히스테리 환자는 체질적으로 심상화 전문가들인 것이다.

보통은 심상화를 하려면 노력을 많이 해야 실현가능한데, 히스테리 환자들은 선천적으로 타고났기 때문에 수월하게 한다. 성흔 발현이니 어쩌니 하는 건 전혀 신기한 게 아니다. 그대도 얼마든지 손바닥에서 피가 나오게 할 수 있다. 피 흘리는 예수 그림을 골방에 걸어놓고 하루 한 시간씩 일 년만 해보라. 제대로 하면 분명히 피가 난다. 그 메커니즘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증상이 심하지 않은 히스테리 환자는 심상화 훈련에 매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심상화란 마음을 집중해서 물질화하는 작업이고, 히스테리 환자는 이미 체질적으로 집중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이 성흔발현 부분에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심장에 가시 면류관과 세 개의 못과 십자가 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곤 했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후 해부를 해보니 진짜로 심장에 그 그림이 새겨져 있었던 사례도 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아닌가? 하지만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물질과 생각은 분명히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 유전병을 마음 하나로 없애버린 사례도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대로 마음으로 유전자를 조작해 버린 것이다. 이 역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마음과 물질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유전자라고 해서 물질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대는 어떤 성격인가? 성질의 기복이 심한 편인가? 좋을 때는 발바닥이라도 핥아주고 싶다가 미울 때는 금방이라도 식칼을 들고 싶어 하는 다혈질인가? 그렇다면, 그대가 바로 심상화 훈련을 해야 할 사람이다. 그대의 그 감정을 잘 이용하면 마음을 쉽게 물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심상화는 어차피 그림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실재 그림을 이용하는 게 유용할 때가 많다. 심리학이나 마법에서 그림을 많이 이용하는 게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어차피 그림을 만드는 일이라서, 아예 그림을 재료로 줘 버리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대가 좋아할만한 그림을 구해서 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적에 흥분하지 말고 기적을 이해해라. 그러면 그대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우주의 전체성과 인체의 전체성

뉴로펩티드는 신체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발견되었다. 이 사실은 피트로 하여금 두뇌와 신체의 경계를 더 이상 구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p164

이게 바로 인체의 전체성이다. 뇌가 완전히 전담해서 하는 일이라고 믿었던 것을 몸의 다른 부분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뇌에서 일어난 신호가 길을 거쳐서 전달돼야만 그 부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뇌에서 신호가 일어나는 동시에 그 부분에서도 신호가 감지되는 무시간성이 나타난 것이다. 이게 바로 몸에 존재하는 하나의 공간, 하나의 시간이다. 우주와 인체는 똑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체는 우주의 부

분이기 때문이다.

구분하는 작업은 편의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이다. 그래서 근사치에 그칠 수밖에 없다. 몸과 마음을 나누는 건 그렇게 나눠야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그게 사실이라서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다. 아직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잠시 그렇게 나눈 것뿐이다. 부산에서 서울로 가려면 그 사이에 있는 길을 지나가야 한다는 건 우리의 경험이다. 하지만 그 경험에서 도출해낸, 부산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길을 지나가야만 한다는 결론은 가설일 뿐이다. 오직 우리의 경험만을 토대로 도출해낸 결론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경험이 '모든 경험'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흔히 가설을 사실로 믿어버리곤 한다. 한마디로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수도관 없이 물을 전달하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그대는 수도관이 없으면 물은 전달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오직 뇌에서 신호가 발생하고, 그 신호가 길을 지나가고, 그래서 도착점에 도착하는 메커니즘만 가능하다는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구름은 무엇인가? 구름이 물의 전달이나 이동이 아니고 무엇인가? 입김은 무엇인가? 대기 중에 가득한 수증기는 물이 아니고 무엇인가? 물과 수증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가? 수증기를 찬 그릇에 모아놓고 여기 수증기가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그대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그릇에는 물이 고여 있을 것이다.

경계는 없다는 말과 전체성에 대하여 이해가 되는가? 부산에서 길을 지나서 서울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부산과 서울이 한 곳에 존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게 바로 전체성이고, 궁극의 사실이다. 길을 통과하면서 부

산에서 서울로 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부산과 서울이 한 곳에 있는 공간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도 똑같은 사실이라는 얘기다. 둘 다 사실이다. 뇌의 신호는 신경 라인을 통해서도 전달된다. 하지만 신경을 통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전달될 수 있다. 뇌가 신호를 생각의 형태로 무시간, 무공간적으로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게 3차원적 이해로는 풀지 못하는 물리 현상들의 메커니즘이다. 영매를 통해서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귀신이,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걸 동시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둘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것뿐이다.

하늘을 한번 보라. 그대와 태양 사이에 투명한 공간이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 투명한 공간에 비닐보다 얇은 막을 10개를 넣어보라. 그대와 태양 사이에는 이제 보일 듯 말 듯 얇은 막이 10개가 있다. 거기에 100개의 막을 더 넣어보라. 이제 그대와 태양 사이에는 110 개의 차원이 들어 있다. 거기에 1000개의 막을 더 넣어보라. 이제 그대와 태양 사이에는 천 개가 넘는 차원들이 들어차 있다. 점점 더 많은 막을 넣어보라. 그대와 태양 사이에는 무수한 차원들이 들어서게 된다. 그게 사실이다. 보일 듯 말듯, 있는 듯 없는 듯 놓여있는 경계선들이 이 우주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경계선들이 마음과 물질 사이에도 무수히 존재하고, 물질과 에너지 사이에도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 무수한 경계선들을 그대가 다 무시해 버리고, 딱 하나의 경계선만 선택했을 뿐이다. 그대의 몸 또한 무수한 경계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대의 육체는 얼핏 경계가 명확한 듯 보이지만, 그대의 아스트랄체는 주변과 구분하기가 힘들고 그대의 멘탈체는 더더욱 구분하기가 힘들만큼 주변과 연결돼 있다. 이게 사실이다.

오늘 밤에 골방에 들어가면 경계선에 대해서 명상을 해보라. 물질과 에너

지의 경계선, 마음과 물질의 경계선, 나와 주변의 경계선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과연 그 경계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라. 경계선은 철조망이 아니라 전환 지역일 뿐이다. 선line은 존재하지 않는다. 연속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확인해보라.

전체를 담고 있는 부분들

그는 지난 20 년 동안 중국, 일본, 독일 등지에서 임상데이터와 연구데이터를 추적해본 결과 손, 발, 팔, 목, 혀, 심지어 잇몸을 포함한 18개의 다른 침수 소체계 홀로그램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데일은 올슨과 마찬가지로 이 소체계야말로 '홀로그램판 신체해부학'이라고 느끼며,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다른 비슷한 체계들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p167~168

수지침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수지침의 원리에 의하면 손바닥 하나에 우리의 온 몸이 다 구현돼 있다. 그래서 몸의 특정 부위에 해당하는 손바닥의 부분을 침으로 자극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몸의 부위를 자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발바닥에도 똑같은 체계가 구현돼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지압 슬리퍼다. 그런데 알다시피, 귀 하나에도 똑같이 몸의 모든 부분들이 구현돼 있다. 그런데 더 알아보니, 무려 몸의 18군데 이상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건 마치 그대가 온 우주를 그대의 몸에 구현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작은 우주가 큰 우주의 붕어빵이라는 사실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잘 들여다보라. 우주는 고스란히 그대 속에 있고, 그대는 고스란히 손바

닥 안에 있음을. 그 함수관계를 잘 들여다보라. 답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그대가 보지 않을 뿐이다.

spectrum

13

우리가 지구에 온 이유 · 미리 계획된 삶

로버트 슈워츠

『웰컴 투 지구별』
(샨티. 황근하 역)

로버트 슈워츠 Robert Schwartz

2003년 5월 7일, 로버트 슈워츠는 영매(채널러)를 만나 도움을 받기로 하면서 인생의 전환기를 맞았다. 영매는 사람들에게 각자 영혼의 인도자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그 인도자는 비물질적인 존재로서, 로버트가 살면서 해온 일들은 물론 그의 생각과 감정까지 다 알고 있었다. 비물질적 존재들은, 로버트가 지금까지 겪은 수많은 고난이 실은 태어나기 전 영혼의 단계에서 스스로 계획한 것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는 영매를 통한 대화를 하면서 전생 계획에 대해 알게 되었고, 커다란 영적 각성을 경험하였다. 또한 자신이 겪어온 삶의 시련들이 사랑의 실현이라는 더욱 깊은 목적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후 그는 3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영매와 비물질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전생 계획을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을 통해, 로버트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경험과 사건들이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영혼이 미리 구상해 둔 복잡한 계획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보여주는 멋진 책이다. 이 지구에서 육체로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삶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참으로 협소한 착각임을 얼른 알아차리는 게 좋다. 이 지구는 우리들에게 학교나 극장 같은 곳이다. 삶이 큰가? 학교가 큰가? 삶이 큰가? 극장이 큰가? 이 지구에서의 삶은, 진짜 삶의 지극히 작은 부분일 뿐이다. 세상에서든 존재에서든 사실을 알아야 편안하지 않겠는가?

태어나기 전에 삶을 계획하다

이생에서의 삶을, 그것도 고통스러운 시련을 태어나기 전에 계획했다는 말은 너무 충격적일지도 모르겠다. 그 기분을 나도 잘 알고 있다. …그저 이렇게 묻는 것으로 족하다. "만일 그 말이 맞는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정말 태어나기 전에 이 경험을 계획한 것이라면? 나는 대체 왜 그랬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시련에 새로운 의미가 생기고, 자기 발견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다. 그 여정에는 영성이나 초물리학에metaphysics 대한 어떤 믿음도 필요하지 않다. 오직 자신의 성장에 대한 관심과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된다. p22

지금 그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대의 삶은 사실은 그대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대가 직접 계획한 것이다. 그대 자신이 암환자로 살면서 고통 받기로 계획했고, 거지가 되기로 계획했고, 안타깝게 요절하기로 계획했던 것이다. "그런 세상이 있다고?"하면서 놀랄 필요 없다. 이생에서의 삶을 계획하는 곳이 이 세상과는 다른 진정한 별천지라면, 왜 굳이 시련의 계획표를 작성해서

이 세상으로 실습을 와야 했겠는가? 이 우주 어디에도 마음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없다. 이 우주 어디에도 공짜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그저 한번 생각해보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지구는 이 우주에서 유일한 세상이 아니라, 그저 수많은 실험실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나' 중심, '인간' 중심, '지구' 중심으로 고정된 사고로 사는 삶에 충분히 지쳤다면 이젠 생각을 바꿀 준비를 해라. 우주는 충분히 넓은데 왜 넓게 쓰지 않겠는가?

지구에 온 이유

빛만 있는 세계를 상상해보라. 어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빛을 어떻게 이해하고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겠는가? 빛이 무엇인지 더 깊이 이해하는 것, 궁극적으로 기억해 내게 하는 것은 바로 빛과 어둠의 대조이다. 물질계에는 이 대조가 존재한다. 물질계의 큰 특징이 다름 아닌 이원성이기 때문이다. 오름과 내림이 있고, 더움과 차가움이 있고, 좋음과 나쁨이 있다. 우리는 이원성에서 생기는 슬픔을 통해 기쁨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 혼란이 존재하기에 평화의 의미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으며, 때로 증오를 품기에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적인 면을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인간의 신성을 알 수 있겠는가? p25

지금 현실을 사는 그대가 저쪽 세상을 경험하기 어렵듯이, 저쪽 세상의 존재도 지구에 오기 전에는 이원성의 현실을 실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의 현실이 필요해지게 된 것이다. 이를테면 지구는 '실제현실 전용 체험실'인 셈이다. 그나저나, 왜 굳이 인간의 신성을 더 깊이 알아야만 하는

냐고? 꼭 알아야한다는 법은 없다. 그건 그냥 본능일 뿐이다. 그대도 어느 날 문득 버스가 아닌 택시를 타고 싶어지지 않던가? 그대도 가끔씩은 최상급 한우가 먹고 싶지 않던가? 나의 실체를 알고 싶은 욕구도 똑같은 것이다. 아무도 강요하는 사람은 없다.

실험 본능

훨씬 더 어렵지만 그만큼 더 확실한 세 번째 방법도 있다.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바로 태초의 집의 음악이 연주되지 않는 곳으로 가서 그것을 다시 만들어내되, 그 소리를 깡그리 잊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만들어낸다면 그 음악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태초의 집의 음악을 기억해내는 경험, 그리고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다시 써보는 경험은 그 음악 안에 담긴 장대함을 가장 넓고 깊고 온전하게 알게 해줄 것이다. p26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여자 생각난다는 말이 있지만 그 반대도 역시 본능이다. 앉으면 서고 싶고, 서면 걷고 싶고, 걸으면 뛰고 싶은 실험 본능이 우리에겐 있는 것이다. 왜 맨손으로 암벽을 오르는 것일까? 왜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일까? 왜 멀쩡한 것을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걸까? 왜 더 깊은 오지를 찾아서 여행을 가는 것일까? 더 깊게 체험하고 싶고, 더 잘 알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다. 그래서 그대가 자꾸 이 지구라는 실험실로 돌아오는 것이다.

자유 의지

중요한 것은 인격체가 자유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삶의 시련들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다. 지구는 인격체가 태어나기 이전에 쓴 대본을 그대로 따르기도 하고 벗어나기도 하는 무대와 같다. 우리는 삶의 시련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연민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 대응 방법을 선택한다. 시련을 우리 스스로 계획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며 선택은 훨씬 쉬워진다. p27

"이 세상이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마치 "남자가 아이를 만듭니까? 여자가 아이를 만듭니까?"라고 묻는 것과 같다. 남자가 아이를 만드는가? 혹은 여자가 아이를 만드는가? 둘이서 같이 만들지 않는가? 우연과 필연도 같이 이 세상을 만든다. 혹시 우연과 필연 중에서 하나만을 받아들이고 싶다면 오늘부터 당장 섹스를 끊어라.

비물질적인 영역

예를 들어 사람들이 몸을 갖고 태어날 때 가끔 영혼의 영역에서 '나온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몸이 죽은 뒤에 다시 영혼의 영역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비롯한 여러 표현들은 장소가 아니라 지각知覺의 변화를 가리킨다. 서로 떨어져 있는 차원을 나타내는 말이 아니다. 윤회는 영원한 태초의 집에서 우리가 실제로 빠져나온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태초의 집의 비물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제한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비물질적인 영역을 볼 수 없게끔 우리 앞을 막이

놓은 장막이 사라진다는 것뿐이다. p30

그대가 오늘 조선 시대에서 온 사람과 함께 종로 거리를 걸어간다면, 조선 시대 사람에게는 전자파가 없지만 그대에게는 전자파가 있다. 조선 시대 사람은 휴대폰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전자파라는 개념이 없지만 휴대폰을 매일 사용하는 그대에게는 전자파라는 개념이 있고, 그 때문에 전자파라는 현상도 있게 되는 것이다.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미국인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 그때 미국인이 apple이라고 말한다면, 영어를 전혀 모르는 그 사람에게 apple이라는 소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것이다. 그 사람은 apple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인에게도 apple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 비물질적인 영역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있다. 다만 그대가 비물질적인 영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없다고 믿을 뿐이다.

우주가 다 내 집이다

천사들은 방금 영원하고 비물질적인 영혼들에게 물질계가 왜 그토록 매력적인 곳인지 그 까닭을 간결하게 설명해준 셈이었다. 반대를 경험할 때에야 비로소 더 깊이 자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영혼들은 한계를 지각할 수 있는 물질계로 와서 환생한다. 한계에 대한 인식은, 비록 그 자체가 착각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혼계에서 갖고 있다고 알고 있는 무한한 힘과는 극적으로 대비된다. 물질계에서 살면서 우리는 한계라는 착각 속에서 시련을 헤쳐 나간다. p173

그대가 용변이 급하지 않을 때, 화장실은 냄새나는 곳일 뿐이다. 하지만 그대의 오줌보가 터지기 직전이라면, 화장실은 그대에게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곳이 된다. 이 물질계도 그대에게 화장실과 같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냄새를 피할 수 없듯이, 이 물질계에 오면 물질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똥을 싸기에는 화장실만한 곳이 없듯이, 실감나는 체험을 하기에는 이 물질계만한 곳이 없는 것이다. 평화로운 곳에서는 체험이 약하고, 실감나는 곳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런 까닭에, 이 우주를 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 중들이 그렇게 말했다더군. 색즉시공이라고. 안방도 내 집이고 화장실도 내 집이라는 뜻이다.

다른 선택을 존중하기

'샤론은 자기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기로 선택한 이들을 이해하고 연민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자기 안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타인들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제 그녀는 모든 방식에는 각각의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지, 거기에 도달하고자 선택한 방식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큰 지혜입니다.' p176

김수환 추기경이 길상사를 찾아간 뜻이 이것이고,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을 답방한 뜻이 바로 이것이다. 기독교를 통하면 어떻고, 불교를 통하면 어떻고, 이슬람교를 통하면 어떤가? 내가 누구인지만 알면 되는 것 아닌가? 한식을 먹으면 어떻고, 중식을 먹으면 어떻고, 파스타를 먹으면 어떤가? 맛있게 배만 채우면 되는 것 아닌가?

자기 종교 외에는 다 틀려먹었다고 외치는 놈들은 대개 돌대가리들이다. 요즘은 특히 기독교 목사들 중에 돌대가리가 많다. 기독교가 질적 성장은 팽개쳐두고 오로지 시장 원리에만 매진한 탓이다. 그럴 바에야 장사나 하지 예수는 왜 믿었나? 예수가 돈 많이 벌라고 가르친 사람인가? 우리 모두가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다. 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목표에 접근할 뿐이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방식으로 공부하는 사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큰 지혜라 할 수 있다.

삶이라는 공부

팻에게서 볼 수 있듯이 물질계에서의 경험은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사람들이 나약함이나 퇴행이라고 낙인찍은 것이 실제로는 미리 계획한 큰 시련을 용기 있게 받아들이는 영혼의 모습일 수 있다. 사회의 비난은 그 계획을 실천하는 이들의 위대함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지만,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큰 영혼들이다. p218

지하도 입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 더러운 노숙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 사기꾼과 살인자들, 뻥쟁이들, 이기면 이겼다고 말하고, 져도 사실상 이겼다고 말하는 협잡꾼들. 그런 사람들도 어쩌면 성장을 위해서 어려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도자들인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무 무턱대고 욕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 언론을 장식하는 유명한 '성직자'들도 어쩌면 큰 공부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위대한 영혼들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군. 주여….

공연이 끝나야 막이 내려온다

'사람이 죽는 것은 그 삶에서 얻을 것을 모두 얻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발러리의 영혼이 우리에게 해준 말이다. 이 확신에 찬 조언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의 죽음에 대해 원망할 것이 없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진다. 가끔 죽음을 부른 사고나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는 수가 있는데, 그것은 그저 우리가 사랑한 이들이 태어나기 전 계획한 일종의 출구일 뿐이다. 스스로 누군가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그 죽음을 막았어야 했는데 막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이 점을 말해주고 싶다. 누구도 동의 없이는 죽지 않는다. 바로 그 점을 알 때에만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그리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p264

그대가 죽고자 한다고 해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살고자 한다고 해서 더 살아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내 삶이 오래 갈까 혹은 짧을까, 내 삶이 행복할까 혹은 불행할까, 혹은 행복이 언제까지 이어질까를 염려하지 말고 맘껏 살면 된다. 떠나는 사람은 떠날 때가 되서 떠나는 것이고, 아픈 사람은 아플 이유가 있어서 아픈 것이고, 즐기는 사람은 즐길만해서 즐기는 것이다. 삶에 휘둘리지 말고, 삶을 사용해라.

사람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만일 신체장애를 지닌 당신이 이것이 유일한 생이며, 몸이 곧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다면 남는 것은 비참한 절망감뿐일 것이다. 그 반면 자신을 영원한 영혼으로 본다면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나아가 그 장애를 스스로 계획했으며 실은 그 안에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까지 이해한다면 당신의 삶은 그 의미를 발견하려는 탐구의 여정이 될 것이다. 고통은 가벼워지고 공허함은 목적으로 채워질 것이다. p338

유치원생에게는 유치원생의 세상이 보이고, 초딩에게는 초딩의 세상이 보이고, 고딩에게는 고딩의 세상이 보이고, 부모에게는 부모의 세상이 보인다. 아이의 눈에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을 다 내어주는 부모의 삶이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부모의 눈에는 다 내어주는 삶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렇듯이, 그대가 몸과 마음의 눈으로 보기에는 남을 위해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 지극히 어리석어 보이겠지만, 영혼의 눈에는 사랑의 길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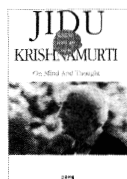
그대는 아직 알아야할 것이 많다. 지금껏 여러 학교들을 거치면서 마음을 성장시켜 왔다면 이제는 다시 영혼을 성장시키는 공부를 해야 한다. 초등학생도 자기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듯이 그대도 그대가 보는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건 유치한 믿음일 뿐이다. 그대가 이 세상에 온 진정한 이유를 알고, 그대의 진정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다시 공부를 시작해라. 궁극의 만족은 그대의 유일한 실체가 사랑임을 알 때 비로소 실현된다. 결국 그대는 사랑과 만족을 체험하기 위해 이 세상이라는 작은 실험실로 들어온 것이다. 웰컴 투 지구별 실험실!

spectrum

14

길 없는 곳을 가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완전한 자유』
(청아출판사. 김영호 역)

『마음과 생각』
(고요아침. 정채현 역)

지두 크리슈나무르티 Jiddu Krishnamurti

(1895년5월2일 ~ 1986년2월17일)

1895년 인도 안드라프라데시에 있는 작은 도시 만다나팔레의 브라만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의 이름은 힌두교의 신 크리슈나에 따온 것이다. 그는 13살 나이에 신지학협회의 선택을 받았으며, 아디얄에 있는 신지학협회의 지도자들과 그들 내부 집단의 통제 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신지학협회는 그를 교육시키고, 보호하면서, 그를 다가 올 세계의 스승의 재목감으로서 그를 준비시키기 시작했다. 1911년, 아디얄의 신지학 협회의 지도부는 다가 올 세계의 스승의 출현 대해 전 세계를 준비시키기 위한 '동방의 별 교단'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였고, 크리슈나무르티는 그 수장으로 지명되었다. 그러나 이후에 크리슈나무르티는 신지학협회가 부여했던 메시아적인 이미지를 단호하게 거부하고, 1929년 자기 주위에 형성되어 있던 크고 돈 많은 조직들을 극적으로 해체하면서 '길 없는 곳'이라는 진리를 선언하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나머지 생애 동안 크리슈나무르티는 전 세계에 걸쳐 많은 청중들을 상대로 가르침을 펴는데 전념 했다. 그리고 1986년 90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앎이 머리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글을 읽으면 답답한 느낌이 강하고, 사생활도 다소 미심쩍은 대목들이 있다. 앎이 앎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폭발해서 전체와 하나로 어울려야 하는데,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는 흔쾌한 맛이 없다. 존재는 너울너울 춤을 추고 있는데 지두는 미처 춤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지두 크리슈나무르티를 읽으면서 '이게 깨달음의 끝인가 보다'라는 생각은 하지마라. 존재는 이해가 아니라 '춤과 놀이'다.

그대의 편의주의

이처럼 여러분은 '객관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불멸이라고 하는 다른 종류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주관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 p39

지두가 1935년 멕시코 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대들이 그대들 편한 대로, 입맛대로 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대들은 '나'를 사용하는 게 입맛에 맞는다고 느껴지자 점점 더 그 '나'를 강화하면서 마음껏 사용해왔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개념들을 그 '나'에 맞추기 시작했다. 자연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웃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어떻게든 '나'가 안전한 쪽으로만 일방적으로 진행해온 것이다. 이게 지두가 말하는 '객관적'이라는 용어의 의미다.

그대들은, 나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것은 지극히 객관적인 행위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공장 폐수를 밤에 몰래 시냇물에

좀 내보낼지라도 공장을 잘 돌려서 직원들이 잘 먹고사는 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안전 아닌가? 삼겹살 수요를 대기 위해서 어미 돼지가 일생을 비좁은 틀 속에서 쉴 새 없이 새끼만 낳다가 죽어도, 소주 한 잔에는 역시 삼겹살이 있어야하는 게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그대의 안전 아닌가? 그대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먼저 그대와 그대의 가족이 안전해야한다고 믿는 동시에, 그 믿음이 지극히 객관적인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번엔 그대의 종교를 좀 보자. 그대는 그대의 종교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객관적인가? 그대는 그대의 종교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의식적인가? 그대는 그대의 종교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깨어있는가? 그대는 교회에 가는 순간 자신의 태도를 180도 돌려서 사용한다. 그대는 세상을 사는 태도와 종교를 대하는 태도를 완전히 분리시키기로 작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두 가지 태도를 완전히 상반된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그런데 왜 이래야할까? 세상을 사는 데에 있어 객관적이라면, 왜 종교는 객관적으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 종교를 믿는 데에 있어 주관적이라면, 왜 세상을 살 때는 주관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지두는 지금 이 얘길 하고 있는 것이다.

세상과 종교에 대한 그대의 태도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그대가 세상을 살 때 객관적인 관점을 사용하는 것은 그게 그대에게 어떤 의미로든 편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대가 종교에 대해서 오로지 주관적인 관점만 사용하는 것은 그 역시 그게 그대에게 편하기 때문이다. 그대는 관점의 일관성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로 오직 '여기서 내게 더 편하고 더 이익이 되는 관점은 무엇인가?'만을 고민하고 또 그런 관점을 주저 없이 선택한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두는 그대에게 일관된 관점을 요구하고 싶은 것이다.

그대가 세상 속에서 에고를 사용한다면 그 에고를 똑같은 강도로 그대의 종교 속에서도 사용해야한다. 그렇지 않은가? 그대가 만약 그대의 종교 생활에서 완전한 내맡김을 사용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생활 속에서도 완전한 내맡김을 사용해야 그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왜 세상에서는 이것을 사용하고, 종교에서는 저것을 사용하는 것일까? 그대에게 하나의 정신은 없고 오직 흐트러진 마음만 있기 때문이다. 즉, 그대는 정신분열증 환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다.

지두는 일단 조직과 단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지두는 그대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던 에고를 그대의 종교에도 그대로 도입해서 개인 수행에 매진하라고 요구한다. '나는 나다' 라는 자존심으로, 돈을 벌듯이 명예를 쌓듯이, 그렇게 자신을 파고드는 종교생활을 시도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위의 논리에서 그대로 드러나듯이 또 다른 방법도 존재한다. 그대가 종교생활에서 사용하는 주관성(내맡김)을 그대로 그대의 생활 속에 적용해도 똑같은 결과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두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객관성을 사용하든 주관성을 사용하든, 하나만 일관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바로 지두의 요구이고, 모든 붓다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그대가 이랬다저랬다 하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멋진 요약

누구나가 고통과 충돌에 속박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충돌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대체물들, 해결책 그리고 도피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반

면에 그들이 도피하지 않고 충돌을 일으키는 환경에 의문을 갖는다면 마음은 강렬해지고, 생생해지며, 지성적이 됩니다. 그 강렬함 속에서 마음은 충돌을 만들어내는 환경의 완전한 가치와 의의를 깨닫게 됩니다. 완전한 자유 p54

멋진 요약이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문제에 부딪히고 괴로워한다. 세상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다. 돈을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맘에 드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은데 별의별 이유로 성사되지 않는다. 착하게 살고 있는데 강도가 들어서 가족이 죽는다. 돈은 평생 쓸 만큼 있는데 자식이 애를 먹이거나 마누라가 불치병에 걸린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끝없이 일어나서 '나'와 충돌한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심지어 자살마저도 내 맘대로 안 된다. 빌어먹을…. 하지만 그 모든 문제들의 '근원'을 캐보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시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시도하거나, 아예 해결을 포기해버리거나, 하루하루 술과 오락으로 문제를 잊으면서 그럭저럭 살다가 죽는다. 그리고 그중에 몇몇 지독한 놈들이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한다.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챈 것이다. 아무래도 내가 어딘가 깊은 곳에 빠져서 뱅글뱅글 돌기만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 것이다. 왠지 지금까지 사용해온 방법으로는 백번 천 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다. 왠지 이 문제의 답이 전혀 엉뚱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언뜻 머리에 스친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단번에 확신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단번에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시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곤 한다. 하지만 얼마 못가서 역시나 '이건 아니다'는 확신을 굳히게 된다.

왠지 엉뚱한 놈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더 굳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기존의 해결방법을 포기한다. 이곳저곳 구멍 난 곳을 쫓아 다니면서 막는 것에 아주 넌덜머리가 나서 아무래도 이건 아니라는 결론을 굳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방법을 시도하게 된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다시 보기 시작한다. 도대체 이 문제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가? 혹시 내가 이 문제들을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문제로 인식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나'는 과연 누구일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일까? 내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이 앞의 것들을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도 혹시 가능할까? 내가 이것들을 문제로 인식하면, 이것들이 문제인 것이 확실한 것일까? 내가 '보는' 기능, 그리고 내가 '아는' 기능은 과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아니, 내가 '본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아니, '내가'가 뭐지? 뭐가 '나'지? 내가 언제부터 '나'였지?

'나'는 원래부터 고정된 것인가? '나'는 원래부터 확실한 것인가? '내가 본다', '내가 안다'가 문제가 된다면 왜 '내가'는 의심될 수 없는 것일까? 내가 '내가' 혹은 '나'를 의심해본 적이 있었던가? 이런, 진짜 문제가 여기 있었구먼! 나는 지금껏 한번도 '나'를 문제 삼은 적이 없었구먼? 이런 젠장…어떻게 이게 가능했지? 내가 왜 그렇게나 '나'를 기정사실로 믿었던 거지? 나는 한 번도 '나'를 확인해본 바가 없었잖아? 그런데 뭘 그렇게나 확실하게 '나'를 붙들고 살았을까? 기가 막히는구먼…한 번도 의심조차 안 해본 것을 그렇게나 확실히 믿었었다니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일이로구먼.

문제는 이렇게 진행된다. 그대의 문제들과 진지하게 대면하게 되면 그대는 그대가 전혀 엉뚱한 곳에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게 된다. 그대는 미국에서 일어난 대홍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다 댐을 건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야 홍수가 난 것은 중국(세상)이 아니라 미국(나)이라는 걸 알아차린 그대가 본격적으로 '나'를 파고들기 시작한다. 그러면 지두의 표현대로 '마음은 생생해지고, 강렬해지고' 즉 의식적이고 지성적인 탐구가 시작되는 것이다.

'나'를 의심하고 '나'를 다시 찾는 탐구는 그렇게 시작된다. 그리고 그 강렬한 탐구 끝에서 그대는 그대가 문제의 밖에 존재해 있고, 언제나 그래왔었으며 또한 언제나 그러하리라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된다. '하하하, 있지도 않은 내가 나의 문제들과 씨름하고 있었구나!'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대가 안고 있는 그대의 문제들이 지나치게 버겁다고 느껴진다면 그대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그대의 문제가 아닌 그대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문제는 오직 그대 자신 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될 것이다.

거부

나는 우리들 대부분은 방법들을 통해 충만함, 안전성, 영속성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보기에는 방법은 침체와 부패로 서서히 이끌고 진정한 영성과는 -그것은 결국 지성의 총계인데 -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 p67

사람들이 "나를 찾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를 알려 달라"고 하자 거기에 지두가 대답한 내용이다. 보다시피 지두는 방법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거부가 나오게 된 맥락이 너무 명확하다. 그래서 그 맥락이 오히려 지두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지두가 방법을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이 방법의 폐해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생생하게 경험한 산증인이기 때문이다. 이미 다 알다시피 지두는 어릴 때 이미 신지학회에 발탁이 되어서 스승으로 길러졌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후에 지두는, 신지학회의 방법이 굉장히 멍청한 방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결국 신지학회의 해체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런 활동들의 흔적이 바로 '방법 거부'라는 믿음 속에 상처처럼 남아있다. 그래서 지두는 그 이후로 방법이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사람이 됐고, 그저 '그것과 함께 있어라. 그것으로 충분하다.'를 신봉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내가 왜 지두한테서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게 됐는지 좀 감이 오는가? 깨달음은 열림이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나'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든 것이 옳기 때문이다. 그래서 깨달은 놈들은 근본적으로 거부拒否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다. 다만 현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나 공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거부의 모양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그건 그저 일시적인 장치일 뿐, 그 자신 속에 근본적인 거부감은 갖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지두는 방편으로서의 거부감이 아닌 상처로서의 거부감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그가 가장 크게 의지하는 부분이 지성이라는 사실과도 잘 맞아떨어진다. 지두는 지성적이기는 하지만, 음악성 혹은 리듬감은 부족한 인물인 것이다.

"A는 옳고 B는 틀렸다. 그러니 A를 사용해라. 더 이상 할 말 없다." 이

렇게 말하는 것은 지성이다. 하지만 음악적 감성을 지닌 존재는 '논리+춤'이다. 그래서 "A는 옳고 B는 틀렸다. 그러니 A를 사용하는 게 좋다. 하지만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게 존재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태극기 태극 문양이 딱 잘린 반달이 아니고, 서로의 꼬리가 상대편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춤의 부분이다. 존재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라는 논리로 끝나지 않고, 선은 악을 내포하고 있고 악 또한 선을 내포하고 있다는 음악성을 구비하고 있다. 그래서 진짜로 깨달아서 존재의 깊은 맛을 본 놈들은 다 유들유들하고 느긋하고 장난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존재는 '논리의 음악'이기 때문이다.

지성을 한계까지 사용해서 앎에 이르게 하겠다는 방법, 즉 지두가 선택한 지성의 방법은 얼마든지 선택 가능한 방법이고, 또한 지두는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데 도움을 줬다. 하지만 바야흐로 수행에 몸을 담고 수행을 진행 중인 진지한 수행자라면, 이제 차츰 지두의 한계도 알아볼 수 있어야한다. 존재는 음악이고 자유다. 오로지 지성만으로 접근해서 끝까지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한다. 거지한테 열심히 일해서 밥값을 하라고 일러줄 줄도 알아야 하지만, 그 거지 때문에 그대가 거지가 되지 않고도 거지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것에 대해 거지에게 감사할 줄도 알아야하는 것이다. 존재는 딱딱하지 않다. 존재는 항상 춤추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치는 이유

제발 내 말에 동의하지 마세요. 이건 동의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진실이냐 거짓이냐를 여러분 스스로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연사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마음과 생각 p44

지두가 이런 저런 말을 할 때 그 말들의 핵심은 그 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딛고 서있는 땅 밑을 파고들어가는 것에 있다. 그래서 그대가 깨달은 놈의 말을 들을 때도 그대의 마음의 핵심이 깨달은 놈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딛고 서있는 땅 밑을 파고들어가는 것에 있어야하는 것이다. 그대는 내 글을 읽을 때 자꾸 내 글 쪽을 본다. 하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나는 그대가 그대의 발밑을 보길 기대하면서 계속 글을 쓰고 있다.

지두가 "제발 내 말에 동의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뜻을 알겠는가? 지두가 뭐라고 하면 덥석 그 말을 물고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저 친구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어떤 상황일까?, 저 친구는 저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는 것일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의식 상태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내가 경험한 의식상태 중에 비슷한 것은 없었을까?, 저 친구가 경험하는 것을 왜 나는 경험하지 못할까?…하면서 땅(나)을 파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깨달은 놈들의 말들은 다 그대에게 어떤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러니 그 숱한 깨달은 놈들의 말들을 일일이 따라가려 하지 말고, 붓다의 말을 한마디 들을 때마다, '아, 말을 한번 들을 때마다 〈나〉를 한번 파고들라고 했었지!', '내용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은 마음속으로 한걸음 들어가라고 했었지!'하고 알아차려야

한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언제나 그대 자신을 향해 있다.

생각하지 말고 그대의 생각 방식을 관찰해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생각을 통해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고립된 해답일 것이며, 따라서 훨씬 더 많은 혼란, 훨씬 더 많은 불행을 낳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스스로 즉 자유롭게, 어떤 편견도 없이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말고,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 p44

앞의 글에서 내용이 아니라 방향이 핵심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깨달은 놈이 죽음은 없다고 말하면 그대는 즉시 죽음은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 궁리하기 시작한다. 그 궁리도 좋은 훈련이 되긴 하지만, 보다 제대로 된 수행자가 되려면 '죽음은 없다'에서 '죽음이 없다고? 그럼 몸이 죽는 건 뭐야?'하는 식으로 단순 이동할 것이 아니라, 내친걸음에 한걸음 더 뛰어서 그대의 생각이 움직이는 패턴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죽음은 없다는 말에 반응해서, '그럼 몸의 죽음은 뭐야? 그럼 왜 사람들이 전부 죽기를 싫어하는 거야? 죽으면 몸도 사라지고 의식도 끊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즐기던 걸 하나도 못하게 되는데, 지금껏 안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죽음이 없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고 있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움직이는 그대의 생각의 패턴을 관찰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 내가 죽음이 없다는 말에 이렇게 반응해서 이렇고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내는구나. 이게 왜 이럴까? 내가 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일까? 내가 다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어떻지? 혹시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혹시 내가 기계적으로 생각하고 있나? 그렇다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 나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으니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겠군. 그렇다면 그 생각하는 방식이란 것은 무엇일까? 그게 정말 만들어진 것일까? 깨달은 놈들은 한결같이 그 생각의 패턴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럴 수도 있을까? 그렇다면 생각의 패턴을 없애서 완전히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건가? 그럼 그게 깨달음이라는 것인가? 생각의 패턴을 없앤다고?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 않지만 한번 시도해볼 필요는 있겠는데? 내가 늘 생각하면서 살긴 하지만 생각의 패턴 그 자체를 점검해본 적은 없었잖아. 뭐 하긴 생각 그 자체를 점검한다는 것 자체를 상상도 한 적이 없었으니…. 생각 자체를 점검한다? 흠…생각 방식 자체를 의심해본다? 한번 시도해봐야 할 문제 같은데….

이렇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대는 지금껏 그저 생각의 패턴 속에서 자동적으로 생각하기만을 해왔을 뿐, 한 번도 그대의 생각 패턴 그 자체를 점검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 그대라는 생각 기계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관찰해봐라. 그러면 그대가 '자동 생각 기계'로 평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결론 없이' 혹은 '오직 모를 뿐'

여러분이 그렇게 통찰한 것에서 어떤 결론을 끌어낸다면 그건 여러분이 다른 어딘가로 옮겨갔다는 건데, 그건 역시 기계적인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통찰한다면 그런 마음 상태는 창조적입니다. 마음과 생각 p68

지두는 부단히 결론 없이 통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결론 없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화두는 왜 애당초 풀리지도 않을 문제를 풀게 하는 것일까? 숭산 스님은 왜 '오직 모를 뿐'을 견지하라고 했을까? 그대가 인식하는 그 문제, 그대가 알아차리는 그 대상, 그대가 도달한 그 결론 혹은 그 앎은 그저 재료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깨닫는 것은, 즉 궁극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대가 깨닫는 것은 의식의 폭발을 통해서인데, 그 의식의 폭발로 가는 길에 끝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대의 재료들을 태울 필요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그대들은 재료를 태우면서도 금세 꿈에 빠져들곤 한다. '나는 정말 멋진 불꽃이야'라는 환상에 젖어서 또 허송세월을 보내곤 한다. 수행의 목적은 물을 다 끓여서 다 증발시키는 데 있는 것이지, 불을 어떻게 때느냐, 연료를 무엇을 쓰느냐, 얼마나 멋진 불꽃을 만드느냐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그대의 주의는 항상, 물이 완전히 끓어서 완전히 고갈됐는가, 혹은 나의 의식이 완전히 폭발했는가에 있어야한다. '나의 불' 혹은 '나의 불쏘시개'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결론 없이' 혹은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는가?

끝없이 불을 때고, 끝없이 의문을 만들어내라. 물이 다 증발하고, 의식이

완전히 폭발하면 그대의 불 때는 일이 어느새 놀이로 변해있는 것을 그대 스스로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대가 결론을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고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가 궁극의 결론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수레를 밀고 가다가 절벽에서 추락을 하면 그대가 그 사실을 알까 모를까? 깨달음은 그렇게나 명확하다는 얘기다

훌륭하다

생각은 기억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은 경험이 남긴 흔적입니다. 그래서 경험이 충분히 완전히 전부 이해되지 못하는 한 기억은 흔적을 남깁니다. 완전히 경험한 순간, 경험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각을 낱낱이 조사해서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 흔적이 사실로서 남아있는지를 알면 그 사실이 드러날 것이며, 그 사실이 생각하기라는 그 특유의 작용을 끝낼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생각, 모든 느낌이 이해됩니다. 그러면 두뇌와 마음은 많은 기억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지 나무와 새들에 대한 주의만이 아니라, 모든 생각은 이해된다는 걸 보기 위한 내면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음과 생각 p99

『완전한 자유』를 읽다가, 지두 특유의 사설이 좀 지루해서, 지두의 글들을 주제에 맞게 발췌 편집한 일종의 요약집인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한결 읽기가 편하다. 라즈니쉬가 시적인데 반해 지두는 논리적인데, 지두의 논리는 위에 인용한 것 같은 명료한 요약을 통해서 그 빛을 발한다. 지두의 책을 읽기 전에 가졌던, 어딘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선입견은 거의 사라졌다. 그런 선입

견은 나도 라즈니쉬처럼 시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생겨났던 것이다.

spectrum

15

미처 못가고 옆길로 샌 바보

무묘앙 에오

『폐허의 붓다』(모색. 박취산 손성애 역)

무묘앙 에오

일본에서 태어났다. 34세에 의식의 각성을 체험했고, 1994년 3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에오는 의식의 각성을 체험한 후, 자신의 아파트 방 하나를 무명암無明庵이라 이름 붙이고 그를 찾아온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가르쳤다고 한다. 일본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국내에도 많은 책들이 번역 소개되기도 했다.

무묘앙 에오는 이 책에서 언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중생이지만 현실적으로 에오를 뛰어난 각자覺者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탓에, 에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굳이 언급했다. 무묘앙 에오 같은 의식 상태는 깨달음을 향해 가는 수행자라면 누구나 겪는 상태다. 하지만 신실한 수행자는 냉철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 고비를 넘어간다. 하지만 에오는 그냥 주저앉아 버렸다. 에오의 수행은 얕았고 성질은 급했던 탓이다. 독특하면 눈에는 띄게 마련이지만 언젠가는 사실이 밝혀진다. 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수행에서 다시 미망에 빠지지 마라. 가련한 바보는 에오 하나로 충분하다.

무묘앙 에오, 어찌나 멍청한지…

약품으로 안락사가 가능해지고, 기일도 자유롭게 예약할 수 있고, 시체의 처리도 국가나 병원이 해준다. 남은 것은 그저 자신의 신변 정리만 잘 해두면 그만이다. 이런 '밝은 자살', '자유로운 자살', '당연한 권리가 된 자살'이 인정되는 사회만이, 참된 인간성을 획득하는 열쇠를 지닌다. p23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보니 엄마가 근심에 잠겨 있다. 왜 걱정을 하느냐고 물어보니 돈 때문에 걱정이라고 한다. 그러자 아이가 한심하다는 듯이 피식 웃는다. "엄마, 밥을 안 먹으면 죽죠? 하지만 옷은 한 벌만 계속 입어도 죽지 않죠? 그러니 옷을 파세요. 가구도 파세요. 당장 없으면 죽는 것 외에는 다 파세요. 왜 돈 때문에 걱정하세요? 없어도 안 죽는 것들을 팔아서

돈을 만들면 되잖아요. 간단하죠?" 이제 엄마의 걱정은 해결된 것인가? 집에는 쌀과 옷 한 벌만 있으면 되는 것인가? 인간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만 있는 것인가? 에오의 시야가 터무니없이 좁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에오가 너무 멍청한 나머지 오히려 현자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세상 일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은 종합적인 해결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많은 문제들 중에 오로지 식량 문제만 혹은 인종 문제만 혹은 전쟁 문제만 해결하려든다면 왜 못하겠는가? 다른 것들을 망치지 않으면서 해결하려니까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에오는 왜 해결 못하느냐고 묻고 있다. 하지만 에오는 자신이 해결하려는 문제 외에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걸 누가 못하겠는가? 그런 무책임한 해결책을 누군들 생각 못하겠는가? 혹시 에오의 주장이 신선하게 다가온다면 그건 순전히 에오의 멍청함 때문이다.

완벽한 '자기 의지'?

생사가 완벽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 의지에 맡겨질 때, 비로소 인류는 '자기 의지'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자기 의지로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실은 남에게 의지하거나 남이 나를 의지하게 하며 남 또는 종교 따위를 염려하면서 살고 있는 것뿐이다. p23

마치 인간에게 완벽한 자기 의지가 당연히 가능하다는 전제 위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이 하나라도 있는가? 인간에게 확정된 의지나 마음이 있는가? 마음은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

니던가? 에오는 지금 기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인간이 기계라고 믿는 것인가? 혹은 자기주장을 펼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것인가? 삶을 판단하기가 이렇게나 쉬운 것이라면 왜 그렇게나 많은 문학과 철학과 정치가 필요할까? 간단한 몇 마디로 무엇이든 결정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내가 이 책에 에오를 굳이 싣는 것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기 때문이다. 에오는 무조건 반대쪽에서 후려치기 때문에 일견 신선해보일 수 있고, 그 때문에 어떤 부류에게 상당히 어필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에오의 유일한 특성은 무식해서 용감하다는 것뿐이다. 세상은 욕먹을 거리로 넘쳐난다. 세상을 꾸려가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닌데 어찌 문제가 없겠는가? 그래서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반대편에서 세상을 비판하는 건 쉬운 일이다. 하지만 대책 없는 비판은 기분풀이 밖에 더 되는가? 화풀이 하자고 내 맘대로 지껄이는 걸 누가 못해? 에오는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정신병자일 뿐이다. 차라리 수행을 포기하고 평범한 생활인으로 살망정 말짱한 정신으로 한 평생 사는 것이 에오처럼 되는 것보다 훨씬 훌륭한 인생이다.

에오의 눈

아무튼, 이런 화제는 정신세계에 푹 빠져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다소간 식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의 세상은 내일의 밥, 내일의 굶주림, 내일의 고통이 닥쳐올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내몰려서 살고 있다. 살고 있다기보다는 그것은 '할 수 없이, 공포를 회피하려고 허우적거리다가 끝나고, 삶을 질질 끌고 가다가 죽는 인생, 또는 행성의 껍

데기에 서식하는 미생물의 처절한 몸부림'에 비유할 수도 있다. p34

그대는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은 그저 어쩔 수 없는 생존일 뿐인가? 우리에겐 그 어떤 기쁨도, 보람도, 의미도, 희망도 없는 것인가? 그대의 삶에 대한 에오의 진단을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에오처럼 느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삶이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찌 인간의 삶을 오로지 절망이라 하겠는가? 모든 인간들이 비참하게 생존한다는 에오의 주장을 인류의 몇 퍼센트가 수긍하겠는가?

에오는 세상을 조사해서 사실을 알아내기 보다는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먼저 정한 후에 세상을 거기에 맞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에오는 세상은 비참하다는 자신의 결론을 먼저 만든 후에 그 결론에 부응할만한 요소들만 보고 다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에오에게는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깊게 이해하는 탐구심이 부족한 것 같지 않은가? 뭐라도 얼른 결론을 내려서 내지르고 싶은 욕구가 에오를 장악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걸 누가 못하겠는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마구 내지르면 되고, 세상이 어둡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자기 맘대로 내지르면 되는 것 아닌가?

깨달음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다. 존재가 한 덩어리임을 알면 존재에 과정과 결과가 없음을 알게 된다. 결론을 만듦으로 해서 올 수 있는 결과가 없는데 왜 결론을 만들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결론을 서두른다면 그건 그 사람이 존재를 모른다는 얘기가 된다. 섣불리 세상을 비참함으로 진단하는 에오는 깨달음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뜻이다. 어쩌면 에오는 라즈

니쉬를 보면서,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야말로 깨달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라즈니쉬의 날카로움은 편협함이 아닌 고요함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실 라즈니쉬는 아무것도 변혁하고 싶지 않았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세상이 너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칼을 휘두른 것이다. 하지만 에오는 세상을 보기도 전에 칼부터 갈고 있었다. 그래서 얼핏 두 사람 모두가 칼을 휘두른 사람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사례를 보이기 위해서 에오를 인용하고 있다. 치기로 똘똘 뭉친 어리석은 견해를 굳이 읽는 건 무척 힘들지만 이왕 시작했으니 몇 개만 더 써보자.

사이비

당신들에겐 내일도 있고, 어제도 있고,

공포도 있고, 환희도 있다.

지식도 있고, 힘도 있고, 활기도 있고, 기운도 있고, 불안도 있다.

그러니 당신들은 우리들보다 참으로 많은 것을 갖고 있다.

우리들은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무 것도 없다.

전혀

없다.

더 이상 우리들에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것을 우리는 갖는다.

…

그 때묻지 않은

안온함이

단순히

좋은 것이다. p36

보다시피 에오는 편을 가르고 있다. 우리가 있고 당신들이 있다. 게다가 뺏기는 것이 있고 안 뺏기는 것이 있다. 깨달음은 '내가 없음'을 아는 것인데, 내가 없으면 내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내 것이 없는데 무엇을 뺏길 수 있는가? 깨달음은 이 우주가 그저 한 몸임을 아는 것인데 누가 누구의 것을 뺏는단 말인가? 내가 내 것을 뺏는단 말인가?

에오의 말은 앞뒤가 안 맞다. '나는 그저 있음일 뿐'이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이 왜 나오는가? 그저 있음에 무슨 방향이 있고 영역이 있는가? 에오의 그저 있음은 '그저 있음'이 아니라 '그저 있음의 영토'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나는 그저 있음'이라는 생각 자체가 에고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에오가 뭔가를 꽉 붙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가?

'그저 있음'은 말 그대로 그저 있는 것이다. 거기엔 '있음'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우리'라느니 '당신'이라느니 하는 생각이 나올 수가 없다. 에오한테서 우리나 당신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에오가 '나의 그저 있음'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에오가 사이비라는 것이다. 말은 비슷하게 하는데 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해악을 끼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수행을 80%쯤 하다가 중단해버리고 선불리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에 휩쓸리면 에오처럼 된다. 그래서 먼저 수행을 한 선배들이 '오직 모를 뿐'을 두고두고 강조하는 것이다. '나는 안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른다!'에 집착해야 깨달음의 문턱이라도 밟아볼 수 있다. '나는 모른다!'만 붙들고 있으면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남을 것 같은가? 어느 날 '나는 모른다!'에 힘이 실리지 않는 때가 온다. 스스로 '나는 모른다!'고 주장하는데도 내심 자기가 알만큼 알고 있음을 아는 때가 온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만 줄기차게 고집하면 저절로 알게 된다는 얘기가 바로 '오직 모를 뿐'이다. 숭산 선사가 정말로 몰랐으면 왜 제자들을 가르쳤겠는가? 아무리 모르려고 해도 저절로 앎이 흘러나오니까 제자들에게 알려준 것 아니겠는가? 에오 정도의 근기로는 어림도 없다. 마음의 끝을 보려면 더 깊게 의심해야 하고, 더 오래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두정유의, 에오가 멍청해진 이유

에오의 명상법을 보면, 머리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게 에오의 문제다. 머리에만 에너지를 몰아주니 당연히 생각이 많고 말이 많아지지 않겠는가? 깨달음은 머리가 터지는 것이 맞다. 하지만 머리만 터진다고 깨닫게 되는 게 아니다. 밑에서부터 꽉 차올라서 머리가 터져야 깨닫게 된다. 그런데 에오는 다짜고짜 머리에만 집중하라고 한다. 길 가다가 빌딩을 보니 눈에

는 건물만 보이니까 자기 집을 지으면서 눈으로 본대로 건물만 올리는 격이다. 건물의 기초는 눈에 안 보이니까 없어도 되는 것인가? 기초 없는 건물이 온전하겠는가? 그래서 에오같은 멍청이가 나오는 것이다.

마음과 의식의 중심은 머리가 아니라 하단전이다. 존재를 보는 진짜 눈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단전에 있다. 먼저 하단전의 의식을 보고난 후에 더 추가할 것이 있으면 가슴으로도 보고 머리로도 보는 것이다. 그런데 하단전의 눈은 실눈만 뜬 채로 온통 머리로만 보니 어찌 생각이 없겠는가? 생각은 넘쳐나는데 그 생각을 통제할 의식이 없으니 무슨 평안이 있겠는가? 그래서 에오가 헛소리를 주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내가 없다는 건 대충 알겠는데 도무지 생각이 멈추질 않으니 여기저기 쑤석거리고 다닌 것이다.

두정유의는 만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잠시 쓸 수는 있지만, 오로지 그것만으로 수행을 하는 건 스스로를 생각 기계로 전락시키는 짓이다. 생각을 통제할 힘은 준비하지 않고 생각하는 힘만 키운다면 그 생각을 누가 감당하겠는가? 단전호흡으로 하단전을 든든히 하면 에너지가 저절로 머리로 올라간다. 에오는 성격 자체가 졸렬했기 때문에 수행도 성급히 끝내고 싶어서 두정유의라는 졸렬한 방법을 만들어냈고, 결국 깨달음은커녕 자기 생각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바보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직도 무묘앙에오에 대해서 혹시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얼른 접어라. 좋은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마하리쉬, 마하라지, 라즈니쉬, 다스칼로스, 석가모니…. 지극히 모범적인 사례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뭣 하러 일고의 가치도 없는 멍청이한테 눈길을 주는가? 기초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원리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에오의 영향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오를 검토해봤다. 에오의 글을 읽는 것은 어린 아이의 투정을 듣는 것 마냥 피곤하다. 어린애는 순수하기라도 하지. 다시는 에오를 읽고 싶지 않다. 에오를 읽을 바에는 차라리 스포츠 신문을 보겠다.

spectrum

16

서양의 철학자들

· 에드문트 후설
· 마르틴 하이데거
·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 질 들뢰즈

에드문트 후설 Edmund Husserl

(1859~1938)

현상학의 창시자. 그의 방법은 기존의 철학으로부터 정합적으로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편견에서 해방되어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사태 자체로zur Sachen selbst' 되돌아가 직관하는 것이다. 후설의 현상학은 '현상학 운동'으로 발전해 가면서 실존주의 · 인간학 · 해석학 · 구조주의 · 존재론 · 심리학 · 윤리학 · 신학 · 미학뿐 아니라 사회과학과 문화예술 전반에 다양하게 응용되면서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유럽 학문의 위기와 선험적 현상학』(이론과 실천. 에드문트 후설, 이종훈 역)

칸트가 놓친 것

이 지각의 근원적 확실성은 어떤 변양을 통해서도 변할 수 없다. 어떠한 자유로운 의식의 변양에도 불구하고 지각의 확실성은 그 변양의 근원적 양상으로서 지속된다. 왜냐하면 지각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원본적으로 경험하는 친숙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어떠한 이성적 추론에 의해서도 더 이상 추상될 수 없는 가장 믿을 만한 신념의 근거가 되는 지각의 확실성에 호소함으로써 성급한 이론적 추상에 의해 굴절되지 않은 세계의 확실성에 새롭게 시작하려는 의지가 칸트에게는 여전히 결여되어 있다.

'이 지각의 근원적 확실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현실성이라는 뜻이다.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버스를 타면서 버스의 존재를 의심하는 철학자가 있는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들은 버스를 이용해서 자기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버스를 무시한다. 하지만 퇴근할 때는 또 아무런 의심 없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 철학자들이 자기 집과 아이들과 마누라의 존재를 의심할까? 철학자들이 자신의 배고픔을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철학자는 한 명도 없다. 후설은 철학자들의 그런 이율배반적인 사고방식을 학문적 추상이라고 보고 있다. 의심하는 것이 습관이 돼서 의심에 사로잡혀 버렸다고 보는 것이다. 칸트에 대한 후설의 비판은, 칸트가 합리론과 경험론을 종합할 의도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작업을 합리론자의 입장에서 진행했다는 얘기다. 즉 현실을 사는 인간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마치 버스를 타고 출근한 후에 곧바로 버스를 의심해버리는 철학자처럼 현실보다는 생각을 우위에 두는 합리론자의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얘기다.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듯이, 의식도 변한다. 몸도 현실이고 마음도 현

실이듯이, 의식과 의식의 변화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데 철학자들은 의식만 관련되면 무작정 신비로 몰고 간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전부 신비인가? 그럼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자에게는 아이 낳는 것도 신비인가? 의식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은 사람이 있는가? 후설이 현상학이라는 이름을 통해 표방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학문이다. 그래서 현상학이다. 이론에 관계없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무시하지 않고 주목하겠다는 뜻이다. 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다면 설령 철학의 일환으로 버스를 의심은 할망정, 버스를 타고 출근했다는 현실은 사실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철학에 현상학이라는 분야가 있어서 그나마 수행과 소통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척 반갑다.

후설, 의식의 발견

후설은 경험주의와 실증주의에 기초한 여러 과학에 명확히 반대 입장을 갖고 '의식' 연구 – 실험으로 얻어진, 심리학의 개별적인 사실에는 없는 인간 정신의 보편적인 진리 – 를 제안했죠. 후설은 어떻게 '보편적 진리'라는 의식에 도달했을까요? 현상학적 환원에 의해서죠. 단순한 개체에 대해서는 어떤 관심도 일시적으로 '판단 중지'시킵니다. 그 장면을 제거했을 때 남아 있는 것이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정신의 구조죠.

수행에서는 이미 수천 년 묵은 익숙한 대상이 마침내 철학에 도입되는 역사적인 장면이다. 후설이 의식을 철학에 도입한 것이다. 의식은 무엇인가? 의식은 그대의 정신 활동의 배경이다. 가령 그대가 한순간 꽃을 떠올렸다가 다음 순간 누군가를 죽이고 싶다는 살의를 느낀다면, 꽃, 살의, 꽃과 살의와

의 관계 등은 심리학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수행은 꽃이나 살의나 그것들의 순서나 관계를 따지는 대신에, 그것들이 얼마나 밝은 배경 위에서 일어났는가를 따진다. 즉 수행은 그대의 정신 활동이 일어나는 배경의 밝기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법인 것이다.

그런데 후설이 이 의식의 존재를 알아챘다. 후설은 사과 하나를 앞에 놓고 봤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사과를 눈앞에서 치웠다. 그럼 이제 후설의 정신에는 뭐가 남아 있을까? 사과 모양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사과로 인한 느낌도 남아 있다. 그런데 사과에 대한 기억과 사과로 인한 느낌마저 치워버리면 거기엔 뭐가 남는가? 거기엔 아무것도 없는가? 혹은 여전히 뭔가 정신적인 것이 남아 있는가? 후설은 이게 궁금했던 것이다. 후설은 모든 정신 활동이 멈춘 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정신적인 뭔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온갖 정신 활동들을 가능케 해주는 어떤 바탕. 바로 의식이 정신의 맨 밑바닥에 깔려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후설은 그 의식을 느끼기 위해서 '판단 중지'라는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 판단 중지라는 방법은 수행에서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줄기차게 사용해오는 방법이다. 후설이 철학에 의식을 도입한 것은 대단한 일이지만, 수행자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의식은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가령 그대가 친구인 영숙이 얼굴을 떠올린다고 하자. 그런데 한 번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 떠올리고, 다른 한 번은 수술 후에 마취에서 막 깨어나면서 떠올린다고 가정하자. 이럴 때 영숙이를 기억하는 일 자체는 똑같은 작업이다. 그런데 몸 상태와 마음상태가 좋을 때는 기억이 잘 나는데, 마취에서 막 깨어날 때는 기억이 잘 나질 않는다. 이게 바로 정신 활동의 배경, 즉 의식 밝기의 차이 때문

이다.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그 작업의 배경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작업의 실질적인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수행의 첫 번째 목표는 수행자의 의식의 밝기를 강화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의식의 밝기에 따라서 마음의 밝기가 달라지고, 마음의 밝기에 따라서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령 그대가 사과를 볼 때 그대의 의식이 어두워서 그대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그 사과가 지옥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대의 의식이 밝아서 그대의 마음이 밝으면 똑같은 사과에 대해서 그대의 해석이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럼 사과를 보는 마음이 달라지면 세상을 보는 마음도 달라질 수 있을까? 당연히 그렇다. 그래서 의식의 밝기를 바꾸면 그대의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다. 달리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고 했겠는가?

후설의 환원 작업

후설의 환원 작업을 한번 따라가 보자. 이 상황은 현실 속에 있는 나무를 사람이 보고, 그 나무를 기억하는 장면이다. 여기서 후설의 환원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본다.

첫 번째 환원: 먼저 제거되어야 할 것은 현실이다. 현실은 물론 존재한다고 후설은 강조한다. 그러나 현실의 대상은 의식 속의 대상이 아니다. 현실의 대상을 연구하는 것은 실증주의적 과학에 넘겨줘도 좋다.

후설은 우선 정신 작용의 재료가 되는 현실을 제외시킨다. 후설은 지금,

인간은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캐고 있는데, 현실은 정신 작용의 대상은 될망정 주체는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실의 대상이 없어도 정신 작용은 일어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환원: 의식의 대상과 작용을 분리한다.

이제 현실의 나무는 없고, 나무를 본 사람이 나무를 기억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여기서 후설의 두 번째 환원(물러남)이 생겨난다. 후설은 정신 작용이, 분석, 판단, 반성, 판결, 계산 등등 무척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지만, 그 작용들을 '형태'와 '일어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마치 칠판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다양한 그림들이 그려질 수 있듯이, 다양한 작용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작용들을 가능케 하는 근원적인 작용이 있어야 함을 알아낸 것이다. 그래서 후설은, 확실한 것은 의식의 바탕 위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뿐이라고 말한다. 소위 유아론唯我論을 주장한 것이다. 즉,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내 정신에서 일어나는 정신작용뿐이라는 얘기다.

이 부분이 바로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고 말한 곳이다. 그런데 후설의 의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의식의 바탕 위에서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이 일어나는 이 상태가 궁극의 상태인가 하는 의문에 대해서, 후설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모양도 됐다가 저런 모양도 됐다가 하는 정신작용이 마지막 단계일리는 없다. 적어도 인간정신의 마지막 단계라면, 그건 변하지 않는 무엇이어야 한다고 후설은 생각한다. 그래서 정신의 마당인 순수의식, 즉 의식 자체를 인간 정신의 근본이라고 보고, 또 이 인간 정신의 근본이 절대적 존재와 같은 것이라는 믿음에서 그것을 초월

적 자아라고 불렀다. 다양한 정신작용들을 갖고 있는 인간이 '자아'라면, 그 정신작용들로부터 한걸음 더 물러나서 순수의식 상태로 존재하는 인간을 절대적 존재와 똑같은 상태에 도달한 '초월적 자아'라고 본 것이다.

이게 후설이 환원 작업을 통해 알아낸 내용이다. 진짜 나는 초월적 자아 즉 순수의식인데, 그 초월적 자아가 자아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정신작용들이 가능해진다고 파악했다. 이 내용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똑같다. 그래서 후설의 작업이 대단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1976)

1889년 9월 26일 독일 동남부 슈바르츠발트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린 시절부터 종교에 관심을 보였던 그는 1909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신학부에 입학하였으나, 질병으로 그만두고 철학연구에 전념한다. 1916년 에드문트 후설이 교수로 부임하자, 그 밑에서 조교로 일하기 시작했다. 1927년 『존재와 시간』을 출간하고 마침내 1928년 에드문트 후설의 후계자로서 자신의 모교인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정교수로 초빙되었다.

『하이데거』 (김영사. 제프 콜린스, 김민훈 역)

존재와 존재자

하이데거: 존재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계 속의 여러 사물들뿐만 아니라 사건, 관계나 과정을 포함하죠. 과학과 상식의 대상으로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존재'는 이런 사물들의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철학에 어울리는 관심사죠.

하이데거는 '존재'와 '존재자'를 특히 중요하게 구분했다. 하이데거가 존재라고 이름붙인 상태는 곧 붓다가 보는 존재다. 깨달은 놈은 의식이 폭발해서 항상 의식 100퍼센트를 유지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마음 없이 이 세상을 볼 수 있지만, 하이데거나 다른 일반인들은 아주 가끔씩 그 존재와 마주칠 뿐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아주 가끔씩 얼핏 얼핏 느껴지는 그 존재를 진정한 존재라고 보고, 그 진정한 존재를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 할 일이라고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 그건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문제도 아니고, 하이데거가 새롭게 알아낸 것도 아니다. 깨달음을 통해 순수의식 상태로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철학 내에서도 이미 익숙한 문제이다.

하이데거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이데거는 명상으로 가야할 곳을 생각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 하나의 문제가 무수한 문제들로 변해버린다. 마치 눈뜬 사람에게는 그저 "자, 봐라!"하면 될 것을, 장님에게는 사물들을 하나하나 다 말로 설명해줘야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때문에 하이데거의 말들이 그렇게나 모호하고 복잡하고, 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이데거가 '존재 그 자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별다른 것이 아니다. 존재를 이해하기 보다는 존재와 직접 부딪히는(존재를 체험하는) 수행의 입장에서 보자면 하이데거가 말한 존재 그 자체는 그저 존재의 원래 있는 모습일 뿐, 별다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다만 인간의 의식 위에 마음이라는 안경이 덧씌워지면서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왜곡되어 나타날 뿐이다. 그것이 바로 하이데거가 존재와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존재자,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이다. 인간이 갖는 의식 상태를 놓고 설명하면 지극히 간단한 문제인데, 하이데거가 각각의 사물을 관찰하는 현상학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문제가 복잡해진 것이다.

하이데거, 후설의 반대편으로 진행하다

존재와 현실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하이데거는 의식을 버리고 현실을 택했다. 그렇다면 이제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남았다. 하이데거는 어디로 가게 될까? 하이데거는 후설의 정반대편으로 나가고자 한다. 후설은 현실로부터 정신으로 물러나고, 다시 정신으로부터 의식으로 물러나서 '순수의식'이야말로 실체라고 선언했었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후설이 물러났던 이 길을 하나씩 되짚어 나온다.

의식에서부터 정신으로 돌아 나와서는 다시 대상으로 물러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물러나서 대상과 나와의 관계로까지 물러난다. 그리하여 세상과 관계하는 나, 즉 이른바 '세계-내-존재'라는 단위가 하이데거의 관찰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단위 안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하이데거는 손 안에 있는 것과 눈앞에 있는 것이라는 두 가지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를테면 손 안에 있

는 것은 '사용'이고, 눈앞에 있는 것은 '개념'이다. 망치를 예로 든다면, 내가 망치를 사용하는 것이 손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망치에 대해 갖고 있는 개념(생각)이 눈앞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이 두 가지 개념 중에서 눈앞에 있는 것을 실체가 아니라고 하면서 버린다. 즉 하이데거는 '나'에서 '세계-내-존재'라는 관계로 물러난 후에, 그 관계들 중에서도 '직접적인 사용'으로 다시 물러나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건 하이데거가 후설이 도착한 곳과는 정반대편으로 물러났다는 뜻이다. 후설이 움직이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을 실체라고 규정한 데 반해, 하이데거는 늘 변하고 움직이는 그 순간을 실체로 규정한 것이다. 알기 쉽게 표시하면 이렇다.

[하이데거]: 대상을 사용하는 그 순간 ◄— 대상에 대한 관념 ◄— 대상과의 관계 ◄— 대상(세상) ◄— 대상을 보는 나 ◄— 나의 정신작용(자아) ◄— 순수의식(초월적 자아) :[후설]

즉 하이데거는, 그대가 밥을 먹는 그 매순간, 그대가 향기를 느끼는 그 매순간, 그대가 고민하는 그 매순간, 그리고 금세 그 고민이 환희로 바뀐 바로 그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진정한 존재라고 보게 된 것이다. 이후 하이데거의 모든 작업들은 바로 이 전제 위에서 성립된다.

그런데 이게 과연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꽃과 나비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꽃도 시시각각 변하는 물건이고, 나비도 시시각각 변하고 또 움직이기까지 하는 물건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그 둘 간의 '관계'가 진짜 실체라고 말한다. 그런데 꽃도 계속 변하고 있고, 나비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관계도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렇게 끝없이 변하는 것을 어떻게 연구한단 말인가? 그게 어떻게 학문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이데거와는 성향이 다른 학자들이 하이데거를 터무니없다고 몰아붙였던 것이다. 하지만 하이데거의 관점을 이해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와 시간』이 문제작으로 남게 되었다.

하이데거의 작업

후설은 '의식'으로 물러나 버렸다. 그래서 그는 달리 남아 있는 일이 없다. 후설에게 현실은 그저 그림자놀이일 뿐이다. 어차피 실체인 의식과는 상관없는 일인 것이다. 말하자면, 후설도 석가모니처럼 공空하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작업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현실이다. 하이데거에게는 현실이 어떤 성질을 갖는가, 이 현실은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이 현실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가 관심사로 작용한다.

이제 하이데거가 자신의 관찰대상인 상호작용하는 현실을 관찰하기 시작한다. 개인들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는 이 현실은 과연 어떤 상태로 안정화될 것인가? 즉,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상태를 향해 갈 것인가?

하이데거: 실천적인 공공의 주의세계에서 대중 교통수단을 사용하고, 또 정보매체를 이용하면서 타인은 모두 같은 타인인 셈이다. 이러한 서로 함께 있음은 고유한 현존재를 완전히 타인들의 존재양식 속으로 해체해 버린다.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단은, 강력한 상호작용 때문에 서로서로 비슷

해져서 개인의 개성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다. 즉, 개인은 사라지고, 개인들의 평균치로서의 가상의 인물인 대중이 사회를 끌고 가는 대중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대중사회다. 다른 사람이 트위터를 하면 나도 트위터를 하고, 다른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면 나도 스마트폰을 사고, 다른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면 나도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 모든 개인이 평균치에 머물기를 강요하는 사회가 바로 대중사회이다.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단은 어떤 형태로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내린 결론이 이것이다. 상호작용하는 개인들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평균치 사회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철학자다. 하이데거가 현실을 관찰하는 이유는 단순히 이 현실이 어떻게 변해 가는가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현실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평균치를 지향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되는가, 또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한다.

평균치 사회는 개인 소외로 귀결된다. 왜냐하면 평준화된 개인들의 평준화된 시선이 끝없이 개인을 감시하고, 결국 개인이 평균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압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건 바람직한 현상인가? 하이데거의 관심은 결국은 개인에게 있다. 하이데거가 이런 작업을 하는 목적 자체가 개인이 온전한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평균치 사회 속에서 매몰되는 개인에 분명하게 반대한다. 상호작용하는 집단은 필연적으로 평균치 사회로 갈 수 밖에 없지만, 그 평균치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을 말살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떤 조치일까? 평균치 사회 속에서 평균적인 인간으로 매몰되지 않기 위해서 개인은 뭘 해야 하는 것일까? 개인은 평균적 인간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 다만 평균적 인간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 속에 던져졌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은 평균적 인간에서 벗어날 가능성 또한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평균치 사회 속에서 한 성원으로 조화롭게 살면서도 개인의 고유성을 굳건히 유지하기 위해서 '염려'할 줄 알아야 한다고 하이데거는 말한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염려'를 수행에서는 '깨어있음'이라고 표현한다.

세상 속에서 살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야하고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하는 물음을 놓지 말아야 존엄한 개인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하이데거는 여기서 시간이 중요한 요소로 개입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분석하기 시작한다.

문제의 시작, 문제의 끝

후설과 하이데거의 철학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도중에 헷갈리면서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지?'하는 궁금증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후설과 하이데거의 작업은 무엇이 진정한 존재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물론 보통 사람들은 그런 의문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재론이 절박한 문제로 다가온다. 그래서 후설이나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들이 존재를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후설은 맨 먼저 있었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의식이 진정한 존재라고 생각

한다. 그러므로 후설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 혹은 영원한 생명 혹은 영원한 진리는 순수의식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얘기는 곧, 순수의식과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래서 순수의식으로부터 한걸음 옮겨서 형성된 정신 혹은 자아가, 후설에게는 근원적인 장애가 된다. 순수의식을 지향하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에고가 걸림돌이 되고, 그리하여 에고를 제거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 지상에서의 행복이라면 에고가 장애라는 설정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지상의 행복을 위해서 상대성이론을 발견한 것이 아니듯이, 철학자의 목표도 지상의 행복이 아닌 궁극의 행복이다. 때문에 에고가 장애가 된다. 그대는 언제 올지도 모르는 궁극의 행복보다는 당장 월급을 좀 더 받고, 더 예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더 시급하다고? 당연하지! 그대의 욕구는 지당한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대를 비난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버스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도 늘 버스가 다니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 버스를 탈 수 있듯이, 혹시 누군가가 지상의 행복보다 궁극의 행복을 더 갖고 싶어졌을 때를 위해서 궁극의 행복으로 갈 수 있는 버스를 미리 마련해두는 것뿐이다.

후설에게는 순수의식이 목적지이고 에고는 장애물이다. 그럼 하이데거의 경우는 어떤가?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진정한 존재는 후설의 존재와는 정반대편에 있다. 즉, 하이데거는 가장 나중에 생겨났고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을 진정한 존재로 설정한다. 그런데 왜 진정한 존재가 한 개가 아니고 두 개일까? 이래도 되는 것일까? 사실은 존재는 '하나'뿐이다. 하지만 존재로 가는 길은 '두 개'다. 그래서 작업 재료는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데,

실제로 후설과 하이데거는 각기 다른 재료를 선택한 것이다.

이제 하이데거의 존재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자. 하이데거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많은 존재물들 중에 인간을 재료로 선택한다면- 각각의 인간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자 가장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이데거가 이 기준을 갖고 현실을 봤을 때 현실이 이 기준에 부합했을까? 물론 부합하지 않았다. 앞의 다른 글에서 얘기했듯이,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평균치 사회를 만들게 되고, 그 평균치 사회가 다시 개인에게 평균치를 강요하는 왜곡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왜곡이 바로 후설의 에고에 대응하는 장애다. 후설에게 있어서 인간이 진정한 존재에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가 에고였듯이, 하이데거 시스템에서는 인간이 진정한 존재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장애물이 바로 왜곡된 사회이다. 따라서 후설의 목표가 '에고 제거'일 수밖에 없었듯이, 하이데거에게는 '왜곡 제거'가 목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왜곡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이데거가 '염려' 혹은 '깨어있음'을 주장했다는 얘기는 앞의 글에서 했다. 후설이 진정한 존재에 접근하기 위해서 '판단중지'와 '환원'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듯이, 하이데거는 왜곡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염려'를 제시하는데, 하이데거는 이 염려와 함께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한다. 무엇일까? 그건 바로 죽음이다. 정확하게는 '죽음의 현실화'다.

하이데거는 진정한 존재로 가는 길에 왜곡이 버티고 있는 걸 발견하고, 이 왜곡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한다. 그러다가 인간의 죽음에 주목하게 된다. 왜 하필 죽음에 주목하게 됐을까? 죽음의 부재가 왜곡된 사회를 유지하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평균치를 강요하는 왜곡된 사회는 개인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다. 남들이 다 여름옷을 입고 있는데 나만 겨울옷을 입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남들의 시선이 두렵기 때문이다. 그럼 왜 사람들은 남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가? 남들이 나와 '함께' 여기에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내가 오늘 오후에 죽을 운명이라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오늘 오후에 죽는데 나와 '함께' 죽을 사람이 있는가? 당연히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 내가 남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믿음은 과연 옳은 것인가? 내가 남들과 견고하게 연결된 존재라면 왜 내가 죽을 때는 그 견고한 연결이 유지되지 않는가?

나의 죽음이 현실화되면, 개인은 자신이 결국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미래에 오게 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에 나의 삶과 함께 있는 것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왜곡된 사회는 저절로 붕괴하게 되는 것이다. 이게 하이데거가 죽음에 주목하는 이유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죽음을 현실로 가져오라!'고 요구한다. 항상 죽음을 실감함으로 해서, 평균치 사회의 강요를 물리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원래의 인간, 원래의 존재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얘기는 수행에서 하는 얘기와 완전히 똑같다. 라즈니쉬가 평소에 '나는 이미 죽었다'고 즐겨 말했듯이, 죽음과 동행할 때만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수행은 늘 말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하이데거는 죽음은 삶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고 말한다.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얘기다.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이렇게나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경이로울 따름이다.

하이데거, 폭탄을 터뜨린 사람

하이데거의 존재에 대한 탐구는 서구 철학에 대한 계속된 공격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위대한 철학자들(플라톤, 칸트, 헤겔, 심지어 니체조차)누구도 존재의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에 맞는 언어를 찾지 못했다. 사실 그들의 방법은 존재를 망각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게 하이데거의 업적이다. 서양 철학자들은 동양 철학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관심을 두더라도 대수롭잖게 여기고, 혹시 받아들이더라도 신비주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서 정통 철학의 주변 정도로 취급해 버린다. 그런데 서양 철학의 한복판에서 하이데거가 '진리는 경험될 뿐이다!'하고 말해버린 것이다. 그 덕에 경험되는 진리가 서양 철학자들에게 본격적인 조명을 받게 된다. 사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이데거는 대단한 일을 했다고 봐야한다.

하이데거는 철학의 극복을 요구했다. 그래서 자신의 작업을 '철학함'과 구별해서 '사유함'이라 불렀다.

하이데거: 철학적 사유는 내맡김입니다. 전체로서의 존재자들 중에 은폐되어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사유는, 엄격하고 단호한 열린 공간입니다. 그것은 은폐되어 있는 것을 억누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본질을 이해의 열린 영역으로 유혹합니다.

하이데거가 기존 철학의 방법인 철학함, 즉 논리적인 사고와 구별하기 위해서 '사유함'이라고 이름붙인 것이 바로 '명상'이다. 명상은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놓아주는 것이다.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Ludwig Wittgenstein

(1889년4월26일 ~ 1951년4월29일)

20세기가 낳은 가장 위대한 철학자의 한 사람이고, 분석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다. 14세까지 가정에서 교육을 받다가 린츠와 베를린에서 수학과 물리학 및 기계공학에 관한 교육을 받았다. 1908년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수학의 철학적 기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러셀의 영향을 받아 케임브리지의 트리니티 칼리지로 옮겨 본격적인 철학 수업을 쌓았다. 그의 철학은 크게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데, 전기는『논리철학논고』로, 후기는『철학적 탐구』로 대표된다.

『비트겐슈타인 평전』(필로소픽. 레이 몽크, 남기창 역)

언어와 사실

따라서 이 책은 생각thinking에 한계를 긋는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사고thought의 표현에 한계를 긋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에 한계를 긋기 위해서는 이 한계의 양면을 모두 생각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생각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한계는 언어 내에서만 그어질 수 있고 한계의 바깥쪽에 있는 것은 그저 무의미하다. 『논리-철학 논고』 서문 중에서

비트겐슈타인의 유일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는 『논리-철학 논고』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책을 쓰고 나서, 이제 철학적인 문제는 다 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철학적으로 작업할 것은 없다고 하면서 철학을 떠났다. 수학적 사고로 논리학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했던 버트란트 러셀이 비슷한 생각을 가진 비트겐슈타인을 만났을 때, "이 친구야 말로 내가 원하던 학생이다"하면서 기뻐했다고 한다.

그(비트겐슈타인)가 볼 때 철학은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가 사업가였던 것처럼 자신은 철학에 대해 사업적인 태도를 가졌다고 말하곤 했다. 마치 사업가가 책상 위에 쌓인 문제를 처리하는 것처럼 철학적 문제를 처리하고자 한 것이다.

철학적 문제 해결에 이렇게나 저돌적이었던 비트겐슈타인은 러셀이 멈추기를 바랐던 곳에서 멈추지 않고 훌쩍 날아가 버린다.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이 수학 논리학을 더욱 발전시키기를 원했지만, 뜻밖에도 비트겐슈타인은 논리는 사실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해버린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자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전혀 읽지 않았다고 자랑삼아 말하곤 했다. 게다가 다른 중요한 철학자들의 글도 거의 읽지 않았다. 오로지 자기 방식으로 자기 문제를 푸는 데만 몰두했다. 그 문제풀이의 과정과 결과를 담은 책이 바로 『논리-철학 논고』다.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책의 서문에 나오는 말이 '언어와 생각의 한계'라는 말이다. 언어와 생각의 한계라는 말은 곧, 언어는 언어 밖에 있는 것을 나타낼 수 없고 생각은 생각 밖에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와 생각의 한계를 알아차리는 것이 곧 모든 철학적 문제의 해결이라고 보았다. 외골수로 파고드는 것에 일가견이 있었던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생각을 끝없이 파고들다가 결국 추월해버리고 만다.

언어와 생각이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너무도 협소한 것이라서, 언어와 생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사실의 영역이 너무도 많이 남아 있음을 알아차리게 된 것이다. 모두에 인용한 글이 바로 그 내용이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말은 그것이 사실에 있어서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니라, 언어가 전부라고 믿는 사람에게 무의미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즉, 언어를 신뢰하는 사람은 언어 밖에 있는 것은 도통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언어 밖에 있는 사실이 언어를 믿는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못한다는 얘기다. 문제 해결에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트겐슈타인 정도는 해야 뭘 좀 제대로 볼 수 있다.

언어 ← 생각 ← 차이 ← 하나(존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쓰는 언어의 논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해하고 나면 철학적 문제는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언어는 어디에서 왔는가? 언어는 생각을 드러낼 필요 때문에 생겨났다. 그렇다면 생각은 어디서 왔는가? 생각은 차이(다름)를 인식하면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럼 차이(다름)는 언제부터 생겨났는가? (에덴동산에서 이브가 사과를 따먹는 순간 생겨났다.^^) 존재가 하나로 있을 때는 생각도 없었다. 하나는 어디에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활동이 처리할 재료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라는 놈이 생겨나면서 차이(다름)를 인식하게 된다. 창세기에 나오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라는 구절이 바로 이 생각의 탄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이다.

일단 생각이 생겨나자 생각은 급격히 영역을 넓히게 되고, 어느 순간 자신(생각)을 드러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 생각의 필요 때문에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생각의 최소한이고, 생각은 존재의 최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출생의 비밀이 망각되고 만다. 무엇으로부터 무엇이 나왔다는 순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우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언어에서부터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일이 관례가 되어버렸다. 분명히 엄마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람들이 아기를 먼저 보면서 아기에게 없는 것은 엄마에게도 없음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고? 아기가 결혼한 적이 없으면 엄마도 결혼한 적이 없는 것인가? 이게 언어와 생각의 상황이다. 사람들은 흔히 최소한으로 최대한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최대한으로 최소한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최소한으로 최대한을 설명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내가 존재와 언어의 관계를 조사하는 방식이다. 나는 논리학보다는 존재 자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언어는 내버려두고 존재를 먼저 파고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존재로부터 언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이해하고 또 그렇게 설명한다.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은 논리학자이기 때문에 언어의 상황부터 철저히 조사한다. 그러다가 언어를 떠받치고 있는 생각을 조사하게 되고, 마침내 생각의 한계에 다다라서 결국 생각을 버리게 되는 것이다. 비록 작업 방향은 반대지만 결론은 언제나 똑같다. 무엇이 가장 큰 것이고 무엇이 가장 작은 것인지, 무엇이 가장 먼저 있었고 무엇이 제일 나중에 생겨났는지는, 어떤 경우에든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러셀과 비트겐슈타인

이 책(논리-철학 논고)이 출판되기 2년 전에 처음 읽고 나서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에게 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비트겐슈타인이 러셀의 물음에 별로 내키지 않는 투로 대답하기는 했지만, 그가 러셀에게 가장 강조하려고 애쓴 것은 말하기saying와 보여주기showing 사이의 구별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었다.

비트겐슈타인: 자, 제가 주장하는 주요 내용을 당신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논리적 명제에 관한 모든 사항이 그저 주석에 불과합니다. 주요 요점은 명제로, 즉 언어로 무엇이 표현될 수 있는가와 무엇이 명제에 의해 표현될 수 없고 보여질 수만 있는가 하는 이론입니다. 말하자면 무엇이 생각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동일하며, 저는 이것이 철학의 결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러셀은 수학과 논리학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

지 않는다. 뭐든 말로 딱 떨어져야지 '이렇기도 하고 저렇기도 하고…' 하는 건 딱 질색이다. 그런데 자기가 제일 아끼는 제자가 '논리학은 너무 좁다. 현실은 논리학보다 훨씬 크다!'고 단정을 해버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이 된다. 러셀과 비트겐슈타인의 생각은, 어디까지를 삶으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까지를 철학에 포함시킬 것인가에서 갈린다. 러셀은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영역을 고수하면서 그 영역 내에서 체계를 더 다듬기를 바라는 반면, 비트겐슈타인은 아예 삶과 철학의 영역을 확장하고 싶어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것과 표현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건 그가 논리학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은 존재의 진리도 얼마든지 말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다만 진리를 말로 표현하면 모순이 된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는 곧 모순이라는 의미에서 말로 표현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인간은 삶이고 또 죽음이다.' 진리는 이렇게 말로 표현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순을 무수히 겪는다. 때문에 모순이 무엇인지도 알고 삶이 왜 모순덩어리인지도 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는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언어와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존재를 보면 모순만 보인다. 하지만 그대가 그 모순을 피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면하면, 그 모순이 그저 '하나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사실을 체험하게 된다. 그대는 왜 연애를 언어를 통해 알려고 하지 않고 체험하려고 하는가? 체험하는 연애가 진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를 통한 존재가 진짜일까, 체험하는 존재가 진짜일까? 실체는 생각이나 언어 이전에 체험을

통해 알려진다. 그래서 그대가 연애를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보는 법

이렇게 볼 때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명제로 구성된 것이며, 마찬가지로 세계는 사물things이 아니라 사실facts들로 이루어져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세계가 사물이 아니라 사실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사물은 뭐고 사실은 뭐길래, 세상이 '사물'로 이뤄져 있지 않고 '사실'로 이뤄져 있다는 것일까? 숲의 나무를 그린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을 어떤 사람에게 보여주고 언어로 묘사해보라고 하면 뭐라고 답할까? "나무가 한 그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인가? 그게 사실일까? "나무도 있고 꽃도 있습니다." 그게 이 그림에 대한 사실인가? "나무와 꽃과 해와 풀이 있습니다." 이제 묘사와 이 그림이 완벽하게 일치하는가?

비트겐슈타인은 정밀한 묘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언어의 속성이다. 언어는 사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차가 한 대 지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차가 지나간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차는 허공 속을 날아가는 차인가? 우리가 차가 지나간다고 말할 때, 우리가 언급하지 아니 한 그 차의 주변상황이 반드시 존재한다. 하지만 그 주변은 묘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는 주변 속에 존재하는 차 즉 사실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는 동떨어진 사물만 언급한다. 그럼 차가 지나간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주변을 전부 묘사하란 말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차가 지나갈 때는 그냥 차가 지나간다고 말하면 충분하다.

하지만 사실을 따질 때는 차가 지나간다는 표현이 사실을 요약한 기호일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언어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간편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언어를 간편화한다고 해서 사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만약 사실을 다루는데 있어서 원래의 사실을 재료로 하지 않고, 사실을 간편하게 줄인 언어를 사용한다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 비트겐슈타인이 말하는 사물은, 주변 속에 있지만 주변을 다 무시해버린 개체라는 뜻이고, 사실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세상이 사물로 구성돼 있겠는가, 사실로 구성돼 있겠는가? 당연히 사실로 구성돼 있다.

언어는 생각을 간략하게 요약한 기호고, 생각은 사실을 간략하게 요약한 기호다. 그러므로 사실 관계를 따질 때는 언어와 생각을 넘어가서 사실을 앞에 놓고 따져야 하는 것이다.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간단한 상황은 아무리 많은 언어로도 제대로 묘사할 수가 없다. 하지만 볼 수는 있다. 그렇지 않은가?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장면을 제대로 못 봐서 미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장면을 보는 건 너무도 간단한 일이다. 그냥 쓱 보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간단한 장면을 언어로 다 묘사할 길은 없다. 비트겐슈타인이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는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그것이다.

비트겐슈타인이 원하는 것

『철학적 탐구』– 실제로는 비트겐슈타인의 후기 철학 전체–는 언어의 본성에 대한 이

'오해'를 공격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끝난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주장으로 해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오류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번번이 다르게 위장된 형태로 상이한 맥락에서 다시 나타나기 때문이며, 하나의 학설을 내세워 그것을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언어의 본성에 대한 오해는, 언어는 항상 한 가지 방식으로만 작동하며 항상 동일한 목적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리킨다. 기존의 논리학자들이 언어는 자체적으로 탄탄한 체계라고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비트겐슈타인은 그런 믿음은 오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를 향한 공격을 인지하고 거기에 대응하려는 논리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어떤 부분을 들어서 집중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언어 전반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해대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에 나와 있듯이 한 가지 학설로 대응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비트겐슈타인과 여타 논리학자들이 다른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이 계속해서 언어를 문제 삼는 것은 언어 자체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언어 밑에 있는 것, 언어에 의해 가려져 있는 것, 즉 '사실'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비트겐슈타인의 목적은 언어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과해서 그 너머로 가는 데 있다. 하지만 논리학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언어에 머물러 있다. 논리학자들은, 비트겐슈타인이 언어를 공격해서 언어를 다듬으려 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동상이몽이 펼쳐진다. 언어를 넘어가려는 사람과 언어를 방어하려는 사람. 언어에 관심 없는 사람과 언어만 관심사인 사람들 간의 엇갈린 공방이 펼쳐졌던 것이다.

논리에서 윤리로

후기 비트겐슈타인을 행동주의자로 읽는 것은 초기 비트겐슈타인을 논리실증주의자로 읽는 것과 비슷하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심이 초기에는 '논리'에 있었다가 후기에는 '윤리'로 넘어갔다는 얘기다. 비트겐슈타인은 수학적(논리적) 사고에 특출한 재능이 있었고 거기에 집중력까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초기에 논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가 사실에 접근하는 첫 번째 길은 논리였다. 그런데 논리를 파면 팔수록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기존의 믿음과는 달리 논리(언어)의 영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가령 '나는 아프다'라는 진술을 보자. 사람들은 누구나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나는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럼 이제 그대가 아팠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그대가 아플 때 그대는 '나는 아프다'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사실에 있어서 그대의 실제 아픔은 '나는 아프다'라는 언어처럼 고정된 것인가? '나는 아프다'라는 표현은 한번 발설되면 그 표현 그대로 유지된다. 그럼 그대의 아픔 상태도 똑같이 유지되는 것인가? 현실은 언어와 같지 않다. 언어는 현실의 최소한일 뿐이다.

게다가 내가 '나는 아프다'고 하는 것과 그대가 '나는 아프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같다는 보장이 없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를 포기하고 언어를 있게 하는 것 즉 '생각'을 파고들게 된다. 하지만 그는 생각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발견한다. 생각도 언어처럼 현실(사실)의 최소한일 뿐임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결국 이렇게 선언한다. '진리는 볼 수 있을 뿐, 표현될 수는 없다!' 진리는 언어나 생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의식을 통

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비트겐슈타인의 작업이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 작업을 통해서, 언어와 생각이 근사치일 뿐이듯이, '내 몸과 마음이 나'라는 믿음 역시도 근사치에 지나지 않음을 알아냈다.

그럼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어디로 가겠는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필연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온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이 생애 후반에는 활동(무엇을 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다. 철저하게 수학적(논리적)인 작업을 통해 존재의 실체를 알게 된 비트겐슈타인의 작업은 실로 독특한 맛이 있다.

헤겔과 비트겐슈타인

휘닉스 공원에서 산보하던 어느 날, 드루리는 헤겔에 대해 말했다. "헤겔은 항상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같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비트겐슈타인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반면에 나의 관심사는 똑같이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내가 그 동안 읽어본 바로는 헤겔의 의식이 제일 명확하고 깔끔하다. 누군가가 철학자 중에 깨달은 놈이 있느냐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생각날 만한 사람이 헤겔이다. 그런데 비트겐슈타인은 얼핏 헤겔과는 반대되는 관점을 가진 듯이 말하고 있다. 이건 헤겔에 반대한다는 뜻인가?

그대는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뭘 보든 흐릿하게 본다. 그대는 똑같은 것을 볼 때는 '다르다'고 말하고 다른 것을 볼 때는 '같다'고 말한다. 그

런 착각들 중에서 헤겔은 그대가 같은 것을 다르다고 착각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고,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은 그대가 다른 것을 같다고 착각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헤겔과 비트겐슈타인이 원하는 것은 똑같다. 다만 그대가 다양한 착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헤겔과 비트겐슈타인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에서 접근할 뿐이다.

그는『리어왕』에 나오는 켄트 백작의 말인 '나는 너에게 차이를 가르쳐 주겠다'를 책의 모토로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비트겐슈타인이 '차이'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들뢰즈의 '차이'가 생각난다. 하지만 역시 두 사람이 차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려는 뜻은 완전히 반대다. 들뢰즈가 차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의미는 'A와 B는 단지 차이가 있을 뿐 사실은 같은 것'이라는 의미다. 반면에 비트겐슈타인이 차이를 말할 때는 논리학과 수학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다. 논리학과 수학은 다양한 삶의 모습들을 개념화하고 기호화해서 그 개념들과 기호들로부터 원리와 법칙을 뽑아내는 작업이다. 그런데 그 개념들과 기호들과 원리들은 논리학이나 수학 속에서와는 달리 현실 속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다양한 모습들로 나타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의미로 차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차이는 '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지만 사실은 차이가 나는 다른 것'이라는 의미이다.

질 들뢰즈 Gilles Deleuze

(1925년1월18일 ~ 1995년11월4일)

1925년 파리에서 태어났고 소르본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했다. 리용대학 강사를 거쳐서 1970년 파리 제8대학 교수가 되었다. 1972년으로, 펠릭스 가타리와 함께 정치학과 정신분석의 상호관계에서 현대적 삶을 조명한『안티 오이디푸스:자본주의와 정신분열』이라는 책을 내면서 유명세를 탔다. 철학 이외에도 문학, 심리학, 영화, 연극이론, 마르크스주의,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등을 폭넓게 섭렵하고 많은 저작을 남겼다.

『들뢰즈, 유동의 철학』(그린비. 우노 구니이치, 이정우 김동선 역)

차이와 대립

'부정'과 '대립'의 논리는 사물의 무한한 차이를 외부로부터 관념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사물 그 자체로서의 차이, 차이 그 자체로서의 사물을 '내적 차이'로서 파악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다. 어떻게 하든 거기에 초월적인 선善과 절대정신 같은 일반성이 바깥에서부터 삽입되고, 차이를 조정해 하나의 종국과 목적에 따르게 하는 것이다.

들뢰즈와 베르그송의 시각에서 헤겔의 변증법을 본 내용이다. 들뢰즈나 베르그송이 보기에는 그저 '차이'일 뿐인 것을 헤겔은 '대립'으로 봤기 때문에 헤겔이 틀렸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성性을 구현한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하나'로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들뢰즈나 베르그송의 시각이 옳다면 헤겔의 시각 또한 옳다. 사실 존재는 '하나' 안에 '대립하는 둘'을 만들어서 그 상호작용의 힘으로 움직여 나가기 때문이다. 존재는 '하나'로 이루어진 다양한 모양들일 뿐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존재를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사실은 한 곳을 향해 있다는 것도 알아차리는 게 좋다.

이성은 허구다

들뢰즈는 '인성론'을 독해하면서, 흄을 따라서 이성, 오성, 자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사고를 비판하고 있다.

'오성이란 사회적인 것이 되어가는 정념의 운동에 불과하다.'

'정신의 근저에는 착란이 있다.'

'내가 가진 관념 속에 항상성과 일양성(일관성)은 없다.'

'정신은 여러 가지 원리에 의해 촉발되기 시작하여, 주체로 된다.'

'정신은 미리 존재하는 주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정신이란 이성이 아니다.'

'이성이란 일종의 감정이다.'

뜻밖의 싸움구경이 무척 재미있다. 들뢰즈 철학의 한 축은 베르그송이고, 다른 한 축은 흄이다. 그렇다면 흄은 누구인가? 흄은 자아는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말한 사람이다. '나'라는 자아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생각의 모임일 뿐인데, 그 생각 무더기를 사람들이 어떤 개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뜻이다. 구름이 우연히 토끼 모양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토끼가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우연히 토끼처럼 보일 뿐 사실은 토끼가 없는데 사람들이 구름을 토끼라고 우긴다는 말이다. 칸트로 하여금 순수이성비판을 쓰도록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 바로 흄이다. 흄이 인간의 정신을 너무 무시하니까 거기에 반박하기 위해서 순수이성비판을 쓴 것이다.

아무튼 들뢰즈는 흄의 경험론을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흄도 인간에 대해서 죽자고 고민하는 사람이고 칸트도 역시 목숨 걸고 인간만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왜 한 사람은 '이성을 버려라!'하고 소리치고 다른 사람은 '이성을 찾아라!'하고 소리치게 되는 것일까?

자동차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자동차는 인간을 편하게 빨리

이동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환경을 오염시키고 거리를 복잡하게 만든다는 단점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자동차에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다. 환경보다는 편리함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당연히 자동차를 옹호할 것이고, 편리함보다는 환경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은 자동차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

흄과 칸트가 이성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다. 이성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추진력을 갖는 대신, '나'의 외부를 주관적으로 해석한다는 단점도 갖고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흄과 칸트가 갈린다. 흄에게는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때문에 흄에게는 주관적인 이성이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반면에 칸트는 자아의 통일성과 추진력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칸트는 어떻게든 이성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은 보는 사람의 성향의 문제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남극을 통해서도 존재에 도달할 수 있고, 북극을 통해서도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 칸트처럼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길을 통해서도 존재에 이를 수 있지만, 흄처럼 자아를 완전히 버리는 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존재와 만날 수 있다. 이성을 버리는 쪽은 대개 자유로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반면에 이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기 성향대로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면 된다.

이성에서 자유로

상상력은 정념을 반영하고 공진시키며, 정념이 자신의 편향과 현실성의 자연인 한계

를 뛰어넘고자 한다. …여러 가지 정념을 반영하면서, 상상력은 그것들을 해방하고, 무한으로 확대하고, 그것들의 본성 저편으로 투사하는 것이다.

자, 흄과 들뢰즈는 이성을 버렸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나는 남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나는 영원한 것을 지향해야만 한다. 나는 늘 일관되게 행동한다.…' 이런 생각들은 흄이나 들뢰즈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렇다면 흄과 들뢰즈는 개차반 양아치가 되기로 결심한 것인가? 철학자가 되려면 방향에 상관없이 무한대로 작업한다는 지침이 있어야 한다. 적당히 작업을 한다면 그건 일반인이지 철학자가 아니다. 철학자는 일단 방향을 정하고 나면 그 방향으로는 죽을 때까지 가야 철학자 자격이 있는 것이다. 지금 흄과 들뢰즈는 분명히 이성과는 멀어지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성의 정반대편에는 무엇이 있을까? 거기에는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상상이 있다. 그럼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상상'이 이성이 하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만약 할 수 없었다면, 서양 철학사에는 칸트의 이름만 있고 흄이나 들뢰즈는 없었을 것이다.

무한한 자유와 무한한 상상은 에고를 파괴시킨다. 그대가 그대의 에고를 견고하게 유지하는 것은 그대의 이성이 칸트만큼 출중하지 못한 탓이기도 하지만, 그대의 상상력이 부족한 탓이기도 하다. 그대는 동물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가? 그대는 나무나 돌을 대할 때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가? 왜 못하는가? 상상력만 충분하다면 개나 나무나 돌을 사람과 똑같다고 믿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상상력이 충분하다면 삶과 죽음이 단순한 게임일 뿐임을 알아차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상상력만 충분하다면 김치 한 가지로 밥을 먹으면서 만족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대는 상상력이 부

족하기 때문에 에고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상상력만 충분하면, 그대가 이 우주 전부라는 사실도 지금 당장 명확하게 볼 수 있다. 그대가 칸트도 따라가지 않고, 흄도 따라가지 않을 뿐이다.

개체 개념은 환상이다

그러면 들뢰즈는 이러한 것에 입각하여, 스피노자 속에서 어떠한 '신체론'을 발견한 것일까?

'하나의 체體를 스피노자는 어떻게 규정하는가? 스피노자는 이것을 동시에 두 가지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한편으로 하나의 체는 가령 그것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언제나 무한수의 미립자들을 통해서 성립한다. 하나의 체를, 체의 개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우선 이러한 미립자군 사이의 운동과 정지, 빠름과 느림의 복합관계인 것이다. 다른 한편 하나의 체는 다른 여러 체들을 촉발하고 혹은 그것들에 의해서 촉발된다. 하나의 체를 그 개체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또한 그 체가 가지는 이러한 촉발하고 촉발되는 힘인 것이다.'

요약하면 개체는 더 작은 요소들의 모임일 뿐이고, 아울러 관계의 정거장일 뿐이라는 얘기다. 들뢰즈는 스피노자의 이런 신체론의 영향을 받아서 '사이'에 주목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장field'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즉, 개체와 개체가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식으로 개체를 우선시하지 않고, 관계망 속에 특이점으로 개체와 유사한 지점이 생겨난다고 보는 것이다.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을 얼핏 보면 섬이 분명히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찬찬히 살펴보면 섬은 동떨어진 개체가 아니라 단지 좀 높이 솟

은 땅일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게 들뢰즈가 줄기차게 사용하려는 관점이다. 들뢰즈는 먼저 눈에 띄는 것을 덥석 받아들이기 보다는, 먼저 원래 상태를 확보한 후에 그 원래 상태에서부터 찬찬히 관찰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럴듯한 방법 아닌가?

들뢰즈가 원하는 것

우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엄청난 오이디푸스화이다. 정신분석은 이미지와 구조를 짝으로 한 도식을 통해 실천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오이디푸스화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라캉의 어떤 제자는 최근 뛰어난 책을 썼는데, 라캉의 사고 그 자체가 이 방향으로 걷고 있지 않은지 어떤지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오로지 분열증조차도 오이디푸스화해 버리는 것인가, 그것과도 전혀 다른 것, 그것은커녕 반대의 것이 문제가 아닌가, 분열증화하는 것, 무의식의 장을 분열증화하는 것, 다시금 사회적/역사적인 장조차도 분열증화하는 것, 그렇게 하여 오이디푸스의 족쇄를 떨쳐 버리고 도처에서 욕망하는 생산의 힘을 찾아내는 것, 현상계에 직접 접하여 분석기계와 욕망과 생산의 고삐를 고쳐 연결하는 것 아닌가.

이 글에서 들뢰즈가 원하는 것이 잘 드러난다. 들뢰즈는 정신분석 치료가 또 하나의 억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있다. 정신분석 치료는 근원적인 욕망과 억압 간의 충돌로 인한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한편으로는 억압을 찾아내서 해소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근원적인 욕구의 부당함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들뢰즈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본다. 근원적인 욕구의 부당함을 이해시킬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욕구의 존재를 인정해

야 한다는 것이다. 『광기의 역사』를 쓴 푸코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셈이다.

그런데 이런 들뢰즈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성의 문명사회는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이성의 사회는 곧 근원적인 욕구를 부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해진 문명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들뢰즈는 이 이성의 사회를 뒤흔들려는 것인가? 그렇다. 들뢰즈는 이성의 사회가 아닌 '생명의 사회'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 들뢰즈는 이 세상에 가짜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하나'로부터 생겨 나와서 여전히 '하나'에 연결돼 있는 하나의 관계망일 뿐인데, 세상은 그 관계망 속에 수많은 개체들을 설정한 후에 그 설정을 마치 기정사실인 듯 여기면서, 그 위에 더 많은 가짜 개체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들뢰즈는 인간과 동물 혹은 동물과 식물 같은 분류법을 싫어한다. 들뢰즈에게는, 영희와 철수 간의 차이는 영희와 소나무 간의 차이와 근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결국 들뢰즈는 인간의 이성이 만들어낸 개념들을 파괴하고 싶은 것이다.

돈인가? 기쁨인가?

경제란 욕망의 경제이고 자본주의란 욕망의 자본주의임에 틀림없지만, 자본주의 경제는 화폐의 형태와 그것에 철저히 종속하는 노동의 형태에 의해서 욕망을 변형하고 굴절시키고 있다. 가족도 성애性愛도 그러한 욕망의 경제 속에 편입되어 있다. 욕망은 이러한 경제의 외부에서부터 경제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는 어디까지나 자신의 내부에 이 욕망을 굴절시키고 가두고 종종 욕망의 표상만을 유통시키고 있다.

들뢰즈의 관심은 늘 '무엇이 원래상태인가?'와 '무엇이 왜곡돼 있는가?'에 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세상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그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경제다. 오로지 자본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기는 자본주의는 필히 생명의 욕망(기쁨)을 왜곡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차가 남아돌아서 처치곤란인 이 시대에 난데없이 걷기가 유행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차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게 갈 수 있는데 무슨 이유로 힘들게 자전거를 이용하고 두 발을 사용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비로소 자본주의의 왜곡을 눈치 챘기 때문이다. 편리함은 부차적인 욕망이고, 기쁨이 진짜 욕망이라는 걸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이다. 들뢰즈가 촉구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다. 자본주의 경제가 가짜 욕망을 양산하고 있음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를 뒤엎어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자본주의 경제는 무척 편리한 장치다. 다만 그 편리한 장치로 인해서 생겨나는 오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편리한 장치마저도 향유할 수 없기 때문에, 편리한 장치를 더 많이 즐기기 위해서라도 편리한 장치의 맹점을 정확하게 알아차려야 한다는 얘기이다. 생명의 목적은 생존과 기쁨이지 돈이 아니다. 돈은 기쁨을 표시하는 많은 기호들 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기쁨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이 문제를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의 글로 제기했었다.

악으로 악을 막는 짓

정신분석 전체가 바로 거대한 도착이고 마약인 것이다. 즉 처음에 욕망의 실재와의

단절에서 출발한 것이며, 실재와의 근원적인 단절, 나르시시즘, 기괴한 자폐증인 것이다. 자본기계에 고유한 자폐증, 자본기계의 본질을 형성하는 내적인 도착, 이러한 것이 정신분석인 것이다. 결국 정신분석은 어떠한 실재와도 공통된 척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떠한 외부에도 열려 있지 않다.

정신분석은 악으로 악을 막는 장치일 뿐이라는 얘긴데, 정신분석 자체를 없애라는 뜻은 아니고 다만 정신분석의 맹점을 알아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맨날 혁명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들뢰즈가 정신분석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요즘은 켄 윌버가 '유사 명상'에 대해서 하고 있다. 켄 윌버는 명상과 유사 명상을 구분하기 위해서 '변환적 방법'과 '변용적 방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변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바꿔치기라는 뜻이다. 진정한 의식 변화를 위해서는 적어도 수 년 동안 진지한 수행을 감수해야만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장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얄팍한 명상을 팔아먹는다는 것이다. 매일 5분만 투자하면 의식이 깨어난다느니, 3일 만에 견성하게 해준다느니, 참된 행복을 제공한다느니 하면서 쓴맛 나는 입에 설탕을 살짝 넣어주고는 '명상을 경험하니 어떠세요?'한다는 것이다. 이 역시 악을 악으로 막는 짓일 뿐이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지함과 수고가 꼭 있어야만 한다.

리좀(뿌리줄기)

'리좀'이라는 말로 들뢰즈/가타리는 수목(나무)을 모델로 하는 질서의 정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결코 단순한 혼돈과 혼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이질적인 규칙과 배열과

운동에 의하여 정의되는 다른 질서(다양체)일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었던 것이다.

마음은 나무처럼 보고 싶어 한다. 마음은 체계를 좋아하는 것이다. 둥치에서 큰 가지가 뻗어나가고, 큰 가지에서 다시 작은 가지가 뻗어나가고, 다시 잔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 잎이 나고…. 존재는 생명과 비생명으로 나뉘고, 생명은 동물과 식물로 나뉘고, 동물은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으로 나뉘고, 인간은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으로 나뉘고, 성인과 미성년자로, 남자와 여자로, 재벌과 노숙자로…. 하지만 들뢰즈는 나무처럼 보기를 거부한다. 들뢰즈는 모든 것이 단번에 근원에 닿아 있는 구조(리좀 구조)로 본다. 마치 몸의 모든 부분이 다 '몸'이듯이, 리좀 구조에서는 다만 모양들이 다를 뿐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실체로 보인다. 이러한 리좀 구조가 존재의 원래 상태다. 인간이 이 우주의 주인인 척 착각해본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인식능력은 과연 대단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주를 바꿀 수는 없다. 인간이 원래 상태를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의 착각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음으로 보면 세상이 나무로 보이지만 사랑으로 보면 세상이 리좀으로 보인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점검해보면 그대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

국가와 에고

그러한 의미에서 국가는 언제라도 도처에서 신출귀몰하게 출현하는 무엇이다. 특별히 신비한 작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국가는 국가의 출현을 떨쳐 버리는 어떤 지속적 작

용이 없으면 언제라도 즉시 출현하고 모든 것을 단번에 포획하고 변질시키고 조직하는 장치인 것이다. 역으로 이러한 포획의 작용이야말로 스톡과 잉여노동과 지대地代와 세금을 만들어낸다고 들뢰즈/가타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 글에서 '국가' 대신에 '에고'를 집어넣어도 똑같은 내용이 된다. 국가가 성립하는 이유와 에고가 성립하는 이유가 똑같기 때문이다. 물론 들뢰즈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위의 국가형성론은 들뢰즈가 알고 있는 에고형성론을 사회적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국가에 대한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들뢰즈는 본연의 정신을 '전쟁 기계'로 설정한다. 그래서 들뢰즈의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황당한 인간론이 출현하게 된다. 국가는 악이고 인간은 전쟁기계라고? 도대체 들뢰즈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황당한 말을 내뱉는 것일까?

들뢰즈가 말하는 전쟁 기계는 사실은 자유로운 영혼을 뜻한다. 그 자유로운 영혼(정신)이 자유로움을 잃어버렸을 때, 국가라는 조잡한 체계에 포획당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대는 국가라는 체제와 에고라는 체제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믿고 있겠지만, 그런 체제들은 사실은 그대가 믿고 있는 것만큼 그렇게 정통적인 것도 아니고 그다지 견고한 것도 아니다. 언제든 거친 바람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는 허술한 천막집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새삼 자유를 위해서 국가와 에고를 부인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대가 만약 체제 안에서의 안전한 삶만이 유일한 삶이라고 믿고 있다면 그건 명백한 착각이다.

정확하다는 건 무슨 뜻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非정확한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비정확함은 근사치와 같은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일어나고 있는 중인 것의 정확한 경로인 것이다.' 부不정확이 아니라 비非정확이라고 말하는 방법이 『천의 고원』의 사고를 시종일관 떠받치고 있다.

들뢰즈는 뭔가를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는 '비非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기에 어린 묘목이 있다. 그것을 보고, 그대는 나무가 있다고 말한다. 조금 자란 나무가 있다. 그것을 보고, 그대는 나무가 있다고 말한다. 커다란 나무가 있다. 그것을 보고, 그대는 나무가 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어린 나무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시시각각 변하는 '나무의 사실'들은 어디에 기록되는가? 정확함은 '나무가 있다'고 말하는 그대의 짧은 표현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시시각각 변하는 나무의 사실 속에 있는 것인가? 당연히 정확함은 나무의 사실 속에 있다. 하지만 그대는 정확한 언어가 정확한 사실을 구현한다고 믿고 있다. 언어가 무슨 수로 매 순간 변하는 나무를 다 묘사할 수 있단 말인가?

들뢰즈가 '비非정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언어적인 정확함을 버리겠다는 뜻이다. 언어적인 정확함이 아니라 사실의 정확함을 추구하겠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언어는 수단일 뿐이고 사실이 진짜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무언가를 정확하게 지시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버려야 하는 것이다. 매순간 변하는 꽃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꽃이 있다'는 표현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계속 변하는 꽃을 제대로 보기 위해

서는 계속해서 다시 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대는 주식 트레이딩을 할 때 주식이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하는가? 매순간의 변화를 따라가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지 않는가? 왜 그렇게 하는가? 그 순간의 '사실'은 그 '순간에만' 있기 때문이다.

언어를 통해서는 결코 사실에 도달할 수 없다.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매순간 보고, 매순간 아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그건 지극히 피곤한 일이다. 하지만 매순간 보는 훈련을 통해 의식이 확장되면 저절로 매순간을 보게 된다. 날 때부터 마라톤 풀코스를 뛴 사람이 누가 있는가? 의식도 체력처럼 훈련을 통해 성장시킬 수 있다.

영화에 대한 두 시각 : 베르그송과 들뢰즈

1907년 '창조적 진화'에 있어서 베르그송은 난처한 정식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영화적 착각이다'라는 정식이다. 영화는 바로 상보하는 두 가지 여건에 의해서 기능한다. 한편에 이미지라고 불리는 순간적 절편이 있고, 또 한편에 비인칭적, 획일적, 추상적이고 불가사의한 또는 지각 불가능한 하나의 운동 혹은 시간이 있으며, 이것은 장치의 '속에' 있고 이것과 함께 이미지가 계속 투입되는 것이다. 영화는 그 때문에 가짜 운동을 초래한다. 영화는 가짜 운동의 전형적인 예이다.

베르그송이 영화를 보는 시각이다. 영화는 일종의 '강요된 현실'이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이다. 베르그송이 이렇게 영화를 예로 드는 이유는, 이 현실 또한 강요된 가짜 현실에 불과하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 현실

자체가 어찌 보면 한 편의 영화에 불과하다. 그런데 그 영화를 모범으로 해서 만든 '영화에 관한 영화'가 어찌 진짜일 수 있겠냐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들뢰즈는 반대로 생각한다.

(지각의) 모델은 오히려 변화해 마지않는 사물의 상태, 흐름으로서의 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떠한 정착점도 참조의 중심도 지정 불가능하다. 이러한 사물의 상태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임의의 점에 중심이 형성되고, 그것이 순간의 고정된 시각을 강요하는 것이 되는가 보여 주어야만 한다. …바로 그것은 정착의 중심도 지평의 중심도 가지지 않고, 그것이 조작하는 절편은 자연적 지각이 하강해 온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에고가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착각에 불과하다는 데는 베르그송이나 들뢰즈나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베르그송이 영화를 '가짜의 가짜'로 보는 반면, 들뢰즈는 '가짜를 깨는 망치'로 본다. 영화는 무엇이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영화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에고라는 고정관념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즈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영화들을 생각해보면 들뢰즈의 얘기가 충분히 수긍이 간다. 요즘 영화들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담아낸다. 우리는 영화를 통해서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고, 죽음도 경험하고, 귀신과 만나기도 하는 등 개인의 상상만으로는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초월적인 경험들을 손쉽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경험들이 바로 들뢰즈가 영화를 옹호한 이유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들뢰즈와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다. 점점 더 다양한 영화

들이 출현하는 것은 비록 상업적인 동기로 인한 것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경험을 보다 쉽고도 생생하게, 더 자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점차 '현실'과 '가상현실'의 경계가 사실은 그다지 뚜렷하지 않다는 걸 실감하게 된다. 결국엔 현실이나 꿈이나 영화나 그게 그거라고 알아차리게 되는 것이다.

사람을 명상으로 끌고 간다고 해서 그 결과가 명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고, 세상을 에고로 몰아간다고 해서 그 결과마저 에고가 된다는 보장도 없다. 결국 명상은 에고를 내포하고 있고, 에고는 명상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이 최선의 현실인 것이다.

spectrum

17

그리스도가 된 예수

성경에서 만난 예수

예수는 마땅히 이 책에 포함되어야 할 위대한 스승이지만, 당장은 자료가 마땅치 않아서 신약성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대신했다. 조만간 기회가 되면 예수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

마태복음이 예수의 육성에 제일 가깝다

마태복음을 다시 읽어보는데 과연 침이 질질 흐를 지경이다. 예수의 말은 한마디 더하고 한마디 뺄 것도 없이 완전하면서도 아름답기 그지없다. 사도 요한은 예수가 세상에 온 뜻을 잘 알아차렸고, 누가는 이야기의 사실성을 잘 살핀 반면, 마태는 예수의 육성을 고스란히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요한복음에서 존재의 뜻을 잘 이해하고,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행적을 잘 살피고,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육성을 잘 음미하면, 지금이라도 예수와 직접 만날 수 있다. 내가 성경을 구성하는 편집자였더라도 신약성경의 첫머리를 마태복음으로 할지 요한복음으로 할지 고민했을 것 같다. 어쩌면 나 역시도 마태복음을 택했을지도.

모순의 이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마태복음 18:7

이건 모순되는 얘기다. 남을 실족케 하는 일이 불가피함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그 실족케 한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이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판 일에 대해서도 이 모순이 똑같이 적용된다. 가롯 유다는 예수를 팔도록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도 그 일로 인해서 벌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모순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예수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사람인데, 왜 굳이 가롯 유다로 하여금 악역을 맡게 해서 벌을 받고 욕을 먹게 만드는가? 다른 건 다 할 줄 알면서 대가 없이 선善을 이루는 일은 왜 불가능하단 말인가? 이런 의문들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석가모니는 존재의 근원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석가모니에게는 선도 없고 악도 없고 우연도 없고 필연도 없다. 어차피 모양들은 다 허깨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는 존재의 모양들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다. 때문에 예수는 선과 악, 우연과 필연을 직접 만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존재의 모양들이 우연과 필연의 소용돌이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가롯 유다가 벌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은 필연이다. 왜냐하면 가롯 유다는 그럴만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필 가롯 유다가 선택됐는가? 그건 우연이다. 그렇다면 우연히 선택되어서 악역이 된 가롯 유다의 불행은 누가 보상해주는가? 우연을 납득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하는가? 물론, 있다.

가롯 유다의 삶은 예수를 팔고 벌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모든 영혼들은 각자 자신만의 여정을 따라서 존재를 알아 간다. 어떤 영혼은 좋은 것을 먼저 경험하고 나쁜 것을 나중에 경험하는 반면, 어떤 영혼은 나쁜 것

을 먼저 맛보고 좋은 것을 나중에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어느 영혼이든지 결국 자기가 경험해야 할 것들을 다 경험해야 이 현상계에서의 공부가 끝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우연이 성립하는 것이다. 가롯 유다가 예수를 팔고 악역이 된 그 부분만을 보면 가롯 유다가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 같지만, 가롯 유다의 배움의 여정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런 과정은 누구나가 겪는 하나의 과목일 뿐이다. 그러므로 우연히 그 시점에서 가롯 유다가 악역을 맡았다고 해서 가롯 유다가 억울해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시야를 좁히느냐 넓히느냐에 따라서 필연과 우연이 사실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깨달은 놈들은 누구든지 모순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모순은 그 사람의 의식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도 한다. 예수처럼 저렇게 자신 있게 모순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면, 그건 아직 존재를 완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미시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모순과 만날 일이 없다. 모순은 시점 이동이 자유롭지 못할 때만 존재하는 착각이기 때문이다.

마태의 실수

예수의 육성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마태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한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는 예수가 아무 이유 없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예수가, 무화과나 하나 먹어볼까 하고 갔다가 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자 짜증이 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하고 저주를 퍼부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행동은 예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세상에 온 예수가 그깟 무화과 하나 때문에 산 나무를 죽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는가?

하지만 그 뒤에 나오듯이,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가 한 번쯤 방편으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에는 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온다. 예수가 혼인 잔치를 비유로 든 대목이다.

>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
>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
>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
> 마태복음 22:3~7

이 내용은, 혼인 잔치를 여는 사람이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 종을 보냈는데, 초대를 받은 사람이 그 종들을 죽여 버려서 주인이 가서 복수를 했다는 이야기이다. 이게 말이 되는가? 비유라는 것은 흔하고 일반적인 일을 들어서 특수한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특수한 것을 그대로 말하면 그 특수한 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겪어봤음직한 흔한 이야기를 특수한 것 대신에 들려줌으로써, 특수한 것의 뜻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말의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면, 혼인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초대하러 온 종을 죽이는 일이 일반적인 일인가? 혹시 불가피한 일이 있어서 초대에 응하지는 못할지라도 일단 초대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석하지 못함을 미안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 아닌가?

예수는 비유법의 달인이다. 예수는 비유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사

람이라서 저런 무리한 이야기를 비유로 들었을 리가 없다. 게다가 이 혼인 잔치 비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구조가 타국에 간 포도원 주인의 비유와 닮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을 보내서 거절당하자 다시 다른 종을 보낸 것도 그렇고, 초대하러 보낸 종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자 마침내 주인이 복수를 하는 것도 그렇다. 결국 이 혼인 잔치 비유는 마태의 머릿속에서 헷갈린 이야기인 것이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예수가 마태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실려 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다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가 한 말들과 예수가 한 일들은 어떻게 알고 기록했을까? 누가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예수의 말과 행동을 목격한 여러 사람들이 저 나름으로 기억을 더듬어서 그 기억을 기록했는데, 그 다양한 기록들을 앞에 펼쳐두고 읽어가면서 마태는 마태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자기가 보기에 합당하다 싶은 것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런 편집 과정에서 무화과나무 저주나 혼인 잔치 비유 같은 실수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혼인 잔치 이야기

는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이 이야기들이 합당치 않다고 보고 누락시킨 것이다. 혼인 잔치 비유는 그 끝부분도 이상하다. 초대한 손님들이 오지 않은 것에 화가 난 주인이 종들을 거리에 내보내서 아무나 마구 데려오게 했는데, 우연히 보니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종들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13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일차로 초대하려던 사람들이 거절하는 바람에 되는대로 아무나 오라고 해서 자리를 채운 사람이, 그깟 옷 좀 제대로 안 입었다고 해서 묶어서 내다버리기까지 할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된 것은 마태가 비유의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그 목적에 이야기를 맞췄기 때문이다. 목적에 맞추려다 보니 이야기의 모양이 이상하게 변질돼 버린 것이다.

지금껏 전혀 실수가 없던 마태가 22장, 23장으로 오면서 갑자기 터무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마태의 기록이 워낙에 탁월한 탓에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한 마태의 기록은 결국 예수가 죽으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하고 외쳤다고 기록하는 치명적인 실수까지 저지르게 된다.

터무니없는 기록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37~38

예수가 마지막 기도를 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는 장면인데, 보다시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갔다고 돼 있다. 마태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가 겟세마네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입장인데, 이 대목에서부터 예수의 최후까지 마태는 마가복음을 베끼고 있다. 즉 '베드로가 본 예수'를 선택한 것인데, 이것은 마태가 예수를 보는 관점이 베드로의 관점과 같았음을 의미한다. 베드로와 마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기는 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이 세상 속에서 보다 많은 것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겟세마네에 따라 갔던 요한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

이렇게 시작하는 긴 기도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무식해서 오직 믿음 하나로 구원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두려워서 다 죽어가는구나…'하고 생각한 반면, 예수의 말을 잘 이해해서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와야 할 때가 왔구나…'하고 알아차린 것이다. 극과 극으로 갈리는 마태의 기록을 보건대, 마태는 총명하기는 하되 요한만큼 의식적이지는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다.

울퉁불퉁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는 느낌은, 고속도로를 잘 타고 가다가 갑자기 시골 비포장도로로 들어선 느낌이다.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노라면 곳곳에서 베드로의 숨결이 느껴진다. 찬찬히 자세하게 진술해나가는 지적인 누가와는 달리, 툭툭 내뱉듯이 짤막짤막하게 예화를 소개하는 스타일하며, 친근하게 변형된 예수의 어투와 베드로의 단순한 이해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것이다.

한 부자가 예수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하고 묻자 예수가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부자가 낙담해서 돌아간다. 그 모습을 본 예수가,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때 베드로가 질문을 한다.

>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
>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 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
>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
> 마가복음 10:28~31

예수와 복음을 위해 형제자매와 부모와 땅과 재산을 버린 자는 이번 생에 그 백배를 보상받는다고 예수가 말하고 있다. 그런데 보상을 받되 핍박을 겸

하여 받는다고 예수가 말하고 있다. 예수는 지금껏 하늘에 썩지 않는 보화를 쌓아두라고 말해온 사람인데, 난데없이 이번 생에 백배로 보상받는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가 갑자기 현실주의자가 된 것인가? 게다가 보상을 받으면 받는 거지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재산은 많아지는 대신 핍박도 많이 받는다는 뜻일까?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기에 복을 받는 것인데 핍박도 같이 따라온다니, 이게 복을 받는다는 얘긴가, 벌을 받는다는 얘긴가?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는가? 영어 원문을 보자.(NIV)

> "I tell you the truth," Jesus replied, "no one who has left home or brothers or sisters or mother or father or children or fields for me and the gospel will fail to receive a hundred times as much in this present age (homes, brothers, sisters, mothers, children and fields -- and with them, persecutions) and in the age to come, eternal life.
> But many who are first will be last, and the last first."

이게 영어 원문인데, 보다시피 괄호와 대시(-)가 삽입돼 있어서 마가에게 말을 전달한 베드로의 말이 버벅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나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천국에서 백배로 보상받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하면 깔끔할 것을, 무식해서 이해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부족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표현 한 것이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형제와 자매와 엄마와 아버지와 땅들을 버린 자는 아무도 이번 생에 버린 것의 백배로 받기를 (그러니까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아이들과 땅들과 - 거기다가 이 땅에서 받은 핍박도 포함해서) 보상받는 데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 생에 영생도 얻게 될

것이다.'

영문에는 보다시피 in this present age와 in the age to come이 연이어 나와서, 마치 이번 생에는 이렇고 오는 생에는 이렇다는 뜻으로 보이기 쉬운데, 사실은 이 두 구절은 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나오는 a hundred times as much를 수식하는 구조다. 따라서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이번 생에 버린 것의 백배를 (천국에서) 보상받는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핍박을 겸하여 받고'는 보상받을 때 핍박을 받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버린 부모형제와 재산을 보상받을 때, (이번 생에 받은)핍박도 같이 보상받게 된다는 뜻이다. 보상받을 때 핍박이 함께 오는 것이 아니라, 핍박 받았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위로를 받는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런데 위의 말에 이어서 31절에는 예수의 마지막 말이 덧붙여진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이 말도 꼭 여기에 붙어야 하는지가 좀 의문이다. 이 말은 도마복음에서는 '노인이 아이에게 생명에 대해 물어야 살 수 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 될 자가 많으리라.' 하고 나오는데, 이 경우는 앞에 노인(먼저 된 자)과 아이(나중 된 자)가 제시되고 있어서 앞뒤 문맥이 잘 맞다. 하지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천국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로 이야기의 뜻이 종결된다. 그런데 거기에 난데없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는 말이 붙어서 오히려 이미 끝난 이야기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하고 있다. 꼭 덧붙이고 싶었으면 '그러나'를 빼고 그냥 붙였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그런데 붙여도 꼭 이상하게 붙여서 읽는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게 다 베드로와 마가의 이해가 부족했던 탓이다.

등불의 비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4:21~22

이 부분은 일단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하는 이 부분 번역이 문제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한국어에 이런 문장법이 있는가?

영어 번역본을 보면,

For whatever is hidden is meant to be disclosed
and whatever is concealed is meant to be brought out into the open.

즉,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다. 머리가 별로 좋지 않은 베드로는 예수의 등불 비유를 무엇이든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 것이다. 하지만 이해도가 좀 높은 누가는 이렇게 이해한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33~36

이게 예수가 등불 비유를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다. 마음을 켜면 세상도 밝게 켜지지만, 마음을 끄면 세상도 어두워진다는 뜻이다.

요령부득 마가복음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47~50

얼핏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글의 내용이 꽤나 무식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예수는 지금, 범죄를 저지르면 지옥에 갈 것인데 그 지옥은 참으로 지독한 곳이라는 얘기를 하는 참이다. 여기서 지독하다는 뜻을 비유적으로 한 얘기가 '불로 소금에 절여지듯 할 것이다'이다. 그런데 이야기 중에 소금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글의 맥락이 굴절돼 버린다.

1. 지옥은 지독한 곳이다. 지옥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2. 지옥에 가면 꺼지지도 않는 불 속에서 소금에 절여지듯 절여지게 될 것이다.

3.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다. 짠맛을 잃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 원래는 지옥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난데없이 소금 이야기로 끝나고 있는 것이다. 이 소금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 비유가 원본이다. 마태복음 5장 13~16절 내용은 이렇다.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등불은 숨겨져서 빛을 비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소금의 짠맛과 등불의 빛을 잘 간직해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하는 뜻인 것이다. 마가복음은 확실히 좀 개념부족이다.

헤아림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에 이런 구절이 있다.

>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마가복음 4:24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 이런 말이 붙어 있다.

>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마가복음 4:25

그런데 이 말대로라면, 헤아림이 있는 놈은 헤아림을 더 받을 것이고 헤

아림이 없는 놈(남을 헤아리지 않는 놈)은 자기의 헤아림을 빼앗길 것이라는 뜻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가?

헤아림(남을 판단함)을 어떻게 빼앗긴다는 것일까?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 마태복음 13:11~12

이게 '빼앗기리라'의 원래 의미다. 천국을 받아들이는 자는 천국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지만,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천국으로부터 더더욱 멀어질 것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무식한 베드로는 그 말을 터무니없는 곳에 갖다 붙여서 성경을 웃음꺼리로 만들어 놓았다. 마구 갖다 붙인 베드로나 그걸 곧이곧대로 받아 적은 마가나 그놈이 그놈이다.

버벅대는 베드로

>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11~13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이야기를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엘리야가 먼저 온다.

2. 그런데 왜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3. 그러나 엘리야가 왔다.

혹시 번역이 이상한가 싶어 영어성경과 대조를 해보니 번역은 별로 이상이 없다. 즉, 마가의 기록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마태의 기록을 보자.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7:11~12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가? 마가복음의 문장처럼 괜히 복잡해진 것은 역시 베드로가 무식했던 탓이다.

엉성한 마가복음

마태, 누가, 요한의 기록이 각기 장점을 가진 출중한 기록들인데 반해, 마가복음은 같은 이야기를 짧게 즉 미진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심찮게 틀린 기록들까지 내포하고 있어서, 득실을 따지면 결국 있으나마나한 복음서다.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차라리 마가복음은 제외시켜버리고 마태, 누가, 요한의 기록만 읽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다른 세 복음서에 비해서 수준이 현격히 떨어지는 마가복음은 웬만하면 무시하는 게 낫다. 마가복음 4

장에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묘한 비유가 하나 섞여 있다.

>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
>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
>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
>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마가복음 4:26~29

이런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을뿐더러 예수의 다른 비유들과는 달리 어째 비유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살펴보았더니, 13장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가 나온다.

>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
>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
>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
>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
>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
>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태복음 13:24~30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짐작대로 두 비유의 구조가 닮았다.

1. 씨를 뿌린다.
2. 모르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3. 싹이 성장해간다.
4. 추수를 한다.

그렇지 않은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가라지의 비유를 대충 들었거나, 혹은 흐릿하게 기억하는 사람이 그 흐릿한 기억을 되살려서 줄거리만 대충 기록을 하면, 바로 마가복음에 나오는 정체불명 비유가 된다. 따라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애매한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로 봐야한다. 이런 대목 때문에 마가복음의 기록 수준이 마태, 누가, 요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마태, 누가, 요한은 각각 나름의 한계를 갖고 있긴 하지만 과연 훌륭한 기록이라 할만하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을 위한 참고자료는 될 수 있겠지만 동등한 비중으로 읽히기에는 좀 미흡하다.

누가의 편집 오류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 25~27

이 이야기의 핵심은 명확하다. 나의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버려야한다는 의미다. 그런데 이어지는 이야기가 좀 이상하다.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누가복음 14: 28~30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이야기의 뜻은 모든 것을 투입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가진 예산을 잘 따져보라는 것이다. 앞의 이야기도 자칫하면 실패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끝나고 뒤의 이야기도 같은 내용으로 끝나기 때문에,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이야기가 딱 들어맞지도 않는다. 굳이 퍼센티지로 따지자면 30%는 겹치는데 70%는 엉뚱한 이야기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비유가 하나 더 이어진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 명으로써 저 이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31~33

이 두 번째 비유 역시 미리 잘 따져보라는 뜻이고, 따져봐서 혹시 어렵겠다 싶으면 아예 포기하라는 뜻인데, 그런데도 '이와 같이… 모든 소유를 버

리지 아니하면…'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보다시피 앞뒤로 다 '모든 것을 버려야한다'가 포진해 있는데, 이상하게도 중간에 있는 비유만 미리 잘 헤아려야 실패가 없다는 뜻으로 되어 있다. 어떻게 된 것일까? 지금 이 글을 읽는 나도 이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기가 약간 망설여지는데, 그 이유는 미리 말했다시피, 비유로 든 이야기가 완전히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30%쯤 의미가 통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편집자인 누가도 헷갈렸던 것이다. 위에 인용한 부분은 분명히 편집 오류다. 명석한 예수가 오직 저 이야기에서만 저런 엉성한 비유를 들었을 리는 없으니까 말이다. 누가가 이야기를 짜 맞추는 과정에서 보다 정밀하게 의미를 따지지 못한 것이다.

매우 해석하기 어렵다는 누가복음 16장의 비유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로 시작한다. 청지기가 돈을 낭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이 청지기에게 네가 한 일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면 해고시키겠다고 말한다. 그러자 다급해진 청지기는 요리조리 머리를 굴린 끝에 '그렇지. 우리 주인한테 빚진 놈들의 빚을 깎아주면 내가 잘린 후에 나한테 보답을 할 테지.'하는 계산으로 사람들을 불러서 빚 증서를 고쳐버린다. 그리고 그런 내용 뒤에 계속 예수의 말이 이어진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8~13

이 비유에 대해서 성경 해설자는 매우 해석하기 어렵다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그리고 과연 글이 해석하기 어렵게 돼 있다. 왜 이 비유가 예수의 이상한 이야기가 돼버렸는지 한번 살펴보자. 청지기가 한 짓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고 주인에게도 유리한 일이 아니다. 오히려 주인 입장에서는 죽이고 싶을 만한 일을 청지기가 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난데없이 주인이 청지기의 지혜를 칭찬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학자들이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것이다.

분위기를 보면, 분명히 주인이 청지기를 비난했다고 되어야 할 문장인데, 뜻밖에도 칭찬했다가 나오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것은 주인이 청지기의 잔꾀를 잘했다고 칭찬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잔꾀 한번 대단하다!'고 감탄했다는 말이다. 청지기만 '이 세대의 아들'이 아니라 주인 역시도 '이 세대의 아들'이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이 세대의 아들'인 것이고, 그래서 두 사람이 공히 '이 세대의 잔꾀'에 공감했다는 얘기다. 결국 예수는 청지기뿐만 아니라 그 주인까지도 욕하는 의미로 이 비유를 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수수께끼였다. 그리고 곧 이어서 두 번째 수수께끼가 나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다. 가뜩이나 자기 재산 갉아먹은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해서 어리둥절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이다. 오잉?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나? 성경을 의심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니 선뜻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난감하고도 난감한 상황이다. 이 두 번째 수수께끼는 순전히 무식한 성서 번역자의 책임이다. 멀쩡한 예수님의 말씀을 멍청한 번역이 수수께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영어 원문을 보자.

I tell you, use worldly wealth to gain friends for yourselves, so that when it is gone, you will be welcomed into eternal dwellings.

이게 예수가 원래 이야기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 뜻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의 세상 재물을 친구들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해서 너의 재물이 남을 위해 다 사용되어서 없어지면 너는 천국에서 환영받게 될 것이다.'하는 것이다. 예수가 말한 진짜 뜻은 세상 재물을 남을 돕는 데 아낌없이 쓰라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의 번역대로 이해하면 마치 불의한 재물로 불의한 친구들을 만들어서 불의하게 즐기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십상이다. 그래서 목사들이 아리송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쉬지도 않고 또 세 번째 수수께끼가 던져진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연이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나온다. 앞부분 두 줄은 대충 그렇다 치더라도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앞에서는 예수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다. 주여… 예수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오늘따라 왜 이러시지? 예수님이 반어법을 쓰시는 건가? 누가가 잘못 기록한 건가? 하지만 이 역시 멍청한 번역이 원인이다. 다시 영어 원문을 보자.

So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in handling worldly wealth, who will trust you with true riches?

And if you have not been trustworthy with someone else's property, who will give you property of your own?

성경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뜻은 사실은 '만약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쓰는 일에 믿음직하지 않으면' 즉 '만약 너희가 세상의 재물을 남을 돕는데 쓰지 않으면'이다. 예수의 진짜 뜻은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라'가 전혀 아니라 '세상의 재물을 바람직하게 (남을 돕는 일에) 사용해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서 예수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결론을 말한다. 그래서 단순히 한글 성경을 읽는 사람의 눈에는,

1. 자기를 배신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

2.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어서 즐겨라.

3. 불의의 재물에 충성해라.

4. 하지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보이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청지기 비유가 기독교인들에게 수수께끼가 돼 버린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번역이 문제일 뿐 예수의 말은 전혀 이상이 없다. 예수는 일관되게, 세상 재물은 남을 돕는 데 다 쓰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 속의 황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8:7

이래서 성경을 버릴 수가 없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대부분이 쓰레기더미일 뿐인 성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자가 잡혀왔다.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 죄인이다. 이제 그 죄인을 그냥 벌하면 된다. 그런데 간악한 무리들이 그 당연한 일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구정물을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예수를 더럽히는 용도로 재활용하려고 머리를 굴린 것이다.

이제 예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판례는 이미 나와 있다. 하던 대로 해라! 나는 그 여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깔끔하다.

하지만 그래서야 어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예수가 한낱 선생이었다면 그는 한 쪽을 택했을 것이다. 죄를 지었으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한다는 쪽을 택하거나, 죄는 밉지만 인정상 한 번쯤 눈감아주라는 쪽을 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를 보라. 예수는 이쪽도 택하지 않고, 저쪽도 택하지 않는다. 예수는 '죄를 벌로 갚으려는 그대는 과연 누구인가?'하고 묻는다.

죄는 무엇인가?

벌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대는 누구인가?'하고 묻는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다. 여자도 죽고 중생들도 죽고 예수도 몰락할 상황에서, 모두가 함께 살아나는 기적 같은 반전이 일어난다. 예수는 눈앞의 어려움을 회피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기적을 행하는 완벽한 붓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기적으로 가는 방법은 오직 사랑 밖에 없다. 예수의 사랑을 보라. 기독교여….

베드로가 본 예수, 요한이 본 예수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마가복음 14:32~35

이 대목은 베드로의 제자가 기록한 것이라서 베드로가 이해한 예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똑같이 목격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다.

>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1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놈인지 감이 오는가? 베드로는 예수가 죽는 게 두려워서 겁에 질린 나머지 거의 죽을 지경이 됐다고 이해했다. 날마다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말을 듣고 그 행위를 보면서도 예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하면서도 기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든 그리스도든 뭐가 됐든, 사람인 이상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고, 자기 수준대로 이해하고 또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다. 참으로 '곰 같은 놈'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반면에 사도 요한은 자신이 직접 기록한 글 속에서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가 왜 요한을 사랑했을까? 선생이 어떤 학생을 예뻐할까? 요한복음이라는 기록이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준다. 누가복음도 누가라는 (과학적 마인드를 가진) 의사가 기록한 것이라서 사실성이 뛰어난 게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사실성은 있는 그대로 기록한 사실성인 반면, 요한복음의 사실성은 예수의 가르침(사상)의 정수를 완전하게 이해한 제자가 그 핵심내용을 고스란히 기록한 사실성이다. 누가복음이 예수의 연대기라면, 요한복음은 예수의 정신의 기록이다. 그래서 나는 요한복음을 '기독교의 금강경'이라고 부른다.

어떤 사람이 어떤 장면을 보고 기록했다고 해서 그 기록이 곧바로 그 장면의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 위에서 보다시피 보는 사람의 이해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왜곡되기 때문이다. 예수는 그대에게 부단히 '깨어있어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대는 성경을 읽을 때 깨어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종교에 대해 깨어있는가? 그대는 그대의 삶에 대해 깨어있는가? 부디 깨어있어라. 꿈꾼 것은 다 갚아주어야 한다. 그 헛꿈을 갚는 장소가 바로 '지옥'이라는 곳이다. 아멘?

하나와 나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요한복음 9:1~3

제자들은 '하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단히 나눈다. 그것이 선입니까, 악입니까? 그것이 악이라면 그의 악입니까 혹은 그 부모의 악입니까? 그 악이 앞으로 좋게 되겠습니까, 안 좋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는 그 모든 것이 '하나'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본다. 그래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선이나 악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보지 않고, 그저 존재의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동해는 일본에게는 서해다. 아직 한국과 일본이 생기기 전에

그 바다에 무슨 방향이 있으며 이름이 있었겠는가? 차가운 물은 밑으로 가라앉고 더운 물은 위로 떠올라서 저절로 섞인다. 대서양에 물이 모자라고 태평양에 물이 넘치면 물은 저절로 모자란 곳으로 흘러간다. 어찌 하나의 바다를 보지 않겠는가?

예수의 족보

예수의 족보를 기술하는 방식을 보면 그 복음서 저자의 착안점을 알 수 있다.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
>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
> 마태복음 1:1~2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수의 선조로 기록하고 있다. 즉, 마태는 구약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주안점을 두고 마태복음을 기록한 것이다.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
> …
>
>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
> 누가복음 3:23~38

이렇게 돼 있다. 누가는 의사라는 직업에 어울리게 생물학적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누가복음이 뛰어난 사실성을 보이는 것과도 잘 들어맞는다. 누가복음은 이를테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기록이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갑자기 그림이 확 달라진다.

>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
> …
>
>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14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출신이 이렇게 기록돼 있다. 다짜고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왔다고 기록돼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의 족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요한이 원리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영지주의적 성향을 띄는 문서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이유는 요한이 요한복음 속에서 단 하나의 원리만을 일관되게 재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원리는 어떤 원리일까?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인 예수를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인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사람 역시도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이 바로 그 단 하나의 원리다. 요한은 태생 자체가 '그 모든 모양의 근저에 깔려 있는 원리는 무엇인가?'하고 묻는 사람이었고, 아마도 그런 성향 때문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던 것 같다.

인간 예수

제구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46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가복음 15:34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누가복음 23:46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30

위 성경구절들은 예수의 마지막 한마디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라면 마땅히 '다 이루었다'고 말했을 거라고 쓴 적이 있는데, 요한복음을 다시 읽어보니 뜻밖에도 예수가 죽음을 앞두고 심적으로 힘들어한 기록이 다른 복음서의 내용과 똑같이 적혀 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요한복음 12:27

보다시피 예수는 가능하면 죽음을 면하고 싶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에서도 똑같이 기록돼 있다. 예수가 자신의 가야할 길을 명확

히 알고 있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몸과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의 인간이기도 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마가복음 11:12~14

이런 인간적인 심술도 실제로 부렸던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 예수는 그 누구보다도 완벽한 조건을 갖춘 채로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역시도 몸을 입은 이상에는 몸의 제약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었던 것이다.

한정된 예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전 16:6~7

바울이 새로운 곳에 전도를 가려는데 예수의 영이 가지 말라고 한다. 이스라엘 근방에서만 전도를 하라는 것이다. 지금 바울과 교신하는 예수는 영혼의 상태다. 그런데 영혼은 이 지구 위 어디라도 한순간에 갈 수 있고 또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는 중국도 봤을 것이고 인도도 봤을 것이고 아프리카도 봤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근방에서만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 예수의 마음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수의 앎은 완벽하다. 예수가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추호도 의심할 수가 없다. 하지만 그의 작업마당, 즉 그의 시야 말하자면 그의 마음은 분명히 이스라엘 부근으로 한정돼 있고, 그의 절대자 역시도 구약의 하나님으로 한정돼 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왜 어떤 것은 할 수 있고 어떤 것은 할 수 없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이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도록 할 수 없었을까?

>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
> 마가복음 14:21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일까? 예수가 가룟 유다에 의해 팔린다는 것은 이미 시나리오가 나와 있었다. 그래서 예수는 그 시나리오대로 팔려서 죽었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는 화를 입어야 하는가? 예수가 시나리오대로 흘러갔듯이 가룟 유다도 시나리오대로 간 것뿐이지 않은가? 왜 똑같이 기록된 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자기 역할을 했는데, 유독 가룟 유다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가? 이 시나리오가 이해가 되는가?

예수의 하나님은 '예수가 본 존재'일 뿐이다. 예수의 하나님은 실제로 이 우주를 주관하는 진짜 존재가 아니라, 예수가 설정한 '캐릭터'인 것이다. 그리고 예수가 겪은 상황들 또한 예수의 이해일 뿐이다. 그래서 예수의 작업마당이 이스라엘 부근일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고 예수만 하니

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은 엉터리다. 알라만 유일한 신이고 마호메트만 유일한 메신저라는 믿음도 엉터리다. '하나'인 존재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활동하는 것뿐이다.

사도 바울의 명석함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까지 보면, 바울의 명석함이 잘 나타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세상도 죄가 아니고 경험도 죄가 아니고 마음도 죄가 아니다. 세상도 경험도 마음도 원래부터 자기가 맡은 역할을 하는 것일 뿐 원래부터 죄인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노자의 핵심이다. 차라리 법이라는 '경계'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나 나빠지지는 않았을 텐데, 괜히 법이라는 경계를 만드는 바람에 그 법에 집착하는 놈, 그 법을 피하는 놈, 그 법을 악용하는 놈, 그 법 때문에 두려워하는 놈… 등등의 더 많은 혼란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데 바울이 가만히 따져보니 사실은 율법이나 계명이 진짜 원인이 아니었다. 율법이 문제인가 계명이 문제인가 하고 따지다보니 의외로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원인은 다른 어느 것도 아닌 '내 속에 있는 죄'에서 비롯됐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바울이 '죄'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그동안 전혀 몰랐던 것을 마침내 알게 됐는데, 그것은 내 속에는 '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에는 '나' 밖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하나 판단하기도 하고 혹은 좋아하기도 하고 혹은 싫어하기도 하고 혹은 비난하기도 해왔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게 '나' 밖에 있는 것들과는 아무 상관도 없었던 것이다. 지금까지는 장미꽃은 원래 예쁜 것이고 똥은 원래 더러운 것이라고 믿어왔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내 앞에 장미꽃이 있어도 '나' 속의 죄(마음)가 발동되면 그 즉시 장미꽃이 똥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설령 내 앞에 똥이 있어도 '나' 속의 죄가 발동하지 않으면 그 똥이 장미꽃만큼이나 사랑스러운 것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하고 궁리한 끝에, '아하! 나 속에 있는 죄(마음)가 켜졌다 꺼졌다 할 뿐이구나'하고 알아차린 것이다. 내 앞에 어떤 것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만 나의 죄(마음)가 지금 어떤 상태냐가 유일한 관건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침내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다만 내 속의 죄가 악할 뿐이다'라고 선언한다.

>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
>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
>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
>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
>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바울은 '이 죄로 오염된 나'를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아예 이 사를 가버리기로 결심한다. '죄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오로지 '완전한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 움직이는 로봇이 되기로 한 것이다. 이게 바로 '박티 요가'다. 나의 판단과 선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나의 삶을 완전한 누군가에게 완전히 맡겨버리면 나의 에고가 할 일이 없어진다. 그래서 에고(마음)가 시들어 죽게 되는 것이다. 어딘가에 의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이 내맡김의 방법이 좋다. 하지만 죽어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사람들은 석가모니의 방법을 쓰는 게 낫다.

한 곳으로 가는 두 개의 길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로마서 9:19~21

하나님에게 모든 권리를 맡겨버리면,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다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석가모니의 방법을 따라서 나라는 개

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마찬가지로 내가 무엇이 되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다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예수의 방법도 석가모니의 방법도 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 그곳으로 가는 두 개의 길일뿐이다. 사실 그곳으로 가는 길은 수없이 많이 있다. 그러므로 어떤 길이든 어떤 방법이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되, 남의 선택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길이 다 그곳을 향해 있기 때문이다. 만약 기독교가 다른 종교나 다른 방법을 비난하고 방해한다면 그건 기독교의 멍청한 죄가 될 수밖에 없다.

부 록

도마복음 · 바보의 기록

영문은 Stephen Patterson과 Marvin Meyer,
한글은 박혁순님의 번역 참조

1945년 이집트의 나그함마디에서 파피루스가 담긴 항아리가 발견되었다. 일부는 불쏘시개로 없어졌지만, 남아있던 자료는 우여곡절 끝에 학자의 손에 들어왔고 번역과 연구가 시작되었다. 학자들의 연구는 1959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1975년이 이후에나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도마 복음서는 논란의 중심의 되었고, 해외나 국내에서도 해설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는 영지주의 문서 혹은 신비한 복음서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도 라즈니쉬와 도올 선생의 해설 덕에 도마복음이 무슨 대단한 비밀문서라도 되는 양 잘못 알려져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 도마복음은 사실은 그냥 쓰레기통에 던져버려도 아무 이상이 없는 '기록 아닌 기록'일 뿐이다.

이는 살아계신 예수께서 이르셨던 비밀의 말씀들이며 디두모 유다 도마가 기록한 것이라.

These are the secret sayings that the living Jesus spoke and Didymos Judas Thomas recorded.

___ 1 그리고 그가 말씀하신지라. "누구든지 이 말씀들의 뜻을 깨닫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1 And he said, "Whoever discovers the interpretation of these sayings will not taste death."

: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24

요한복음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도마복음 1절은 전혀 흠잡을 데가 없다.

___ 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찾는 자들은 발견할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 것이라. 그들이 찾은 즉 근심하게 될 것이요, 근심한 즉 놀랄 것이며 또 모든 것 위에 군림하리라. 그리고 군림한 후에 그들이 쉬리라."

2 Jesus said, "Those who seek should not stop seeking until they find. When they find, they will be disturbed. When they are disturbed, they will marvel, and will reign over all. [And after they have reigned they will rest.]"

:

이 말은 내용적으로 굉장히 정확하다. 오로지 이 현실만 진짜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 수행을 진행해서 눈이 점차 밝아지면 문득 당황하게 된다. 오로지 이것만이 진짜라고 믿고 있었는데 눈이 밝아지면서 완전히 다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눈앞에 있는 세상이 실질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사실은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분명히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라고 당황하게 된다. 수행자는 늘 보아오던 돌을 보고, 늘 보아오던 꽃을 보고, 늘 보아오던 사람을 본다. 그런데 돌이 돌로 보이지 않고, 꽃이 꽃으로 보이지 않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니 어찌 놀랍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하고 곰곰이 앞뒤를 맞춰보게 된다. 전에는 분명히 돌이 돌로 보였는데 수행을 통과한 후에 돌이 돌로 안 보인다면,

'이 현상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라고 고민하게 된다. 그러다 마침내 확고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그 결론은 내가 눈을 감은 채로 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도저히 다른 방법으로는 자기 눈에 일어난 변화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그동안 눈을 감은채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야 자기가 제대로 보고 있음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문제가 생겨나지 않는다. 문제는 곧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이제는 다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결해야할 문제가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쉬게 된다.

___3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너희 인도자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보라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있노라'고 한다면 공중의 새들이 너희를 앞설 것이요,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길, '아버지의 나라가 바다에 있노라'고 한다면 물고기들이 너희를 앞설 것이라. 차라리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으며 또 너희 바깥에 있느니라. 너희가 자신을 알게 되면 너희는 알려질 것이요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으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자신을 모른다면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며 또 너희는 빈곤이니라."

3 Jesus said, "If your leaders say to you, 'Look, the (Father's) kingdom is in the sky,' then the birds of the sky will precede you. If they say to you, 'It is in the sea,' then the fish will precede you. Rather, the kingdom is within you and it is outside you. When you know yourselves, then you will be known, and you will understand that you are children of the living Father. But if you do not know yourselves, then you live in poverty, and you are the poverty."

: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20~21

이 3절도 전반부는 별 문제가 없다. 이에 비해, 후반부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도마 특유의 불필요한 말들이 삽입돼 있다. "너희가 자신을 안즉 너희가 살아계신 아버지의 자녀임을 깨달으리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자신을 모른다면 빈곤 가운데 사는 것이니라." 차라리 이렇게라도 적었으면 깔끔하기라도 했을 것을 괜히 말을 보태서 중언부언하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복음서에 잘 나와 있듯이 예수는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 보듯이, 길게 말할 때도 다채로운 내용을 펼쳐보일지언정 비슷한 내용을 열거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의 말은 예수의 육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흐릿하게 기억하는 도마가 자기 나름으로 애써 엮어서 기록한 것이다. 그 결과, 글이 도마의 머릿속처럼 애매하고 흐릿하게 되었다.

___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늙은이는 일곱 날 된 아이에게 생명의 처소에 대하여 묻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니 그는 살게 되리라. 이는 처음 된 많은 이가 나중 될 것이며, 단 하나가 될 것임이라."

4 Jesus said, "The person old in days won't hesitate to ask a little child seven days old about the place of life, and that person will live. For many of the first will be last, and will become a single one."

: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17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3:29~30

꼭 글자대로 따질 것은 아니지만, 태어난 지 7일된 말도 못하는 애기한테 뭘 물어본다는 표현을 꼭 써야만 했는지도 의문이다. 짐작컨대 도마가 무식했던 탓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하고 쓴 누가의 기록도 사실은 좀 이상하다. 예수가 어린아이를 예로 든 이유는 어린아이가 하늘나라를 받아들여서가 아니라 순진무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가 쓴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 제일 정확하다고 할 것이다.

___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을 알라. 그리하면 네게서 감추어진 것이 너희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드러나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음이며 또 일어서지 않을 장사葬事된 것이 없음이라."

5 Jesus said, "Know what is in front of your face, and what is hidden from you

will be disclosed to you. For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revealed. [And there is nothing buried that will not be raised.]"

: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0:26

'너희 눈앞에 있는 것을 알라'고 했는데 여기서 눈앞에 있는 것은 예수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일 수도 있다. 만약 그 대상이 예수라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라는 것이고, 그 대상이 이 세상이라면 이 세상이 헛것임을 알라는 뜻이 된다. 어느 쪽이든 다 뜻이 무난하기 때문에 예수가 꼭 무엇을 지칭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도마가 기록한 예수의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된다. 예수의 말은 '…알라. 그리하면 …드러나게 되리라.'이다. 즉, 내용이 조건부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어지는 문장을 보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내용이다. 앞뒤 문장이 공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는 점에서 비슷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이다. 실질적으로는 반대되는 내용인 것이다. 하지만 도마는 충분히 명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드러날 것이다'에 착안해서 같은 내용이라고 믿고 반대되는 것을 하나로 묶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도마는 대충 갖다 붙이는 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다. 앞으로 수없이 보게 되겠지만, 도마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내용을 태연히 갖다 붙여서 하나의 절로 만드는 것에 남다른 재주가 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실린 같은 내용을 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 권세를 갖고 있어서 진짜처럼 보이

는 저들을 두려워마라.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가 다 드러날 것이라는 뜻이다. '다 드러날 것이다'는 이럴 때 쓰이는 말이다. 이처럼 도마의 기록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수없이 계속 나온다.

___6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이까? 어떤 음식을 삼가 먹어야하겠나이까?"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미워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들이 천국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이니라. 결국 밝혀지지 않을 감추어진 것이 없으며 또 드러나지 않은 채로 남을 가리어진 것이 없도다."

6 His disciples asked him and said to him, "Do you want us to fast? How should we pray? Should we give to charity? What diet should we observe?"

Jesus said, "Don't lie, and don't do what you hate, because all things are disclosed before heaven. After all, there is nothing hidden that will not be revealed, and there is nothing covered up that will remain undisclosed."

: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8:18~20

도마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이 금식과 기도와 자비를 물었는데 예수는 난

데없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답하고 있다. 예수가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사람이던가? 인용한 누가복음 구절에 나와 있듯이, 거짓말하지 말라는 대답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에 답한 것이다. 이 6절 역시 도마가 기억 속에서 이것저것을 끄집어내서 하나로 묶은 것이다. 거기다 5절에서 나왔던 '다 드러날 것이다'를 여기다 또 집어넣었다. 대충 비슷하다 싶으면 마구 엮어서 아예 새로운 글을 만들어버리는 게 도마의 특기다.

___ 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먹을 사자가 운 있도다. 이는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사자가 먹을 사람은 잘못되었도다. 이 또한 사자가 사람이 됨이라."

7 Jesus said, "Lucky is the lion that the human will eat, so that the lion becomes human. And foul is the human that the lion will eat, and the lion still will become human."

:

일단 추리하는 데까지는 해보자.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사자가 사람이 되니까 사자한테는 좋은 일이다. 사자가 사람을 먹으면 사자가 사람이 되니까 사람한테는 안 좋다. 이것이 위의 내용이다. 그렇다면,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사자가 소화되어서 사람에게 흡수된다는 뜻이고, 사자가 사람을 먹으면 그 먹힌 사람은 사라지고, 사자가 사람의 인성人性을 흡수해서 사람이 된다는 뜻이 된다. 즉,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에게 흡수되면 그 안 좋은 것에게 좋은 일이고, 안 좋은 것이 좋은 것을 흡수하면 좋은 것이 되는데, 이는 좋은 것에게는 안 좋은 일이라는 얘기다 된다. 이런 비유에 걸맞을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명백히 도마의 횡설수설이다.

___ 8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되, "그 사람은 그의 그물을 바다에 던져 작은 물고기를 가득 잡아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지혜로운 어부 같도다. 그 지혜로운 어부는 그 가운데서 크고 좋은 물고기 한 마리를 찾아내고 모든 작은 물고기들을 바다에 되던져 넣고 쉽사리 그 큰 물고기를 선택하였느니라. 여기 좋은 두 귀 있는 자들은 들음이 나으리라!"

8 And he said, "The person is like a wise fisherman who cast his net into the sea and drew it up from the sea full of little fish. Among them the wise fisherman discovered a fine large fish. He threw all the little fish back into the sea, and easily chose the large fish. Anyone here with two good ears had better listen!"

: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이야기와 같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5~46

너무도 귀중한 천국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뜻이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물고기 이야기가 약간 다른 뜻으로 쓰이고 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태복음 13:47~50

이렇게 돼있다. 의인과 악인을 가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뭐 어차피 비유이기 때문에 문제삼을만한 것은 없다.

___ 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한 주먹의 씨를 가지고 나가 뿌리매 어떤 것은 길 위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그것들을 모았고 다른 것들은 돌 위에 덜어져 흙 속에 뿌리내리지 못한 고로 낱알들을 내지 못한지라. 어떤 것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가시들이 씨들의 자라는 기운을 막았느니라.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지매 그것이 좋은 곡식을 내어 육십 배 또 백이십 배를 맺느니라."

9 Jesus said, "Look, the sower went out, took a handful (of seeds), and scattered (them). Some fell on the road, and the birds came and gathered them. Others fell on rock, and they didn't take root in the soil and didn't produce heads of grain. Others fell on thorns, and they choked the seeds and worms ate them. And others fell on good soil, and it produced a good crop: it yielded sixty per measure and one hundred twenty per measure."

:

마태복음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3~8

___ 1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이 세상에 불을 던졌노라. 보라, 이것이 타오

를 때까지 내가 지키고 있노라."

10 Jesus said, "I have cast fire upon the world, and look, I'm guarding it until it blazes."

:

[참조]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49

___ 11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하늘은 없어질 것이요 또 그 위의 하늘도 없어질 것이라. 죽은 자는 살지 아니하되 산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죽은 것을 먹던 그날들 동안 너희는 그것을 살게 했느니라. 너희가 빛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을 하겠느냐? 너희가 하나였던 그날에 너희는 둘이 되었노라. 그러나 너희가 둘이 된즉 무엇을 하겠느냐?"

11 Jesus said, "This heaven will pass away, and the one above it will pass away. The dead are not alive, and the living will not die. During the days when you ate what is dead, you made it come alive. When you are in the light, what will you do? On the day when you were one, you became two. But when you become two, what will you do?"

:

이 정도 수준의 문장을 직접 하나 만들어본다면 어떤 글이 될까?

"아빠, 농구공이 딸기보다 더 맛있다는 건 아시죠? 그럼 별을 사자로 만드는 공식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이 정도면 위의 11절과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다. 개발새발 막 갖다 붙인 글이라는 얘기다. '하늘이 없어질 것이다'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마가복

음 21:6)에서 빌려 온듯하고, '죽은 자는 살지 아니하되…'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누가복음 20:35)에서 빌려 온듯하다. '죽은 것을 먹던 그 날들…'은 굳이 해석하자면 '너희가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살아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흡사 저능아를 방불케 하는 도마의 생각을 굳이 좇아가는 건 참으로 피곤한 일이다.

___ 12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이 우리를 떠날 것을 아나이다. 누가 우리의 인도자가 되겠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너희는 의인 야고보에게 갈 것이니라. 이는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이 있게 되었음이라."

12 The disciples said to Jesus, "We know that you are going to leave us. Who will be our leader?"

Jesus said to them, "No matter where you are you are to go to James the Just, for whose sake heaven and earth came into being."

:

의인 야고보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고 해도, 설령 예수라고 해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늘과 땅이 있게 되었을 리는 없다. 이 세상 모든 것들과 모든 생명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 누구를 특별히 지칭할 수 있단 말인가? 혹시 도마의 아둔한 몰이해를 위해서 하늘과 땅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한번 웃기라도 하지.^^

___ 13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다른 것에 견주어보아라. 또 내

가 무엇 같은지 말하라."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의로운 사자使者 같나이다."

마태가 그에게 대답하되, "당신은 지혜로운 철인哲人 같나이다."

도마가 그에게 대답하되, "선생이여, 제 입은 당신이 무엇과 같은지 전혀 말할 수 없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네 선생이 아니라. 이는 네가 취했고, 내가 지켜온 솟아나는 샘물로 네가 도취되었기 때문이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도마를 데리고 물러가서 그에게 세 가지 말씀을 이르시니라. 도마가 그의 동료들에게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예수께서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하고 물은지라.

도마가 그들에게 이르되, "만약 내게 이르신 것들 중 하나를 너희에게 말한다면, 너희들은 돌을 집어 나를 칠 것이라. 또 바위들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를 삼키리라."

13 Jesus said to his disciples, "Compare me to something and tell me what I am like."

Simon Peter said to him, "You are like a just messenger."

Matthew said to him, "You are like a wise philosopher."

Thomas said to him, "Teacher, my mouth is utterly unable to say what you are like."

Jesus said, "I am not your teacher. Because you have drunk, you have become intoxicated from the bubbling spring that I have tended."

And he took him, and withdrew, and spoke three sayings to him. When Thomas came back to his friends they asked him, "What did Jesus say to you?"

Thomas said to them, "If I tell you one of the sayings he spoke to me, you will pick up rocks and stone me, and fire will come from the rocks and devour you."

: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15~17

위의 대화는 마태와 베드로와 도마가 같이 들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가 베드로를 칭찬했다고 기록한 반면, 도마는 예수가 자신을 칭찬했다고 적고 있다. 객관적으로 따져 봐도 좋은 일에 남을 내세운 마태의 기록이 신빙성이 있거니와, 도마의 기록이 전체적으로 워낙에 미흡한 탓에 도무지 도마의 기록을 믿어주기 어려운 상황이다.

___ 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지라.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불러 올 것이요,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 받을 것이요, 또 만약 너희가 자비를 베푼다면 너희 영혼에 해를 끼칠 것이라. 너희가 어떤 지방으로 가며 또 시골로 여행한 즉 사람들이 너희를 초대할 때에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을 것이요,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라. 결국 너희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겠고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리라."

14 Jesus said to them, "If you fast, you will bring sin upon yourselves, and if you pray, you will be condemned, and if you give to charity, you will harm your spirits. When you go into any region and walk about in the countryside, when people take you in, eat what they serve you and heal the sick among them. After all, what goes into your mouth will not defile you; rather, it's what comes out of your mouth that will defile you."

:

14절의 첫 대목은 6절과 붙여서 보면 명확해진다.

6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가 금식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나이까?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하나이까? 어떤 음식을 삼가 먹어야하겠나이까?"하더라.

1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지라. "만약 너희가 금식한다면 너희 자신에게 죄를 불러 올 것이요, 만약 너희가 기도한다면 너희는 정죄 받을 것이요, 또 만약 너희가 자비를 베푼다면 너희 영혼에 해를 끼칠 것이라."

이렇게 되면 일단 '문답 형식'은 딱 맞아 떨어진다. 남도 이렇게 글의 원래 형태를 복원할 수 있는데, 글을 쓴 사람 자신이 하나인 글을 굳이 분리시켜서 나눠 붙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 봐도 한 맥락인 글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배치시킬 수 있는 사람은 바보 외에는 없다. 그렇지 않은가? 도마복음에는 이 외에도 어울리지 않는 글들의 조합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마치 한 구절 한 구절을 각각 한 장씩의 카드에 적은 후에, 그 카드들을 마구 섞고 나서 임의로 두 장이나 석 장을 뽑아서 그 임의의 조합으로 하나의 절을 만든 것 같은 인상을 준다. 어느 쪽일까? 도마가 바보였던 것일까, 혹은 도마의 섞인 카드를 대충 섞어서 기록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일까?

위에서 예수가 대답한 말의 의미는 마태복음 6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구제를 할 때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고 예수가 말한 것이다. 또한, 14절 중간에 나오는 '**너희가**

어떤 지방으로 가며 또 시골로 여행한 즉 사람들이 너희를 초대할 때에 그들이 대접하는 것을 먹을 것이요, 그들 가운데 병든 자를 치료하라'는 대목의 상황은 마태복음 10장에 상세히 나와 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결국 너희 입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겠고 오히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히리라**'는 대목은 바리새인들이 음식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고(마태복음 15:2) 물었을 때 대답한 내용이다. 그런데 도마의 기록에서는 그저 바로 앞 구절에서 먹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여기에 붙어 있다. 가히 도마의 개념 없음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___ 1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여자에게서 나지 않은 이를 볼 때에 너희의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라. 그는 너희 아버지시니라."

15 Jesus said, "When you see one who was not born of woman, fall on your faces and worship. That one is your Father."

:

예수조차도 여자에게서 났으니 여자를 통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이는 당연히 예수보다 더 뛰어난 존재일 테고 그러니 결국 하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데 말이 모호한 탓에 어찌 보면 굉장히 심오한 말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를테면 '바다가 아니면 땅이 아닌 것이 없을 것이다' 하는 식이다. 뻔한 내용을 괜히 심오한 척 표현한 것이다. 극과 극은 원래 비슷해 보인다.

___ 1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마도 사람들이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다고

생각하리라. 그들은 내가 이 땅에 불과 검과 전쟁이라는 분쟁을 주러왔음을 모르도다. 이는 한 집에 다섯이 있음이니, 셋은 둘을 대적하겠고 둘은 셋을 대적하며 아버지는 아들을 또 아들은 아버지를 대적하리라. 그러고서 그들은 홀로 되리라."

16 Jesus said, "Perhaps people think that I have come to cast peace upon the world. They do not know that I have come to cast conflicts upon the earth: fire, sword, war. For there will be five in a house: there'll be three against two and two against three, father against son and son against father, and they will stand alone."

:

[참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마태복음 10:34~35

___ 1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너희에게 어떤 눈도 보지 못했고 어떤 귀도 듣지 못했고 어떤 손도 만지지 못했으며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지 않던 것을 주겠노라."

17 Jesus said, "I will give you what no eye has seen, what no ear has heard, what no hand has touched, what has not arisen in the human heart."

:

[참조]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6~17

___ 18 제자들이 예수께 묻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오겠나이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태초를 깨닫고서 종말을 찾고자 하느냐? 너희는 보라. 태초가 있는 곳에 종말이 있겠노라. 태초에 서있는 자는 복되도다. 그가 종말을 알 것이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18 The disciples said to Jesus, "Tell us, how will our end come?"

Jesus said, "Have you found the beginning, then, that you are looking for the end? You see, the end will be where the beginning is. Congratulations to the one who stands at the beginning: that one will know the end and will not taste death."

: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마태복음 24:15~28

라즈니쉬가 도마복음을 예수의 육성으로 인정한 이유가 바로 이런 글들 때문이다. 이런 글들은 존재에 대한 숨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깨달은 놈들이 좋아할 만한 글이다. 하지만 도마복음에 이런 글은 열 개도 안 되는 반면 '바보의 기록'은 넘쳐난다. 그래서 나로서는 도저히 도마복음을 기록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18장도 그 의미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다. 종말을 못 보는 놈이 태초를 볼 리가 없는데 태연히 태초를 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건 마치 영어 공부가 너무 어렵다는 놈한테 "그럼 수학을 잘하면 되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사실상 무책임한 발언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너의 눈앞에 있는 것을 알아라'라고 하는 게 타당했

을 것이다.

___ 1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존재하기 전에 존재하게 된 자는 복되도다. 만약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또 나의 말에 주의하면 이 돌들이 너희를 섬기리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낙원에 다섯 나무들이 있음이라. 그것들은 여름이든 겨울이든 변치 않을 것이요, 또 그것들의 잎사귀들은 떨어지지 않을 것임이라. 그것들을 아는 누구든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19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the one who came into being before coming into being. If you become my disciples and pay attention to my sayings, these stones will serve you. For there are five trees in Paradise for you; they do not change, summer or winter, and their leaves do not fall. Whoever knows them will not taste death."

:

이 말도 내용상으로 별 문제가 없고, 라즈니쉬가 이것저것 설명을 붙였음직한 글이기도 하다. 하지만 내 눈에는 도마가 연신 더듬거리는 것만 보인다.

___ 20 제자들이 예수께 묻되,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천국은 무엇과 같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천국은 겨자씨 하나와 같아 모든 씨 가운데 가장 작지만 그것이 떨어질 때 큰 나무로 자라나 공중의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니라."

20 The disciples said to Jesus, "Tell us what Heaven's kingdom is like."

He said to them, It's like a mustard seed, the smallest of all seeds, but when it

falls on prepared soil, it produces a large plant and becomes a shelter for birds of the sky.

:

[참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마태복음 13:31~32

___21 마리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의 제자들은 무엇과 같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들은 자기 소유가 아닌 밭에서 거하는 어린아이들과 같도다. 그 밭의 주인들이 온 즉 말하기를 '우리에게 우리의 밭을 다오'하면 아이들은 그들 앞에서 밭을 돌려주기 위해 자기들의 옷가지를 벗느니라. 그리고 그들의 밭을 돌려주느니라." 이런 연고로 내가 말하노니, "만일 집주인들이 도적이 올 것을 안다면 그들은 도적이 오기에 앞서 망을 보겠고 또 도둑으로 하여금 집안에 들어와 세간을 강탈치 못하게 하리라. 그런즉 너희들은 세상에 대하여 망을 보라. 큰 힘으로 너희 자신을 준비시켜 약탈자들이 네게로 오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너희들이 예상하는 고난이 오겠음이라. 너희 가운데 깨닫는 자가 있을지어다. 곡식이 익을 때 그가 낫을 들고 속히 와 이를 추수하였도다. 좋은 두 귀가 있는 누구든지 들음이 나으리라."

21 Mary said to Jesus, "What are your disciples like?" He said, "They are like little children living in a field that is not theirs. when the owners of the field come, they will say, 'Give us back our field.' They take off their clothes in front of them in order to give it back to them, and they return their field to them. For this reason I say, if the owners of a house know that a thief is coming, they will be on guard before

the thief arrives and will not let the thief break into their house (their domain) and steal their possessions. As for you, then, be on guard against the world. Prepare yourselves with great strength, so the robbers can't find a way to get to you, for the trouble you expect will come. Let there be among you a person who understands. When the crop ripened, he came quickly carrying a sickle and harvested it. Anyone here with two good ears had better listen!"

:

여기서 보다시피 밭을 돌려주기 위해 옷을 벗는다고 기록돼 있다. 남의 밭에서 놀다가 주인이 오면 그냥 그 밭에서 떠나면 되지 옷은 왜 벗는 것일까? 그것도 아이들이 왜 옷을 벗을까? 이 역시 도마의 이해부족이다. 아이가 옷을 벗는 것의 의미를 모른 채로 무작정 아이에 옷 벗기를 조합한 것이다. 아이가 옷을 벗는 이유는 바로 밑에서 보다시피 도마복음에도 제대로 나와 있다(37절). 도마는 자기가 기록을 하면서도 깊은 이해 없이 기록했기 때문에, 한 번은 제대로 쓰고, 한 번은 틀리게 쓰는 터무니없는 실수를 한 것이다. 그만큼 도마가 멍청했다는 얘기다. 37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37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언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언제 우리는 당신을 뵈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부끄럼 없이 너희가 벗고 또 어린아이들처럼 너희의 옷가지를 벗어서 너희 발아래 두어 밟게 된즉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아이가 옷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다. 어른은 옷을 벗어서 밟지

않는다. 어른은 옷은 밟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고정된 개념이 없다. 아이에게 옷은 입을 것도 되고 먹을 것도 되고 밟을 것도 되는 것이다. 즉 아이가 옷을 벗는다는 말의 의미는 아이처럼 순진무구해진다는 뜻이다. 그런데 도마는 이런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 결과 '아이가 밭을 돌려주면서 옷을 벗었다'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다.

아이들이 밭을 돌려주는 이야기에 이어서 다른 이야기가 연결되는데 '이런 연고로' 하는 말로 연결돼 있다. 그런데 '이런 연고로'로 연결된 두 이야기가 서로 들어맞질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 들어맞지 않음이 도마복음에서는 마치 정석처럼 돼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갖기 어려운 이상 감각을 도마는 가지고 있다. 자기가 글을 쓰면서도 꼭, 반드시 관계없는 것을 골라서 연결시키는 것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첫 번째 대목은, 남의 밭에서 놀다가 주인이 와서 밭을 돌려주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두 번째 대목은, 내 물건을 훔치러 오는 도둑을 잘 살펴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가 '이런 연고로'로 연결돼 있다. '남의 것을 점유하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느니라. 그러니 도둑이 혹시 내 물건을 훔치러 오는지 잘 살펴야한다.'는 이야기가 되고 만다. 이게 말이 되는가?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남의 것을 남에게 돌려주는 것과 내 것을 도둑에게 뺏기는 것을 같은 의미로 파악한단 말인가? 내가 왜 도마복음을 '바보의 기록'이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는가?

___ 22 예수께서 젖먹이 아이들 몇을 보신지라.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젖 먹는 아이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과 같도다."

제자들이 그에게 묻기를, "그렇다면 어린아이처럼 우리도 그 나라에 들어가겠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둘을 하나로, 안을 바깥처럼, 바깥을 안처럼, 위를 아래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인 것으로 만들어 남자는 남자가 아니겠고 여자는 여자가 아닌 것으로 만들 때, 너희가 눈의 자리에 눈을, 손의 자리에 손을, 발의 자리에 발을 형상의 자리에 형상을 만들 때, 그 후에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리라."

22 Jesus saw some babies nursing. He said to his disciples, "These nursing babies are like those who enter the kingdom."

They said to him, "Then shall we enter the kingdom as babies?"

Jesus said to them, "When you make the two into one, and when you make the inner like the outer and the outer like the inner, and the upper like the lower, and when you make male and female into a single one, so that the male will not be male nor the female be female, when you make eyes in place of an eye, a hand in place of a hand, a foot in place of a foot, an image in place of an image, then you will enter [the kingdom]."

:

라즈니쉬가 좋아했음직한 말이고, 실제로 내용적으로는 빼어난 맛이 있는 구절이다. 결국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임을 알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자리에 두라'는 것이다. 내용은 훌륭하지만 문장이 엉성한 건 한결같다. 글의 맥락을 보면 마태복음의 구절이 훨씬 매끄럽다.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마태복음 18:1~10

___ 23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천에 하나를, 만에 둘로 너희를 택하겠고 그들은 홀로 서리라."

23 Jesus said, "I shall choose you, one from a thousand and two from ten thousand, and they will stand as a single one."

:

글에 보이는 내용 그대로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받아들일 수는 없을 거라는 얘기고, 혹시 예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동안 살아온 것과는 달리 세상과 거리를 두게 된다는 얘기다.

___ 24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당신이 계신 곳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는 우리가 그곳을 찾아야하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귀 있는 누구든 들음이 나으리라! 빛의 사람 안에 빛이 있고 그것이 온 세상을 비추느니라. 만약 그것이 비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흑암이니라."

24 His disciples said, "Show us the place where you are, for we must seek it."

He said to them, "Anyone here with two ears had better listen! There is light within a person of light, and it shines on the whole world. If it does not shine, it is dark."

:

이 글은 문자적으로는 다음의 성경구절과 닮았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35~36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다음의 구절과 닮았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11:33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고, 글의 맥락이 매끄럽지 못한 것은 도마의 특기라서 새삼스럽지도 않다. 누가는 '네 속에 있는 빛'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도마는 '빛의 사람person of light'이라고 적어서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시키고 있는데, 이 역시 도마의 이해가 얕은 탓이다. 누가는 모든 사람 속에는 빛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그 빛은 빛나야한다고 말함으로써 진리가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을 완전하게 전달하고 있다. 반면에, 도마는 단순히 '빛의 사람의 빛은 세상을 밝혀야한다'는 말만 할 뿐, 모든 사람 속에 빛이 있다는 말은 빼먹고 있다. 그러면서도 '누구든 들음이 나으리라'는 말은 그대로 적고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앞에서는 누구든 들으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빛의 사람의 빛이 세상을 밝힌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빛의 사람의 빛이 세상을 밝게 한다는 사실을 누구든 알아야한다는 내용이 되는데, 이것은 필요불가결한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할 필요불가결한 내용은 '그대가 바로 빛이다. 그러니 그 빛을 밝혀서 세상을 밝게 해라.'인 것이다. 이게 다 도마가 예수의 말을 이해할만한 그릇

이 되지 못했고, 또한 누가만큼 논리정연하지도 못했던 탓이다.

___25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이웃들을 너희 영혼처럼 사랑하고 너희 눈동자처럼 그들을 안위하라."

25 Jesus said, "Love your friends like your own soul, protect them like the pupil of your eye."

:

[참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22:39

___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이웃의 눈 속에서 티끌을 보나 네 눈 속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도다. 너희 눈 속의 들보를 빼낼 때 그제야 너희 이웃의 눈 속에서 티끌을 제할 만큼 잘 보게 되리라."

26 Jesus said, "You see the sliver in your friend's eye, but you don't see the timber in your own eye. When you take the timber out of your own eye, then you will see well enough to remove the sliver from your friend's eye."

:

[참조]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마태복음 7:3~5

___27 "만약 너희가 세상으로부터 금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나라를 찾지 못하리라. 만약 너희가 안식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리라."

27 "If you do not fast from the world, you will not find the kingdom. If you do not observe the sabbath as a sabbath you will not see the Father."

:

얼핏 보면 지당한 얘기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다. 복음서 속에서 예수는 오히려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누가복음 5:34)라고 말하고 있고, 안식일에 대해서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누가복음 6:9)라고 말하고 있다. 즉 예수는 금식이나 안식일 같은 형식보다는 진리의 내용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는데, 도마는 실질적인 예수의 뜻을 반대로 전달하고 있다. 도마가 예수의 뜻은 이해하지 못한 반면, 이것저것 여러 단어들만 맥락 없이 기억한 탓이다.

___28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내 처소를 세상 한가운데로 가져왔고 또 육신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였느니라. 나는 그들이 모두 취함을 알았고 또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도 목마른 자를 발견하지 못했노라. 내 영혼이 뭇사람들의 자녀들로 아파하는 것은 그들이 마음속으로 장님이 되어 보지 못함이니, 빈손으로 세상에 와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남을 구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취해 있도다. 그들이 그들의 포도주를 떨쳐

버릴 때 그들은 길道을 바꾸리라."

28 Jesus said, "I took my stand in the midst of the world, and in flesh I appeared to them. I found them all drunk, and I did not find any of them thirsty. My soul ached for the children of humanity, because they are blind in their hearts and do not see, for they came into the world empty, and they also seek to depart from the world empty. But meanwhile they are drunk. When they shake off their wine, then they will change their ways."

: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0~12

내용적으로 별 문제가 없다. 네 명의 영문 번역자 중 한 명은 첫대목의 마지막 부분을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로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목마른 자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구절과 연결이 안 된다. '목마른 자를 발견하지 못했노라'가 나왔기 때문에, 이어서 사람들이 안달복달하며 산다는 내용이 오기보다는 되는대로 산다는 내용이 나와야 어울린다.

___29 예수께서 가라사대, "만약 영 때문에 육체가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로다. 그러나 육체 때문에 영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경이 가운데 경이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가난 중 어찌 이렇게 큰 부유함이 거하게 되었는지 놀라워하노라."

29 Jesus said, "If the flesh came into being because of spirit, that is a marvel, but if spirit came into being because of the body, that is a marvel of marvels. Yet I marvel at how this great wealth has come to dwell in this poverty."

:

억지로 꿰맞추자면 못할 것도 없지만, 이미 충분히 봤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보게 되듯이, 도마는 제대로 된 텍스트를 제공할 수 있는 정확한 기록자가 아니다. 이 29절도 도마의 산만한 기억 속에서 만들어져 나온 헛소리일 뿐이다.

___3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세 신위神位가 있으면 그들은 거룩하다. 둘 또는 하나가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 있느니라."

30 Jesus said, "Where there are three deities, they are divine. Where there are two or one, I am with that one."

: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도마의 글은, 보다시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다'라는 말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을 것이다'하는 말이 접착제로 붙인 듯이 붙어 있다. 도마의 별명은 '디두모'보다는 '스티커'가 나을 것 같다.

___31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느 선지자도 그의 고향 잔디 위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며 의사들은 그들을 아는 자를 치료하지 못하니라."

31 Jesus said, "No prophet is welcome on his home turf; doctors don't cure those who know them."

:

[참조]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3:57

___3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높은 언덕 위에 방비된 성읍은 무너지지도 감추어지지도 않느니라."

32 Jesus said, "A city built on a high hill and fortified cannot fall, nor can it be hidden."

:

[참조]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14

___33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 귓속에 듣게 될 것을 너희 지붕에서 다른 귀들에게 선포하라. 결국 아무도 등잔을 켜서 바구니 아래 두지 않고, 감추어진 곳에 그것을 두지 않는다. 오히려 오가는 모두가 그 빛을 보도록 등대에 두느니라."

33 Jesus said, "What you will hear in your ear, in the other ear proclaim from your rooftops. After all, no one lights a lamp and puts it under a basket, nor does one put it in a hidden place. Rather, one puts it on a lampstand so that all who come and go will see its light."

: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마태복음 10:27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bowl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on its stand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15~16

확실히 도마는 기억을 더듬어서 말을 조합하고 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빛과 소금' 비유는 과연 예수의 말답게 유려하기 그지없다.

___3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34 Jesus said, "If a blind person leads a bind person, both of them will fall into a hole."

: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15:14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지칭한다. 지금으로 치면 목사들이다.

___ 3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강한 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힘으로 그 집을 취할 수 없느니라. 결박하고서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35 Jesus said, "One can't enter a strong person's house and take it by force without tying his hands. Then one can loot his house."

: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마태복음 12:29

예수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니 같은 귀신이로구나 하고 말하자, '내가 귀신보다 더 강하니까 귀신을 내쫓지 똑같은 귀신이면 어떻게 쫓아내겠느냐' 하는 뜻으로 한 말이다.

___ 3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하며 너희 식물에 대하여 염려하거나, 무엇을 입을까하며 너희 옷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길쌈도 아니 하고 실 잣지도 아니하는 백합화들보다 더욱 귀하니라. 너희에게 있어서 의복이 없을 때 너희는 무엇을 입겠느냐. 누가 너희 키를 더하겠느냐. 바로 한 분만이 너에게 의복을 주시리라."

36 Jesus said, "Do not fret, from morning to evening and from evening to morning, [about your food--what you're going to eat, or about your clothing--] what you are going to wear. [You're much better than the lilies, which neither card nor spin. As for you, when you have no garment, what will you put on? Who might add to your stature? That very one will give you your garment.]"

:

[참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27~28

___37 그의 제자들이 묻기를, "언제 당신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며 언제 우리는 당신을 뵈오리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부끄럼 없이 너희가 벗고 또 어린아이들처럼 너희의 옷가지를 벗어서 너희 발아래 두어 밟게 된즉 너희는 살아계신 분의 아들을 보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37 His disciples said, "When will you appear to us, and when will we see you?"

Jesus said, "When you strip without being ashamed, and you take your clothes and put them under your feet like little children and trample then, then [you] will see the son of the living one and you will not be afraid."

: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8:3

제자들이 물은 뜻은 '우리는 언제나 당신처럼 되겠습니까?'하는 것인데 도마의 문장 수준이 어린아이 같아서 어색하기 그지없다.

___ 3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가끔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씀들을 듣고자 원하였도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에게서도 그것들을 들을 수 없었느니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치 못할 날이 오게 되리라."

38 Jesus said, "Often you have desired to hear these sayings that I am speaking to you, and you have no one else from whom to hear them. There will be days when you will seek me and you will not find me."

:

과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미래로 훌쩍 넘어가 버린다. 도마를 생략법의 달인이라고 해야 하나, 띄엄띄엄 기억하기의 대가라고 해야 하나?

___ 3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이 지식의 열쇠들을 취하여 감추었느니라. 그들은 들어가지 못했으며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들도 들어가도록 허용치 않느니라. 너희들은 뱀들처럼 간교하고 비둘기들처럼 순전하라."

39 Jesus said, "The Pharisees and the scholars have taken the keys of knowledge and have hidden them. They have not entered nor have they allowed those who want to enter to do so. As for you, be as sly as snakes and as simple as doves."

: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13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16

앞 구절은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것이고, 뒤 구절은 제자들을 널리 보내면서 당부한 말인데 일단 도마의 손에 들어가면 무엇이든 하나가 되고, 도마가 붙이면 능치 못할 것이 없다.^^

___ 4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포도덩굴이 심겨졌으나 튼튼하지 못한 고로 뿌리째 뽑혀 말라죽으리라."

40 Jesus said, "A grapevine has been planted apart from the Father. Since it is not strong, it will be pulled up by its root and will perish."

:

[참조]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19~23

___ 41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손에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요 또 갖지 못한 자는 그 가진 적은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41 Jesus said, "Whoever has something in hand will be given more, and whoever has nothing will be deprived of even the little they have."

:

[참조]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13:11~12

___ 4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그네가 되라."

42 Jesus said, "Be passersby."

:

[참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 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누가복음 9:3

___ 43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되,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당신은 누구시나이까?"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으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도다. 오히려 너희는 유대사람과 같아졌으니 이는 그들이 나무는 사랑하되 그 열매는 미워하거나 열매는 사랑하되 나무를 미워함일러라."

43 His disciples said to him, "Who are you to say these things to us?"

"You don't understand who I am from what I say to you. Rather, you have become

like the Judeans, for they love the tree but hate its fruit, or they love the fruit but hate the tree."

: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태복음 12:33

이 말은 원래 예수의 말과 능력은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한 말인데, 아무튼 뜻이 통하긴 한다.

___ 4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에 대하여 훼방한자는 용서받고 아들에 대하여 훼방한 자도 용서받되 성령에 대해 훼방한 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리라."

44 Jesus said,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Father will be forgiven, and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son will be forgiven, but whoever blasphemes against the holy spirit will not be forgiven, either on earth or in heaven."

: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31~32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혹시 용서받을 수도 있지만,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리라는 얘기다.

___ 4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거두어지지 않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수확되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과일을 내지 않음이라. 선한 자들은 그들이 쌓은 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맺고, 악한 자는 그들 마음속에서 쌓은 악한 것으로부터 나쁜 것을 맺느니라. 이는 그 마음으로 넘쳐나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나쁜 것을 맺음이라."

45 Jesus said, "Grapes are not harvested from thorn trees, nor are figs gathered from thistles, for they yield no fruit. Good persons produce good from what they've stored up; bad persons produce evil from the wickedness they've stored up in their hearts, and say evil things. For from the overflow of the heart they produce evil."

:

[참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16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마태복음 12:34~35

___ 4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여자에게서 난 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으니 그에게서 눈길을 돌리지 말지니라.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된 누구든지 그 나라를 깨달을 것이며 요한보다 크게 될 것이라고 말했느니라."

46 Jesus said, "From Adam to John the Baptist, among those born of women, no one is so much greater than John the Baptist that his eyes should not be averted. But I have said that whoever among you becomes a child will recognize the kingdom and will become greater than John."

:

[참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11

___4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두 말을 탈 수 없고 두 활을 구부릴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그렇지 않으면 한 이를 공경하고 다른 이를 업신여기느니라. 아무도 오래된 포도주를 마시고 즉시 새 포도주를 마시기를 원치 않느니라. 새 포도주는 오래된 부대에 넣지 않으니 부대가 찢어질 수 있기 때문이요, 오래된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지 않으니 부대가 썩을 수 있음이라. 낡은 헝겊을 새 옷에 기우지 않으니 그것이 찢어지게 만들기 때문이니라."

47 Jesus said, "A person cannot mount two horses or bend two bows. And a slave cannot serve two masters, otherwise that slave will honor the one and offend the other. Nobody drinks aged wine and immediately wants to drink young wine. Young wine is not poured into old wineskins, or they might break, and aged wine is not poured into a new wineskin, or it might spoil. An old patch is not sewn onto a new garment, since it would create a tear."

: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나온다. 집 하인이 두 주인

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6:13) 그리고 포도주 부대와 옷감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는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말 뒤에 나온다. 마태복음 9장 16절에는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해어짐이 더하게 됨이요'라고 나오는데, 도마는 반대로 낡은 조각을 새 옷에 붙이지 않는다고 적어놓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대개의 경우 헌옷이 구멍이 나서 수선을 하게 되지 새 옷에 낡은 헝겊을 기우는 일은 없다. 도마가 생각 없는 기록자라는 사실이 이런 데서 드러난다.

___4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두 사람이 한 집안에서 서로 화평하게 한다면 그들이 산더러 '여기서 옮겨져라'고 할 것이요 또 산이 옮겨지리라."

48 Jesus said, "If two make peace with each other in a single house, they will say to the mountain, 'Move from here!' and it will move."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마태복음 21:21

도마는 화평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산을 들어 움직이는 것은 화평이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___ 4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혼자이며 택함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그 나라를 찾을 것이니 이는 그들이 거기로부터 와서 다시 거기로 돌아갈 것이라."

49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those who are alone and chosen, for you will find the kingdom. For you have come from it, and you will return there again."

:

영어 번역본을 보면 those who 다음에 you가 나오는데, 네 개의 영문 번역문 중에서 세 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마도 도마가 대명사로 you를 쓴 모양인데, 누가 보더라도 앞에 those가 온 이상에는 뒤에 they가 오는 게 의미상으로도 무난하다. 도마는 사소한 것까지 이상하다. (위 한글 번역본은 you를 they로 옮겨서 표현했다.)

___ 5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그들이 너희에게, '너희는 어디로부터 왔느냐'고 물으면 '우리는 빛에서 왔으며, 또 빛이 스스로 있게 되고 조성되며 형상으로 나타난 그곳에서 왔노라'고 그들에게 대답하라. 만약 그들이, '그가 너희냐'고 물으면, '우리는 그의 자녀요, 또 우리는 살아계신 아버지의 택함 받은 자라'고 대답하라. 만약 그들이, '너희 속에 너희 아버지의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것은 운행하심과 안식하심이라'고 대답하라."

50 Jesus said, "If they say to you, 'Where have you come from?' say to them, 'We have come from the light, from the place where the light came into being by itself, established [itself], and appeared in their image.' If they say to you, 'Is it you?' say, 'We are its children, and we are the chosen of the living Father.' If they ask you, 'What is the evidence of your Father in you?' say to them, 'It is motion and rest.'"

:

이 장은 요한복음의 서술과 닮았다. 마지막 구절에서 '증거'라는 말은 좀 어색하다. '움직임과 쉼(운행하심과 안식하심)'이 존재의 성질이기는 하지만 무언가의 증거가 될 성질은 아니기 때문이다.

___51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은지라. "언제 죽은 자들을 위한 휴식이 있게 될 것이며 언제 새 세상이 올 것입니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시더라. "너희가 고대하고 있는 것은 도래했으나 너희가 그것을 모르느니라."

51 His disciples said to him, "When will the rest for the dead take place, and when will the new world come?"

He said to them, "What you are looking forward to has come, but you don't know it."

:

'죽은 자들을 위한 휴식'이라는 말은 얼핏 보면 굉장히 심오한 말 같지만 도마의 상태를 감안해보면 그저 도마의 어설픈 이해일 뿐이다. 제자들이 물었다면 마땅히 "언제 새 세상이 와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겠습니까?"라고 물었을 것이다. 명석한 선생이 어려운 문제를 내면 화두가 되지만 바보가 실수한 것은 그냥 무시하면 된다.

___52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되, "스물 네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말하였고 그들 모두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였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시니라. "너희는 너희와 같이 있는 살아있는 자는 무시하면서

죽은 자에 대해 이야기하도다."

52 His disciples said to him, "Twenty-four prophets have spoken in Israel, and they all spoke of you." He said to them, "You have disregarded the living one who is in your presence, and have spoken of the dead."

:

이 절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답이 좀 이상하다. 제자들이 죽은 선지자들을 언급한 건 순전히 그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는 예수 이야기를 했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이다. 제자들이 선지자들을 언급하는 목적이 분명히 예수인 것이다. 그런데도 예수는 죽은 사람 얘기는 왜 하느냐고 타박을 한다. 자기를 칭송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꾸중을 하는 셈이다. 만약 제자들이 "모세는 천국에 갔습니까?"하고 물었다면 예수의 대답이 합당했을 것이다. 도마의 문장 이해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___53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묻더라. "할례는 유익하나이까, 그렇지 않나이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시니라. "만약 그것이 유익하다면 그들의 어미에게서부터 이미 할례 되게 그들의 아비가 만들었으리라. 오히려 영혼의 진정한 할례는 모든 점에서 유익하니라."

53 His disciples said to him, "is circumcision useful or not?"

He said to them, "If it were useful, their father would produce children already circumcised from their mother. Rather, the true circumcision in spirit has become profitable in every respect."

:

일단 문답 자체는 흠잡을 데가 없다.

___ 5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에게 속하였음이라."

54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the poor, for to you belongs Heaven's kingdom."

: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마태복음 5:3)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대목이다. 예수의 아름다운 설교를 단 한 줄로 기록한 도마에 비해 마태의 상세한 기록이 돋보인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간다. 돈이 없어도 마음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___ 5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구든지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고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않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게 합당치 않으리라."

55 Jesus said, "Whoever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cannot be my disciple, and whoever does not hate brothers and sisters, and carry the cross as I do, will not be worthy of me."

:

[참조]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태복음 10:37~38

___ 5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구든지 세상을 알게 되면 주검을 깨달은 것이요, 누구든지 주검을 깨달으면 그에게 세상은 합당치 않느니라."

56 Jesus said, "Whoever has come to know the world has discovered a carcass, and whoever has discovered a carcass, of that person the world is not worthy."

8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을 알게 된 누구든지 육체를 발견하였고 육체를 발견한 누구에게든 세상은 가치가 없느니라."

:

56절과 80절을 보면, '시체'가 '몸'으로 바뀌었을 뿐 나머지는 완전히 똑같다. 내가 도마의 기록을 공적인 기록이 아닌 '도마의 메모'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 도마가 만약 자신의 기록을 남들에게 보일 의도가 있었다면, 문장이나 배열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구석이 전혀 없다. 문장과 내용은 엉망이고, 위에서 보다시피 단어 하나만 다른 구절이 동떨어져서 배치돼 있다. 때문에 도마복음은 도마 개인이 혼자 보기 위해 만든 '메모'일 수는 있어도 누구나가 읽고 참고할 수 있는 '문서'는 될 수 없는 것이다. 56절과 80절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게 아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몸이 무엇인지를 알아도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 결국 몸이나 세상이나 다 헛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뻔한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 조잡해서 오히려 뜻을 가리고 있다.

___ 5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좋은 씨를 갖고 있는 한 사람과 같도다. 한밤에 그의 원수가 와서 좋은 씨들 사이에 가라지를 뿌렸느니라. 그 사람은 일

꾼에게 가라지를 뽑으라고 시키지 않고 그들에게 말하되, '그리 말아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함께 뽑을까 하노라'하니 이는 추수 날에 잡초는 뚜렷하게 보여 뽑혀 불에 태워짐이니라."

57 Jesus said, The Father's kingdom is like a person who has [good] seed. His enemy came during the night and sowed weeds among the good seed. The person did not let the workers pull up the weeds, but said to them, "No, otherwise you might go to pull up the weeds and pull up the wheat along with them." For on the day of the harvest the weeds will be conspicuous, and will be pulled up and burned.

:

[참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마태복음 13:24~30

___ 5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수고하여 생명을 찾은 자는 복이 있도다."

58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the person who has toiled and has found life."

:

[참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13

___ 5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계신 이를 바라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 것이요 그때 살아계신 이를 보려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59 Jesus said, “Look to the living one as long as you live, otherwise you might die and then try to see the living one, and you will be unable to see.”

:

[참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3:39

___60 그가 한 사마리아인이 양을 가지고 유대땅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더라. 그가 제자들에게 “양을 멘 저 사람을 보라.”하시니 제자들이 대답하되, “그가 양을 죽여 먹기 위함입니다.”하더라. 이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더라. “그는 양이 살아있을 동안에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요, 그가 양을 죽인 이후에만 그것이 주검이 되느니라.”

제자들이 말하되, “그렇지 아니하면 저가 할 수 없나이다.”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더라. “너희도 마찬가지니라. 피난처를 찾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주검이 되고 먹히리라.”

60 He saw a Samaritan carrying a lamb and going to Judea. He said to his disciples, “that person ... around the lamb.” They said to him, “So that he may kill it and eat it.” He said to them, “He will not eat it while it is alive, but only after he has killed it and it has become a carcass.”

They said, “Otherwise he can't do it.”

He said to them, “So also with you, seek for yourselves a place for rest, or you might become a carcass and be eaten.”

:

무난하다.

___ 61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둘이 한 침상에 기대어 자되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리라."

살로메가 묻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나의 침상에 올라오셨고 마치 큰 자로부터 온 것처럼 나의 식탁에서 잡수셨나이다."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부인 자로부터 온 자이니라. 나는 내 아버지의 것들을 모두 허락받았느니라."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런 연고로 내가 말하노니, 만약 하나가 전부이면 하나는 빛으로 가득 찰 것이나 만약 하나가 나뉘면 하나는 어둠으로 가득 찰 것이니라."

61 Jesus said, "Two will recline on a couch; one will die, one will live."

Salome said, "Who are you mister? You have climbed onto my couch and eaten from my table as if you are from someone."

Jesus said to her, "I am the one who comes from what is whole. I was granted from the things of my Father."

"I am your disciple."

"For this reason I say, if one is whole, one will be filled with light, but if one is divided, one will be filled with darkness."

: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4:40~41

말이 뚝뚝 끊어지는 것은 도마의 기록에서는 워낙 흔한 일이라서 놀랍지도 않다. 나그함마디 문서는 원본이 아닐 것으로 짐작된다. 글이 적지 아니

섞여 있는 걸로 봐서, 도마의 원본이 쪼개져서 페이지가 섞인 것 같고, 그 섞인 원본을 누군가가 하나의 문서로 다시 정서를 했는데, 그 옮겨 적는 사람이 별로 개념이 없는 자라서 글이 엉망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 61절도 '둘이 한곳에 있더라도 운명이 다를 것이다'로 시작해서 난데없이 '저는 당신의 제자입니다'가 나오더니, '하나면 빛이되 나뉘면 어둠이다'로 끝난다. 글의 맥락을 보면, 논리적인 필연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 군데서 온 글 조각들이 하나로 엮인 것 같다.

___ 6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비밀에 합당한 자에게 나의 비밀을 드러내느니라. 너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62 Jesus said, "I disclose my mysteries to those [who are worthy] of [my] mysteries.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마태복음 13:10~11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2~4

마태의 기록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의미로 연결되고 있다. 반면 도마의 기록은 앞뒤가 '비밀'이라는 점에서는 겹치지만, 앞부분은 '뜻의 비밀'이고 뒷부분은 '행위의 비밀'이라는 점에서, 도마가 기억 속에서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서 붙였음을 알 수 있다.

___63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많은 돈을 가진 부자가 있었느니라. 그가 말하되, '내가 나의 돈을 들여 씨를 뿌리고 거두어 난 것으로 나의 창고에 가득 차게 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리라.'하여 그의 심중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였으나 그날 밤 그가 죽었느니라. 여기 두 귀 있는 자들은 들음이 나으리라."

63 Jesus said, There was a rich person who had a great deal of money. He said, "I shall invest my money so that I may sow, reap, plant, and fill my storehouses with produce, that I may lack nothing." These were the things he was thinking in his heart, but that very night he died. Anyone here with two ears had better listen!

:

사소한 이야기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게 도마다. 이미 돈이 많은 놈이 굳이 씨를 뿌려 거둬서 풍족해질 생각을 했다고 할 바에야, 그냥 처음부터 풍족하게 살던 놈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 뼈 빠지게 노력하던 놈이 갑자기 죽었다고 하는 것이 이야기의 맥락에 맞다. 도마의 이야기에서 앞부분에 붙은 '돈 많은 부자'를 '어떤 사람'으로만 바꿔도 완벽한 이야기가 되는데, 굳이 돈 많은 부자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망쳐 놓고 있다. 화사첨족畫蛇添足이라는 말은 도마를 두고 하는 말이다. 참고로 누가의 기록을 보면 이렇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16~21

___ 6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손님을 초대하였느니라. 만찬이 준비되었을 때에 그가 손님을 초대하러 그의 종을 보내었느니라. 그 종이 먼저 한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내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나이다.'고 했으나 그가 말하길, '어떤 상인이 나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가 오늘밤 내게로 온다. 나는 가서 그들과 상의해야 하겠으므로 만찬 초대에 응하지 못하겠노라.'하여 이에 그 종이 다른 이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되, '내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나이다.'하나 그가 종에게 말하길, '나는 집 한 채를 샀는데 온종일 바쁘노라.'고 했느니라. 그 종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하되, '내 주인께서 당신을 초대하나이다.'하나 그가 말하길, '내 친구가 혼인하는데 내가 연회를 준비해야하니 가지 못하겠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했느니라. 이에 그 종이 다른 이에게 가서 이르되, '내 주인이 당신을 초대하나이다.'고 했으나 그가 종에게 말하되, '나는 땅을 사서 세를 놓아야 하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부디 나를 용납하라.'고 했느니라. 이에 그 종이 돌아가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당신께서 초대하신 이들이 모두 거절했나이

다.'고 하니 그 주인이 그 종에게 말하되, '거리로 가서 네가 발견한 모든 이들을 데려와 만찬을 먹게 하라.'했느니라. 매매하는 자들은 내 아버지의 처소에 들어가지 못할지니라."

64 Jesus said, A person was receiving guests. When he had prepared the dinner, he sent his slave to invite the guests. The slave went to the first and said to that one, "My master invites you." That one said, "Some merchants owe me money; they are coming to me tonight. I have to go and give them instructions. Please excuse from dinner." The slave went to another and said to that one, "My master has invited you." That one said to the slave, "I have bought a house, and I have been called away for a day. I shall have no time." The slave went to another and said to that one, "My master invites you." That one said to the slave, "My friend is to be married, and I am to arrange the banquet. I shall not be able to come. Please excuse me from dinner." The slave went to another and said to that one, "My master invites you." That one said to the slave, "I have bought an estate, and I am going to collect the rent! I shall not be able to come. Please excuse me." The slave returned and said to his master, "Those whom you invited to dinner have asked to be excused." The master said to his slave, "Go out on the streets and bring back whomever you find to have dinner. Buyers and merchants [will] not enter the places of my Father."

:

[참조]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22:1~14

___6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포도원을 소유한 한 사람이 몇몇 농부들에게 소작을 내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일하고 주인은 그들로부터 곡물을 거둘 수 있었느니라. 그가 그의 종을 보내 농부들은 그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주어야했음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를 붙들고 때려 거의 죽였느니라. 그 종이 돌아와 그의 주인에게 고한지라. 그의 주인이 말하길, '아마 그가 그들을 몰랐으리라.'하고 다른 종을 보내었으나 그 농부들이 마찬가지로 그를 때렸느니라. 그리하여 그 주인은 그의 아들을 보내며 말하되, '아마 그들이 나의 아들에게는 경의를 표하리라.'고 하니 이는 그 농부들이 그가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앎일러라. (그러나) 그들이 그를 붙들고 죽였도다. 여기 두 귀 있는 누구든 들음이 나으리라!"

65 He said, A [...] person owned a vineyard and rented it to some farmers, so they could work it and he could collect its crop from them. He sent his slave so the farmers would give him the vineyard's crop. They grabbed him, beat him, and almost killed him, and the slave returned and told his master. His master said, "Perhaps he didn't know them." He sent another slave, and the farmers beat that one as well. Then the master sent his son and said, "Perhaps they'll show my son some respect." Because the farmers knew that he was the heir to the vineyard, they grabbed him and killed him. Anyone here with two ears had better listen!

:

…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로 줄지니이다 … 마태복음 21:33~44

이 포도원 소작인 비유의 목적은, 소작인이 소작인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소작을 빼기듯이, 천국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다시피 도마복음에서는 상속자를 죽였다는 이야기로 끝나 버린다. 도마의 기록은 단순히 도마의 기억에 의지할 뿐, 이야기의 목적이나 이야기의 완결성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런 것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던 탓이다.

___ 6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건축자의 버린 돌을 내게 보이라. 그것이 머릿돌이니라."

66 Jesus said, "Show me the stone that the builders rejected: that is the keystone."

: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마태복음 21:42

'건축자의 버린 돌을 내게 보이라. 그것이 머릿돌이니라.'하는 말은 예수가 한 말이 아니라 구약에 이미 있는 말이다. 예수는 구약을 인용해서 말한 것인데, 도마는 예수가 말했다고 적고 있다. 도마의 글이 짧은 것은 순전히 도마의 기억과 지능이 짧은 탓이다.

___ 6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모든 것을 알되 그 자신을 모르는 자들은 아주 모르는 자이니라."

67 Jesus said, "Those who know all, but are lacking in themselves, are utterly lacking."

:

세상에 대해 아는 것은 지식이다. 그런데 그대의 진짜 문제는 그대의 눈이 왜곡돼 있다는 것이다. 왜곡된 눈으로 본 지식이 아무리 많은들 뭘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집에 불이 났는데, 바다에서 물놀이 하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 바다가 아니라 내 집에 물이 많아야 내 집이 성할 것 아닌가? 내 집에 물이 있어야 내 집에 난 불을 끌 수 있고, '나'를 알아야 내가 평안하다.

___ 6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미움 받고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서 박해받든지 아무 곳도 발견되지 않음이라."

68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you when you are hated and persecuted; and no place will be found, wherever you have been persecuted."

: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마태복음 10:23

바보의 기록도 2천년이라는 세월의 힘이 더해지면 '고문서'가 된다. 도마의 멍청하고 형편없는 문장력이 학자들의 골을 싸매게 했으니 그 죄가 크다.

___6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마음 가운데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진실로 아버지를 알게 된 자임이라. 배고픈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의 굶주린 배는 채워질 것임이라."

69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those who have been persecuted in their hearts: they are the ones who have truly come to know the Father. Congratulations to those who go hungry, so the stomach of the one in want may be filled."

: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마태복음 5:10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마태복음 5:6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은 한없이 매끄럽다. 당시에 마태가 현장에서 녹음을 하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평소에 메모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마복음에 보이는 기록은 도마가 기억에 의존해서 어렵사리 적었다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반면, 마태의 기록은 그 말을 하는 예수의 모습이 너무도 자연스럽고 완벽하기 때문이다.

___7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안에 있는 것을 열매 맺으면 네게 있는 것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만약 네 안에 있는 것을 갖지 못하면 네 안에 갖지 못한 것이 너를 사망케 하리라."

70 Jesus said, "If you bring forth what is within you, what you have will save you. If you do not have that within you, what you do not have within you [will] kill you."

:

그대는 빛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빛을 드러내지 못하면 그대는 영원히 어둠으로 남는다. 그대 안에 있는 것은, 그대가 태초부터 영원까지 갖는 '그대의 빛'이다. 하지만 가려진 빛은, 그대를 죽이는 어둠이다.

___ 71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집을 헐겠으니 아무도 이것을 짓지 못하리라."

71 Jesus said, "I will destroy [this] house, and no one will be able to build it [...]."

:

[참조]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마태복음 24:2

___ 72 한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나의 형제들에게 말씀하사 내 아버지의 재산을 나와 나누도록 해주소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남자여, 누가 나를 나누는 자로 만들었는가?"

그가 그의 제자들에게 몸을 돌이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나는 나누는 자가 아니도다. 그러한가?"

72 A [person said] to him, "Tell my brothers to divide my father's possessions with me."

He said to the person, "Mister, who made me a divider?"

He turned to his disciples and said to them, "I'm not a divider, am I?"

:

[참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누가복음 12:13~14

___ 73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인에게 청해 들로 일꾼들을 보내 달라 하라."

73 Jesus said, "The crop is huge but the workers are few, so beg the harvest boss to dispatch workers to the fields."

:

[참조]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9:35~38

___ 7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주여, 우물가에 많은 이들이 둘러 있으나 샘 안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74 He said, "Lord, there are many around the drinking trough, but there is nothing in the well."

:

무난하다.

___ 7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문에 많은 이들이 서있으나 홀로된 자가 신부의 방에 들어가리라."

75 Jesus said, "There are many standing at the door, but those who are alone will enter the bridal suite."

: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마태복음 25:10

재미삼아 이런 상상도 해보았다. 도마가 제자들 사이에서 왕따였고 때문에 다른 제자들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의 말을 기록하는데 있어서도 다른 기록자들과는 반대되는 쪽으로 기록하려고 작정을 했었다면? 이런 가정 하에서 그 근거를 찾아보면 이렇다.

1. '새 포도주와 새 부대' 비유에서 다른 기록자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한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도마는 '묵은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으면 부대가 썩는다'고 덧붙이고 있다.

2. 다른 기록자들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예수가 물었을 때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다고 적고 있는데, 유독 도마는 자신이 칭찬을 받았다고 적고 있다.

3. 위에서 보다시피 마태복음에는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고 나

오는데, 도마는 총각들이 신부의 방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4. 복음서에서 도마가 의심쟁이로 묘사되고 있다.

신랑의 방이든 신부의 방이든 의미는 별 차이가 없지만, 당시 상황을 미루어본다면 역시 예수는 '신랑'으로 비유되는 게 무난할 것 같다.

___ 7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마치 많은 물건을 갖고 있되 진주 하나를 발견한 장사꾼과 같도다. 그 장사꾼은 현명한지라. 그는 물건을 팔아 자신을 위해 단 한 개의 진주를 샀느니라. 너희도 그리하라. 좀도 먹지 않고 벌레도 해치 않으며 끊임없이 영존하는 그의 보물을 찾으라."

76 Jesus said, "The Father's kingdom is like a merchant who had a supply of merchandise and found a peal. That merchant was prudent; he sold the merchandise and bought the single pearl for himself. So also with you, seek his treasure that is unfailing, that is enduring, where no moth comes to eat and no worm destroys."

: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5~46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12:33

무조건 복음서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에서 문맥이 완전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서의 기록이 원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___ 7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는 모든 것들 위의 빛이요 나는 전부이니라. 나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고 나에게 모든 것이 이르느니라. 나무토막을 쪼개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느니라. 돌을 들어보라. 그곳에서 너희가 나를 발견하리라."

77 Jesus said, "I am the light that is over all things. I am all: from me all came forth, and to me all attained. Split a piece of wood; I am there. Lift up the stone, and you will find me there."

:

도마복음의 글들을 복음서의 글들과 대조해보면, 도마복음에는 마태, 누가, 요한의 기록들이 골고루 섞여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77절은 요한복음의 기록과 겹치는 글들 중의 하나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1:9~10

___ 7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왜 너희가 광야에 나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왔느냐, 너희의 다스리는 자와 권력자처럼 부드러운 옷 입는 자를 보러 왔느냐? 그들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으나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78 Jesus said, "Why have you come out to the countryside? To see a reed shaken

by the wind? And to see a person dressed in soft clothes, [like your] rulers and your powerful ones? They are dressed in soft clothes, and they cannot understand truth."

: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마태복음 11:7~9

마지막에 예수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요한이나 예수를 비유한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가 스스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다른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갈대를 가리킨 것이라고 봐야한다.

___ 79 무리 중에 한 여자가 그에게 말하되, "당신을 배었던 태와 당신을 먹였던 젖이 복되도다."

그가 대답하시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를 진정으로 지키는 자가 복되도다. (오히려) 너희가 아이를 갖지 않던 태와 모유를 내지 않던 젖이 복 되도다 할 날들이 있게 되리라."

79 A woman in the crowd said to him, "Lucky are the womb that bore you and the breasts that fed you."

He said to [her], "Lucky are those who have heard the word of the Father and

have truly kept it. For there will be days when you will say, 'Lucky are the womb that has not conceived and the breasts that have not given milk.'"

:

[참조]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밴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27~28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누가복음 23:29

___ 8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을 알게 된 누구든지 육체를 발견하였고 육체를 발견한 누구에게든 세상은 가치가 없느니라."

80 Jesus said, "Whoever has come to know the world has discovered the body, and whoever has discovered the body, of that one the world is not worthy."

:

56절 해설 참조.

___ 81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부유케 된 자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고 권세 있는 자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라."

81 Jesus said, "Let one who has become wealthy reign, and let one who has power renounce ."

:

부유케 된 자는 하나님을 알고 마음이 부유케 된 자이고, 권세 있는 자는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를 뜻한다.

___8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 가까이 있는 누구든지 불에 가까이 있는 것이요, 나에게 떨어져 있는 누구든지 그 나라와 떨어져 있느니라."

82 Jesus said, "Whoever is near me is near the fire, and whoever is far from me is far from the kingdom."

:

평범하다.

___83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형상들은 사람에게 보이나 그들 안에 있는 빛은 아버지의 빛의 형상 안에 감추어져있느니라. 그는 밝혀질 것이나 그의 형상은 그의 빛에 의해 감추어져있느니라."

83 Jesus said, "Images are visible to people, but the light within them is hidden in the image of the Father's light. He will be disclosed, but his image is hidden by his light."

:

형상이 어쩌고 빛이 어쩌고 아버지의 빛이 어쩌고, 감춰진다느니 밝혀진다느니 하면서 중언부언 마구 갖다 붙이고 있다. 진리는 도마의 머릿속처럼 흐릿하고 복잡하지 않다. 진리는 간단명료하고 선명하다.

___8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자기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하나, 너희에 앞서 먼저 생겨나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너희 형상을 볼 때엔 너희가 얼마나 감당하리요."

84 Jesus said, "When you see your likeness, you are happy. But when you see your images that came into being before you and that neither die nor become visible, how much you will have to bear!"

:

도마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야 뻔한 것이지만 그 내용을 표현하는 문장이 엉망이다.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neither die nor become visible 형상은 어떤 형상을 말하는 것인가? 이 부분은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실체'로 수정해야 한다. 그런데 '죽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이라는 수식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건 마치 '사과는 맛있고도 큰 것이다'라고 쓰는 것과 같다. '사과는 맛도 있고 영양도 많다'라고 하면 적절한 문장이 되지만, 뜬금없이 '사과는 맛있고도 큰 것이다'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틀린 문장이 된다. 그저 도마가 무식했던 탓이다.

___8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담이 큰 권세와 큰 부유함에서 왔으나 너희만큼 가치 있지 않도다. 만약 그가 가치 있었더라면 죽음을 맛보지 않았으리라."

85 Jesus said, "Adam came from great power and great wealth, but he was not worthy of you. For had he been worthy, [he would] not [have tasted] death."

: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17

106절을 같이 보자.

10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아담의 자녀가 되리라. 또 너희가 산더러 여기서 옮겨질지어다 할 때 그것이 옮겨지리라."

보다시피 85절에서는 아담이 '별것 아닌 사람'으로 묘사된 반면, 106절에서는 '근원의 상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말하자면, 아담에 대한 평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가 한 말의 맥락을 보건대, 예수는 이런 착각을 할 사람이 아니다. 결국 도마가 총명하지 못했다는 뜻이 된다.

___ 8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여우도 제 굴이 있고 새들도 제 둥지가 있으나 사람은 누워 쉴 곳이 없도다."

86 Jesus said, "[Foxes have] their dens and birds have their nests, but human beings have no place to lay down and rest."

: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마태복음 8:19~20

예수가 자신을 인자(人子,Son of Man: 사람의 아들)라고 칭하는 것은 자신이 '사람의 몸으로 온 신'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신이 신으로 머물러 있거나, 신의 몸으로 세상에 와서는 사람과 완전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는 신으로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몸소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와

서 이 세상과의 완전한 관계를 성립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나의 실체는 분명히 신이지만 지금은 분명히 그대들과 똑같은 사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고 일컬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영어 번역에 나오는 human beings는 번역자의 오역이다.

___ 8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한 육체에 의지하는 육체는 얼마나 가련한가, 또 이 둘에 의지하는 영혼은 얼마나 가련한가."

87 Jesus said, "How miserable is the body that depends on a body, and how miserable is the soul that depends on these two."

내친김에 112절도 살펴보자.

11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망할진저, 영혼에 의지하는 육체여. 망할진저, 육체를 의지하는 영혼이여."

:

보다시피 '의지하는'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육체(87절의 body)'를 넣었다가 '영혼'을 넣었다가 '육체(112절의 flesh)'를 넣었다가 하면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기록 분석은 기록이 정확하다는 전제 위에 성립한다. 그런데 도마의 기록은 마치 초등학생이 쓴 논설처럼 위태롭다. 자칫하면 바보를 현자로 신봉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얘기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멍청함은 멍청함일 뿐이다.

___ 8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자들과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속한 것을 주리라. 그 다음에는 너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주며 스스로 묻되, '언제 그들이 와서 그들에게 속한 것을 취할꼬?'하리라."

88 Jesus said, "The messengers and the prophets will come to you and give you what belongs to you. You, in turn, give them what you have, and say to yourselves, 'When will they come and take what belongs to them?'"

:

이 구절의 뜻은, 선지자들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나 구원될꼬?'하고 생각한다는 얘기다. 뭐 늘 그렇듯 문장이 참 조잡하다.

___ 8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왜 잔의 바깥을 닦느냐? 안을 만든 이가 바깥도 만든 이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89 Jesus said, "Why do you wash the outside of the cup? Don't you understand that the one who made the inside is also the one who made the outside?"

:

[참조]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마태복음 23:2

___ 9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나에게 오라. 이는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나의 다스림은 온화함이라.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안식을 얻게 되리라."

90 Jesus said, "Come to me, for my yoke is comfortable and my lordship is gentle,

and you will find rest for yourselves."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___91 그들이 그에게 청하되, "당신을 믿도록 당신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하늘과 땅의 형세는 분별하였으나 너희 면전 계신 이를 알지 못하였고 또 지금 시기를 분별하는 법을 모르도다."

91 They said to him, "Tell us who you are so that we may believe in you."

He said to them, "You examine the face of heaven and earth, but you have not come to know the one who is in your presence, and you do not know how to examine the present moment."

:

[참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1~3

__ 9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구하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라. 이전에는 너희가 나에게 묻는 것들에 대해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니라. 지금은 그것들을 말해 주려하나 너희가 찾지 않도다."

92 Jesus said, "Seek and you will find. In the past, however, I did not tell you the things about which you asked me then. Now I am willing to tell them, but you are not seeking them."

:

[참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7~11

__ 93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말지니, 이는 개가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지기 때문임이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말지니 그렇지 않으면 돼지가 그것을 (거름더미에 던지기 때문임이라.)"

93 "Don't give what is holy to dogs, for they might throw them upon the manure pile. Don't throw pearls [to] pigs, or they might ... it [...]."

:

[참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6

___94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구하는 자는 찾을 것이니 이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임이라."

94 Jesus [said], "One who seeks will find, and for [one who knocks] it will be opened."

:

[참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마태복음 7:8

___9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만약 너희가 돈이 있을지라도 이자를 쳐서 빌려주지 말라. 오히려 다시 못 받을 자에게 (거저) 주어라."

95 [Jesus said], "If you have money, don't lend it at interest. Rather, give [it] to someone from whom you won't get it back."

10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갖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한 사람과 같도다. 그가 죽으매 그의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으나 역시 아들도 이에 대해 모른지라. 그가 그 밭을 인계하여 그것을 팔았느니라. 그 밭을 산 자는 쟁기질하러가서 그 보물을 발견하여 원하는 누구에게든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느니라."

:

보다시피 95절에서는 이자는커녕 거저 주라고 말한 사람이, 109절에서는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줘서 엄청 짭짤했다는 말을 하고 있다. 보통사람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예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렇게나 오락가락했을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마태복음 13:44) 보다시피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이자에 관한 언급이 없다. 이자라는 개념은 도마의 머릿속에만 있었던 것이다.

___9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마치 이 여자와 같도다. 그 여자가 적은 누룩을 취하여 반죽에 넣어 커다란 빵 덩어리로 만들었느니라. 여기 두 귀 있는 자들은 들음이 나으리라!"

96 Jesus [said], The Father's kingdom is like [a] woman. She took a little leaven, [hid] it in dough, and made it into large loaves of bread. Anyone here with two ears had better listen!

:

[참조]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3:33

___9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는 음식이 가득한 항아리를 옮기는 한 여자

와 같도다. 그 여자가 먼 길을 걷는 동안 항아리 손잡이가 부러져 음식이 여자 등 뒤에서 길로 쏟아졌으매 그 여자는 모른지라. 그 여자가 집에 당도하여 그 항아리를 내려놓고서야 그것이 비어있음을 알게 된지라."

97 Jesus said, The [Father's] kingdom is like a woman who was carrying a [jar] full of meal. While she was walking along [a] distant road, the handle of the jar broke and the meal spilled behind her [along] the road. She didn't know it; she hadn't noticed a problem. When she reached her house, she put the jar down and discovered that it was empty.

:

항아리에 음식을 담아서 길을 갔으면 아마도 머리에 이고 갔을 텐데, 손잡이가 부러진다고 해서 음식이 흐를 리도 없거니와 그 흐르는 것을 모를 리가 있는가? 위의 이야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손잡이가 부러질 것이 아니라, 여자가 모르는 구멍이 항아리에 나 있어야 한다. 바보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앞뒤 안 맞는 글을 쓸 수 있단 말인가?

___ 9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버지의 나라는 권력자를 죽이려하는 한 사람과 같도다. 집에 있을 동안에는 그가 칼을 뽑아 벽을 찔러 어떻게 그 손이 쓰이는지 알아내었는지라. 그리하여 그가 그 권력자를 죽였느니라."

98 Jesus said, The Father's kingdom is like a person who wanted to kill someone powerful. While still at home he drew his sword and thrust it into the wall to find out whether his hand would go in. Then he killed the powerful one.

:

이 이야기의 원본은 35절의 내용이다.

3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강한 자의 손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 힘으로 그 집을 취할 수 없느니라. 결박하고서야 그의 집을 강탈할 수 있느니라."

98절은 도마가 35절의 내용을 회상하는 과정에서 창작해낸 것이다. 그래서 이야기가 도마답게 무식하다.

___ 99 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형제들과 어머니께서 바깥에 계시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시다. "여기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는 이들이 나의 형제요 나의 어머니라. 그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니라."

99 The disciples said to him, "Your brothers and your mother are standing outside."

He said to them, "Those here who do what my Father wants are my brothers and my mother. They are the ones who will enter my Father's kingdom."

:

[참조]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2:46~50

___ 100 그들이 예수께 금화 한 닢을 보여주며 그에게 묻되, "로마 황제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세금을 요구하나이다."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황제에게 속한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께 바치며 나의 것은 내게 주라."

100 They showed Jesus a gold coin and said to him, "The Roman emperor's people demand taxes from us."

He said to them, "Give the emperor what belongs to the emperor, give God what belongs to God, and give me what is mine."

: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태복음 22:17~21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 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아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24~27

보다시피 마태복음에는 두 개의 이야기가 따로 실려 있는데, 도마는 두 이야기를 하나로 섞어 놓았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뜻하는 것인데 거기에 '예수의 것'을 덧붙인 것도 도마의 몰이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든 예수를 향한 마음이든, '황제의 것'에 대한 대응물로 하나만 있으면 이야기가 완결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록자 도마는 구제불능이다.

___ 101 "나처럼 아비와 어미를 미워하지 않는 자들은 나의 제자가 될 수 없고 나처럼 아비와 어미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진정한 어머니가 내게 생명을 주셨음이라."

101 "Whoever does not hate [father] and mother as I do cannot be my [disciple], and whoever does [not] love [father and] mother as I do cannot be my [disciple]. For my mother [...], but my true [mother] gave me life."

:

[참조]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마태복음 23:9

___ 10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화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들은 소 여물통에서 잠자는 개와 같으니 개가 (여물을) 먹지 않고 소도 먹지 못하게 함이라."

102 Jesus said, "Damn the Pharisees! They are like a dog sleeping in the cattle manger: the dog neither eats nor [lets] the cattle eat."

:

[참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13

___ 103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반역자들이 어디를 공격할지 아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가서 제국의 자력을 모아 반역자들이 오기 전에 방비할 수 있느니라."

103 Jesus said, "Congratulations to those who know where the rebels are going to attack. [They] can get going, collect their imperial resources, and be prepared before the rebels arrive."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마태복음 24:42~43

마태복음은 '때(시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 도마는 '장소'를 얘기하고 있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깨어있음이고, 깨어있음은 곧 항상 깨어있음을 뜻한다. 그런데 도마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공격과 방어만 이해했기 때문에 적당히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예수의 뜻을 절반만 이해하는 것은 도마의 장기 중의 장기다.

___ 104 그들이 예수께 말하길, "오셔서, 우리 오늘 기도와 금식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는가, 혹은 어찌 내가 타락했다는 것

인가? 차라리 신랑이 신부방을 떠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104 They said to Jesus, "Come, let us pray today, and let us fast."

Jesus said, "What sin have I committed, or how have I been undone? Rather, when the groom leaves the bridal suite, then let people fast and pray."

:

[참조]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14~15

___ 105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아비와 그 어미를 아는 자는 창녀의 자식이라 불리게 되리라."

105 Jesus said, "Whoever knows the father and the mother will be called the child of a whore."

:

전후 상황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의도가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인지 명확하지 않다. 전후 상황 설명이 없다는 것이 도마복음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약점이다. 가뜩이나 개념 없는 기록자의 글이 상황 설명마저 없으니 더더욱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어느 쪽에서 욕을 먹느냐에 따라서 '안다 know'의 목적어가 달라진다. 만약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게 된다면 위에서 부모는 '하나님'을 뜻하고,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면 위의 부모는 '세상의 부모'가 된다.

___ 106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너희는 아담의 자녀가 되리라. 또 너희가 산더러 여기서 옮겨질지어다 할 때 그것이 옮겨지리라."

106 Jesus said, "When you make the two into one, you will become children of Adam, and when you say, 'Mountain, move from here!' it will move."

:

85절 설명한 부분을 참조.

___ 107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는 백 마리의 양을 지닌 한 목자와 같도다. 백 마리 가운데 가장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으매 목자가 아흔 아홉 마리를 남겨두고 찾을 때까지 잃은 한 마리를 찾았느니라. 그가 힘써 찾은 후에 그 양에게 말하길, '나는 아흔 아홉 마리보다 너를 더욱 사랑하노라'한지라."

107 Jesus said, The kingdom is like a shepherd who had a hundred sheep. One of them, the largest, went astray. He left the ninety- nine and looked for the one until he found it. After he had toiled, he said to the sheep, 'I love you more than the ninety- nine.'

: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마태복음 18:12~13

보통 사람이 도마의 흉내를 내려한다면 아마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마의 철저함은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이

다. 위의 이야기에서 그냥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가장 작은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장 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야기의 의도가 완전히 무너진다. 그런데 도마는 정확하게 그 실패로 가는 단 하나의 길을 찾아내서 선택하고 만다.

99마리의 양들을 버려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찾아나서는 이유는,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양이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보 도마는 그런 뜻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한다. 그래서 가장 큰 한 마리를 주인이 찾아 나섰다고 적고 있다. 그렇다면 가장 작은 한 마리가 사라졌으면 찾아 나서지 않았을 것인가?

예수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했다. 예수는 '가장 큰 한 마리'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한 마리'를 찾으러 온 것이다. 이럴진대 어찌 도마의 기록을 복음이라 이름 할 수 있겠는가?

___ 108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누구든지 내 입으로부터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되리니 나는 그가 되겠고 감추어진 것들이 그에게 나타나리라."

108 Jesus said, "Whoever drinks from my mouth will become like me; I myself shall become that person, and the hidden things will be revealed to him."

:

예수도 처음부터 '나'를 알았던 건 아니다. 예수도 고뇌 끝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의 말을 듣고 그대도 예수처럼 '나'를 알기 위해 고뇌(수행)하면, 그대도 예수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대가 누구인

지,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 예수가 되라! 그것이 예수의 단 하나의 소원이었다.

___ 109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물을 갖고 있으나 이를 모르는 한 사람과 같도다. 그가 죽으매 그의 아들에게 그것을 물려주었으나 역시 아들도 이에 대해 모른지라. 그가 그 밭을 인계하여 그것을 팔았느니라. 그 밭을 산 자는 쟁기질하러가서 그 보물을 발견하여 원하는 누구에게든 이자를 쳐서 돈을 빌려주기 시작하였느니라."

109 Jesus said, "The (Father's) kingdom is like a person who had a treasure hidden in his field but did not know it. And [when] he died he left it to his [son]. The son [did] not know about it either. He took over the field and sold it. The buyer went plowing, [discovered] the treasure, and began to lend money at interest to whomever he wished."

:

밭을 사는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천국을 얻는다는 것인데, 도마의 기록에서는 보다시피 밭을 샀는데 그 밭에서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고 돼 있다. 도마의 이해 부족이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다.

___ 110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세상을 발견하고 부유케 된 자로 하여금 세상을 단념케 하라."

110 Jesus said, "Let one who has found the world, and has become wealthy, renounce the world."

___ 111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늘들과 땅이 네 면전에서 말려 올라가겠으며 누구든 산 자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으리라."

"자신을 발견한 자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느니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111 Jesus said, "The heavens and the earth will roll up in your presence, and whoever is living from the living one will not see death."

Does not Jesus say, "Those who have found themselves, of them the world is not worthy?"

:

110절과 111절은 같은 뜻이다.

___ 112 예수께서 말씀하시니라. "망할진저, 영혼에 의지하는 육체여. 망할진저, 육체를 의지하는 영혼이여."

112 Jesus said, "Damn the flesh that depends on the soul. Damn the soul that depends on the flesh."

:

87절 설명 참조.

___ 113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물어 가로되, "언제 그 나라가 오겠나이까?"

"그 나라는 지켜봄으로써 오지 않으리라. 이는 '보라, 여기 있다' 또는 '보라, 저기 있다'하지 않으리니 차라리 아버지의 나라는 이 땅위에 펼쳐지되 사람들이 이를 보지 않느니라."

113 His disciples said to him, "When will the kingdom come?"

"It will not come by watching for it. It will not be said, 'Look, here!' or 'Look, there!' Rather, the Father's kingdom is spread out upon the earth, and people don't see it."

:

[참조]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태복음 24:23~27

___ 114 (이 구절은 나중에 원본에 첨가된 것임)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되, "마리아로 우리를 떠나게 하라. 이는 여자들이 생명을 받기에 합당치 않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그 여자를 남자로 만들도록 인도하겠노라. 그리하여 그 여자가 너희 남자들을 닮은 살아 있는 영이 될 것이니, 이는 자신을 남자로 만드는 모든 여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임이라."

(Saying added to the original collection at a later date:)

114 Simon Peter said to them, "Make Mary leave us, for females don't deserve life." Jesus said,

"Look, I will guide her to make her male, so that she too may become a living spirit resembling you males. For every female who makes herself male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

나중에 첨가된 글이라는 설명이 있기도 하거니와, 예수가 여자를 남자로 만들어서 다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 삶도 없고 죽음도 없는 판에 남자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도마복음의 검토를 마치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탁월한 기록이 없었다면, 도마복음에서라도 예수의 뜻을 뽑아내야겠지만, 예수의 육성과 뜻은 이미 신약성경에 충분히 드러나 있다. 그래서 '도마복음'이라는 멍청한 기록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옛사람도 지금 사람들처럼 멍청이였고, 사기꾼이었고, 게으름뱅이였다. 그러니 오래된 문서라고 해서 뭔가 깊은 뜻을 담고 있겠거니 하는 착각은 버려라. 예수의 뜻은 명확하고, 도마는 명백히 바보다.